정책연구

2024-19

지역학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사업 발전방안 연구

A Study on Development Measures for Humanistic and Spiritual Culture Projects in Collaboration with Regional Studies

이상열·이경진·김세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정책연구 2024-19

지역학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사업 발전방안 연구

A Study on Development Measures for Humanistic and Spiritual Culture Projects in Collaboration with Regional Studies

이상열·이경진·김세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연구 책임

이상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공동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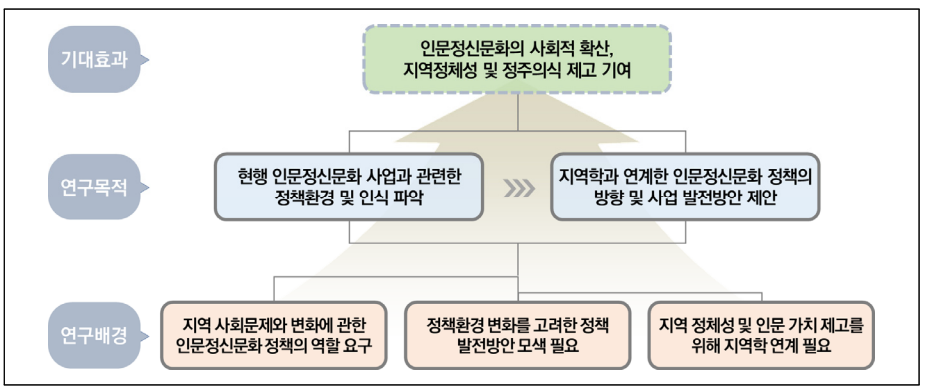
이경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세훈 용인대학교 평가성과분석센터 전임연구원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지역의 위기에서 인문정신문화 정책의 역할 재검토가 요구되고, 정책적 환경 및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현행 정책사업 점검 및 발전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인문 가치의 지역 확산을 위한 인문정신문화 정책의 실효성 있는 접근을 위해서 지역학에 주목하고, 두 분야 상호 관련성 하에서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인문정신문화 사업을 둘러싼 정책환경과 인식을 파악하고, 지역학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사업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음.

[그림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본 연구에서는 인문정신문화 정책이 대두된 2013년부터 현재까지를 주요 시간적 범위로 하여 국내의 지역학 및 인문정신문화 정책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음.
- 내용적 범위로는 '지역학의 특성 및 관련 동향',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지역학 연계 현황', '인문정신문화 사업 및 지역학에 관한 인식과 수요 분석', '지역학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사업 발전방안 제안'을 설정하였음.
- 이와 같은 연구를 위해서 문헌연구 및 기초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언론보도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빅데이터 분석, 인문정신문화 사업 만족도조사 원시데이

터(Raw data) 분석, 이해관계자 심층인터뷰를 통해서 지역학과 인문정신문화 정책에 대한 인식과 수요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인문학법')을 분석하여 인문정신문화 사업을 '토대 구축', '사회적 확산·활용', '네트워크 구축' 성격으로 범주화하여 분석

[그림 2]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범주

법적 근거	사업 범주		
	토대 구축	사회적 확산·활용	네트워크 구축
인문학법 제9조제3항 및 관련 조항	•전문인력 양성 •유형·무형의 자산 발굴 및 연구·보존 •연구 다양화·심층화·융복합 •제도적 기반 마련(지자체)	•인문교육 다양화·심층화 및 다른 학문과의 융복합 •연구 결과의 사회적 확산 •향유 활동 지원 및 향유 환경 조성 •인문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지원·관리	•국내외 교류협력 •협력체계 구축·운영

■ 또한 시사점을 종합 분석하여 일차 도출한 7개 방향과 12개 방안에 대해 이해관계자·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적절성을 평가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학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사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과 방안을 최종 제안하였음.

3. 지역학 및 인문정신문화 정책 동향 분석

■ 본 연구에서는 지역학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사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하여 우선, 두 분야의 동향을 분석하였음.

■ 지역을 대상으로 학제적이고 실천지향적인 연구를 지향하는 지역학 분야에서는 지방자치제 실시 후, 지역 정체성 정립 등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함께 관련 연구나 정책사업 등이 증가해 왔으며, 최근에는 지방문화원의 지역학 거점화 추진, 지역대학의 지역학 강좌나 학과 개설 등으로 관련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음.

■ 박근혜정부 시기 국정과제로 추진하기 시작한 인문정신문화 정책은 인문학법 제정으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최근에는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응한 정책사업을 강

화하고 있으나, 그간 지역학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나 연계는 미흡하였음.

- 지역학과 인문정신문화 정책 동향의 시사점을 정책사업 범주별로 보면, 다음 '〈표 1〉 지역학과 인문정신문화 정책의 동향 및 시사점 분석'과 같음.

- 사업 범주별로는 네트워크 구축이 두 분야 연계에서 취약한 지점으로 나타났는데, 인문자산의 수집·보존·활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나 관계 기관·단체별 특성을 고려한 협력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1〉 지역학과 인문정신문화 정책의 동향 및 시사점 분석

구분	시사점
토대 구축	•지역 정체성 확립과 주민 자긍심 제고를 위한 정책 관심 필요 -마을학 등에 대한 논의로 확장 •인문자산 수집·보존, DB 구축과 아카이빙을 지역학 연계의 주요 접점으로서 인식 필요 -인문 관련 지역연구와 연계, 제도 정비 고려 •지역학-인문정신문화 연계형 인력 양성 및 기존 인력의 전문성 제고 추진 필요 -문화활동가, 지역 양성 인력 등 대상의 교육 운영
사회적 확산 · 활용	•지역학 연계를 통해서 지역문제 대응의 질 제고 및 지역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 필요 -단순 대중강좌 지양, 지역사회 문제와 관련한 인문 활동 활성화 추진 -생활인구, 관계인구 대상의 정책 필요 -지역 매력 제고를 위한 인문브랜드, 인문콘텐츠, 인문프로그램 등 개발 모색 •기존 개별 사업들의 지역 연계성 강화 및 지역 이해 제고에 기여 필요 -문화여가활동, 지역의 다양한 공간과 결합
네트워크 구축	•인문자산 수집·보존·활용 협력체계 구축 필요 •지역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계 기관·단체별 특성을 고려한 협력 추진 -국학진흥기관과의 연계 강화

4. 인문정신문화 사업에 관한 인식 및 의견 분석

- 지역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언론보도, SNS 빅데이터 및 인문프로그램 만족도조사 결과를 활용한 일반 국민 인식과 수요 분석의 시사점과 이해관계자 심층인터뷰에 의한 두 분야 관계자의 정책 인식과 의견 수렴 결과 분석을 통해 도출한 시사점은 유사하게 나타났음.

- 인문정신문화 사업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인식 및 의견 분석에서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 '〈표 2〉 인문정신문화 사업에 관한 인식 및 의견 분석 종합'과 같음.
  - 토대 구축에서는 지역 정체성·자긍심 제고, 지역학 진흥, 지역 인문자산 관련

선순환 전략, 관련 인력 확보와 인력의 정책·지역 이해도 제고 필요성 등 도출

- 사회적 확산·활용에서는 지역의 다양한 장소 활용, 생활인구의 지역 이해와 정주의식 제고 필요성 및 관련 인문프로그램 필요성 등 도출
- 네트워크 구축에서는 중앙-지역 간, 지역 내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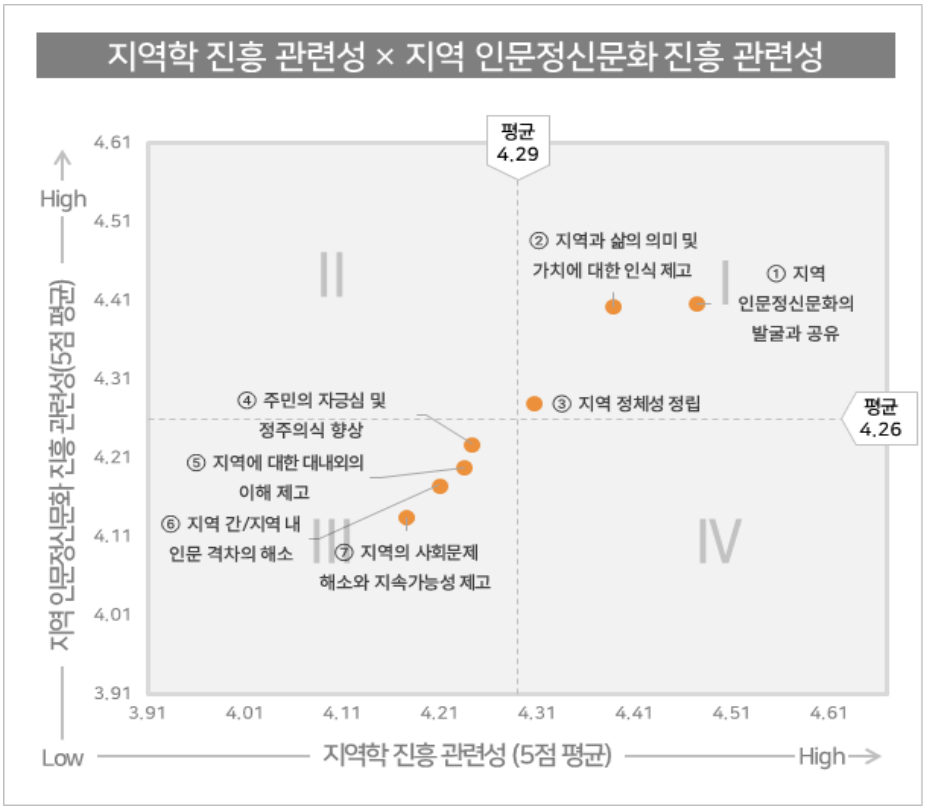
〈표 2〉 인문정신문화 사업에 관한 인식 및 의견 분석 종합

구분	시사점
토대 구축	•지역의 정체성 및 주민의 자긍심 제고를 중요하게 고려 •인문정신문화 사업과 실질적 협력을 위해 지역학 진흥 필요 •지역 인문자산의 수집부터 디지털화 및 활용까지 선순환적 전략 필요 •인력 확보 및 인력의 인문정신문화 정책 및 지역 이해도 제고
사회적 확산 · 활용	•문화여가활동과 지역 장소를 활용한 인문프로그램 강화 및 대상층 확대 -마을과 공공장소를 인문캠퍼스로 인식하고 활용 •지역학을 매개로 지역교육과 인문프로그램 연계 강화 •인문프로그램의 질 제고 및 주민 관심사와 지역 특성 반영 •지역의 문제에 대응을 위한 주민의 주체적 인문 활동 활성화 •지역 이해 제고를 위한 인문브랜드, 인문콘텐츠 개발 및 타 분야 연계 활용 •생활인구 대상의 지역 이해 및 정주의식 제고 모색
네트워크 구축	•중앙-지역, 지역 내 기관·단체 등의 협력체계 구축

5. 발전방안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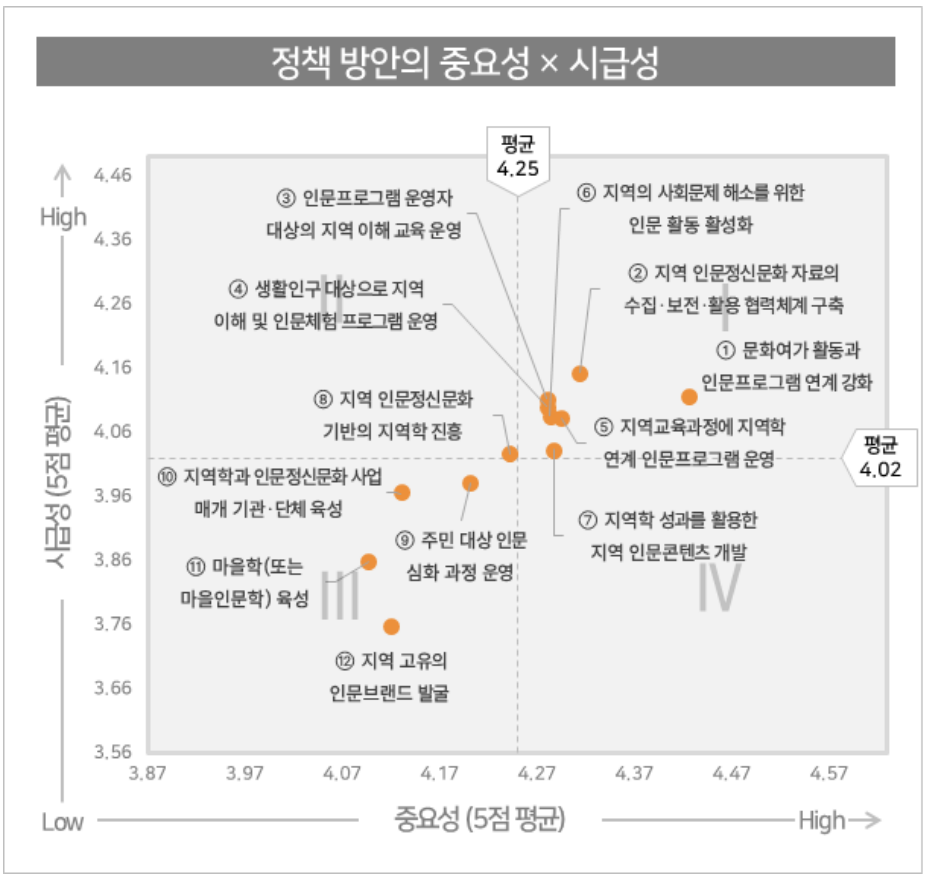
- 본 연구에서는 시사점 분석을 통해서 일차로 도출한 7가지 정책방향과 12가지 정책방안의 적절성을 검토하고자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 결과, 도출된 정책방향의 '지역학 진흥 관련성'은 5점 평균 4.29점이었고, '지역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성'은 5점 평균 4.26점이었음.
- 최종 제안할 정책방향 도출을 위한 IPA 결과, 두 분야 관련성이 평균보다 모두 높은 정책방향은 1순위 '지역 인문정신문화의 발굴과 공유', 2순위 '지역과 삶의 의미 및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 3순위 '지역 정체성 정립'이었음.
- 지역학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사업 발전을 위해 적합한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도 위와 유사하게 '지역과 삶의 의미 및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 '지역 정체성 정립', '지역 인문정신문화의 발굴과 공유'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그림 3] 일차 도출 정책방향별 지역학 및 지역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성 IPA



- 일차 도출한 12개 정책방안의 적절성과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방안별 중요성과 시급성을 평가한 결과, 중요성은 5점 평균 4.25점, 시급성은 5점 평균 4.02점으로 평가되었음.
- 일차 도출 방안들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IPA 결과, ‘문화여가 활동과 인문프로그램 연계 강화’, ‘지역 인문정신문화 자료의 수집·보전·활용 협력체계 구축’, ‘인문프로그램 운영자 대상의 지역 이해 교육 운영’, ‘생활인구 대상으로 지역 이해 및 인문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역교육과정에 지역학 연계 인문프로그램 운영’, ‘지역의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인문 활동 활성화’, ‘지역학 성과를 활용한 지역 인문콘텐츠 개발’ 순으로 평균을 상회하였고, ‘지역 인문정신문화 기반의 지역학 진흥’은 평균에 매우 가깝게 위치하였음.

[그림 4] 일차 도출 정책방안별 중요성 및 시급성 IP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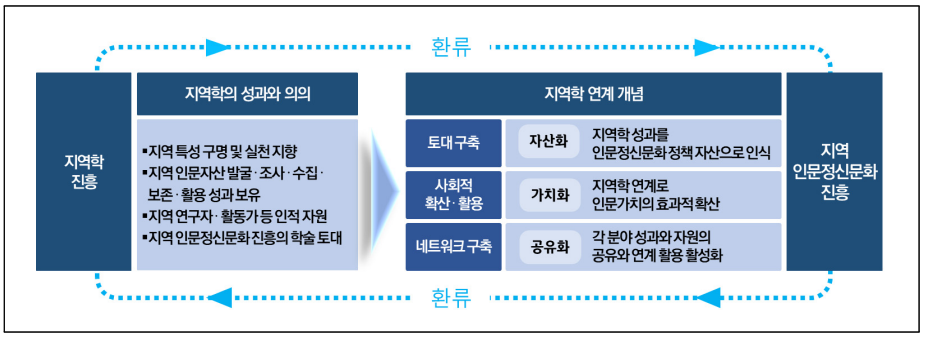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일차 도출한 정책방향과 정책방안 중에서 IPA 평균을 상회하거나 평균에 근접한 것을 중심으로 재편하여 제안하였음.

6. 정책 방향 및 방안 제안

■ 본 연구에서는 '지역학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사업 발전'을 세 가지 사업 범주를 고려하여 '자산화', '가치화', '공유화'라는 개념 하에 설정하고 지역학의 성과가 지역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그 결과가 다시 지역학 진흥에 기여하는 선순환적인 개념으로 설정하였음.

[그림 5] '지역학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사업 발전'의 개념



■ 이와 같은 개념 하에 본 연구에서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서 일차 도출한 정책 방향과 방안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다음 〈표 3〉처럼 지역학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사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과 방안을 최종 도출하였음.

〈표 3〉 지역학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및 방안

정책방향	정책방안	사업범주
지역과 삶의 의미 제고를 위한 연계	문화여가 활동과 지역 인문프로그램 연계 강화	사회적 확산·활용
	지역의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인문 활동 활성화	사회적 확산·활용
	지역교육과정에 지역학 연계 인문프로그램 운영	사회적 확산·활용
지역 인문정신문화 발굴·공유를 위한 연계	지역 인문정신문화 자료 발굴·수집·보전 지속 및 체계화	토대 구축
	인문프로그램 운영자 대상의 지역 이해 교육 운영	토대 구축
	생활인구 대상의 지역 이해 및 인문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 확산·활용
	지역학 연계를 위한 인문협력체계 구축	네트워크 구축
지역의 정체성 및 자긍심 제고를 위한 연계	지역학 성과를 활용한 지역 인문콘텐츠 개발	사회적 확산·활용
	지역 인문정신문화 기반의 지역학 진흥	토대 구축

■ 그 중 '지역과 삶의 의미 제고를 위한 연계'는 사회적 확산·활용 범주에 속하는 방안들로 구성되었으며, 여기에는 '문화여가 활동과 지역 인문프로그램 연계 강화', '지역의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인문 활동 활성화', '지역교육과정에 지역학 연계 인문프로그램 운영'이 포함됨.

■ '지역 인문정신문화 발굴·공유를 위한 연계'에는 토대 구축 범주에 속하는 '지역 인문정신문화 자료 발굴·수집·보전 지속 및 체계화', '인문프로그램 운영자 대상의 지역 이해 교육 운영', 사회적 확산·활용 범주에 속하는 '생활인구 대상의 지

역 이해 및 인문체험 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크 구축에 속하는 '지역학 연계를 위한 인문협력체계 구축'이 포함됨.

- '지역의 정체성 및 자긍심 제고를 위한 연계'에는 사회적 확산·활용 범주에 속하는 '지역학 성과를 활용한 지역 인문콘텐츠 개발'과 토대 구축 범주에 속하는 '지역 인문정신문화 기반의 지역학 진흥'이 포함됨.
- 이와 같이 제안된 방안들이 지역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인문정신문화 정책과 지역학의 연계가 내실화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역 간, 관련 기관·단체 간 협력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지역 단위의 지역학과 인문정신문화 정책 매개 기관·단체 육성, 그리고 지역학과 인문정신문화 사업 및 인적 자원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법제도적 환경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지역학을 인문정신문화 진흥과 정책 추진의 학술적 토대로 인식하고 그 연계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도 요구됨.

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연구 범위 6
2. 연구 수행방법 8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1

1. 문화정책 관련 주요 선행연구 11
2. 선행연구와 본 연구 비교 13

제2장 지역학 및 인문정신문화 정책 동향 분석 ····· **15**

제1절 지역학의 특성과 동향 17

1. 지역학의 개념과 대상 17
2. 지역학의 특성 및 지역문제 인식 19
3. 정책적 측면의 지역학 동향 22

제2절 인문정신문화 정책 동향 36

1. 정책 추진 배경과 제도화 36
2. 기본계획 및 정책사업의 주요 내용 42
3. 유관 부처 정책 동향 52

제3절 지역학 관련 인문정신문화 사업 사례 58

1. 국학 진흥 정책기반 조성사업 사례 58
2. 지역 관련 인문프로그램 운영 사례 65

제4절 소결 72

제3장 인문정신문화 사업에 관한 인식 및 의견 분석 ····· 79

제1절 언론보도 및 일반 국민 인식 분석 81

1. 분석 개요 81
2. 언론보도 분석 86
3. 일반 국민 인식 분석 96
4. 인문프로그램 체험자 인식 분석 107

제2절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분석 114

1. 조사 개요 114
2. 지역학에 관한 인식 115
3. 인문정신문화 사업에 관한 인식 123
4. 지역학과 연계한 사업 발전방안 제안 127

제3절 소결 132

제4장 발전방안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 137

제1절 조사 문항 설계 139

1. 시사점 종합 분석 139
2. 조사 내용 및 문항 선정 142

제2절 조사 결과 분석 143

1. 조사 개요 143
2. 인문정신문화 정책에 대한 인식 144
3. 도출된 정책방향의 관련성 · 적합성 평가 154
4. 정책방안별 중요성 · 시급성 평가 156
5. 정책 방향 · 방안에 대한 자유 의견 182

제3절 소결 185

제5장 인문정신문화 사업 발전방안 제안 ····· 187

제1절 정책 방향 및 방안 선정 189

1. 지역학과 연계한 '사업 발전'의 개념 189
2. 정책 방향과 방안의 조정 및 선정 190

제2절 지역과 삶의 의미 제고를 위한 연계 193

1. 필요성 및 의의 193

2. 문화여가 활동과 지역 인문프로그램 연계 강화 194
3. 지역의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인문 활동 활성화 199
4. 지역교육과정에 지역학 연계 인문프로그램 운영 202

제3절 지역 인문정신문화 발굴 · 공유를 위한 연계 204
1. 필요성 및 의의 204
2. 지역 인문정신문화 자료 발굴 · 수집 · 보전 지속 및 체계화 205
3. 인문프로그램 운영자 대상의 지역 이해 교육 운영 209
4. 생활인구 대상의 지역 이해 및 인문체험 프로그램 운영 212
5. 지역학 연계를 위한 인문협력체계 구축 215

제4절 지역 정체성 및 자긍심 제고를 위한 연계 221
1. 필요성 및 의의 221
2. 지역학 성과를 활용한 지역 인문콘텐츠 개발 222
3. 지역 인문정신문화 기반의 지역학 진흥 224

제6장 결론 ····· 229

제1절 연구 결과 231

제2절 정책 제언 235

참고문헌 / 239

ABSTRACT / 243

부록 / 245

부록1. 지역학 진흥 조례 현황 / 247

부록2. 설문조사 양식 / 255

표 목차

〈표 1-1〉 인식 및 수요 파악을 위한 텍스트 마이닝 분석 개요 9
〈표 1-2〉 선행연구와 본 연구 비교 14
〈표 2-1〉 (사)한국지역학포럼의 논의 주제 20
〈표 2-2〉 지역학 진흥 조례 제정 현황(2024.7.31. 현재) 23
〈표 2-3〉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내 지역학연구 전담조직 현황(2024.7.31. 현재) 27
〈표 2-4〉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역학 연구 활성화 사업' 단계별 계획 32
〈표 2-5〉 지방문화원의 지역학연구소 현황 32
〈표 2-6〉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113. 인문 · 정신문화의 진흥'의 주요 내용 36
〈표 2-7〉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7대 중점과제'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과제 37
〈표 2-8〉 인문학 진흥 및 민간 기록문화 관련 법률안 발의 현황 39
〈표 2-9〉 인문학법의 인문정신문화 사업 관련 규정 41
〈표 2-10〉 「제2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배경 및 목표 42
〈표 2-11〉 「제2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의 지역학 관련 추진과제 44
〈표 2-12〉 연도별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의 지역학 관련 내용 48
〈표 2-13〉 「2024년도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추진계획(안)」의 주요 내용 51
〈표 2-14〉 인문정신문화 사업별 DB 및 누리집 유무 52
〈표 2-15〉 「제2차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의 추진 배경 53
〈표 2-16〉 「제2차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의 추진과제별 지역학 관련 내용 54
〈표 2-17〉 '국학 진흥 정책기반 조성 사업' 내역(2024년 기준) 59
〈표 2-18〉 한국국학진흥원 인문정신연수원의 관련 프로그램 60
〈표 2-19〉 한국유교문화진흥원 2024년 교육 · 연수 프로그램 62
〈표 2-20〉 인문정신문화와 지역학 매개기관 현황 64
〈표 2-21〉 국학 진흥 기관별 기록문화 아카이브 65
〈표 2-22〉 2022년 기준 〈생활문화시설 길 위의 인문학〉 세부사업 66
〈표 2-23〉 '청년 인문실험 공모전'의 지역 및 지역학 관련 성과 67
〈표 2-24〉 인문네트워크의 인문프로그램 분류 69
〈표 2-25〉 '정주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한 신나는 상상학교' 사례 70

〈표 2-26〉 지역학과 인문정신문화 정책의 동향 및 시사점 분석 76
〈표 3-1〉 언론보도 분석을 위한 시기 구분 및 분석기사 건수 86
〈표 3-2〉 제1기(2013~2016) 언론보도 핵심어 분석 87
〈표 3-3〉 제2기(2017~2021) 언론보도 핵심어 분석 89
〈표 3-4〉 제3기(2022~2024.4.30.) 언론보도 핵심어 분석 91
〈표 3-5〉 시기별 언론보도 주요 핵심어 변화 92
〈표 3-6〉 〈길 위의 인문학〉 언론보도 핵심어 분석 93
〈표 3-7〉 〈인생나눔교실〉 언론보도 핵심어 분석 94
〈표 3-8〉 〈지혜학교〉 언론보도 핵심어 분석 95
〈표 3-9〉 일반 국민 인식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분석 방법 96
〈표 3-10〉 일반 국민 인식에 대한 단어-역문서 빈도 분석 97
〈표 3-11〉 일반 국민 인식에 대한 N-gram 빈도 분석 98
〈표 3-12〉 일반 국민 인식에 대한 구조적 등위성 분석 103
〈표 3-13〉 인문프로그램 체험자 인식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분석 방법 107
〈표 3-14〉 인문프로그램 체험자 인식에 대한 단어-역문서 빈도 분석 108
〈표 3-15〉 인문프로그램 체험자 인식에 대한 N-gram 빈도 분석 109
〈표 3-16〉 인문프로그램 체험자 인식에 대한 구조적 등위성 분석 112
〈표 3-17〉 표적집단별 인터뷰 참여자 및 주요 논의 주제 115
〈표 3-18〉 인문정신문화 사업에 관한 인식 및 의견 분석 종합 135
〈표 4-1〉 시사점 분석에 따른 정책 방향 및 방안 일차 도출 140
〈표 4-2〉 설문조사 개요 143
〈표 4-3〉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144
〈표 4-4〉 지역학과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연계 필요성 145
〈표 4-5〉 제2차 기본계획의 지역학 진흥 기여도 146
〈표 4-6〉 인문정신문화 사업 프로그램 기획·운영 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 148
〈표 4-7〉 인문정신문화 사업과 타 인문학 사업의 차별성 유무 149
〈표 4-8〉 지역학과 인문정신문화 사업 연계 시 고려사항 152
〈표 4-9〉 일차 도출 정책방향별 지역학 및 지역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성 평가 154
〈표 4-10〉 일차 도출 정책방향별 적합성 평가 156
〈표 4-11〉 '지역 고유의 인문브랜드 발굴' 중요성 157
〈표 4-12〉 '지역 고유의 인문브랜드 발굴' 시급성 158
〈표 4-13〉 '마을학(또는 마을인문학) 육성' 중요성 159
〈표 4-14〉 '마을학(또는 마을인문학) 육성' 시급성 160

〈표 4-15〉 '지역 인문정신문화 자료의 수집 · 보전 · 활용 협력체계 구축' 중요성 161
〈표 4-16〉 '지역 인문정신문화 자료의 수집 · 보전 · 활용 협력체계 구축' 시급성 162
〈표 4-17〉 '지역 고유의 인문브랜드 발굴' 중요성 163
〈표 4-18〉 '지역의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인문 활동 활성화' 시급성 164
〈표 4-19〉 '지역 인문정신문화 기반의 지역학 진흥' 중요성 165
〈표 4-20〉 '지역 인문정신문화 기반의 지역학 진흥' 시급성 166
〈표 4-21〉 '지역학과 인문정신문화 사업 매개 기관 · 단체 육성' 중요성 167
〈표 4-22〉 '지역학과 인문정신문화 사업 매개 기관 · 단체 육성' 시급성 168
〈표 4-23〉 '문화여가 활동과 인문프로그램 연계 강화' 중요성 169
〈표 4-24〉 '문화여가 활동과 인문프로그램 연계 강화' 시급성 170
〈표 4-25〉 '지역교육과정에 지역학 연계 인문프로그램 운영' 중요성 171
〈표 4-26〉 '지역교육과정에 지역학 연계 인문프로그램 운영' 시급성 172
〈표 4-27〉 '주민 대상 인문 심화 과정 운영' 중요성 173
〈표 4-28〉 '주민 대상 인문 심화 과정 운영' 시급성 174
〈표 4-29〉 '생활인구 대상으로 지역 이해 및 인문체험 프로그램 운영' 중요성 175
〈표 4-30〉 '생활인구 대상으로 지역 이해 및 인문체험 프로그램 운영' 시급성 176
〈표 4-31〉 '인문프로그램 운영자 대상의 지역 이해 교육 운영' 중요성 177
〈표 4-32〉 '인문프로그램 운영자 대상의 지역 이해 교육 운영' 시급성 178
〈표 4-33〉 '지역학 성과를 활용한 지역 인문콘텐츠 개발' 중요성 179
〈표 4-34〉 '지역학 성과를 활용한 지역 인문콘텐츠 개발' 시급성 180
〈표 4-35〉 인문정신문화 사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자유응답 결과 183
〈표 4-36〉 인문정신문화 사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 자유응답 결과 184
〈표 5-1〉 지역학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및 방안 192
〈표 6-1〉 지역학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발전방안 제안 내용 234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5
[그림 1-2] 설문조사 추진 개요 9
[그림 1-3] 연구 수행방법 및 흐름 10
[그림 2-1] 지역학 진흥 조례 제정 추이 24
[그림 2-2] 전남대학교 대학원 호남학과 운영 개념 29
[그림 2-3]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범주 41
[그림 2-4] 한국학자료 통합플랫폼 누리집 55
[그림 2-5] 인문한국 및 인문한국플러스의 대중강좌 개최 현황(2007~2022) 56
[그림 2-6] 인문네트워크 누리집의 유형 분류 화면 68
[그림 2-7] 2022~2024년 인문네트워크 프로그램 현황(2024.8.20. 검색 기준) 69
[그림 3-1] 제1기(2013~2016) 언론보도 분석 결과 단어구름 87
[그림 3-2] 제2기(2017~2021) 언론보도 분석 결과 단어구름 89
[그림 3-3] 제3기(2022~2024.4.30.) 언론보도 분석 결과 단어구름 91
[그림 3-4] 〈길 위의 인문학〉 언론보도 분석 결과 단어구름 93
[그림 3-5] 〈인생나눔교실〉 언론보도 분석 결과 단어구름 94
[그림 3-6] 〈지혜학교〉 언론보도 분석 결과 단어구름 96
[그림 3-7] 일반 국민 인식 분석 결과 단어구름 97
[그림 3-8] ‘인문학’, ‘로컬’, ‘지역’에 대한 일반 국민 인식 N-gram 분석 시각화 99
[그림 3-9] ‘로컬’에 대한 일반 국민 인식 N-gram 분석 시각화 99
[그림 3-10] ‘인문학’에 대한 일반 국민 인식 N-gram 분석 시각화 100
[그림 3-11] ‘인문학’에 대한 일반 국민 인식 에고 네트워크 분석 시각화 101
[그림 3-12] ‘로컬’에 대한 일반 국민 인식 에고 네트워크 분석 시각화 102
[그림 3-13] ‘지역’에 대한 일반 국민 인식 에고 네트워크 분석 시각화 102
[그림 3-14] 일반 국민 인식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시각화 104
[그림 3-15] 일반 국민 인식에 대한 구조적 등위성 분석 시각화 106
[그림 3-16] 인문프로그램 체험자 인식 분석 결과 단어구름 108
[그림 3-17] 인문프로그램 체험자 인식에 대한 N-gram 분석 시각화 109

[그림 3-18] ‘지역’에 대한 인문프로그램 체험자 인식 에고 네트워크 분석 시각화 110
[그림 3-19] 인문프로그램 체험자 인식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시각화 111
[그림 3-20] 인문프로그램 체험자 인식에 대한 구조적 등위성 분석 시각화 113
[그림 4-1] 지역학과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연계 필요성 145
[그림 4-2] 제2차 기본계획의 지역학 진흥 기여도 146
[그림 4-3] 인문정신문화 사업 프로그램 기획 · 운영 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 147
[그림 4-4] 인문정신문화 사업과 타 인문학 사업의 차별성 유무 149
[그림 4-5] 일차 도출 정책방향별 지역학 및 지역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성 IPA 155
[그림 4-6] ‘지역 고유의 인문브랜드 발굴’ 중요성 157
[그림 4-7] ‘지역 고유의 인문브랜드 발굴’ 시급성 158
[그림 4-8] ‘마을학(또는 마을인문학) 육성’ 중요성 159
[그림 4-9] ‘마을학(또는 마을인문학) 육성’ 시급성 160
[그림 4-10] ‘지역 인문정신문화 자료의 수집 · 보전 · 활용 협력체계 구축’ 중요성 161
[그림 4-11] ‘지역 인문정신문화 자료의 수집 · 보전 · 활용 협력체계 구축’ 시급성 162
[그림 4-12] ‘지역의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인문 활동 활성화’ 중요성 163
[그림 4-13] ‘지역의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인문 활동 활성화’ 시급성 164
[그림 4-14] ‘지역 인문정신문화 기반의 지역학 진흥’ 중요성 165
[그림 4-15] ‘지역 인문정신문화 기반의 지역학 진흥’ 시급성 166
[그림 4-16] ‘지역학과 인문정신문화 사업 매개 기관 · 단체 육성’ 중요성 167
[그림 4-17] ‘지역학과 인문정신문화 사업 매개 기관 · 단체 육성’ 시급성 168
[그림 4-18] ‘문화여가 활동과 인문프로그램 연계 강화’ 중요성 169
[그림 4-19] ‘문화여가 활동과 인문프로그램 연계 강화’ 시급성 170
[그림 4-20] ‘지역교육과정에 지역학 연계 인문프로그램 운영’ 중요성 171
[그림 4-21] ‘지역교육과정에 지역학 연계 인문프로그램 운영’ 시급성 172
[그림 4-22] ‘주민 대상 인문 심화 과정 운영’ 중요성 173
[그림 4-23] ‘주민 대상 인문 심화 과정 운영’ 시급성 174
[그림 4-24] ‘생활인구 대상으로 지역 이해 및 인문체험 프로그램 운영’ 중요성 175
[그림 4-25] ‘생활인구 대상으로 지역 이해 및 인문체험 프로그램 운영’ 시급성 176
[그림 4-26] ‘인문프로그램 운영자 대상의 지역 이해 교육 운영’ 중요성 177
[그림 4-27] ‘인문프로그램 운영자 대상의 지역 이해 교육 운영’ 시급성 178
[그림 4-28] ‘지역학 성과를 활용한 지역 인문콘텐츠 개발’ 중요성 179
[그림 4-29] ‘지역학 성과를 활용한 지역 인문콘텐츠 개발’ 시급성 180
[그림 4-30] 일차 도출 정책방안별 중요성 및 시급성 IPA 181

[그림 5-1] '지역학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사업 발전'의 개념 190
[그림 5-2] 지역학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사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 191
[그림 5-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가 중요한 이유(1+2순위)' 전문가 의견 193
[그림 5-4] 소멸위험지역 현황(2024.3. 기준) 204
[그림 5-5] 인문 관련 프로그램 개선 및 보완점 210
[그림 5-6] 향후 참여 희망 프로그램 분야 214
[그림 5-7]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확산 한계점(1+2순위)' 전문가 의견 218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가. 지역 사회문제와 변화에 관한 인문정신문화 정책의 역할 요구

최근 몇 년 동안, 인구 감소와 초고령사회화, 청년층 이출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가 핵심적인 정책 이슈가 되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는 단지 인구의 감소나 초고령사회화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정주의식과 정체성의 변화라는 측면과도 맞물려 있다. 이것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인문학법')에서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로 정의한 인문 및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무형의 문화적 산물"로 정의한 인문정신문화에 관한 정책의 추진에서도 중요한 화두가 된다. 그 까닭은 지역의 공간과 사람에 관한 공동체의 기억과 정체성, 정주의식 등은 인문 및 인문정신문화가 추구하는 근원문제나 정신적인 가치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현재 지역사회가 처한 위기와 변화라는 현안은 인문정신문화 정책의 역할과 내용에 대한 고민을 요구한다.

나.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한 인문정신문화 정책방안 모색 필요

인문학법에 의한 「제2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2022~2026)」(문화체육관광부, 2021a. 이하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문화기반시설을 인문정신문화 거점 공간으로 조성'을 추진하며 〈지혜학교〉 사업에서 지역문화·민속학·지역학 등 지역 인문 심화과정 운영을 계획하였다. 이로써 보면 인문정신문화 정책에서 지역학이 중요하게 고려되는 듯하지만, 여기서 지역학은 하나의 운영프로그램에 불과한 위상을 지닌다.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참여형·사회 문제 해결형 인문 활동 확대'와 '인문 격차 해소 및 지역 인문 자원 발굴 확대'도 계획하였다. 이는 우리 사회나 지역의 문제에 대한 인문

정신문화 정책의 역할을 요구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후자에 포함된 지역 인문 자원 발굴은 기록문화 유산의 수집·보존·번역 및 국학 진흥 정책과 관련이 깊고, 그 세부 과제에는 '자생적 인문 활동 지원', '지역 문제해결형 인문프로그램 지원', '인문자산 활용 지역 특화형 프로그램 개발' 등이 포함된다. 이들 과제는 인문 자원 발굴 확대 차원을 넘어서 지역학 및 그 성과의 활용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그런데 지역 문제와 관련한 과제의 실행을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함에도 해당 과제의 실행에서 지역학의 역할이 정립되지 못함으로써 둘 간 연계는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한편, 인문학이 중심이 된 지역학 분야와 연관성이 깊고 인문학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법률안들이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인문학을 주요 대상으로 한 학술 진흥 법률안들과 각 지역에서 전하는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활용에 관한 법률안들이었다. 그러한 법률안의 발의는 인문정신문화를 둘러싼 정책환경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려준데, 제22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법률안들의 발의가 예상된다. 따라서 앞으로 예상되는 인문정신문화 정책을 둘러싼 환경 및 수요의 변화에 대응하여 현행 정책사업에 대한 점검 및 발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 지역 정체성 및 인문 가치의 제고를 위해 지역학 연계 필요

지역은 인간 생활의 기본 토대다. 또한 그곳을 터전으로 살아 온 사람들의 삶과 경험이 축적되고 기억되는 공간이자 인문학법이 규정한 인문, 즉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에 "기반을 둔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무형의 문화적 산물"로서의 인문정신문화가 발현·축적되고 전승되어 온 공간이다. 이 점에서 지역과 그 사람들은 지역 인문정신문화의 주체다. 그러나 그간 인문정신문화 정책에서는 보편적인 인문 가치에 주목하고, 지역적 특수성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최근에는 지역이 처한 문제의 해소 내지 완화에서 인문정신문화의 역할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지점에서 주목해야 할 분야가 지역학이다.

사전적으로 "일정한 지역의 지리나 역사, 문화 따위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표준국어대사전)이라고 정의되는 지역학의 중요 주제 중 하나는 '지역 정체성' 구명이다. '지역 정체성'은 그 '사회적 응집성'이라는 문제와도 관련된다. '사회통합 실태조사'에서는 '지역 정체성'을 "개인이 자신이 속한 지역에 대해 구성원으로 갖는 소속감이나 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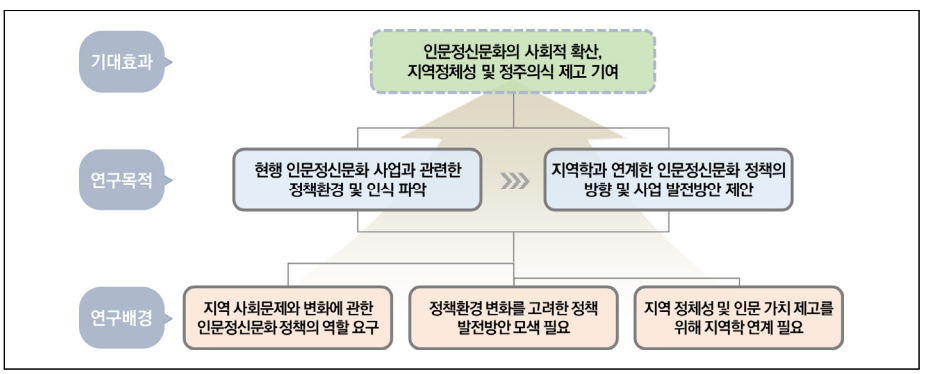
도", "즉 국민들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소속감"으로 개념화한다. 또한 '사회적 응집성'을 "그 사회의 사회적 관계가 얼마나 공통의 정체성과 가치 규범에 기반을 두고 있는가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사회적 응집성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으로 '신뢰', '규범과 가치', '결사체적 참여', '정체성' 등을 제시한다(한국행정연구원, 2024).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학은 인문정신문화의 지향과 만난다. 또한 인문정신문화는 지역학과의 연계를 통해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 그곳 사람들의 삶을 좀 더 심도 있게 이해함으로써 그들의 미래에 기여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2. 연구 목적

위와 같은 연구 배경에서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을 지닌다. 그중 하나는 인문정신문화 정책사업들을 지역학과의 관련성에서 검토하고 해당 사업들을 둘러싼 정책환경 및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지역 및 지역학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정책 모색을 위한 수요 파악과 기초자료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최근에 지역이 처한 위기 및 현안 등과 관련하여 인문정신문화 정책의 방향을 지역학과 연계하여 모색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지역 단위에서 인문의 가치와 인문정신문화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사회적 확산뿐만 아니라 지역 정체성과 정주의식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변화에서 인문정신문화 정책과 지역학의 연계를 강화하는 계기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가. 시공간적 범위

본 연구에서 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인문정신문화 진흥이 정부의 국정과제로 계획되고 추진되기 시작한 2013년부터 현재까지다. 특히 인문학법에 의거한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된 2017년 이후를 중심으로 하되, 사례 분석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2013년 이전 시기도 일부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지역학의 공간적 범위 설정에서는 한 국가 내부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과 해당 국가를 벗어나 타 국가 내지 문화권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이 공존한다. 본 연구는 국내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학 유형을 다루므로, 분석 및 정책 제안의 공간적 범위를 국내로 설정하였다.

나. 내용적 범위

본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는 지역학의 특성 및 관련 동향,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지역학 연계 현황에 관한 분석이다. 국내외의 지역학은 사회과학 분야 및 공간경제, 도시계획 등과 관련을 맺으며 성장하였고, 그 영역이나 개념, 방법론에 대한 논의를 점차 확장하여 왔다(유완, 1985; 김학훈, 2014; 고상두, 2021). 국내의 경우, 1990년대 이후로 인문학을 주요 기반으로 하는 지역학이 활성화하고 각 지역에서 다양한 기관·단체가 설립되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정정숙, 2014; 정삼철; 2019, 오영교, 2019; 문정화·김은진, 2021). 본 연구에서도 이 분야의 지역학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지역학 연계 현황에 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련 계획 및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분석을 위해서 정책적 연관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지역학센터, 지방문화원의 지역학연구소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는 지역 단위 국학진흥기관 등을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그중 지역의 국학진흥기관은 인문정신문화 진흥기관의 역할과 함께 해당 지역의 기록유산을 수집 · 보존하고 번역 · 교육 · 활용 등의 사업을 수행하며 지역학과 한국학을 매개하는 성격을 갖는다. 이들 기관 · 단체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현행 인문정신문화 정책에서 지역학의 위상과 연계 방향 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다루는 '인문정신문화 사업'이란 인문학법에 의거하여 수행되는 사업을 의미한다. 다만, 인문학법에서는 인문정신문화를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 · 무형의 문화적 산물"(법 제3조제3호)로 정의하지만, 인문정신문화 사업을 정의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인문정신문화 사업을 정의하기 위해서 법률의 각 조항과 인문정신문화 진흥이 정책적으로 대두되고 법률 제정이 추진된 박근혜정부 시기 국정과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제2장에서 검토하여 인문정신문화 사업을 범주화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 중 두 번째는 인문정신문화 사업 및 지역학에 관한 인식과 수요에 대한 분석이다. 여기에는 문화정책 및 지역학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인식과 수요에 대한 분석도 포함된다. 이 외에 지역 현장에서 인문정신문화 사업을 담당하는 담당자의 인식과 수요에 대한 분석도 포함되는데, 이 경우에는 주로 사업 발전방안 모색과 관련한 조사와 연계하여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인식 및 수요에 대한 분석은 현행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한계와 지역학 연계 수요를 파악하는 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 중 마지막 세 번째는 지역학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사업 발전방안 제안이다. 이와 같은 발전방안은 지역학의 특성 및 관련 동향,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지역학 연계 현황에 대한 분석, 인문정신문화 관련 인식과 수요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 및 이를 기반으로 지역학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사업 발전방안 개발을 위해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출하였다. 여기에는 최근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고려되는 지역의 인구 감소와 소멸 위기, 향후 예상되는 제도적 변화 등을 고려한 방안을 함께 검토하여 제안하였다.

2. 연구 수행방법

본 연구에서는 단계별 연구 결과를 점검하고 연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심의회를 개최하는 한편, 다음처럼 질적 분석과 양적 분석 방법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가. 기초 현황 분석을 위한 문헌 및 사례 분석

본 연구에서 연구 설계 및 기초 분석을 위하여 인문정신문화 정책 관련 계획과 정책 동향 파악, 연구 주제 관련 주요 개념 이해 등을 위해 문헌 연구를 시행하였다. 또한 문헌 및 온라인 자료,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서 관련 사례를 검토하였다.

나. 의견 수렴을 위한 인터뷰 및 자문회의 개최

지역학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사업에는 인문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인문 활동가, 지역학 분야 담당자 등 다양한 관계자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주제와 관련한 이해관계자 집단을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겸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정책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정책 제언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병행하며 사업 발전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다. 정책 인식·수요 파악을 위한 텍스트 마이닝 분석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은 비정형의 텍스트 데이터를 수치화하여 유용한 패턴이나 의미 있는 정보를 도출해내기 위해 언어학 및 통계학 기반의 언어처리 기술을 활용한 분석 기법이다. 스마트 기기의 대중화 및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의 확대로 인해 온라인상에서 방대한 양의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으며, 그 속에 담긴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혁신의 가치가 창출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은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 필수 불가결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텍스트 마이닝은 정책 분야는 물론, 교육·대중문화·문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탁월한 의미분석 방법론으로 활용되는 빅데이터 분석기법이다(박상훈, 2023).

본 연구에서는 인문정신문화 사업 및 지역학 관련 인식과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텍스트 마이닝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 자료로는 한국언론재단 '빅카인즈(Big Kinds)'에서 제공하는 언론기사, 포털사이트 및 SNS 등의 온라인 데이터, 인문정신문화 사업 프로그램 체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의 자율응답식 문항의 응답 내용을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데이터의 분석에서는 사회관계망 프로그램인 UCINET 6를 활용하여 분석 결과를 네트워크 시각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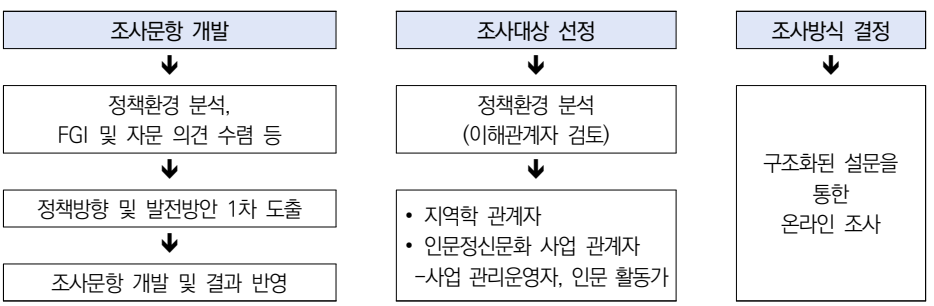
〈표 1-1〉 인식 및 수요 파악을 위한 텍스트 마이닝 분석 개요

구분	자료	분석 도구	시각화 도구
언론보도 분석	빅카인즈 언론기사	빅카인즈 (https://www.bigkinds.or.kr/)	UCINET 6
일반 국민 인식 분석	포털사이트, SNS 등	텍스톰 (https://www.textom.co.kr/)	
인문프로그램 체험자 인식 분석	인문프로그램 만족도조사의 자율응답식 문항 응답 내용		

라. 발전방안 개발을 위한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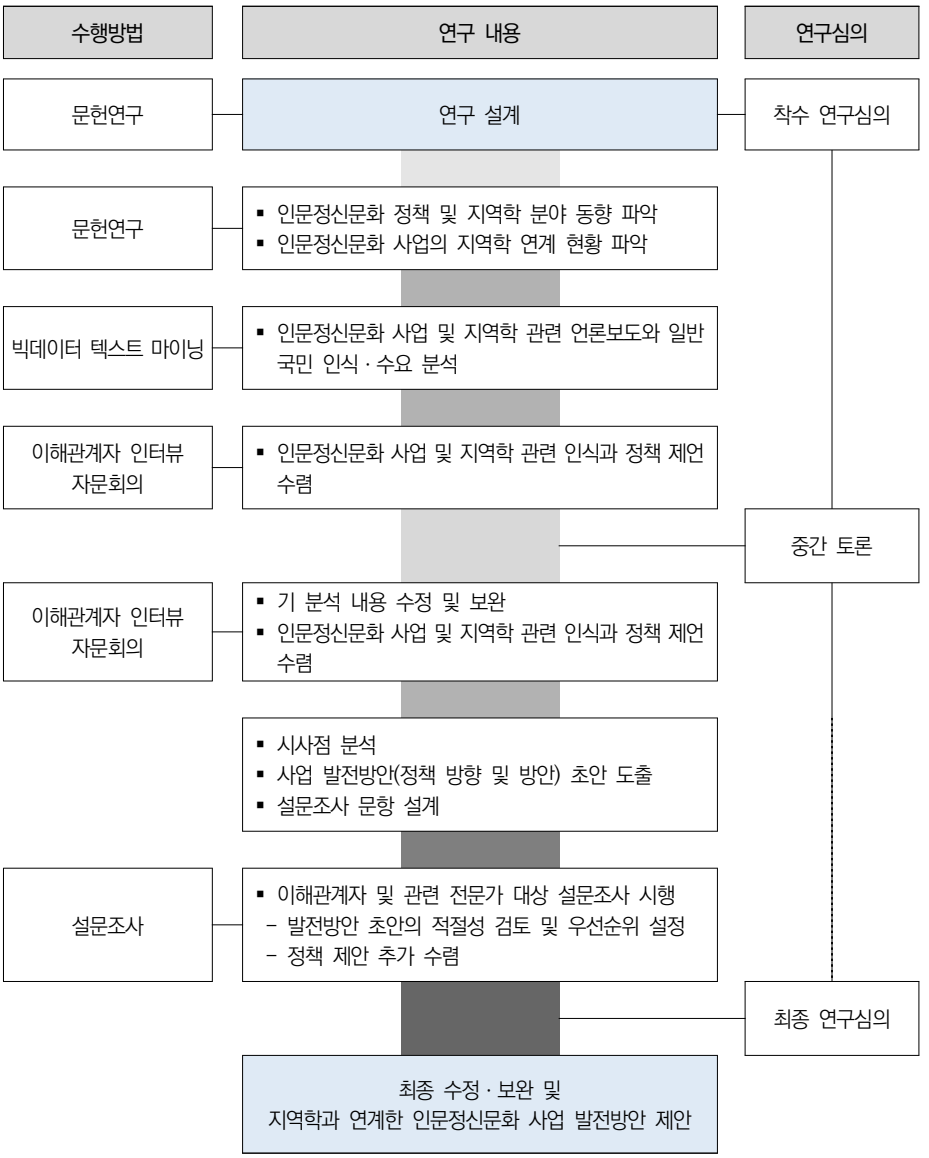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마이닝 분석 결과 및 기존 실태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일반 국민의 수요를 반영하였다. 그리고 정책환경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 도출을 통해서 지역학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방향과 발전방안을 일차적으로 도출하고, 지역학 분야 전문가와 인문정신문화 사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도출된 방향 및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중 인문정신문화 사업 관계자에 대한 조사는 '인문네트워크[1]'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한편, 본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도서관협회의 협조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림 1-2] 설문조사 추진 개요



1) 인문360 '인문네트워크'(https://inmun360.culture.go.kr/b2bc/index).

[그림 1-3] 연구 수행방법 및 흐름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 문화정책 관련 주요 선행연구

지역학에 주목한 문화정책 연구로는 이상열(2013), 정정숙(2014), 성해영 · 조주연 · 박찬욱(2016), 노영순 · 이상열(2018)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중 이상열, 성해영 · 조주연 · 박찬욱의 연구는 인문정신문화 정책 측면에서, 정정숙과 노영순 · 이상열의 연구는 지역문화정책측면에서 지역학에 접근하였다. 이 외에 이성우 · 김규원 · 김면 · 정원희(2021). 이성우 · 조현성 · 윤지연 · 오문준(2023)의 연구에서도 지역학을 다루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포함하여 선행연구를 검토하려 한다.

가. 인문정신문화 정책 분야 연구

이상열(2013)의 연구는 박근혜정부 국정과제로 제시된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발굴과 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로 진행되었다. 이 연구는 추진전략의 하나로 '5. 한국적 인문정신문화 전통의 재발견과 교류 · 협력'을 설정하고, 그 과제에 '인문유산의 발굴과 지역학 진흥'을 포함하였다. 이 과제에서는 지역학 자료조사, 지역학 연구 성과의 서비스 확대, 지역학 거점기관 지정 등 '지역학 연구 활성화 기반 조성', 민간기록물 발굴과 보존 환경 개선, 문화콘텐츠 개발 등 '민간 소장 문헌 및 기록물의 수집 · 보존과 활용', 지역 인문정신 발굴과 활용 등 '지역 대표 인문정신의 발굴', 지역의 대표적인 인문유산 발굴을 포함한 '인문유산 등록제도 시행'을 세부 과제로 설정하였다.

성해영 · 조주연 · 박찬욱(2016)의 연구는 인문정신문화 정책이 본격화된 이후, 그 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로 진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4대 분야 10개 범주로 나누어 사업을 제시하였다. 그중에는 '1. 우리 곁의 인문, 진흥 기반 구축' 분야의 '확산 기반 구축'에 전국 대학의 인문학 · 지역학 연구소의 연구 활동 및 각종 사회 확산 사업 현황

조사를 포함하였다. '3. 인문, 창조의 힘으로' 분야의 '인문콘텐츠 육성'에서도 전국 시군지(市郡誌)의 디지털화를 통한 대한민국 지역학 종합플랫폼 구축, 지역 이야기 콘텐츠 발굴 및 아카이빙 등처럼 지역학과 관련한 세부 사업들을 포함하였다.

이성우 · 김규원 · 김면 · 정원희(2021)의 연구는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로 진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학 관련 연구가 융 · 복합적 주제나 사회문제 해결 관련 주제 등에 취약함을 지적하며, 지역학을 통해 문화맥락까지 이끌어 내는 지역콘텐츠 개념을 활성화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지역 단위 유관기관과 연구소 등을 활용하여 인문학 전공자의 일자리 창출을 연계한 지역학 생태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최근에 수행된 이성우 · 조현성 · 윤지연 · 오문준(2023)의 연구는 지역 단위 진흥센터의 설치와 역할에 대해 다루었다. 이를 위해 수행된 전문가 자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지역학센터와 연계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인문전담기관(중앙)-인문문화진흥센터(광역)-사업기관 및 문화재단(기초)'이라는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인문문화진흥센터 단위에서 통합공모사업(인문치유, 마을 공동체 육성, 전통문화 생활계승, 인문지식 함양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지역학센터 연계 활용을 포함하였다.

위 연구들은 인문정신문화 정책 측면에서 지역학을 다루었다. 그러나 이상열(2013)과 성해영 · 조주연 · 박찬욱(2016)의 연구는 초기 인문정신문화 정책사업 구상을 위해 진행되었기 때문에 지역학을 심도 있게 연계하여 다루지 못한 채, 개별 정책사업을 제안하는 데 집중되었다. 이성우 · 김규원 · 김면 · 정원희(2021)의 연구는 제2차 기본계획에 반영되기는 하였으나, 콘텐츠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다루었을 뿐이다. 이성우 · 조현성 · 윤지연 · 오문준(2023)의 연구도 각 지역의 지역학센터를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 인문문화진흥센터와 연계할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나 구체화하여 다루지는 못하였다.

나. 지역문화정책 분야 연구

지역학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 때문에 인문정신문화 정책연구보다 지역문화 정책연구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그중 정정숙(2014)은 2014년 1월 28일에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지역학의 이슈와 국내외 동향 등을 검토하며 "지역학의 문화적 활용만이 체계적인 지역문화의 진흥을 이끌어 낼 수 있"(2014: 153)다고 보았다. 또한 공급 측면(조직의 안정성, 연구의 우수성), 수요 측면(지역주민의

향유성, 문화적 활용성)의 과제들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지역학 활성화'를 모색하여 '지역학을 기초로 한 아래로부터의 고유한 지역문화진흥' 및 '지역주민으로서의 정체성 공유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이 만드는 문화융성, 문화국가'를 만드는 것을 정책의 궁극적 목표로 제시하였다.

노영순 · 이상열(2018)의 연구도 지역문화정책의 측면에서 지역학에 접근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의 쇠퇴와 소멸 위기에 대한 문화정책의 대응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와 같은 변화에서 문화정책 영역으로서 지역학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지역쇠퇴에 대응한 지역학의 방향을 '회고' · '연구자 중심' · '연구 · 학술 지향'의 지역학에서 '미래지향적' · '참여형' · '실천적' 지역학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방향에서 지역학에 기반한 지역문화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 지역의 문화적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법 · 제도 개선, 미래유산 제도 지원, 문화영향평가 연계를 포함한 '지역학과 문화정책의 선순환적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향토자료 활용을 위한 지방문화원과 지역문화기관 협력, 지역기반 구술인력 및 문화기획가 양성, 지역학아카이브 구축, 마을기록관 운영을 포함한 '지역학 연계 지역의 문화 환경 개선', 공동체참여형 문화지도 제작, 마을 단위 에코뮤지엄 조성, 지역학과 문화정책 결합형 마을 조성을 포함한 '지역학을 통한 지역사회 및 문화활성화'를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정정숙(2014)과 노영순 · 이상열(2018)의 연구는 지역문화정책 측면에서 지역학을 조명하고 정책 방안과 과제를 제안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지역학이 지닌 고유한 특성과 역할, 국내의 지역학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부족하였다. 다만, 제안된 정책 방안과 과제 중 본 연구 주제와 관련된 사항도 있으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선행연구와 본 연구 비교

기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인문정신문화 정책연구에서는 지역학과의 연계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체로 인문정신문화 정책 자체에 집중하며 정책사업 발굴을 주요 연구내용으로 하였다. 이에 비해서 지역문화 정책연구에서는 지역문화 진흥에서 지역학의 역할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지역학 진흥방안 모색을 주요 연구내용으로 하였다.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을 공통적으로 수행하였다. 그 밖에 연구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정책방안 개발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정정숙(2014)과 노영순 · 이상열(2018)의 연구에서는 지역학 관련 문항을 포함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상열(2013) 및 이성우 · 김규원 · 김면 · 정원희(2021)의 연구에서는 정책수요 파악 등을 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이들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지역학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후자의 연구에서는 취업담당자 및 명사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도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정책영역 및 연구내용 측면에서 인문정신문화 진흥에서 지역학의 역할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정책적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지역학 관계자 심층인터뷰 등을 통해서 선행연구에 비해서 지역학의 특성과 역할, 현황 등에 좀 더 심층적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또한 주된 논의는 인문정신문화 정책 및 그 사업의 발전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하였다. 연구 수행방법 측면에서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수행방법들을 통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다만, 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는 한편,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하였다. 또한 일반 국민의 수요 파악을 위해서 텍스트 마이닝을 시행하였다. 이와 같은 점들에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지니고, 지역학의 특성과 역할에 주목하며 인문정신문화 정책과 연계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1-2〉 선행연구와 본 연구 비교

구분		정책영역	연구내용	연구 수행방법
인문정신문화 정책 연구	이상열 (2013)	인문정신문화	인문정신문화 제도화 방안 및 정책사업 발굴	•문헌연구 및 전문가 자문 •설문조사(일반 국민)
	성해영 · 조주연 · 박찬욱(2016)		인문정신문화 정책사업 발굴	•문헌연구 및 전문가 자문 •정책담당자 토론
	이성우 · 김규원 · 김면 · 정원희 (2021)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연구	•문헌연구 및 전문가 자문 •FGI(취업담당자 및 명사) •설문조사(일반 국민 및 전문가)
	이성우 · 조현성 · 윤지연 · 오문준 (2023)		전담기관 및 지역 단위 추진 체계 정비	•문헌연구 및 전문가 자문 •설문조사(전문가)
지역문화 정책 연구	정정숙 (2014) 노영순 · 이상열 (2018)	지역학 + 지역문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학 활용 및 지역학 진흥 방안	•문헌연구 및 전문가 자문 •설문조사(전문가)
			지역쇠퇴 대응을 위한 지역문화 정책의 지역학 육성 방안	•문헌연구 및 전문가 자문 •설문조사(전문가)
본 연구		인문정신문화 + 지역학	지역학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사업 발전방안	•문헌연구 및 전문가 자문 •텍스트 마이닝 •FGI(이해관계자) •설문조사(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제2장

지역학 및 인문정신문화 정책 동향 분석

제1절 지역학의 특성과 동향

1. 지역학의 개념과 대상

‘지역학’은 공간을 계량적으로 분석하려 한 월터 아이사드(Walter Isard)가 제창한 ‘Regional science’를 일본에서 학술용어로 번역한 용어라고 알려져 있다. 아이사드는 1954년에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창립을 주도하였다. 이듬해 12월에 뉴욕에서 열린 해당 학회의 제2차 총회에서 ‘Regional science’를 인간과 물리적 환경과의 상호 작용 및 적응을 다루되, 공간 또는 지역이 중심이 되는 문제만을 다루는 연구로 개념화하였다(Isard, 1956; 유완, 1985; 김학훈, 2014). 그 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Regional science’, ‘Area studies’, ‘Local studies’ 등이 지역학으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중 ‘Area studies’는 자국 외 지역을 대상으로 할 때 주로 사용된다. ‘Local studies’는 자국 내 정주 지역을 대상으로 할 때 주로 사용되는데, 일본에서는 이를 지역학과 구분하여 지원학(地元学)[2]이라고도 한다.

지역학은 사전적으로는 “일정한 지역의 지리나 역사, 문화 따위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표준국어대사전)이라고 정의된다. 학술적으로는 “공간단위인 지역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체계적인 공간현상으로 설명하는 일반법칙”(유완, 1985: 4), “지역 및 공간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수행하는 학제적 학문”(김학훈, 2014: 88), “지역을 분석 단위로”하여 “사회현상의 지역적 특성과 인과관계를 연구”하고 “인간이 생활하는 공간을 인식의 중심에 두는 학문”(고상두, 2021: 15) 등처럼 다양하게 개념화된다. 지역문화정책과 연계성에서 지역학을 다룬 정정숙은 “역사적으로 행

2) 지원(地元)이란 고장 또는 지방, 특히 생활의 근거지나 거주 지역을 의미하며, 우리의 향토나 현지(現地)라는 개념에 가깝다. 요시모토 데츠로(吉本哲郎)가 제창한 지원학은 사람과 자연의 힘, 문화와 산업의 힘처럼 지역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살려 냄으로써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고, 지역만들기(地域づくり)의 한 방법으로 이해되고 있다. 요시모토 데츠로는 미나마타병으로 고통 받던 미나마타시가 주민 협동으로 그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원학이라는 개념을 제창하였다(立教大学ESD研究センター, 2010).

정구역을 기준으로 하거나, 문화적으로 공통의 정체성을 기준으로 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모든 연구를 통해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며, 지역의 미래 방향을 제시해주는 학문"(정정숙, 2014: 19)으로 개념화하기도 하였다.

기존의 개념화 사례를 보면,[3] 지역학이 대상으로 하는 지역은 하나의 행정구역이 될 수도 있고 공간적인 인식의 범위도 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학을 개념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점은 지역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리고 지역의 특성을 규정하는 요소나 분석대상을 무엇으로 설정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만난다. 더 폭넓게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전반을 대상으로 삼는다(유완, 1985)고 이해하기도 한다. 지역학은 '인간사회'를 분석대상으로 삼고 "특정한 지역에서 형성된 사회적 맥락을 찾아내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상두, 2021: 16). 본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지역학도 지역 및 지역과 관계하는 인간 및 인간 활동의 결과물을 다루고 그 맥락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둔다. 이때 지역에서 삶의 총체성이라는 문제와 만나고, 삶의 총체로서 문화는 지역학의 중요한 주제가 된다.

한편, 지역학과 관련하여 최근에 주목받는 것이 '로컬(local)', '로컬리티(loacality)' 또는 '로컬리즘(localism)'이다. 능동적이고 다양성을 지닌 공간으로서 '로컬'이 부각되고 지역의 정체성이나 재생·활성화와 관련하여 로컬리티와 로컬리즘에 대한 논의도 증가하고 있다(차철욱, 2009; 문재원, 2016; 정수희·이병민, 2023). 여기서 로컬은 자연, 사람, 역사성 등이 더해져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그 지역 고유색으로서의 '로컬리티'가 발현되는 공간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로컬리티와 로컬리즘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학술적 토대가 지역학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에는 인문학 기반의 지역학에서 더 나아가 로컬리티 인문학에 대한 논의도 활성화하고 있다(문재원, 2016).

또한 지역 단위 연구에서 더 나아가 지역학을 한국학과의 관련성에서 주목(오영교, 2019)하거나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학'에 대한 논의(박철, 2014; 양세진, 2014; 정용교, 2023)도 진행되고 있다. 후자의 연구 중 정용교는 "마을 단위 공동체성을 회복하여 마을성을 일상 삶의 영역으로 담아"(정용교, 2023: 4)내는 것을 마을학의 핵심으로 본다. 그리고 마을학의 역할을 주민 간 관계성·연대성 및 인문정신에 기반한 공동체성의 회복, 마을 단위 지역문화의 의미 및 그것의 현대적 복원 등에서 찾고자 하였다.

---

3) 지역학이라는 용어 대신에 중앙과 지방이라는 구조 하에 '지방학'을 사용해야 한다는 논의(이규태, 2007; 박원재, 2009; 조동일, 2014; 오영교, 2019)도 있다. 이 경우에는 대체로 국가학으로서 한국학과의 대비가 강조되지만, 지방이 서울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인식된다는 한계로 인한 모호성이 지적되기도 한다.

2. 지역학의 특성 및 지역문제 인식

가. 지역학의 특성

현재 이루어지는 지역학 관련 논의에서는 지역학이 융합적·학제적인 종합학문으로 정립되지 못한 채, 제 학문 분야가 공간으로서 지역을 연구하는 지역연구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학을 개념화할 때에는 그 지향이나 접근 방법 등에 따라서 학자들 사이에 다소 차이도 있지만, 지역학이 학제적·융합적·종합적 연구를 지향한다는 점에 대체로 동의하는 경향이다(유완, 1984; 김학훈, 2014; 정정숙, 2014; 고상두, 2021; 오영교, 2019).

지역학의 또 다른 특성은 실천지향적이라는 점이다. 이 특성에 대해 학자들은 대체로 동의하는데, 그중 우리나라에서 지역학이 실천지향적 특성을 보이는 배경에 관한 오영교(2019)의 지적은 유의미하다. 그는 지역학이 각 학문 분야를 지역이라는 공통의 장으로 묶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바라보며 그 해결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1990년대 후반에 지역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배경과 그 특징을 세 가지 관점에서 평가한 바 있다. 첫째,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실현되는 기반 만들기"로서 "지역을 살아있는 정치적·경제적·문화적 공동체로 기능하도록 되살리는 몸짓"이라는 것이다. 둘째, "중앙에서 독점하던 학술문화운동과 정책에 대한 일종의 반작용이며 지역민들의 인식전환과 역량 증진의 결과"라는 것이다. 셋째, 지역 간 경쟁에 따른 위기의식에서 고유의 "지역성·경쟁력 강화를 위한 움직임"이라는 것이다(오영교, 2019: 148-149).

지역학의 실천지향적 특성은 다시 지역의 사회구조와 문화체계에 대한 실증적이고 종합적인 접근과 실용적 성과 산출을 요구한다. 이로 인해 지역학은 지역사회의 문제와 그 역사성·전통성을 살피고 지역의 정체성 및 당면 문제 해결의 단서와 교훈을 찾는 데 관심을 둔다(오영교, 2019: 161). 이 지점에서 지역학은 정책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지역학이 지닌 실천지향적 특성 및 정책 연계성은 국내 지역학 연구의 주요 단체인 한국지역학포럼의 연구 주제들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한국지역학포럼은 2012년 창립하여 2024년 상반기까지 총 21회 포럼을 개최하였다. 논의 주제를 보면, 지역 정체성이나 지역 정신, 지역의 문제와 발전, 지역에 대한 기록과 기록 보전, 문화유산,

지역학 성과의 활용 등이 논의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역사와 문화를 주요 분야로 하지만, 관광이나 콘텐츠 영역 등으로까지 논의가 확장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1〉 (사)한국지역학포럼의 논의 주제

회차	날짜	주최	주제
1	2012.05.03.	인천학연구원, 서울학연구소	전국 지역학연구소의 과거와 현재, 미래
2	2012.12.27.	대구경북학회, 서울학연구소	도시정체성과 지역학 역량의 아젠다 모색
3	2013.06.05.	부산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서울학연구소	지역의 정신과 가치 발견
4	2013.11.01.	전주역사박물관, 서울학연구소	지역학과 지역문화콘텐츠
5	2014.07.03.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서울학연구소	지역학 자료의 기록화와 보존 · 활용
6	2014.12.12.~12.13.	서울학연구소, 서울연구원	성곽도시, 도시마을
7	2015.09.11.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 서울학연구소	각 지역의 민속 · 도시문화
8	2015.12.18.~12.19.	울산발전연구원, 서울학연구소	도시의 근대, 근대의 유산
9	2016.06.24.~06.25.	대구경북연구원, 대구경북학회, 서울학연구소	지역학과 시민참여
10	2016.10.07.~10.08.	제주발전연구원, 서울학연구소	지역학과 마을이야기
11	2017.06.23.~06.24.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서울학연구소	지역학 아카이브 구축 방법과 실제
12	2017.10.20.~10.21.	충북학연구소, 서울학연구소	지역학 연구기관의 운영방향
13	2018.01.10.~01.11.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 서울학연구소	산 · 강 그리고 지역문화
14	2018.05.24.~05.25.	프라임인문학진흥사업단 인문학중장기발전사업팀, 익산문화재단	지역문화와 교통
15	2018.11.16.~11.17.	부산발전연구원, 서울학연구소	지역발전과 지역학의 역할
16	2019.05.24.~05.25.	전주역사박물관, 부산연구원, 서울학연구소	지역정신과 지역학
17	2019.11.22.~11.23.	울산발전연구원, 서울학연구소	지역경관과 지역학
18	2022.06.10.~06.11.	(사)한국지역학포럼, 대전세종연구원	지역의 장소성과 호명 효과
19	2022.10.21.~10.22.	(사)한국지역학포럼, (재)익산문화관광재단,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지역 위기와 사람 그리고 동아시아지역학
20	2023.11.03.~11.04.	부산연구원, (사)한국지역학포럼, 부산광역시	세계유산과 지역학, 창조적 지역발전
21	2024.05.24.~05.25.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 지역동행플랫폼, 원광대학교 익산학연구소, (사)한국지역학포럼	콘텐츠투어리즘과 지역학

*자료: 한국지역학포럼 회차별 안내자료 정리.

나. 지역학의 지역문제 인식

현재 인문·사회과학 기반, 특히 인문학 기반의 지역학이 관심을 갖는 문제는 지역적 특수성 구명이고, 그것을 통해서 보편성을 구명하는 데까지 관심을 갖는다(고상두, 2021). 여기서 특수성의 구명이라는 문제는 지역의 '정체성', '지역다움'이라는 문제와 관련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등에 설치된 지역학연구센터에서 역사·문화 중심의 사업이 주를 이루는 것도 이러한 문제 인식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지역 특수성의 구명은 각 지역이 처한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화두다. 최근 지방소멸 위기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정책적 시도에서도 지역의 환경과 특수성을 구명하는 것은 중요하다. 각 지역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 스스로 문제 해결을 도모하며 필요한 것을 기획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협력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때 지역학적 인식과 성과는 그러한 환경과 분위기의 조성에 중요한 기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지역학 관계자 그룹 인터뷰 결과(제3장 제2절 참조)를 보면, 해당 지역의 도시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지방소멸, 저출산, 고령화, 지역경제 위축 및 이러한 문제와 결부된 인구 유출, 행정구역 통합 등이 이슈로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한 인구의 지역적·사회적 이동은 다시 원주민과 이주민의 갈등이나 이주민의 지역 소속감이라는 문제와 연결되고, '지역다움'의 변화 내지 상실과 관련됨으로써 위에서 언급한 지역의 특수성과 정체성이라는 문제와 다시 연결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로컬 개념에서 접근하는 경우에도 지역이 처한 중요한 문제로 인구 이동에 의한 지방소멸 위기 또는 인구 전출, 주민의 정주의식 변화 등에 주목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당사자성이 중요하고, 그 해결을 위해서 지역사회의 수많은 이해관계자를 적극 품어내며 그 속에서 공동체의 가치를 확보해야 한다(전영수, 2013: 63). 이때 당사자성에 기반하여 학술적 논의와 공론의 장을 마련하며 정책과 연계하는 역할을 지역학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다. 지역학과 인문정신문화 정책의 연계 의의

인문학법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이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사회적·문화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고 경제·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며, 국민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받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그리고 인문정신문화를 "인간과 인간

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로 정의된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무형의 문화적 산물"로 정의한다. 즉, 인문정신문화는 인간으로서 우리의 존재와 삶의 의미, 사회적·문화적 가치 등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다. 지역학은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이해라는 문제와 관련된다. 이처럼 인문정신문화 정책이 지역 및 지역학에 주목하는 이유는 인문가치와 인문정신문화에 관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실현되는 공간이자 그 주체인 주민이 생활하는 기반이 지역이고, 그 지역의 의미와 가치, 주민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며 지역의 특성과 정체성을 밝혀주는 학술적 토대가 지역학이기 때문이다.

지역문제 해결에서는 본인 입장에서 문제를 인식 및 해결하는 기제인 당사자성이 중요하다. 주인의식 내지 주인다움으로 표현될 수도 있는 당사자성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일수록 비례해 부여되므로 지역복원에서도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지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전영수, 2023: 41). 이때 당사자성이 녹아든 문제 해결과 소통에서 지역학 및 지역의 인문정신문화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다. 지역학 및 지역의 인문정신문화가 주인의식 내지 주인다움을 강화하며 문제에 대한 공감과 해결 의지, 지역 활성화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기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까지 지역의 위기에 대응한 정책사업이 결과를 만드는 데 시간과 자원의 대부분을 사용하였던 데 비해서 그 문제나 해법을 면밀하게 살피지 못했다는 지적(전영수, 2013)을 유의미하게 새길 필요가 있다. 이때 지역의 문제를 세밀하게 살피는 주체는 지역 주민과 지역 그 자체라는 점에서 지역을 주체적으로 연구하는 지역학의 의의를 찾을 수 있고, 지역에서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추진에서도 이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3. 정책적 측면의 지역학 동향

우리나라에서 국내 대상의 지역학은 1980년대부터 활동이 이루어져 왔다(유완, 1984; 김학훈, 2014). 특히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1990년대 이후로 증가해 왔고, 그와 같은 흐름에는 정책적인 관심 증가가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정정숙, 2014; 노영순·이상열, 2018; 정삼철, 2019; 오영교, 2019). 여기에서도 지역학 동향을 정책적인 측면과 관련하여 제도 및 조직을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가. 지역학 진흥 조례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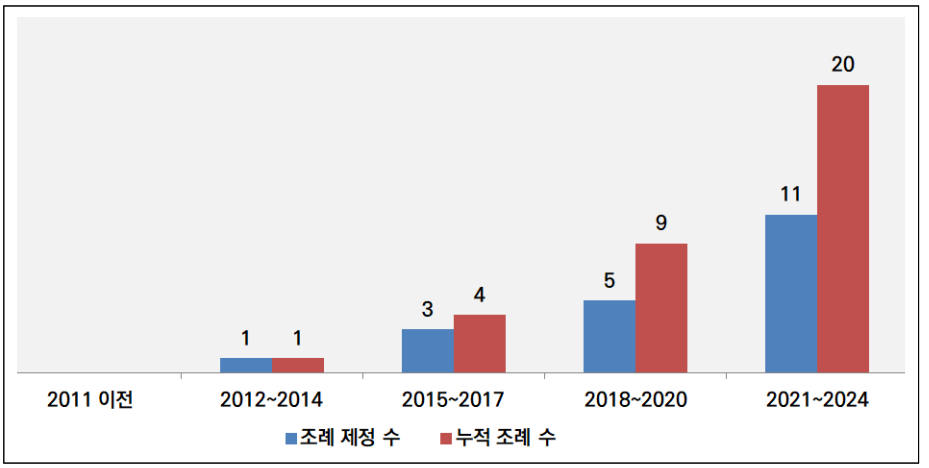
지방자치제 시행 후,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정체성 구명, 브랜드 개발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한 정책적 관심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학술적 기반이 '지역학'이다. 그에 따라 자기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지역학 진흥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였다.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elis.go.kr)와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 검색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지역학 진흥 조례는 2024년 7월 말 기준으로 총 20개(광역 7, 기초 13)에 달하는데, 최근 3년간 11개 조례가 제정되어 그 수가 빠르게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학 진흥 조례 중 2개는 지역학연구센터의 설립과 지원에 관한 조례(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이고, 1개는 '지역학'이나 '지명+학'이 아닌 '향토학'(충청북도 충주시)을 제명에 사용하였다.

〈표 2-2〉 지역학 진흥 조례 제정 현황(2024.7.31. 현재)

연번	지역	조례명	제정시기
1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부산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7.09.10.
2	대전광역시	대전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06.30.
3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2019.01.30.
4	경기도	경기도 지역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04.21.
5		안산시 안산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11.10.
6		여주시 여주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04.13.
7		용인시 용인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5.11.06.
8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2017.06.16.
9		철원군 철원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06.28.
10	충청북도	충주시 향토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03.06.
11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남학 진흥에 관한 조례	2021.08.17.
12		아산시 아산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04.15.
13		천안시 천안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8.12.11.
14	전라북도	익산시 정책 및 익산학 연구에 관한 지원 조례	2023.11.15.
15		전주시 전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2021.06.09.
16	전라남도	나주시 나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2020.01.08.
17		담양군 담양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2022.01.07.
18		여수시 여수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2022.12.01.
19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2020.09.17.
2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2013.03.20.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elis.go.kr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s://www.elis.go.kr(2024.7.31. 최종 검색).

[그림 2-1] 지역학 진흥 조례 제정 추이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elis.go.kr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s://www.elis.go.kr(2024.7.31. 최종 검색)

20개의 조례를 보면([부록 1] 참조), 지역학 관련 조례는 지역학을 진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 확립, 주민의 자긍심·애향심 고취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주요 제정 목적으로 한다. 이 외에 지역 공동체문화·공동체의 활성화(강원특별자치도, 안산시, 전주시, 나주시, 담양군, 여수시, 양산시), 지역사회 연대의식 또는 정주의식 제고(안산시, 아산시), 지역문화 진흥(강원특별자치도)을 제정 목적에 포함하기도 하고, 2020년 이후에 제정된 조례는 지역학 진흥을 통한 지역 발전 촉진 또는 지역 발전의 미래상 제시를 제정 목적에 포함하는 경향을 보인다. 창의 인재 양성을 제정 목적에 포함하는 사례(충주시)도 있다.

또한 각 조례의 지역학 정의를 보면, 지역학을 주민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하는 학문으로 정의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학문 분야에 있어서는 역사와 문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가 결합하여 해당 지역을 종합적·통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의하는 경향이다. 지역의 문화·전통의 가치 재확인 및 재해석(안산시, 용인시, 철원군, 아산시, 천안시), 주민 삶의 방향 구현(강원특별자치도)에 이바지하는 학문이라는 정의를 포함하기도 한다. 이 밖에 연구 분야에 '인물'을 명시하여 정의하는 사례(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익산시, 전주시, 담양군)도 있다.

대부분의 지역학 관련 조례는 지역학 진흥사업으로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구축, 연구인력 양성, 관련 연구단체 간 교류 및 협력망 구축, 연구 성과의 활용·확산 또는 지역학

강좌·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포함한다. 지역에 관한 기록화 및 지역 관련 기록보존 사업(대전광역시, 경기도, 안산시, 전주시)이나 콘텐츠 개발(충청남도, 아산시)을 포함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한편, 이와 같은 진흥사업을 위한 조직이나 기구의 설치와 관련하여 대부분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학진흥위원회' 또는 '○○학운영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한다. '○○학연구센터'의 설치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강원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도 연구센터와 함께 연구센터운영위원회를 도지사 소속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연구센터로 규정한 것은 아니나, 대전광역시 조례에서는 대전학연구전문기관 설치·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 조례에서는 지역학 진흥사업에 필요한 경험과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 해당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조례에서는 '문화 관련 법인·단체 등'으로 규정하여 그 범위를 좀 더 문화 관련 분야로 명확히 하였다.

이 밖에도 지역학 진흥을 직접적인 제정 목적으로 한 조례는 아니지만,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도 지역학을 명시한 사례가 확인된다. 그 예로 '나주학 연구소 설립'을 행정사무로 명시한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지역학 강좌 개설을 명시한 「화성시사 편찬 및 보급 조례」, "시장은 역사도시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학 연구 등을 수행하는 시민이나 기관·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한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 조례」, 대표도서관의 업무로 '전북학 관련 자료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을 명시한 「전북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직업훈련, 문화예술, 인문·지역학, 인성교육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을 기능으로 명시한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지역학 관련 자료 조사·발굴·연구'를 문화예술과의 행정사무로 명시한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을 들 수 있다.

나. 지역학 전담조직 운영 현황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학연구센터나 지역학연구소, 또는 전담조직은 대체로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에 설치되어 있어 별도 조례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강원특별자치도나 제주특별자치도처럼 별도의 지역학연구센터 설립·운영 조례를 제정하거나 대전광역시처럼 지역학 연구전문기관 설치·운영을 조문으로 규정한 곳도 있다. 그 외에 지방자치

단체들에서는 관내 소재 대학의 지역학 관련 연구소의 운영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역학 연구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2024년 5월말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에는 9개 연구원에 10개의 연구센터 또는 연구소가 설치되어 있다. 그중 강원학연구센터는 본래 강원연구원에 설치되었다가 강원문화재연구소로 이관(2024.1.15.)되었다. 강원문화재연구소는 강원도의 조례 개정에 따라 2024년 7월에 (재)강원역사·문화연구원으로 개편하며 '강원학 연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업'을 고유 사업에 포함하였다. 이 사례는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의 백제충청학 사례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대구경북학연구소는 기존 대구경북연구원이 대구정책연구원과 경북연구원으로 분리됨에 따라 경북연구원으로 이관 설치되었다. 대전학연구센터와 세종지역학센터는 2021년에 대전세종연구원에 대전세종지역학연구센터로 개소하였다가 2024년에 분리되었는데,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울산역사연구소는 울산연구원의 울산학연구센터가 폐지되고 그 기능이 울산역사편찬위원회에 이관되었다가 이 위원회가 개편(2024.3.2.)한 것이다. 울산역사연구소는 강원학연구센터나 백제충청학연구부의 성격과 유사하다.

최근에 울산연구원의 울산역사연구소, 강원역사·문화연구원의 강원학연구센터처럼 기존 기능이 좀 더 역사·문화 중심으로 개편하는 사례가 확인된다. 이러한 사례에서는 해당 조직의 기능이 지역사 자료의 조사·수집과 아카이브 구축, 시군지(市郡誌) 편찬, 이러한 성과들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백제충청학연구부나 경기문화재단 소속 경기역사문화유산원의 경기학센터가 초기에 경기도사 등의 편찬 업무를 주로 담당했던 것과 유사하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24년 7월말 기준 8개 출연연구원(전주, 창원, 고양, 용인, 화성, 수원, 성남, 청주)이 있고, 그중 3개 연구원(창원시정연구원, 수원시정연구원, 화성시연구원)에 지역학연구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고양시정연구원이 2021년에 고양학센터를 설치하였다가 2023년에 폐지하였으나, 2023년 설립된 화성시연구원에 화성학연구센터가 설치되면서 그 수는 3개로 유지되고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학연구센터의 업무와 성격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와 유사하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022.4.26.)으로 주민 수 50만 이상(대도시) 기초지방자치단체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의 연구원 설립 및 지역학연구센터 설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3〉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내 지역학연구 전담조직 현황(2024.7.31. 현재)

구분	명칭	설치시기	인력	특징	주요 기능 및 사업
광역	부산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03	1인	•정책인문학 개념 하에 업무 추진(부산시정 고려) •근현대 중심 조사 연구	•지역 인문콘텐츠 발굴 •도서 발간(교양총서, 시민총서, 연구총서) 및 발간물 관련 인문강좌(도서관 연계) •시민대상 강연(북콘서트 등) 및 현장답사 운영 •지역학포럼 중심의 네트워크 구축
	대전세종연구원 대전학연구센터	2021	4인	•정주의식(정체성)에 주목 •대전세종지역학연구센터로 설치(2021.2.), 대전학연구센터로 개편(2024.2)	•대전학 정립 연구 및 연구기반 확충 •대전학 네트워크 구축, 지역학 교류 •대전학 연구자 지원 및 인력 양성 •대전학 아카이브 구축, •대전학 학술행사 운영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지역학센터	2024	1인	•대전세종지역학연구센터에서 분리 설치(2024.2.)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미래문화유산대학원 MOU 체결, 세종학 다모임 결성	•세종지역학 정립 · 비전 수립 •세종지역학 인식 확산 •세종시 인물이야기 발굴 •연구총서 발간 및 북콘서트 •세종학 포럼 및 세미나(로컬크리에이터, 문화기획자 중심, 예정)
	울산연구원 울산역사연구소	2023	10인	•울산시사편찬위원회(울산학연구센터 기능 이관)를 확대 개편(2023.3.)	•시사 편찬 및 연구사업 •울산생활문화 자료조사 연구 및 지원 •지명정보 표준화
	강원역사 · 문화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	2018	3인	•2002년 설치, 2010년 폐지 후 2018년 강원연구원에 재설치되었다가 2024년에 강원역사 · 문화연구원에 이관 설치(2024.1.)	•강원학 연구 및 아카이빙 •강원학 네트워크 구축 •강원학 진흥 성과 공유 사업 •강원학아카데미, 강원학대회,, 학술세미나 및 열린 강원학(대중화 사업), 강원학 TV 운영
	충북연구원 충북학연구소	1999	1인	•특별연구조직으로 설치 •충북문화재단과 협력 확대	•지역 정체성 탐구, 인문학 · 건축학 등 분야 역사 중심 지역 연구 •자료 조사, 아키이브 구축 및 유지보수 •충북학 학술지 발간(연 1회, 논문 10편) •학술보고서 발간, 학술행사(포럼) 운영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백제충청학연구부	2019	13인	•지역사 중심의 사업 운영	•백제사 연구 · 활용 -백제문화사대계 편찬, 백제문화콘텐츠 개발 등 •지역사 조사 고증 및 편찬 -충청남도지, 시군지, 읍면지 편찬, 지역사 교재 개발, 기억 구술 채록 •근대 독립운동사 재조명 •학술지(충청학과 충청문화) 발간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2019	4인	•시군 지역학연구소 지원 •전북학 주제 교양강좌 개설(도내 4년제 5개 대학)	•학술지(전북학연구) 발간, 연구총서 및 보고 발간 •전북학 연구인력 양성 및 우수 학위논문 지원(연간 석사 1, 박사1)

구분	명칭	설치시기	인력	특징	주요 기능 및 사업
					•전북학네트워크 구축, 시군 지역학 지원 •전북학 학술대회 개최 및 지원 •전북학 DB 구축, 콘텐츠 개발 및 활용 •찾아가는 전북학, 전북학 주간 운영 •관내 5개 대학에 전북학 교양강좌 개설 지원(전북도 지원)
	경북연구원 대구경북학연구소	2005	4인	•대구경북연구원의 경북연구원과 대구정책연구원 분리로 경북연구원에 이관 설치 •대구경북학회와 공동 사업 추진	•지역 정신문화 · 유산 · 사상 연구 •대구경북학회와 지역 내 11개 대학에 지역학강좌(교양과목) 운영(대구시, 경북도 지원) •대구경북연구 학술지 발간(연 1회, KCI 등재지) •지역학 포럼 및 세미나 개최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2011	15인	•부설기구로 설치. 지역학 연구센터 중 최대 규모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및 제주문화원 등 유관기관 · 단체 MOU, 교육청 협업 •유관기관 관계자의 비상임 연구위원 참여,	•제주어, 민속, 신화 등 조사 연구 •고문헌 조사 · 해제 · 편찬 •지역학 대중화 사업(도민대학 프로그램) •제주학 아카이브 관리 운영 •제주학총서, 제주역사자료총서, 연구보고서 발간 •학술대회, 세미나 운영 •교육청의 지역교재 개발 지원
기초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2014	2인	•수원문화원 수원학연구소 기능 이관 •부설기구로 설치	•수원학, 정조학 등 역사 정신문화 연구 및 편찬 •수원학연구 발간 및 학술연구 지원 •학술행사 운영, 수원학 강의 개설 · 지원
	화성시연구원 화성학센터	2023	2인	•가장 최근에 설치	•화성학 자료 발굴 및 중점 연구 •화성학 연구자료 발간 •학술행사 기획 · 운영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창원시정연구원 창원학연구센터	2020	1인	•사회통합 정책연구 연계 운영	•창원학 아카이브 및 편찬사업 •창원학총서(교양, 연구) 발간 •정기세미나, 포럼 등 행사 운영

*주: 인력은 위촉직원 등 계약직 인력을 포함한 결과임.
*자료: 각 연구원 누리집의 조직 및 업무 소개 정보, 담당자 인터뷰 결과 정리.

한편, 이 밖에도 경남연구원에도 경남학연구센터가 설치되었다가 폐지되었다. 경남학과 관련해서는 국립창원대학교의 경남학연구센터[4]가 있으나, 이 센터에서는 주로 역사 기반의 학술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2023년 9월에 광주연구원과 전남연구원으로 분리)에도 남도학연구센터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2019년 4월에 (재)한국학호

4) 국립창원대학교 경남학연구센터 누리집 https://www.changwon.ac.kr/cgs/main.do(2024.6.30. 최종 검색).

남진흥원이 개원함에 따른 기능 중복 문제 등으로 인해 폐지되었다. 이 외에 광주·전남 지역의 경우,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이 학술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 연구원은 1963년 7월에 호남문화연구소로 설립되어 수차례 변화를 겪은 후, 2008년에 호남학연구원으로 개편하였다.[5] 이러한 호남학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전남대학교는 2019년에 일반대학원에 호남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호남학과를 개설하여 이듬해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 학과에서는 '감성인문학을 통한 지역학의 쇄신', '로컬리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모색하고 있다.

[그림 2-2] 전남대학교 대학원 호남학과 운영 개념

*출처: 호남학과 누리집 https://honamstudy.jnu.ac.kr/honamstudy/13540/subview.do(2024.7.30. 최종 검색)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학연구센터나 연구소 관계자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겸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제3장 제2절 참조). 이를 통해서 파악한 해당 조직의 업무를 보면, 역사와 문화 기반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분야를 추가하면서 지역학 연구 및 학술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지역학 학술지 발간, 학술행사 및 강좌 운영, 대중화 사업 추진 등이 공통적이다. 사업운영 방향에서는 위의 지역학 진흥 조례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학 협력망 구축을 주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관내 대학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학 강좌나 교양과목 개설은 전북학연구센터, 대구경북학연구소에서 이루어지고,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지원사업을 추진 내지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학연구센터로서 관내 지역학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역할이나 사업은 미흡한 상황이다. 그 이유는 각 연구센터나 연구소가 처한 상황, 즉 인력과 예산,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에

5)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누리집 https://www.changwon.ac.kr/cgs/main.do(2024.6.30. 최종 검색).

차이가 있는 상황과 관련된다. 이로 인해 수행하는 특화 사업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특히 지역학 아카이브 또는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은 상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이 많은 제주학연구센터에 한정되고, 이 외에 전북학연구센터처럼 학술연구 성과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반면, 각 지역학연구센터나 연구소에서 인문정신문화 사업과 연계한 사업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주요 사업들이 역사와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조사 연구 외에 강좌 등의 대중화 사업 형태로도 이루어지고 있어 현행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인문프로그램 운영과도 유사한 성격을 지님을 볼 수 있다.

다. 지방문화원 지역학연구소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이 법의 제8조제1항에서는 지방문화원의 사업을 8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중 '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과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은 지역의 문화 정체성, 이에 기반이 되는 지역문화 및 그 자료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지역학과 만난다. 그리고 이 법 제8조의2에서는 지방문화원이 시행한 지역문화사업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한 지방문화원의 사업

제8조(지방문화원의 사업) ①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제8조의2(지역문화사업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지방문화원은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의 자료에 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하여 수립된 「지방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2022-2026)」(문화체육관광부, 2021b)에서는 '지역 가치의 창조와 공유'를 위한 추진 과제의 하나로 지방문화원에 '지역학 거점 역할 부여'를 계획하였다. 이 과제는 '지역문

화진흥을 위한 지역토론회'(2019.7~9.)에서 지역의 정체성과 지역문화 발굴·창조, 지역의 고유성 발굴 등을 위해 지역학 관련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문화원 관련 표준조례안에 지역학 관련 사업에 대한 위임·위탁 근거를 포함하는 과제를 계획하였다. 이 외에 소실 위기의 지역 삶의 모습 기록화와 아카이빙 등도 지역학과 관련 있는 과제다. 이와 같은 계획을 반영하여 한국문화원연합회는 각 지방문화원 부설로 '○○학연구소'를 설치하거나 기존 향토문화연구소 내지 향토사연구소의 지역학연구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에 따라 향후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역학연구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지방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2022-2026)」의 지역학 관련 과제

□ (추진과제) 2. 지역학 거점 역할 부여
- 지역학 연구 지원 강화(지자체): 지방문화원 내 지역학연구소 설립 등 지리적·역사적 맥락에 근거한 동일 문화권 및 지역 특성을 연구하는 지역학 연구 지원 강화
- 권역별 지역학 연구 및 네트워크 형성 지원(광역지자체): 시·도 문화원연합회 또는 권역별 대표 문화원 지정을 통해, 행정경계를 넘은 권역별 지역학 연구 및 관련 네트워크 형성 지원

□ (추진과제) 7.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체계화
- 지방문화원 지원·육성 방향을 고려하여 재정·인력·사업·시설 지원 등 근거규정을 포함한 표준조례안 마련

※ 표준조례안 주요내용(안)
- 지방문화원의 고유원형보존 전담기관 지정 근거
- 지역학 및 지역생활사 등 특성화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위임·위탁 근거
- 지방문화원 필수인력 인건비 및 시설임차비 등 예산지원사항의 명문화 등

한편, 한국문화원연합회는 「지방문화원 지역학거점 육성에 관한 연구」(한국문화원연합회, 2021)를 추진하고 지방문화원의 지역학 거점화와 지역학 연구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관을 개정(2022.7.)하여 부설 '향토문화연구소'를 '한국지역학연구소'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부설 연구소 규정도 「연합회 부설 한국지역학연구소 설치규정」으로 개정하였다. 다만, 연구소의 사업에 대한 조문은 기존처럼 "1. 지역 향토문화의 발전을 위한 향토사 조사·연구 및 사료의 발굴수집·보존", "2. 연합회 및 지방문화원에 대한 향토문화 정보·자료 등의 제공", "3. 향토문화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연합회, 기타 관련기관 등에서 위탁하는 사업", "4. 그 밖에 제2조의 목적 관련사업 및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개정 추진 중이다. 이와 같은 변화에 발맞춰 2023년에는 지역학 관련 내용을 포함한 「지방문화원 진흥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였고, 2024년부터 '지역학 연구 활성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표 2-4〉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역학 연구 활성화 사업' 단계별 계획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연도	'24년~'25년(2년)	'26년~'27년(2년)	'28년~
목표	지역학 연구 기반 조성	지역학 연구 기반 강화	지역학 연구 활성화
내용	전국 네트워크 구축 전국 학술회의 개최	네트워크/학술회의(계속) 공통사업 시범추진	네트워크/학술회의(계속) 공통사업 전국확대

*출처: 한국문화원연합회 누리집 https://www.kccf.or.kr/cntn/detail.do?selMenuId=MK0040&bbsId=N000000000000000000034&nttId=B20240201020250517380 6(2024.6.30. 최종 검색).

한편, 「2022년 지방문화원 실태조사결과보고서」(한국문화원연합회, 2022) 기준으로 지방문화원의 '○○학연구소'는 23개이다. 본 연구에서 파악한 결과(2024년 2월말 기준)를 포함하면 총 34개로 나타났는데, 그중에는 조직도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지방문화원 지역학연구소 현황을 보면, 경기도, 강원도, 전라남도에서 전환이 활발하거나 활성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그 활동에서는 기존 향토문화연구소와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수원문화원의 경우, 2005년 기존 수원문화연구소를 수원학연구소로 개편했으나 수원시정연구원에 수원학연구센터가 설치됨에 따라 명칭을 수원향토문화연구소로 변경하였고, 현재는 수원지역문화연구소라는 명칭으로 부설하고 있다.

〈표 2-5〉 지방문화원의 지역학연구소 현황

연번	지역	문화원	연구소명	설치시기	비고
1	서울	동대문문화원	동대문구 지역학연구소	2021	2022년 지방문화원 실태조사 결과
2	서울	노원문화원	노원지역학연구소		2022년 지방문화원 실태조사 결과
3	서울	도봉문화원	도봉학연구소		누리집 참조
4	인천	연수문화원	연수학연구소		2022년 지방문화원 실태조사 결과 현재는 홈페이지 조직도에서 확인할 수 없음
5	대전	대전동구문화원			2022년 지방문화원 실태조사 결과
6	경기	용인문화원	용인학연구소	1992	2022년 지방문화원 실태조사 결과
7	경기	김포문화원	김포학연구소	2019	2022년 지방문화원 실태조사 결과
8	경기	평택문화원	평택학연구소	2020	2022년 지방문화원 실태조사 결과
9	경기	광주문화원	광주학연구소	2016	2002 광주향토문화연구소 발족 2016 연구소 명칭 변경(광주향토문화연구소 → 광주학연구소)
10	경기	이천문화원	이천학연구소		2022년 지방문화원 실태조사 결과 전담 연구원 1인
11	경기	성남문화원	성남학연구소	2014	2022년 지방문화원 실태조사 결과
12	경기	동두천문화원	동두천학연구소		2022년 지방문화원 실태조사 결과

연번	지역	문화원	연구소명	설치시기	비고
13	경기	부천문화원	부천학연구소	2023	2023년 1월 '부천향토문화연구소'에서 부천의 역사, 지명, 문화, 전통 등의 전 분야를 연구하는 '부천학'을 선도하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이름을 바꿈
14	경기	고양문화원	고양학연구소	2020	2022년 지방문화원 실태조사 결과
15	경기	포천문화원	포천학연구소	2019	2022년 지방문화원 실태조사 결과 포천향토사연구소, 포천학연구소로 명칭 변경
16	경기	의왕문화원			2022년 지방문화원 실태조사 결과
17	강원	홍천문화원	홍천학연구소	2022	2022년 지방문화원 실태조사 결과
18	강원	춘천문화원	춘천학연구소	2019	현장조사 전담 연구사 4인 등 인력 11인
19	강원	철원문화원	철원학연구소	2005	2022년 지방문화원 실태조사 결과
20	강원	평창문화원	평창학연구소	(2014) 2022	전통문화보존회를 2014.7.31. 평창문화원 향토사연구소로 명칭 및 기능을 변경하여 운영하다가 2022.7.22. 평창학연구소로 명칭 변경함
21	강원	원주문화원	원주학연구소	2023	2022년 지방문화원 실태조사 결과
22	충북	옥천문화원	옥천학연구소	2020	누리집 참조
23	충북	충주문화원	충주학연구소	2021	2022년 지방문화원 실태조사 결과 및 현장조사 전담 학예연구사 2인
24	경북	의성문화원	의성학연구소	2022	의성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명칭이 '의성학연구소'로 변경
25	경남	함양문화원	함양학연구소	(2019) 2023	2023년 함양문화원 향토사연구소에서 함양학연구소로 명칭변경
26	경남	함안문화원	-		2022년 지방문화원 실태조사 결과
27	전북	무주문화원	무주학연구소	2008	2008년 제1차 이사회(2008.3.19.)에서 승인되어 산하 연구소로 처음 설립
28	전남	광양문화원	광양학연구소	2016	누리집 참조
29	전남	영광문화원			2022년 지방문화원 실태조사 결과
30	전남	담양문화원	담양학연구소	2024	2022년 지방문화원 실태조사 결과
31	전남	나주문화원	나주학연구소		2022년 지방문화원 실태조사 결과
32	전남	곡성문화원	심청 · 곡성학연구소		2022년 지방문화원 실태조사 결과
33	전남	목포문화원	목포학연구소	2022	누리집 참조
34	전남	보성문화원			2022년 지방문화원 실태조사 결과

*자료: 한국문화원연합회(2022), 2022년 지방문화원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및 각 지방문화원 누리집 참조 정리.

지방문화원 부설 지역학연구소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각 지방문화원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지역학 진흥사업 추진에는 편차가 큰 상황이다. 여기에는 지역학 진흥사업을 추진할 전담인력과 예산 확보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 특히 지역학연구소 전담인력을 확보한 사례는 춘천문화원 춘천학연구소, 충주문화원 충주학연구소, 이천문화원 이

천학연구소 등 소수에 불과하다. 그중 춘천학연구소는 고유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출연사업화하고 학예연구사(4명) 등 전담인력(11명)을 확보한 경우로서 매우 특징적이다.

이처럼 전담인력을 확보한 곳에서는 지역학 자료 조사와 수집, 성과물의 편찬뿐만 아니라 지역학 자료 아카이빙이 주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 예로, 춘천학연구소는 지역학 자료를 아카이빙하고 지역의 지식자원플랫폼으로서 춘천디지털기록관[6]을 구축하여 사진, 일반문서, 박물류, 고신문, 도서간행물, 조사보고서, 영상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를 지역 자료 수집 플랫폼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이천학연구소에서도 이천문화원아카이브[7]를 구축하였고, 충주학연구소에서도 수집 자료를 온라인에서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 중이다.

또한 지방문화원의 지역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지역 아키비스트(Archivist)로서 시민기록가나 구술채록가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양성된 인력을 지역의 기억과 역사를 기록하고 수집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에 의해 수집된 자료들을 발간 및 아카이빙하는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지역 아키비스트 양성은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과 연계되어 추진되기도 하지만, 그들의 전문성 및 지속 가능성의 제고라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라.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단[8]

2024년 5월 17일 기준 (사)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에 참여하는 122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산하 문화재단 또는 문화관광재단 중 홈페이지 미구축된 2개(전라남도 화순군문화관광재단, 강원도 삼척관광문화재단)를 제외한 120개 문화재단의 조직도상에서는 지역학이나 인문정책 관련 부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경상북도의 경우, 안동시의 한국정신문화재단에 인문정책팀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팀의 주된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는 〈21세기 인문가치포럼〉 기획과 운영이다. 칠곡군의 칠곡문화관광재단에도 인문문화도시팀이 설치되어 인문도시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처럼 명칭에 정신문화를 포함하거나 경상남도 통영시의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처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기관명을 사용하는 곳도 있으나, 조직 및 업무에서 지역학 및 인문

6) 춘천디지털기록관 http://cc-archives.or.kr/index.php(2024.8.10. 최종 검색).
7) 이천문화원아카이브 http://2000archive.or.kr/archive_index/main.php(2024.8.10. 최종 검색).
8) (사)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누리집 http://www.ancf.or.kr(2024.5.17. 최종 검색) 및 각 문화재단 또는 문화관광재단 누리집 참조 정리.

정신문화 정책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부서나 사업은 없다.

이 밖에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경우에 일부 관련 있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한다. 충청북도 청주시의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은 직지의 고장이라는 특성을 살려 '기록유산 보전, 기록활동 활성화, 창의가치 창출'을 업무로 하는 기록문화팀을 설치하고 있다. 전라북도 고창군의 고창문화재단은 치유특화팀을 설치하여 사회문제 해결적 접근을 하고 있다. 개별 단위사업에서는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문화관광재단의 밀양아리랑연구팀이나 남해군 남해관광문화재단의 바래길문화팀처럼 지역 정체성과 역사·문화 기반의 사업팀이 확인되고 있어, 다른 재단들에서도 역사·문화를 중심으로 지역학과 연계성이 높은 사업들이 운영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산하 17개 문화재단 또는 문화관광재단에서도 상황은 유사하나, 경기문화재단은 유일하게 지역학 관련 조직과 업무를 구체화하고 있다. 경기문화재단의 경우, 소속 경기역사·문화유산원에 지역학 전담을 위한 경기학센터를 설치하고 있다. 경기학센터는 경기도도사편찬위원회의 업무와 인력을 경기문화재단 전통문화실로 이관(2003.1)했다가 그 후 경기학연구실과 경기학연구센터로의 개편 과정을 거쳐 2020년부터 현재와 같이 개편되었다. 경기학센터로의 개편은 기존 연구센터가 조사·연구 및 편찬 사업에 중점을 두던 것을 관내 31개 시군 지역학의 중심으로서 네트워크 강화 및 공동협력사업 추진을 모색하려는 운영 방향 전환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경기역사·문화유산원 조사연구팀 내에 설치되어 있고, 전담인력도 1인에 불과한 등 그 역할과 기능이 대폭 축소되어 있다. 경기학연구센터 당시 업무와 기능의 대부분은 조사연구팀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전남문화재단은 문화재연구소를 설치하여 마한문화권 관련 문화재 조사와 학술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에서 나타나는 문화재와의 연계라는 경향과도 일정정도 관련된다.

제2절 인문정신문화 정책 동향

1. 정책 추진 배경과 제도화

가. 정책 추진 배경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은 '문화융성'을 4대 국정기조의 하나로 설정한 박근혜정부에서 국정과제 '113.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추진함에 따라서 본격화하였다. 이 국정과제에서는 "인문·정신문화 관련 다양한 기관의 연계를 통해 한국의 정신적 가치 진흥을 위한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 과제로 "1. 도서관·박물관 등 문화시설 등과 연계, 인문학 진흥", "2. 한국문화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보급 등 체계화", "3. 문화정체성 정립을 위한 정신문화 진흥 기반 구축"을 계획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3).

〈표 2-6〉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113.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국정과제	113. 인문·정신문화의 진흥
과제개요	인문·정신문화 관련 다양한 기관의 연계를 통해 한국의 정신적 가치 진흥을 위한 종합지원체계 구축
추진과제	1. 도서관·박물관 등 문화시설 등과 연계, 인문학 진흥 •국공립 도서관·박물관을 인문학 부흥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인문학 관련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 •서원, 향교 등 전통문화유산과 연계한 문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2. 한국문화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보급 등 체계화 •국가수준의 한국문화 종합정보 서비스 '한민족 문화아카이브' 구축 •재외 한국문화원, 한국교육원, 세종학당, 재외공관과의 협업을 통해 해외 한국문화 보급 활성화
	3. 문화정체성 정립을 위한 정신문화 진흥 기반 구축 •'정신문화포럼' 정례 운영 및 지역별 고유 정신문화 발굴 •관련부처 간 '한국학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3),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당시 한국사회는 물질적 풍족에 비해 물질주의가 팽배하고 국민의 행복감과 사회관계망의 질은 저하되었다고 평가되었다. 또한 OECD 1위 수준 자살률이 지속되면서 인간

존엄 및 행복한 삶의 가치 공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신과 물질의 조화 필요성이 정책적으로 부각되며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이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었다(이상열, 2013; 성해영·조주연·박찬욱, 2016).

박근혜정부 국정과제로 시작된 인문정신문화 정책은 2013년 9월 9일에 '문화융성으로 여는 국민행복 : 인문정신문화 진흥' 토론회 개최와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그 이듬해 8월에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인문정신, 문화융성의 길을 열다 -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7대 중점과제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2014)를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교육 및 학술지원 강화'와 '인문정신의 사회문화적 확산'이라는 정책방향 하에 7대 중점과제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양 부처 합동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하도록 계획하였는데, 2016년에 인문학법이 제정되면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다.

〈표 2-7〉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7대 중점과제'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과제

구분	내용	비고
비전	인문정신, 문화융성의 길을 열다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	교육 및 학술지원 강화	
	1. 초·중등 인성교육 실현을 위한 인문정신 함양 교육 강화 •상상력과 창의성 발현을 위한 학생 체험활동 강화 •조화로운 인성 함양을 위한 예술·체육활동 활성화 •교원의 인문교육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교육부·문체부 합동 교육부·문체부 합동 교육부·문체부 합동
	인문정신의 사회문화적 확산	
	4. 지역 기반을 통한 생활 속 인문정신문화 실현 •지역·전통문화 속 한국 대표 인문정신문화 자산 발굴·활용 •지역 고유 인문정신문화 체험 기회 확대 •전국문화시설을 중심으로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 확산	
	5. 인문정신문화와 콘텐츠의 융·복합 확대 •'예술로 인문정신문화 보기' 전시·공연 확대 •인문정신문화를 담은 영화·만화 등 콘텐츠 창작 지원 •방송·온라인·모바일 등 매체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	 문체부·교육부 합동
	6. 대상별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의 다양화 •은퇴자, 일반인이 참여하는 '인문나눔' 프로그램 •사회문화적 소외계층·지역 대상 '인문치유' 프로그램 •청소년·가족 맞춤형 '인문소통' 프로그램 •사색과 성찰의 기반인 '책 읽는 사람·사회 만들기'	 문체부·교육부 합동
	7. 인문정신문화 분야의 국제교류 활성화 •다양한 국제 인문학 관련 포럼을 통해 세계 인문정신 주도 •한국 인문정신문화의 세계화 •다문화시대 쌍방향 인문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교육부·문체부 합동 문체부·교육부 합동

*자료: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2014), 「인문정신, 문화융성의 길을 열다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7대 중점과제-」

이 계획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인문정신의 사회문화적 확산'을 중점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지역 기반을 통한 생활 속 인문정신문화 실현', '인문정신문화와 콘텐츠의 융·복합 확대', '생애주기별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의 다양화', '인문정신문화 분야의 국제교류 활성화' 등 4개 중점과제가 설정되었다. 이를 국정과제와 연계해서 보면, 지역의 인문정신문화 자산 발굴 및 체험,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한 인문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한국 인문정신문화의 세계화 등이 상호 관련되고, 이러한 과제들의 성격은 지역학의 내용과도 대체로 부합한다.

나. 제도화 및 관련 입법 추진 동향

위와 같은 배경에서 시작된 인문정신문화 정책은 2016년 2월 3일에 인문학법이 제정(법률 제13940호)되고 같은 해 8월 4일에 시행됨으로써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법에서는 인문을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로, 인문정신문화를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무형의 문화적 산물"로 정의하였다. 이 법은 2018년 12월 18일에 실태조사를 위한 조문을 법 제9조제4항으로 신설하며 개정되었을 뿐, 그 후 2024년 8월말 현재까지 개정된 사항은 없다.

인문학법이 실태조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을 뿐, 큰 변화가 없는 상황과 달리, 이 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안의 발의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는 인문학 진흥을 골자로 하는 학술 진흥 법률안으로 「기초학술기본법안」 2건(2021.3.24. 정정래의원 대표발의, 2022.12.8. 강득구의원 대표발의), 「인문사회학술기본법안」(2023.6.22. 유기홍의원 대표발의) 1건 등 총 3건이 발의되었다. 각 법안은 인문학계 주도로 마련되었으며, '인문복지권' 또는 '인문향유권'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기초학술(특히 인문학)에 대한 지원, '학술진흥원' 또는 '정책연구원' 설립, '패러다임 변동' 또는 '문명 대전환'에 대한 대응, 기금 조성, 지식재산 보호와 활용 등을 포함하였다.

한편, 인문 기반의 지역학과 지역의 인문정신문화·전통문화·지역문화 및 국가유산 정책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민간의 기록유산 또는 기록문화다. 이와 관련하여 제21대 국회에서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2건(2020.12.28. 이병훈의원 대표발의, 2023.4.3. 김승수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다. 국학진흥기관들이 입법 추진을 지원한 두 법률안은 의안명과 주요 내용이 매우 유사한데, 민간 소유의 역사

적 · 문화적 가치를 지닌 문서 · 도서, 목판, 현판 등 기록물에 대한 수집 · 보존 및 연구 · 활용, 실태조사, 정보체계 구축, 전담기관 지정, 전문인력 양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표 2-8〉 인문학 진흥 및 민간 기록문화 관련 법률안 발의 현황

구분	의안명	대표발의	발의일	구성	내용
인문학 진흥	기초학술 기본법안	정청래 의원	2021. 3.24.	3장 32조 및 부칙	인문복지권(제4조), 기초학술진흥체제의 구축(제7조), 기초학술진흥기본계획 · 시행계획(제9조, 제10조), 국가기초학술심의회(제11조), 국가기초학술진흥원(제12조), 사회변화와 문명 패러다임의 변동에 대한 대응(제13조), 조례의 제정(제14조), 기초학술진흥 예산확보 · 재정 · 기금(제16조, 제17조, 제18조), 국가기초학술집현 · 장서원 및 자료 등 정보화(제21조, 제22조), 기초학술의 영향평가(제24조), 지식재산의 창출 · 보호 · 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제27조),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육성(제30조) 등
	기초학술 기본법안	강득구 의원	2022. 12.8.	3장 31조 및 부칙	인문향유권(제4조), 기초학술진흥체제의 구축(제7조), 기초학술진흥기본계획 · 시행계획(제9조, 제10조), 국가기초학술자문회의(제11조), 기초학술정책연구원(제12조), 인류의 당면 과제 및 문명 대전환에 대한 대응(제13조), 조례의 제정(제15조), 기초학술진흥 예산 · 재정 · 기금(제16조, 제17조, 제18조),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제도(제20조), 자료 등의 정보화(제21조), 기초학술의 영향평가(제23조), 지식재산의 창출 · 보호 · 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제26조), 기초학술 연구자의 우대 등(제28조),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육성(제29조) 등
	인문사회 학술 기본법안	유기홍 의원	2023. 6.22.	3장 22조 및 부칙	인문사회학술 기본계획(제7조), 지역인문사회학술종합계획(제8조), 국가인문사회학술위원회(제10조~제12조), 지역 인문사회학술자문기구(제13조), 인문사회학술정책연구원의 설립(제16조), 인문사회학술기금(제17조), 인문사회학술 지식 · 정보 등의 관리(제19조) 등
민간 기록 문화 보존 · 활용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이병훈 의원	2020. 12.28.	19조 및 부칙	기본계획 수립 등(제5조), 제6조(민간기록문화위원회), 실태조사(제7조), 정보체계의 구축(제8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제9조), 수집 · 보존 및 연구 · 활용 등(제11조, 제12조), 전문인력의 양성(제13조),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제15조), 과태료(제19조) 등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김승수 의원	2023. 4.3.	19조 및 부칙	기본계획 수립 등(제5조), 제6조(민간기록문화위원회), 실태조사(제7조), 정보체계의 구축(제8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제9조), 수집 · 보존 및 연구 · 활용 등(제11조, 제12조), 전문인력의 양성(제13조),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제15조), 과태료(제19조) 등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bill/main.do)' 제공 의안원문 참조 정리.

제21대 국회 교육위원회 소관이던 인문학 관련 법률안들은 현행 인문학법과의 중복 입법, 개념 불명확, 법체계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었다(이세정, 2023). 또한 쟁점을 많이 포함하였지만, 인문학법의 폐기나 전면개정 또는 분법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민간 기록문화 관련 법률안들도 지역 인문정신문화 자산

및 지역학과 밀접히 관련된다. 인문학이나 민간 기록문화 관련 법률안들은 제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2024년 8월말 현재까지 다시 발의되지 않았으나, 제22대 국회 임기 내에 다시 발의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현행 인문정신문화 정책 및 지역학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관련 법률안 입법 추진 동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범주

인문정신문화 정책 추진은 인문학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인문정신문화 사업'도 인문학법에 의거하여 수행되는 사업을 의미한다. 다만, 인문학법에서는 인문정신문화를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무형의 문화적 산물"(법 제3조제3호)로 정의하지만, 인문정신문화 사업을 정의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범주를 설정하기 위해서 인문학법의 관련 조항을 검토하는 한편, 이 정책이 대두된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등 초기 정책사업의 성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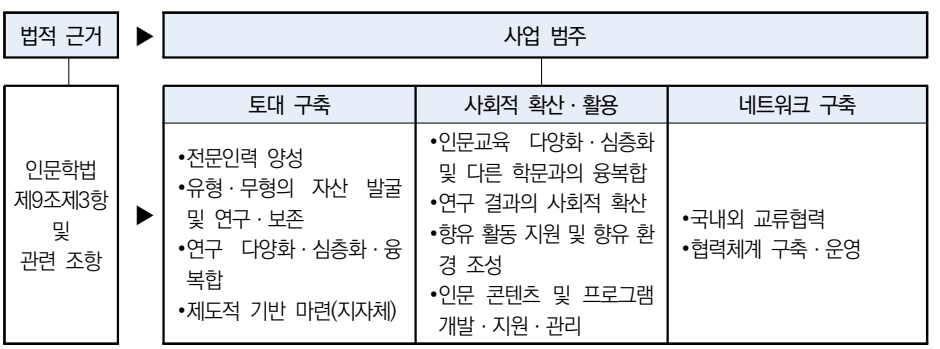
우선, 인문학법에서는 인문을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 인문정신문화를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무형의 문화적 산물"(법 제2조)로 정의한다. 그리고 관련 정책의 추진을 위해 10가지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법 제9조)을 수립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통해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범주를 확인할 수 있다. 기본계획에서는 인문정신문화 연구 및 연구결과의 사회적 확산, 인문교육, 인문정신문화 활동 지원과 사회적 확산 및 향유 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활용, 관련 유형·무형의 자산 발굴 및 연구·보존, 인문 콘텐츠 및 프로그램 등 개발·지원·관리, 관련 기관·단체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국내외 교류협력을 인문정신문화 정책의 내용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이들을 인문정신문화 사업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문정신문화 사업은 그 성격에 따라 '토대 구축', '사회적 확산·활용', '네트워크 구축'으로 나뉠 수 있다. 토대 구축에는 전문인력 양성, 유형·무형 자산의 발굴 및 연구·보존, 인문정신문화 연구 다양화·심층화·융복합 관련 사업 및 지역 단위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포함되고, 사회적 확산·활용에는 인문교육 다양화·심층화 및 다른 학문과 융·복합, 연구 결과의 사회적 확산, 인문정신문화 향유 활동 지원 및 향유 환경 조성, 인문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지원·관리 관련 사업이 포함된다. 네트워크 구축에는 국내외 교류협력, 협력체계 구축·운영 관련 사업이 포함된다.

〈표 2-9〉 인문학법의 인문정신문화 사업 관련 규정

근거 조항	계획 내용	관련 조항
제9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항	인문정신문화 연구 다양화, 심층화, 융복합 및 연구결과의 사회적 확산	•제12조(연구 활동 지원 등) -인문정신문화 연구의 다양화 및 심층화, 융복합화 등 연구 활동 활성화 지원 -인문정신문화 연구 활동의 성과 활용
	인문교육의 다양화, 심층화, 다른 학문과의 융복합	•제13조(인문교육의 실시)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지방문화원 등
	인문정신문화 향유 활동 지원 및 사회적 확산과 문화시설 등에서의 인문정신문화 향유 환경 조성	•제14조(인문정신문화 향유 활동 지원 및 환경 조성) -인문정신문화 향유 프로그램 및 자발적인 참여활동 활성화 지원 -인문정신문화 향유의 공간으로서 문화시설, 생활문화시설 등 활성화 및 전문인력 활용 •제16조(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확산)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자산과 자료의 발굴 · 수집 · 보존, 번역 · 출판 · 정보화 등을 통한 이용편의성 제고 -인문정신문화 관련 콘텐츠 · 프로그램 개발 · 관리 지원
	인문정신문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제15조(전문인력의 양성 · 활용 등) -인문정신문화 연구와 교육, 사회적 확산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적극 활용 -전문인력 발굴 · 육성 및 활용에 필요한 시책 추진
	인문정신문화 관련 유형 · 무형의 자산 발굴 및 연구 · 보존	
	인문 콘텐츠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 · 지원 · 관리	
	인문정신문화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	•제17조(국내외 교류협력)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한 국내외 관련 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과 공동연구, 학술 및 문화 교류 등의 협력활동 촉진 · 장려 및 지원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 · 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그림 2-3]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범주



2. 기본계획 및 정책사업의 주요 내용

가. 제2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1) 추진 배경 및 목표

인문학법에 의한 법정계획인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은 5년 단위 계획으로 수립되며 현재까지 두 차례 수립되었다. 그중 2017~2021년이 계획기간인 제1차 기본계획(문화체육관광부, 2017)에서는 '인문 진흥 및 사회적 확산'과 '인문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을 정책목표로 3대 전략('1. 주체적 인문소비 강화', '2. 인문 친화적 환경 조성', '3. 장기적으로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 7대 중점과제를 설정하였다. 그중 중점과제 '6. 인문의 산업적 활용 및 국제적 확산'의 세부 과제 '6-1. 인문정신문화를 담은 콘텐츠 발굴·확산'에 포함된 전통 기록유산 활용과 지역 스토리 발굴·서비스를 지역학과 관련되는 주요 사업으로 볼 수 있다.

2022~2026년이 계획기간인 제2차 기본계획(문화체육관광부, 2021a)에서는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인문 정책 부족', '다양한 문화기반시설 활용 부족 및 지역 인문 향유 격차 심화', '인문정신문화 진흥 정책의 효과를 확산하기 위한 기반 미흡' 등을 기존 정책의 한계로 제시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또한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인한 국민의 우울감과 사회적 고립감 심화, 사회적 활력 저하 등에서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 MZ세대 등장,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지역 격차 심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서 인문 및 인문정신문화의 역할 확대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표 2-10〉「제2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배경 및 목표

배경 및 방향	내용
코로나 19 영향 ⇒ 인문으로 위로와 공감 제공, 일상회복 지원	•코로나 19 이후 국민의 우울감 심화 및 사회적 활력 저하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사회적 고립감 심화 등을 인문을 통한 위로와 공감, 활력 제공, 공동체 연대·화합에 기여
인구구조 변화, 사회 문제 심화 ⇒ 정책환경 변화 적극 반영	•MZ세대 등장, 1인 가구 증가, 인구 고령화 등 정책고객 다변화와 세대간·성별 갈등 확대, 지역 격차 심화 등 정책환경 변화와 다양한 정책 수요 고려, 사회 문제 해결 적극 기여
한류 성과 확산 ⇒ 인문 자원 활용 확대 및 인문 가치 확산	•전통문화를 활용한 한류콘텐츠가 세계적 인기를 얻는 사례 증가와 한류 확산으로 한국어·한복 등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수요 증가 등 인문 자원 활용 확대 및 인문 가치 확산으로 인문 자원 활용 산업 진흥, 관광·콘텐츠와의 융합, 한류 외연 확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1a), 제2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2022~2026), p.1. 참조 정리.

2) 추진 전략 및 과제

위와 같은 배경에서 제2차 기본계획은 '1. 인문 가치 발견 및 공유', '2. 인문 가치 구현 및 확산' 및 '3.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반 강화'라는 3대 전략에 따라서 8개 중점과제를 설정하였다. 각 중점과제를 보면, 지역이 처한 문제나 지역학 관련 내용이 확인되는데, 그중 '2-1. 문화기반시설을 인문정신문화 거점 공간으로 조성'에서 지역학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였다. 또한 이 과제의 세부 과제로 제시된 '대표 인문 프로그램 확대 및 내실화'에서는 〈길 위의 인문학〉 사업과 관련하여 '마을 아카이브'를, 〈지혜학교〉와 관련하여 '지역문화·민속학·지역학 등 지역 인문 심화과정 신규 운영('22년 20개)'를 포함하고 있다.

지역학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다른 중점과제에도 지역 문제나 지역학 관련 세부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그중 '2-2. 인문 격차 해소 및 지역 인문 자원 발굴 확대'의 '인문 격차 해소 및 자생적 인문 활동 지원 확대'는 '지역 문제 해결형 인문 프로그램 지원'과 〈문화가 있는 날〉 사업에 '인문자산 활용 지역 특화형 프로그램' 운영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지역 문제 해결에서 지역학의 역할, 지역 인문자산과 관련한 지역학 성과 활용이라는 측면과 관련된다. 세부 과제 중 '지역 인문 자원 발굴·활용 및 기반 강화'는 '지역 인문 자원 기반 문화 콘텐츠 개발', '지방 문화원 소장자료 디지털화 지원', '지역 소재 국학자료 수집·활용 지원', 지역학과 한국학의 매개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담당하는 '지역 국학진흥기관 확대'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도 지역학의 역할 및 성과 활용이라는 측면과 관련된다.

이 밖에도 중점과제 '1-3. 사회 문제 해결형 인문 활동 지원 강화'에서는 '참여형·사회 문제 해결형 인문 활동 확대'를 세부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일정 정도 지역학과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청년, 인문 연구자 등 인문 활동 지원 확대'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연구의 측면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에서 활동하는 청년층 인문 활동가나 인문 연구자가 해당 지역의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지역학과 연계성 하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과제다. 이처럼 제2차 기본계획은 지역학과의 연계성이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으나 상호 연계가 필요한 내용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표 2-11〉「제2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의 지역학 관련 추진과제

구분	내용	지역학 관련 세부 추진과제
비전	인문으로 '행복한 개인, 품격있는 공동체' 실현	
목표	[프로그램] 체감형 · 참여형 · 사회 공헌형 사업 확대 [인문공간] 도서관 · 박물관 편중 → 문화기반시설 전반 [전문인력] 연구자, 활동적 고령자층 등을 적극 활용	
추진 전략 및 과제	1. 인문 가치 발견 및 공유	
	1-1. 위로와 공감을 위한 인문 프로그램 확대	
	1-2. 인문의 시각으로 '코로나 19' 기록 · 보존 및 활용	
	1-3. 사회 문제 해결형 인문 활동 지원 강화	•참여형 · 사회 문제 해결형 인문 활동 확대 - (사회문제 해결) 청년, 인문 연구자 등 인문 활동 지원 확대
	2. 인문 가치 구현 및 확산	
	2-1. 문화기반시설을 인문정신문화 거점 공간으로 조성	•대표 인문 프로그램 확대 및 내실화 - (길위의 인문학) 마을 아카이브(주제별 기록화 프로그램, 마을연구회 등) - (지혜학교) 지역문화 · 민속학 · 지역학 등 지역 인문 심화과정 신규 운영
	2-2. 인문 격차 해소 및 지역 인문 자원 발굴 확대	•인문 격차 해소 및 자생적 인문 활동 지원 확대 - (인문 격차 해소) 지역 문제 해결형 인문 프로그램 지원 - (문화가 있는 날) 인문자산 활용 지역 특화형 프로그램 •지역 인문 자원 발굴 · 활용 및 기반 강화 - (인문 자원 발굴) 지역 인문 자원 기반 문화 콘텐츠 개발, 지방 문화원 소장자료 디지털화 지원, 지역 소재 국학자료 수집 · 활용 지원 - (인문 자원 활용) 지역 문화기반시설 인문 교육 및 전시 콘텐츠, 인문 관광 플랫폼, 인문 지리 학습 · 관광 앱 등 활용 지원 - (기반 강화) 지역 국학진흥기관 확대
	2-3. 인문 자원의 산업적 활용 및 국제적 확산	
	3.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반 강화	
	3-1. 인문 진흥체계 재정립 및 전문역량 활용 강화	
	3-2. 디지털 인문정신문화 플랫폼 구축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1a), 제2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2022~2026) 정리.

나. 제2차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인문학법은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과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에 제출하라고 규정(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하고 있다. 따라서 제2차 기본계획에 따른 문화

체육관광부의 연도별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을 통해서 지역 문제 및 지역학과 관련한 사업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위의 기본계획에서 지역 문제 및 지역학과 관련하여 확인한 4개 세부 과제의 내용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수립된 연도별 시행계획(2022~2024)을 검토해 보려 한다.

1) 참여형 · 사회 문제 해결형 인문 활동 확대

'1-3. 사회 문제 해결형 인문 활동 지원 강화'의 세부 과제인 '참여형 · 사회 문제 해결형 인문 활동 확대'는 "인문강좌 수강 중심에서 벗어나 사회 문제 해결 시도, 인문 학습 결과를 사회에 확산하는 등 인문정책의 주체로 활동하도록 지원"을 추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사회문제 해결 사업이 지역의 문제 및 지역학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주로 포함한다. 〈삼삼오오 청년 인문실험〉이 여기에 해당한다. 〈인문 활동가 연구자 협업 연구, 사회문제 해결 인문 프로젝트〉도 지역의 문제 및 지역학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2022년도 시행계획(문화체육관광부, 2022)을 보면, 〈삼삼오오 청년 인문실험〉은 청년들이 인문적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사회적 문제를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찾는 사업으로 계획되었다. 〈인문 활동가 연구자 협업 연구, 사회문제 해결 인문 프로젝트〉는 시민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인문 분야의 다양한 관계자가 협업 · 기획하는 사업으로 계획되었다. 이들 사업에 대한 2023년도 시행계획(문화체육관광부, 2023a)의 내용은 2022년과 동일하다. 이에 비해 2024년도 시행계획(문화체육관광부, 2024a)에서 〈삼삼오오 청년 인문실험〉 지원규모는 100개 팀으로 다소 줄었고, 〈인문 활동가 연구자 협업 연구, 사회문제 해결 인문 프로젝트〉는 폐지되었다.

2) 대표 인문 프로그램 확대 및 내실화

'2-1. 문화기반시설을 인문정신문화 거점 공간으로 조성'의 세부 과제인 '대표 인문 프로그램 확대 및 내실화'는 "인문 프로그램이 취약계층, 지역소멸 위기 등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고, 교양 학습을 넘어 인문의 본질적 가치를 체득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 목표로 설정하였다. 주요 사업으로 〈길 위의 인문학〉, 〈지혜학교〉를 계획하였다. 이들 사업은 지역학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인문학 기반 지역학의 주요 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도 시행계획(문화체육관광부, 2022)에서는 '(마을 아카이브) 도서관과 수강생이 지역·마을 공동체 이야기를 아카이빙하는 인문프로그램 운영'과 '(주제 확대) 예술·과학·인문치유 등 융복합 주제, 지역문화, 민속학, 지역학 등 지역 인문 심화과정 신규 운영'을 계획하였다. 2023년도 시행계획(문화체육관광부, 2023a)에서도 지역학과 관련하여 '(주제 확대) 예술·과학·인문치유 등 융복합 주제, 지역문화, 민속학, 지역학 등 지역 인문 심화과정 운영(계속)'을 포함하였으나, 2022년과 달리 '마을아카이브'를 포함하지는 않았다. 한편, 〈길 위의 인문학〉과 관련하여 '도서관-출판사·예술단체 연계 프로그램 운영'의 세부 내용에 지역 인문 자원 아카이빙을 포함하였는데, 이는 지역학과 관련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2024년도 시행계획(문화체육관광부, 2024a)은 2023년과 동일하다.

3) 인문 격차 해소 및 자생적 인문 활동 지원 확대

'2-2. 인문격차 해소 및 지역 인문 자원 발굴 확대'의 세부 과제인 '인문 격차 해소 및 자생적 인문 활동 지원 확대'는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자생적 인문 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 활력 제고"를 추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 과제에서는 '생활문화공동체 지원'과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의 지역특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이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나 지역학 성과의 활용 등과 관련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2022년도 시행계획(문화체육관광부, 2022)을 보면, '생활생활문화공동체 지원'은 관계형성형, 관계활성화형, 관심확장형이라는 3개 공동체 유형별로 주민 주도의 생활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계획되었다. 〈문화가 있는 날〉은 지방자치단체 참여 활성화 지원, 지역특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문화예술가 및 참여 문화시설 지원, 대상별 맞춤형 문화활동 지원을 포함하는데 그중 지역특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이 지역학과 관련된다. 2023년도 시행계획(문화체육관광부, 2023a)에서는 '생활문화공동체 지원'이 생활권 대상으로 생활문화 주체 간 교류와 공동체 활동 지원으로 일부 변화하였고, 〈문화가 있는 날〉의 지역특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도 지원 규모에 일부 변화가 있었다. 한편, 2024년도 시행계획(문화체육관광부, 2024a)에서 '생활생활문화공동체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생적 생활문화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 발굴·확산 지원으로 변경되었다. 〈문화가 있는 날〉도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지역 간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정책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내용이 변경되었다. 한편, 2024년에는 인문 격차 해소를 위해 '〈인문행복센터〉 시범운영'을 포함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유휴시설을 제공하고 민간이 공간 조성, 전담기관이 운영 지원을 하는 협업 방식으로 치유와 우울감 해소, 갈등 완화를 주제로 한 인문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계획되었다.

4) 지역 인문 자원 발굴 · 활용 및 기반 강화

'2-2. 인문격차 해소 및 지역 인문 자원 발굴 확대'의 세부 과제인 '지역 인문 자원 발굴 · 활용 및 기반 강화'는 "지역 고유의 인문 자원이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되고, 관광 · 콘텐츠 개발 · 활용 등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추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인문 자원 활용' 사업은 지역의 인문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및 관광 개발과 관련되어 있어 지역학 성과와 관련을 맺는다. 다만, '인문 자원 발굴' 및 '기반 강화'가 본 연구에서 다루는 지역 문제나 지역학 및 그 성과 활용에 있어서 다른 사업들보다 좀 더 관련을 맺고 있다.

2022년도 시행계획(문화체육관광부, 2022)을 보면, '인문 자원 발굴'은 지역 인문 자원 기반 문화 콘텐츠 개발, 지방문화원 소장자료 디지털화 지원, 지역 소재 국학자료 수집 · 활용 지원, 인문총서 제작, 민간 기록자료 국역 및 콘텐츠 제작 지원 등을 포함한다. 이들 사업은 지역사나 지역문화 연구 중심의 지역학 활동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기반 강화'는 지역 국학진흥기관 확대(강원도) 및 전라북도 지역 거점 유학진흥원 건립,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개관, 전통기록유산 국역 및 디지털화 추진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전근대 기록문화 조사를 통한 실버일자리 창출 등을 포함한다. 2023년도 시행계획(문화체육관광부, 2023a)에서 '인문 자원 발굴'의 '인문 총서 제작'이 제외되었고 그 외 사업은 예산 조정 등을 제외하면 2022년과 동일하게 계획되었다. '기반 강화'에서는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개관(2022) 사업이 관리 · 운영 사업으로 변경되었고, 청년 및 실버 일자리 확대 사업의 세부 내용이 변경되었다. 2024년도 시행계획(문화체육관광부, 2024a) 중 '인문 자원 발굴'에서는 '지역 인문 자원 기반 문화 콘텐츠 개발'이 '인문다큐 공모전'으로 변경되었고, '지방문화원 소장자료 디지털화 지원'은 제외되었다. 그 외의 사업은 세부 내역이 일부 조정되었다. '기반 강화'는 2023년과 대체로 동일하게 계획되었다.

〈표 2-12〉 연도별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의 지역학 관련 내용

추진과제	시행계획의 내용
1-3. 사회 문제 해결형 인문 활동 지원 강화	
•참여형 · 사회 문제 해결형 인문 활동 확대 -(사회문제 해결) 청년, 인문 연구자 등 인문 활동 지원 확대	■ 2022년도 •(삼삼오오 청년 인문실험) 청년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개인의 문제부터 지역사회가 풀어야 할 사회적 문제까지 다양한 의제를 인문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청년의 상상력으로 해결 방안을 찾는 탐구적 실험활동 지원('22년 120개 팀) •(인문 활동가 연구자 협업 연구, 사회문제 해결 인문 프로젝트) 시민이 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인문문화단체 · 협회 · 인문연구기관 · 인문연구자가 협업 · 기획한 실천형 인문프로젝트 지원('22년 30건, 예산 180백만 원) ■ 2023년도 •(삼삼오오 청년 인문실험) 2022년과 같음 •(인문 활동가 연구자 협업 연구, 사회문제 해결 인문 프로젝트) 2022년과 같음 ■ 2024년도 •(삼삼오오 청년 인문실험) 100개 팀
2-1. 문화기반시설을 인문정신문화 거점 공간으로 조성	
•대표 인문 프로그램 확대 및 내실화 -(길위의 인문학) 마을 아카이브(주제별 기록화 프로그램, 마을연구회 등) -(지혜학교) 지역문화 · 민속학 · 지역학 등 지역 인문 심화과정 신규 운영	■ 2022년도 •(마을 아카이브) 도서관과 수강생이 지역 · 마을 공동체 이야기를 아카이빙하는 인문프로그램 운영('22년 20개) •(주제 확대) 예술 · 과학 · 인문치유 등 융복합 주제, 지역문화, 민속학, 지역학 등 지역 인문 심화과정 신규 운영('22년 60개) ■ 2023년도 •(도서관-출판사 · 예술단체 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역 인문 자원 아카이빙 등 •(주제 확대) 예술 · 과학 · 인문치유 등 융복합 주제, 지역문화, 민속학, 지역학 등 지역 인문 심화과정 운영(계속) ■ 2024년도 •(도서관-출판사 · 예술단체 연계 프로그램 운영) 2023년과 같음 •(주제 확대) 2023년과 같음
2-2. 인문 격차 해소 및 지역 인문 자원 발굴 확대	
•인문 격차 해소 및 자생적 인문 활동 지원 확대 -(인문 격차 해소) 지역 문제 해결형 인문 프로그램 지원 -(문화가 있는 날) 인문자산 활용 지역 특화형 프로그램	■ 2022년도 •(생활문화공동체 지원) 일상적 삶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주민주도의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유형별(관계형성형, 관계활성화형, 관심확장형) 활동 지원(60개 단체 내외)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 프로그램 개발 · 운영 지원(40팀 내외) ■ 2023년도 •(생활문화공동체 지원) 읍 · 면 · 동 생활권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활문화 주체 간 교류 및 연계 공동체 활동 지원(30개소) -지역밀착형 생활문화공동체 프로그램, 협력단체 간 공동 기획 프로그램, 공동 아카이빙 지원 등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 프로그램 개발 · 운영 지원(20개 내외 단체) ■ 2024년도 •(인문행복센터 시범운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 개발 · 운영('24년 4개소) 및 치유, 우울감 해소, 갈등 완화 주체의 강좌 운영 •(생활문화공동체 지원) 생활문화진흥 우수사례 발굴 · 확산 지원('24년 2개 지자체 선정 · 시상) •(문화가 있는 날) 취약지역 · 혁신도시 등 정책지원 필요 지역을 집중 지원, 지역 간 문화격차 완화

추진과제	시행계획의 내용
•지역 인문 자원 발굴·활용 및 기반 강화 -(인문 자원 발굴) 지역 인문 자원 기반 문화 콘텐츠 개발 지방 문화원 소장자료 디지털화 지원, 지역 소재 국학자료 수집·활용 지원 -(기반 강화) 지역 국학진흥기관 확대	■ 2022년도 •(지역 인문 자원 기반 문화 콘텐츠 개발) 지역의 인문 자원 연구·조사와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여 대중에게 인문 지식을 확산하는 콘텐츠 개발 프로젝트 지원('22년 1단계 4건, 2단계 4건) •(지방 문화원 소장자료 디지털화 지원) 지역 고유 문화자원 발굴·확산을 위해 지방문화원 소장자료 디지털화 및 관련 콘텐츠 개발('22년 10,000여건 DB화) •(지역 소재 국학자료 수집, 활용 지원) 전통 기록유산 수집·연구를 위한 유교목판 등 전통 기록유산 조사·수집·보존과 소장 자료에 대한 활용기반 마련 -민간 기록자료 수집(연 4만여 건), 유교목판 조사 연구 및 정기간행물 발간 •(인문총서 제작) 지역 인문 자원 기반 총서 출간 및 배포·활용 지원('22년 1개 지역 5종 내외 출간, 종당 2천부 발행 예정) •(민간 기록자료 국역 및 콘텐츠 제작 지원) 전통문화자원 활용 ·확산을 위한 소장 자료의 국역 및 전통 기록 자료를 토대로 한 이야기 발굴, 전통문화 이야기 소재 콘텐츠 개발·서비스및 전통문화가치 확산 등 •(지역 국학진흥기관 확대) 전라북도 지역 거점 유학진흥원 건립으로 국민에게 전통문화의 향유기회 제공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개관)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개관('22.5월)을 통해 국민에게 동학농민혁명 학습·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및 역사교육의 기회 마련 •(국학진흥사업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실버 일자리 확대) 민간 소장 전통기록유산 국역 및 디지털 사업추진으로 청년일자리('22년 175명) 및 전근대 시기 기록문화를 조사하는 실버일자리 창출('22년 650명) ■ 2023년도 •(지역 인문 자원 기반 문화 콘텐츠 개발) 2022년과 같음 •(지방 문화원 소장자료 디지털화 지원) 2022년과 같음 •(지역 소재 국학자료 수집, 활용 지원) 2022년과 같음 •(민간 기록자료 국역 및 콘텐츠 제작 지원) 2022년과 같음 •(지역 국학진흥기관 확대) 2022년과 같음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관리·운영)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관람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안내해설, 역사탐방, 생태탐방)을 제공함으로써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 및 역사교육의 장 마련 •(국학진흥사업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실버 일자리 확대)청년일자리 창출('23년 132명) 및 1910~1979년 근대시기 기록문화를 조사하는 실버일자리 창출('23년 600명) ■ 2024년도 •(인문다큐공모전) 지역의 역사·인물·문화 등 인문 자원을 활용한 다큐 제작 지원('24년 20편) •(지역 소재 국학자료 수집, 활용 지원) 2023년과 같음 •(민간 기록자료 국역 및 콘텐츠 제작 지원) 생활사전자사전 등 콘텐츠 추가 •(지역 국학진흥기관 확대) 2023년과 같음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관리·운영) 2023년과 같음 •(국학진흥사업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실버 일자리 확대) 지원 인원 축소(예산은 2023년과 같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2), 2022년도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안),
문화체육관광부(2023a), 2023년도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안) 참조 정리.

다.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추진계획

2024년 인문정신문화 정책에서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를 기반으로 별도의 사회적 확산계획(문화체육관광부, 2024b. 이하 '사회적 확산계획')을 수립하였다. 사회적 확산계획에서는 "문화시설 활용, 소외계층 대상 인문프로그램 보급 등 인문 가치 확산을 통해 사회 통합 및 국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를 추진 목적으로 설정하고, 다음처럼 그 추진 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설정하였다.

그중 하나는 "인문문화가치 확산을 위한 지원체계 개편 및 사업방식 개선으로 품격 있는 문화시민 역량 강화와 사회의 회복탄력성 제고 도모"다. 그 내용을 보면, 운영기반 공고화 및 지역 확산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구조 개편', 국민체감도 높일 인문정신문화 누림 여건 개선을 위한 '국민생활 속 인문', 인문으로 지역매력 제고,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 확산', 세대·대상별 위로와 치유, 재도약을 지원하는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으로 설정하였다.

다른 하나는 "정서적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감 해소 및 장애인·어르신과의 소통·연대 강화로 사회통합의 가치 제고에 기여"다. 여기에는 사회적 고립감 해소 사회통합을 위한 '정서취약계층 문화적 예방·회복', 문화를 통한 세대 간 이해·공감 증진을 위한 '세대 간 연대감 제고'가 포함된다. 다만, 이 방향의 과제에서 지역학과 연계성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사회적 확산계획의 추진사업은 그 성격상 삶의 질 제고 지원, 사회 문제 대응, 확산 기반 구축으로 구분된다. 그 세부 내용은 〈표 2-13〉과 같은데, 각 추진사업은 제2차 기본계획에 의한 기존 주요 사업을 개선하면서 '사회 문제 대응–사회시설 활용 인문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신규 추진하는 방향으로 계획되었다. 그중 지역소멸·고령화 등에 대응하는 '인문·문화프로젝트' 추진은 지역학 측면에서 중요하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 밖에 지역 내 인문 가치 확산 거점 역할을 담당할 〈인문행복센터〉 운영, 도서관·서점 등 지역문화시설에서 역사·문화 등 지역 인문 자원을 활용한 인문프로그램 운영(700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기존에 '문화기반시설 활용 인문프로그램 운영'이라는 명칭으로 도서관, 박물관, 생활문화시설로 나뉘어 진행된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을 '인문정신문화 활용 삶의 질 제고 지원(700개 프로그램)'으로 재구조화하고 사회적 효과, 개인적 효과, 참여 만족도를 지표로 하여 성과목표를 강화한 것이다.

〈표 2-13〉「2024년도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추진계획(안)」의 주요 내용

구분	사업명	내용
인문정신문화 삶의 질 제고 지원	인문정신문화 활용 삶의 질 제고 지원 (도서관 · 박물관 · 생활문화시설 길 위의 인문학)	•도서관, 박물관, 생활문화시설 등 지역문화 기반시설을 활용한 인문강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민의 인문 누림 기회 확대 및 생활 속 인문 가치 확산 -길 위의 인문학(일반과정), 지혜학교(심화과정) 총 700개 프로그램 운영
사회문제 대응	인생나눔교실	•중장년 세대 인생 경험과 인문적 지혜를 매개로 소통 · 공감 · 나눔 · 배려의 인문 가치 확산 및 세대간 갈등 해소와 사회통합에 기여 -찾아가는 인생나눔교실(인문멘토링), 기획사업, 멘토 교육 등
	청소년 인문 · 문화프로그램 운영	•학교밖 · 위기 청소년 대상 인문프로그램을 통해 행복감, 자존감, 소속감 · 연대감을 높이고 안정적인 사회 구성원 -청소년 특화 인문 ·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 관련 시설(방과후 아카데미, 꿈드림)에서 운영(70개 시설, 10,000명 대상, 2,000시간 운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운영	•중장년이 인문 · 여가문화를 즐기고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전용공간을 조성 · 운영하여 삶의 활력 제고와 재도약 지원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확대 및 인문 · 여가문화프로그램 제공
	사회시설 활용 인문프로그램 운영	•삶의 질 악화, 사회갈등 심화 등 사회문제 해소를 위해 공동체 복원, 회복탄력성 제고, 가치중심적 사고의 중요성 제기 -노인 ·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자체 사회시설 연계, 생애 맞춤형 · 사회문제 해소 기여 · 치유를 위한 인문프로그램 확대
	문화로 사회연대	•문화 활용한 사회 연대 프로그램 운영, 정서적 취약계층 자존감 및 심리적 안정감 회복 지원 -정서적 취약계층 발굴, 인문 · 체육 · 문화예술 등 문화적 요소를 토대로 사회적 관계를 연결하여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감 해소
인문정신문화 확산 기반 구축	인문정신문화 온라인 서비스(인문360) 운영	•인문정신문화 온라인서비스('인문 360°')를 통해 다양한 맞춤형 인문콘텐츠를 제공하여 인문 가치 사회적 확산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 운영 지원	•인문정신문화 진흥 정책의 효율적 · 안정적 추진 체계 구축 및 정책 지원, 성과 확산 등 전담기관의 역할 안정적 수행
	인문정신문화 정책연구	•대상 특화 사업의 확대에 따라 우수 강사인력 확보방안 마련 및 인문학법 연구 필요
	인문전통 및 정신문화 가치 확산(21세기 인문 가치포럼)	•인문정신, 유교문화를 기반으로 동아시아 문화공동체 형성 -인문정신문화를 주제로 국제포럼 개최(경북 안동, 3일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4b), 2022년도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추진계획(안) 참조 정리.

라. 인문정신문화 데이터 표준화 추진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에 인문정신문화 사업 담당기관들(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도서관협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박물관협회)이 수행해온 10개 인문정신문화 사업 데이터의 표준화 및 활용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인문콘텐츠 및 정보가 산재하여 통합 관리 및 보존 · 활용 가치가 있는 자원 선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인문콘텐

츠와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 보존하고 국민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개방할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분석 결과(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참조), 현재 5개 사업(인문네트워크, 인문360, 청소년 인문 · 문화프로그램,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었으나, 데이터 표준화 명명규칙의 오류, 표준단어 영문약어명 규칙의 오류, 한글 발음 그대로 표준단어영문명 작성 오류, 해석이 불가능한 표준단어영문명 사용 오류, 표준단어영문명의 일관성 오류 등이 나타났다. 누리집의 경우, 총 8개 사업 7개 누리집이 구축되었으나, 실제 정보와 DB 데이터 불일치, 콘텐츠성 데이터 분류 항목 필요, 데이터 항목 표준화 필요, 관리체계 생성 필요 등의 개선사항이 확인되었다. 그에 따라 인문정신문화 콘텐츠 및 정보 공유, 기관 간 업무 협력 및 거버넌스 체계 구성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14〉 인문정신문화 사업별 DB 및 누리집 유무

연번	주관기관	사업명	개시 연도	DB 유무	누리집 유무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문네트워크	’15	유	1
2		인문360		유	1
3		인생나눔교실		-	1
4		우리가치 인문동행	’22	무	
5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일반과정)	’13	유	1
6		도서관 지혜학교(심화과정)	’15	무	
7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생활문화시설 길 위의 인문학(인문실험)	’18	무	
8		청소년 인문 · 문화 프로그램	’22	유	1
9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무	1
10	한국박물관협회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23	유	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참조 정리.

3. 유관 부처 정책 동향

문화체육관광부의 인문정신문화 정책과 관련성이 가장 큰 정책은 인문학법의 공동 소관 부처인 교육부의 정책이다. 교육부는 인문학 진흥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법정계획인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학교 중심에서 점차 학교 밖에서의 인문학 대중화 및 사회적 확산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가. 제2차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도 인문학법에 의거하여 5년 단위로 수립된다. 2022~2026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현행 「제2차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교육부, 2021)은 아래와 같은 추진 배경 및 목표 하에 수립되었다. 이 계획에서 특기할 점은 추진 목적이 인문학의 본질을 지키는 것에만 있지 않고, 본질적 가치를 생산하는 인문학으로의 발전과 사회 변화를 선도하는 인문학으로의 변화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표 2-15〉「제2차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의 추진 배경

추진 배경 및 방향	내용
뉴노멀 시대의 등장과 인문학 ⇒ 인간의 근원 문제 및 인간만이 지닌 능력에 대해 탐구하는 인문학의 중요성 재차 주목	•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언택트 사회'로의 변화로 기존 사회에서 일상적이지 않은 것들이 일상화되는 '뉴노멀' 시대 가속화, 그러나 우리 사회는 양적 성장의 한계*에 부딪혔으며, 질적인 측면에서는 과학기술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회문제를 마주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인문학-위기 그리고 기회 ⇒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인문학의 새로운 방향 모색	• 우리나라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경제적 · 사회적 발전을 이루고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인문학 교육 · 연구의 활발한 수행을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함.

*자료: 교육부(2021), 제2차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안)(2021-2026), pp.1-2. 참조 정리.

「제2차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에서는 '인문학의 본질 실현을 위한 교육 · 연구 지원', '인문학의 새로운 도전 : 융합, 국제화, 디지털', '인문학 가치의 공유와 확산'을 3대 추진 전략으로 설정하였다. 그중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부분은 '인문학 가치의 공유와 확산' 전략의 내용이다. 이 전략은 3개 추진과제(① 대중 · 지역과 함께하는 인문학, ② 인문학 진흥 추진체계 구축, ③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과제 발굴)로 구성되어 있다.

「제2차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에서는 지역학 연계 사례를 기존 국립대학 육성사업 우수사례의 하나로 꼽기도 하였으나,[9] 국내의 지역학을 직접적으로 명시한 추진과제는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인문 가치의 공유와 확산' 전략에 포함된 '대중 · 지역과 함께하는 인문학'은 지역학과 관련 있다는 점에서 검토 필요성이 있다. 이 추진과제에는 '대중과 함께하는 인문학'과 '지역과 함께하는 인문학'이 포함된다. 먼저, '대중과 함께하는 인문

9) 우수사례로 제시된 강원대학교의 '강원학 아카이브 구축 및 연구 지원' 사업은 "강원 역사 · 문화 · 자연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강원연구원 · 아시아강원민속학회 · 동해안바다연구회 · 김유정 기념 사업회 등이 참여하는 대학-지자체-민간단체 협업플랫폼을 운영하여, 융 · 복합연구 및 지역학 공동 연구 지원"(교육부, 2021: 8)이라는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

학'에서는 인문학의 학문적 성과를 대중의 눈높이에 맞게 소개하고 인문학의 가치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는 인문주간을 운영하는 한편, 시민들이 인문학을 쉽게 이해하고 인문학 최신동향을 폭넓게 접할 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행사 개최 및 홍보를 계획하였다. '지역과 함께하는 인문학'에서는 지역 인문자산 발굴·활용 및 인문학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명품 '인문도시' 육성, 인문학 연구역량을 활용하여 대학이 해당 지역의 인문학 육성 거점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역인문학센터' 지속 육성을 계획하였다. 특히 '지역인문학센터'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검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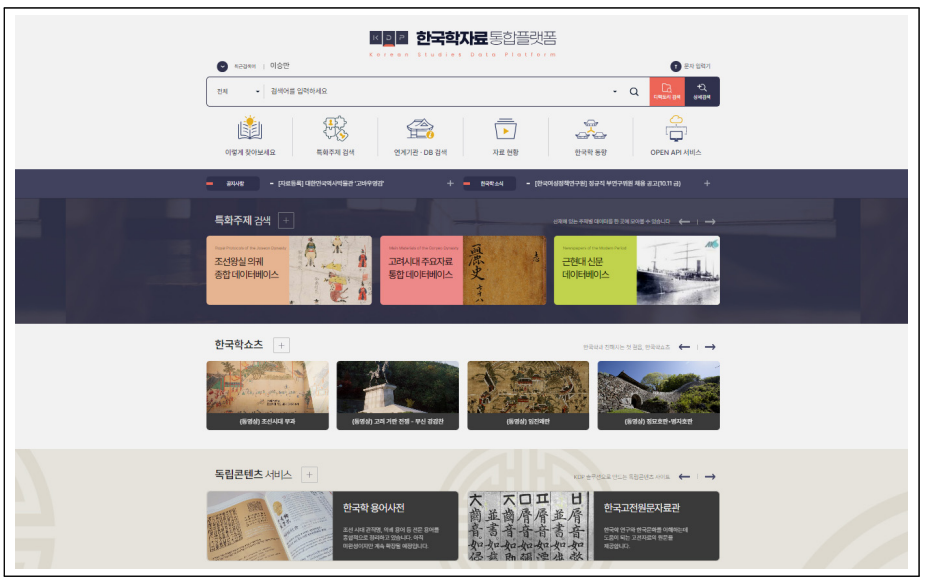
〈표 2-16〉「제2차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의 추진과제별 지역학 관련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지역학 관련 세부 추진과제
비전	국가와 인류를 풍요롭게 하는 인문학 진흥	
목표	본질적 가치를 생산하는 인문학의 발전, 사회 변화를 선도하는 인문학의 도전	
추진 전략 및 과제	1. 문학의 본질 실현을 위한 교육·연구 지원	
	1-1. 대학의 인문학 교육 연구역량 확보	
	1-2. 우수 인문학 연구자 양성 및 연구지원	
	1-3. 대학 外 생애주기별 인문교육 내실화	
	2. 인문학의 새로운 도전 : 융합, 국제화, 디지털	
	2-1. 인문학 중심의 융합연구 도전	
	2-2. K-인문학으로의 발전 및 확산	
	2-3. 디지털 인문학 2.0 : 축적에서 확산으로	
	3. 인문학 가치의 공유와 확산	
	3-1. 대중·지역과 함께하는 인문학	•대중과 함께하는 인문학 - (인문주간) 지역의 지자체, 도서관, 박물관 등이 개최하는 문화행사를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인문정신문화주간'과 연계하여 인문주간 운영 •지역과 함께하는 인문학 - (인문도시) 지역 인문자산을 발굴·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명품 '인문도시' 육성, 인문도시지원사업과 지역별 교육·연구 네트워크 연계 및 문화도시 사업 연계 등 문화체육관광부와 부처 간 협력 강화 - (지역인문학센터) 대학이 해당 지역의 인문학 육성 거점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역인문학센터' 지속 육성
	3-2. 인문학 진흥 추진체계 구축	
	3-3.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과제 발굴	

*자료: 교육부(2021), 제2차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안)(2021-2026) 정리.

한편, 이 기본계획에서는 초·중등교육에서의 인문교육 내실화 등의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으나, 보편적인 인문소양 교육이나 독서교육, 진로 선택 관련 내용이 주를 이룬다. '디지털 인문학 2.0 : 축적에서 확산으로' 과제에 포함된 '한국학자료 통합플랫폼 구축'은 관련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한국학자료의 공유·연계를 목적으로 하는데, 여기에도 지역 관련 다양한 자료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지역학과 일정 정도 관련을 맺는다. 이 플랫폼(https://kdp.aks.ac.kr)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주관으로 구축되었으며, 한국국학진흥원의 유교넷(https://www.ugyo.net)도 연계되어 있다.

[그림 2-4] 한국학자료 통합플랫폼 누리집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자료 통합플랫폼'(https://kdp.aks.ac.kr) 화면 캡처

이 밖에 '인문학 진흥 추진체계 구축'에 포함된 '유관단체 및 연구현장과의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인문학의 사회적 역할 및 성과 확산과 관련된다. 이 사업에서는 인문학을 포함하여 ① 학문분야별 ② 소속 및 처우별 ③ 생애주기별 연구자들의 의견청취를 위한 '(가칭)미래학술정책의 사회적 대화' 추진 및 인문사회 분야 학술단체 대표기구와 상시 소통·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계획되었다. 또한 주요 학회·협의체·전문기관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연구자·연구소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연구 수행 시너지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성과확산센터 운영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이 사업이 지역학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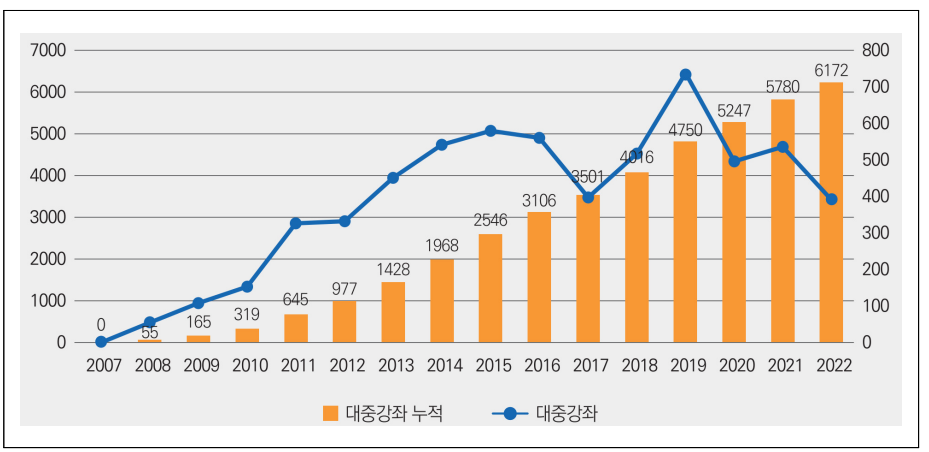
연관성을 갖지는 않으나, 해당 내용을 지역사회에서 구현할 경우에는 지역학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된다.

나. 지역인문학센터 운영

「제2차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대중·지역과 함께하는 인문학' 과제에 포함된 지역인문학센터 운영은 2017년에 개시한 인문한국플러스(HK+)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각 대학의 참여 연구소가 의무적으로 자신들이 축적한 인문학 성과를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역 특성을 살린 연령별 맞춤형 인문교육프로그램화하여 각급 학교와 평생교육원 등에서 시행하는 내용이다. 청소년부터 노년층까지 지역 주민이 대상이고, 시민인문프로그램 운영, 소외계층 대상의 '희망의 인문학', '평생 인문교육' 등의 형태로 시행된다.

인문한국 사업 성과보고서에 따르면(HK/HK+성과확산총괄센터, 2023: 40-44), 지역인문학센터 운영으로 인해 각 지역에서 인문학 대중강좌 개최 횟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2017~2022년 기간 중 41개 연구소에서 총 186개 프로그램(연구소당 평균 4.5개)을 2,098회 개최하였다. 지역 협력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기관과 총 608회의 협약을 체결(연구소당 평균 15.2회)하였다.

[그림 2-5] 인문한국 및 인문한국플러스의 대중강좌 개최 현황(2007~2022)



*출처: HK/HK+성과확산총괄센터(2023), 『인문한국(HK)/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사업 성과분석,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 p.42.)

지역인문학센터로 선정된 대학연구소에는 최대 2억 원이 지원되고, 해당 센터는 '초·중등, 대학, 지역사회와 네트워크 협력체제 구축 및 활성화', '초·중등 인문소양교육 지원센터 및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한 방과후학교 활동 등 단위학교별 인문소양교육 지원 강화', '지자체·인문교육실시기관 및 평생교육기관 등과 연계를 통해 지역 인문자산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수행한다.[10] 현재까지 지역인문학센터 사업은 지역학과 직접적인 연계성은 낮지만, 향후 이 사업이 확대될 경우에 지역학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사업과 중복 가능성도 나타날 수 있고, 주민 대상의 대중적인 인문프로그램에서는 이미 중복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10) 인문한국지원사업 누리집 '지역인문학센터' https://hk.nrf.re.kr/center/centerInfo.do(2024.7.30. 최종 검색).

제3절 지역학 관련 인문정신문화 사업 사례

본 연구에서는 인문학법의 관련 조항과 기존 정책을 검토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인문정신문화 사업 성격을 토대 구축, 사회적 확산·활용, 네트워크 구축으로 범주화하였다([그림 2-3] 참조). 그중 사회적 확산·활용이 중심을 이루며, 네트워크 구축은 〈21세기 인문가치포럼〉이나 국학진흥협의체 구성을 제외하면 미흡한 실정이다. 토대 구축은 주로 유형·무형의 국학자료 발굴과 조사·수집·활용을 위한 '국학 진흥 정책기반 조성사업'과 관련된다. 이 사업은 국학 진흥 기관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기관은 인문정신문화와 지역학을 매개하는 성격을 지닌다. 여기에서는 국학 진흥 정책기반 조성 및 사회적 확산·활용의 주요 사례를 살펴보려 한다.

1. 국학 진흥 정책기반 조성사업 사례

가. 사업의 성격과 특성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학자료 수집 및 연구, 국학자료 활용 및 확산, 국학진흥 청년일자리 창출, 국학진흥 실버일자리 창출, 전라유학진흥원 건립을 지원하는 '국학 진흥 정책기반 조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의 기록문화 및 정신문화와 밀접하기에 지역학 및 인문정신문화와 관련된다. 다만, 국학진흥 청년일자리 창출과 같은 일자리 사업은 복사나 스캔 등 매우 단순 업무에 투입되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어 질적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2024년 기준으로 한국국학진흥원, 한국학호남진흥원, 한국유교문화진흥원 및 율곡연구원이 '국학 진흥 정책기반 조성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다. 그중 사단법인인 율곡연구원 외 3개 기관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립되었고, 각 기관이 위치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또는 시설 운영·관리 조례도 제정되어 있다.

〈표 2-17〉 '국학 진흥 정책기반 조성 사업' 내역(2024년 기준)

내역 사업명	내용	시행주체
국학자료 수집 및 연구	문화재정책의 사각지대에서 훼손 · 멸실 위기에 있는 전통 기록문화를 비롯한 민간소장 국학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 연구를 통해 국학자료를 과학적으로 보존 · 민족의 자산으로 발전	한국국학진흥원 한국학호남진흥원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율곡연구원
국학자료 활용 및 확산	국역 · 국학 전문인력 양성, 국학자료 DB구축 및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일반 국민에게 전통문화를 보급 및 확산	한국국학진흥원
국학진흥 청년일자리 창출	인문학 전공 청년들을 선발하여 전통 기록자료 국역 및 디지털화 사업에 투입하여 전통기록유산 보존 및 대국민 서비스에 기여	한국국학진흥원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국학진흥 실버일자리 창출	고령화에 따른 100세 시대에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중장년층을 근대기록문화조사원으로 선발, 근현대기록자료 수집 · 보존을 통해 향후 K-콘텐츠의 자산 축적	한국국학진흥원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우리나라 성리학 시종지인 부안 도동서원 옛터에 전라권역 유학자산의 발굴 · 연구 · 활용 사업 거점센터 조성을 통해 균형 있는 지역 전통문화 보존에 기여	지자체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3b),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참조 정리

국학 진흥 4개 기관은 인문학 기반의 지역학과 한국학을 매개하며 인문정신문화를 진흥하는 역할을 함께 수행한다는 위상을 지닌다. 또한 각각 영남(경상), 호남(전라), 호서(충청) 및 강원 지역 중심으로 인문자산의 발굴 · 수집 · 보존 · 활용 사업과 인문정신문화 진흥프로그램 운영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외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21세기 인문가치포럼〉을 운영하는 한국정신문화재단(경북 안동) 등의 기관도 있으나, 지역학 관련성은 낮다.

나. 진흥기관별 추진 현황[11)]

1) 한국국학진흥원

한국국학진흥원은 국학자료의 조사와 수집 · 보전, 연구 및 연구자료 발간 · 보급, 국내외 교류, 전통 인문정신 연수사업, 유아 · 청소년 인성교육 등을 위하여 1995년에 경상북도 조례로 설립되었다. 지역적 범위가 영남 지역 중심이어서 해당 지역학 및 안동학 진흥기관으로서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설립 당시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의 전통문화 진흥사업과 밀접히 관

11) 기관 누리집 및 내부자료(2024년 국학 진흥 정책기반 조성 사업 계획서), 담당자 인터뷰 참조 정리.

련되고 인문정신문화 정책 추진 이후에는 이 사업과도 밀접히 관련되기에 '국학 진흥 정책기반 조성 사업'의 네 가지 내역 사업에서 모두 지원을 받고 있다. 이를 통해서 지역의 다양한 기록문화 및 정신문화 유산을 수집 · 보존하는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한국의 유교책판'과 '국채보상운동기록물', 유네스코 아태기록유산인 '한국의 편액', '만인의 청원, 만인소', '내방가사'를 소장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흔히 〈이야기할머니〉로 알려져 있는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사업의 지원도 받고 있다. 이 사업들은 실버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인문자산 활용사업이라는 성격을 지닌다.

이 밖에도 한국국학진흥원은 인문정신연수원을 통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전통문화 체험, 선비정신 체험, 가족공동체 회복을 위한 가정교육, 한국문화 이해와 한류 확산을 위한 한류문화 체험, 인문리더십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그중 선비정신 체험과 인문리더십의 내용은 다음 〈표 2-18〉과 같다.

〈표 2-18〉 한국국학진흥원 인문정신연수원의 관련 프로그램

구분	선비정신	인문리더십
목표	선현들의 선비정신 재조명 및 계승 확산	한국적 가치를 통해 리더의 자세 및 리더십 함양
일정	1박 2일, 10시간	1박 2일, 10시간
교육대상 및 인원	공직자, 교원, 학생, 각급 사회단체 등 40명	기업 임원, 공직자(사무관 이상) 40명
강의	(4시간 택 1) •선비정신, 오늘날에도 유효한가 •선비의 탄생과 재발견 •선비와 교육/선비와 가정교육 •퇴계의 심학(心學)과 경(敬)사상 •선비에게서 배우는 자기 주도적 삶과 자존감 •유학의 근본 사상과 선비정신 •퇴계선생에게 배우는 배려와 존중의 자세 •선비, 마음속 인의예지(仁義禮智)를 싹 틔우다 •선비의 공부법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다 •선비다움과 현대의 윤리적 사고 •올곧음과 실천정신 •투사가 된 선비(임진왜란기 선비들의 활약상/한말 선비들의 절의정신과 실천)	(4시간 택 2) 1. 리더십 •퇴계에게 배우는 배려와 섬김의 리더십 •임진왜란과 서애의 리더십 •옛사람들의 공직생활 •고전을 통해 본 '군자'의 리더십 •선현들의 위기 관리의 리더십 •여성군자 장계향을 통한 여성 리더십 2.청렴 •조선은 어떻게 부정부패를 막았나 •조선 선비들의 빈부에 대한 인식
현장	(4시간 택 3) •퇴계선생 유적지 탐방 : 퇴계종택, 노송정종택, 퇴계태실, 퇴계묘소(택2) •서원탐방 : 소수서원, 도산서원, 병산서원(택1) •석주 이상룡 생가 '임청각'(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배우다) •이육사문학관(퇴계 14대손 민족시인 이육사)	(4시간 택 3) 1.리더십 •도산서당, 퇴계종택, 퇴계묘소 택2(퇴계선생 유적지) •하회마을 옥연정사, 병산서원, 충효당(서애선생 유적지) •임청각(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 석

구분	선비정신	인문리더십
	•유교문화박물관, 현판전시실(유교문화의 이해)	주 이상룡 생가) •향산고택(3대가 독립운동을 한 가문인 이만도 생가) •유교문화박물관, 현판전시실(기록문화에 담긴 선현들의 삶) 2.청렴 •도산서당 •보백당 종택 •만휴정/묵계서원
체험	(2시간) •선현에게 배우는 심신수양법 : 활인심방 •가훈 쓰기/좌우명 쓰기 •우리집 규약(완의) 만들기	(2시간) •선현에게 배우는 심신수양법 : 활인심방 •전통 스토리텔링 퓨전 공연(전통의 이야기와 국악 공연) •장계향의 친정인 경당종택에서의 종가음식 체험
기타	•국악공연	(1시간) •연극으로 풀어보는 선비의 청빈

*출처: 한국유교문화진흥원 누리집(https://www.ikcc.or.kr/ko/0603/content/education2024/)

2) 한국학호남진흥원

한국학호남진흥원은 호남학 자료의 발굴·조사, 학술·연구 및 자료 발간 등을 위해 2017년에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조례로 설립되었고, 국학자료 수집 및 연구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 기관의 설립을 두고 두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에 따라 공동으로 설립하였다. 그에 따라 다른 기관들과 달리 기관의 설립 목적과 사업에 '호남학' 진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한국학호남진흥원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국학자료의 조사·수집·정리·보존, 호남 지역 금석문과 향약 자료 누정원림 등의 조사·연구, 문헌자료 및 시권·일기 자료 등의 국역과 편찬, 호남 국학 종합DB 구축 및 호남학 연구 활성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 호남 국학자료는 2018~2023년 기간에 5만 7천여 점 조사, 4만 4천여 점 수집 등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성과의 결과물은 호남 국학 종합DB를 통해 고문서, 문집, 일기, 서원향교지로 분류되어 서비스된다.

이 밖에도 호남학 대중화를 위해 호남학 TV 사이버 강좌 운영, 호남학 강좌 및 학술대회 지원을 추진하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시도민 대상의 인문 강연회도 개최하고 있다. 다른 기관과 달리 독자적인 청사를 확보하지는 못하였다는 한계로 인해 인문정신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지는 않고 있다.

3) 한국유교문화진흥원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은 2022년에 충청남도 조례로 설립되었고,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유교문화 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호서 지역을 중심으로 국학 자료의 수집·보존·활용 사업을 수행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학 진흥 정책기반 조성 사업' 중 국학 자료 수집 및 연구, 인문학 전공자를 전통 기록자료 국역 및 디지털화 사업에 투입하는 국학진흥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다.

그 특성상,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교육·연수 프로그램은 유교문화를 중심으로 한다. 다만, 그 형태와 방식은 〈표 2-19〉에 보이듯,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표 2-19〉 한국유교문화진흥원 2024년 교육·연수 프로그램

구분	대상		프로그램명	내용	기간	시간
기관탐방	전연령		다시, 유람	문화해설사(도슨트)와 함께하는 전시해설프로그램	3~12	기본 30분
유교문화 스토리텔링	가족		사람을 잇다	유교문화유산을 주제로 가족들이 화합하여 모빌을 창작하는 가족협업프로그램	7~12	120분
	학생 단체	초등	동몽들과 함게 놀기	선비의 삶을 놀이와 이야기로 만든 협동 프로그램	4~12	100분
		중등	헤리티지 Talk Talk	유교문화유산에 담긴 이야기를 통해 나를 되돌아보는 청소년 인성교육프로그램	4~12	120분
융복합		초중등	시조 배울랩	K-유교인물들의 시와 K-pop의 랩들을 연계한 융복합 프로그램	9~12	120분
진로 연계		중등	청춘에 쓰는 서찰	수능을 마친 고3 수험생들을 위한 전시관람, 공연, 유교문화체험 프로그램	12	120분
청년 멘토링	대학생		대학생 문화 인턴십	대학생을 위한 실무교육프로그램 (교육봉사, 학점연계, 근로장학)	1~12	해당 없음
라키비움 연계	전연령		북클럽 공간(共感)	독서지도사와 함께하는 독서 모임	5~12	120분
			북콘서트 지향(智香)	유교문화 속 정신과 연계된 대중 도서 작가 강연과 공연 프로그램	연중 1~2회	120분
시민 교양 강좌	성인		K-유교문화 아카데미	유교문화 관련 시민교양강좌 프로그램	7~12	120분
전문인력 양성	공무원 등		유랑일지	공직자들을 위한 여행을 품은 강의·답사·체험 프로그램	3~12	반일, 1일, 1박 2일

*출처: 한국유교문화진흥원 누리집(https://www.ikcc.or.kr/ko/0603/content/education2024/)

한편,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종교문화활동 지원'에 의해 '외국인 국내정착 지원 유교문화 프로그램 운영'(2024년 신규)에 대한 지원도 받고 있다. 이 사업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정착 지원을 위해 상호 문화 전시, 영상 제작, 답사, 체험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유교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내용이다. 또한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은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 예산의 지원을 받아 '예학 관련 고문헌 DB 구축 및 온라인 서비스 구축'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한국 예학(禮學)의 거점인 충청권을 대상으로 한 '주요 예학서 번역 및 출간, 고문헌 디지털화(원문 DB 구축)', '예학서 연구 학술세미나 개최', '예문답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타기관 예학서 번역물 수집 및 온라인 서비스를 위한 MOU체결', '한국 예학서 활용시스템 개발,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4) 율곡연구원

강원도 강릉시에 소재한 율곡연구원은 강원도 출연기관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위의 세 기관과 달리 사단법인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권역별 국학진흥기관 확대 추진에 따라서 '국학 진흥 정책기반 조성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다.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강릉시 출신인물인 율곡 이이의 학문과 정신 선양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학술단체인 '율곡학회'를 부설조직으로 두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한 국학자료 정리사업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24,830개 자료를 조사 정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율곡연구원, 2024: 30).

율곡연구원은 강원권 중심으로 문중이나 개인, 마을 등이 보유한 기록유산을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강원기록유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성과를 고문서, 고전적, 유물, 근현대문서, 근현대전적으로 분류하고, 이들 자료의 이미지와 해제를 제공하는 '강원 한국학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2024년 8월부터 공개하고 있다. 수집된 자료 중 2024년 8월 현재 해제를 마친 자료는 약 2,000건에 달한다. 율곡연구원의 자료 조사·수집 및 아카이브 구축에서는 유산기(遊山記) 등의 유람기(遊覽記)가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그에 따라서 '유람기, 전통과학, 강원문집, 옛 문서 이야기'로 나눠 주제별 서비스도 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AI 검색서비스를 도입하여 이용자의 관심이나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주제로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서비스할 계획을 갖고 있다.

율곡연구원은 율곡인문포럼, 시민인문 강좌, 전통인문연수 등의 인문정신문화 진흥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중 '전통인문연수' 사업은 강원도 관련 역사인물들의 삶과 사상을 오늘의 시각에서 되새기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인문정신 학습·체험 프로그램이다. 강의, 현장학습, 체험·관람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며, 당일, 1박2일, 2박3일 등의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표 2-20〉 인문정신문화와 지역학 매개기관 현황

구분	한국국학진흥원	한국학호남진흥원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율곡연구원
설립 연도	1995 (1995.12.7. 개원)	2017 (2018.4.6. 개원)	2022 (2022.10.1. 개원)	1992
설립 조례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경상북도)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광주광역시)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라남도)	재단법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충청남도)	- (*사단법인)
수행 사업	1. 국학자료의 조사·수집 및 정리·보존 사업 2. 국학연구 자료의 발간 및 보급사업 3. 국학자료 및 학술 관련 국내외 교류 4. 전통문화 보급을 위한 박물관 및 전시관 운영 5. 전통 인문정신 연수사업 6. 학술 및 연수 관련 수탁 사업 7. 유아 및 청소년의 정서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 8.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무 9. 그 밖에 국학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1. 호남학 자료의 발굴·조사 및 수탁사업 2. 호남학 자료에 대한 학술·연구 및 자료 발간, 보급·홍보 사업 3. 호남학 자료관 운영 및 호남학의 문화콘텐츠 활성화 사업 4. 호남학 및 호남문화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5. 민간 연구조직 및 인문예술 활동의 컨설팅과 정보 제공 6. 한국학 진흥단체 간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 7. 그 밖에 호남학 진흥 및 연구에 필요한 사업	1. 유교문화에 관한 학술 조사·연구 2. 유교문화 자원의 보존·활용 및 전시·홍보 3. 유교문화 교육·연수·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유교문화 기관 간 국내·외 교류 및 협력사업 5. 충청유교문화권 진흥 사업 6. 국학자료 조사·수집 및 보존 7. 국학연구 및 자료 발간 8. 국학 진흥기관간 교류 및 협력사업 9.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업 및 진흥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1. 학술연구 2. 교육연수 3. 평생교육 4. 율곡&신사임당 얼선양 5. 강원기록유산
지역학 관련	지역 기록유산 수집보존 및 국역 콘텐츠 서비스, 안동학 진흥사업 추진	지역 기록유산 수집보존 및 국역, 호남학 진흥사업 추진	지역 기록유산 수집보존 및 국역, DB 서비스	지역 기록유산 수집보존 및 DB 서비스
인문정신 문화 관련	인문정신 연수프로그램 운영	인문 강연회 개최	충청유교문화, 예학 진흥사업 추진, 교육·연수프로그램 운영	인문정신 연수프로그램 운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각 기관 누리집 및 담당자 인터뷰 참조 정리

다. 공통 추진사업

‘국학 진흥 정책기반 조성 사업’은 2002년부터 한국국학진흥원 주관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한국학호남진흥원 등의 기관이 지역별로 설립됨에 따라 2018년 이후로 권역별 지원 체계로 변화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에 따라서 이 사업의 지원을 받는 4개 기관은 국학진흥협의체를 구성(2020.6.)하여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한 공통사업으로는 민간 기록문화 보존·활용과 관련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학술행사 개최, 기록문화 활용 콘텐츠 공모 및 제작 등을 추진하였다.

한편, 2023년부터 4개 기관 협력은 주로 ‘민간 기록문화 통합 서비스 플랫폼 구축’에 집중되고 있다. 이 사업은 “개별적, 분산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국학진흥기관의 민간 기록문화 자료에 대한 목록 정비 및 등록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효율적인 메타데이터 추출, 입력 기능과 빠르고 다양한 검색지원을 통해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업무편의 방안 마련”(한국국학진흥원, 2024: 1)을 위해 한국국학진흥원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2021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2024년에는 민간 기록문화 자료 관리 고도화, 기관별 자료 수집 및 관리를 위한 API 개발, 자료 목록 조회 및 대국민 서비스, 종가(한국국학진흥원), 누정(한국학호남진흥원), 향교(한국유교문화진흥원), 선교장(선교장) 등 기관별 특화 콘텐츠 제작 등을 포함한 플랫폼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각 기관이 수집한 국학자료에 대한 연계 및 통합 검색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표 2-21〉 국학 진흥 기관별 기록문화 아카이브

구분	한국국학진흥원	한국학호남진흥원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율곡연구원
명칭	전통과 기록	호남 국학 종합 DB	-	강원 한국학 아카이브
주소	https://portal.ugyo.net	http://db.hiks.or.kr	-	https://db.yulgok.or.kr
비고	주제 영역별 DB 구축 및 누리집 운영 중		충청축학 아카이브 및 한국예학 아카이브 구축 중	

2. 지역 관련 인문프로그램 운영 사례

가. 〈삼삼오오 청년 인문실험〉 사례

인문학의 위기로 인한 인문 전문인력의 일자리 부족에 대한 사회적 과제 해결 요구

및 인문 활동 수요의 지속적 증대에 따른 정책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부터 미취업 인문 전문인력과 지역 생활문화시설 연계를 통한 인문정신문화 선순환 생태계 창출을 위해 〈생활문화시설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 사업에서는 '생활문화시설 인문프로그램', '삼삼오오 청년인문실험 공모전' 및 '청년 인문상상 프로젝트'가 추진되었다.

〈표 2-22〉 2022년 기준 〈생활문화시설 길 위의 인문학〉 세부사업

분야		목적	사업내용
생활문화시설 인문프로그램		•지역 생활문화시설과 인문전공자를 활용한 자생적 인문 활동 촉진 •생활문화시설 기반 인문프로그램 지원으로 생활밀착형, 지역친화적 인문 활동 모델 구축 •인문전공자의 지역기반 활동기회 제공으로 우수인력 사회활동 촉진	•지원내용: 지역의 생활문화 시설과 미취업 인문전공자가 협력 기획한 인문프로그램 지원 •지원대상: 전국 생활문화시설 •인문 · 문화 소외 지역 예비 성년(2021년, 고3)의 가치관 확립 및 인문학적 교류와 소통을 통한 사회적 동기 부여
인문실험 공모전	청년 실험형	•청년의 인문 저변 확대 및 창의 프로그램 발굴	•개인 문제부터 사회 문제까지 상상력을 더해 인문 관점에서 탐구할 수 있는 실험활동 지원 •지원내용: 만 39세 이하 청년 3인 이상 구성팀에 인문실험 활동비 지원 •분야: 인문 가치를 접목한 생활인문 및 사회변화 실험
	시민 협업형	•인문 저변 확대 및 창의 프로그램 발굴	•지원내용: 시민, 인문문화 단체 · 협회 · 연구기관 •인문연구자가 함께 협업 · 기획한 실천형 인문프로젝트 지원 -실험유형: 연구, 조사, 기록, 캠페인 등 -실험주제(자유): 사회문제 해결 인문프로젝트
청년 인문상상 프로젝트		•인문문화단체가 지역의 자생적 인문단체로 자리 잡도록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역량 강화	•창업 3년 이내 전국 청년인문 · 문화단체 대상 인문 프로젝트비 지원 •공모 분야 -사회영역: 다양한 사회의제에 대응하여 인문 가치로 지역과 사회발전을 이끄는 인문실천분야 -개인 · 공동체 영역: 개인행복과 공동체 형성 등 인문 소통 · 확산 분야

*자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2022), 「2022년 생활문화시설 길 위의 인문학 만족도 조사」, pp.28-29.

2018년부터 청년층의 인문 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특별사업으로 추진되는 〈삼삼오오 청년인문실험 공모전〉은 세대 간 소통을 도모하는 인문프로그램과 인문으로 시도하는 지역 및 사회문제 해결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청년실험형과 시민협업형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이 사업을 사례로 지역 및 지역학과 연계를 살펴볼 수 있

다. 2021년의 경우(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2: 37), 지역사회에서 청년과 어르신의 소통, 재건축으로 인해 사라지는 도시공간에 대한 아카이빙, 지방소멸에 대한 해결책 탐색 등이 성과로 나타났다. 2022년의 경우(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3: 29), 지역과 어우러진 인문 활동 분야 발굴, 사회문제 인식 및 인문 활동을 매개로 이웃과의 소통 도모 등이 성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들은 지역 단위에서의 인문 활동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인식의 공유와 기록화 등을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지역학적 의의도 지닌다.

〈표 2-23〉 '청년 인문실험 공모전'의 지역 및 지역학 관련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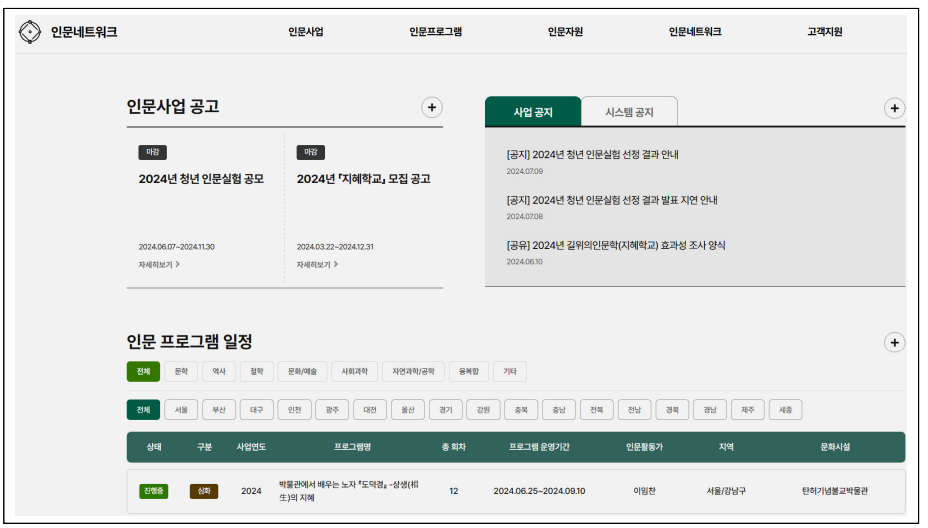
연도	성과	세부 내용
2021	인문프로그램을 통한 세대 간 소통 도모	•청년의 고민을 어르신의 이야기로 통한 소통, 어르신의 이야기를 낭독극으로 제작하여 노인의 삶에 대한 사회적 가치 증진 및 이해와 공감의 확장 •재건축으로 사라지는 도시공간을 다양한 형식으로 아카이빙
	인문으로 지역 및 사회문제 해결 시도	•지방소멸 에 대한 해결책 탐색,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제로 웨이스트 비건 요리 키트 개발 •차별과 혐오와 함께 고민하고 마주할 수 있는 인식의 변화 추진 •안전하게 일할 권리 선언 릴레이 확장
2022	지역과 어우러진 인문 활동 분야 발굴	•(청년실험형) 구시가지의 유휴공간을 사진관으로 바꿔 사진과 공간을 매개채로 지역 주민들의 청춘을 기록하고 전시회 개최로 거리와 커뮤니티 활성화 •(청년실험형) 마을네트워크가 붕괴된 관악구 신림동 원룸촌에서 책, 편지, 동네 지도 등을 제작 후 패키징한 인문학 키트를 중고거래 어플로 무료나눔하며 '인문학'과 '사유할 기회' 제공 •(청년실험형) 재개발로 사라질 춘천시 후평주공 4단지의 주민, 상인, 행인 등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기록 작업으로 춘천의 이야기를 아카이빙
	사회문제 인식 및 인문 활동을 매개로 이웃과의 소통 도모	•(청년실험형) 대학 내 노동자들의 휴게공간과 관련하여 노동자들의 의견과 학생들의 연대를 이끌어냄 •(청년실험형) 2030세대 젊은 투병인들을 취재하며 '먹는 일'의 중요성을 깨닫고 단순 생존이 아닌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에서 필수 존재임을 깨닫고 그들의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도록 회복하는 프로그램 운영 •(시민협업형) 나이가 아닌 진정한 어른이 누구인지 청년들이 인터뷰하며 답을 찾아가는 실험 진행 •(청년실험형) 은둔 · 고립 청년들로부터 '오늘 하루 한 끼' 식사에 대한 에세이, 사진, 드로잉을 수집하고 다양한 세대의 지역주민이 그들을 인터뷰하여 전자책 제작

*출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2022), 「2022년 생활문화시설 길 위의 인문학 만족도 조사」, p.37 표 및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2023), 「2023년 생활문화시설 길 위의 인문학 만족도 조사」, p.29 표 재구성.

나. 인문네트워크의 인문프로그램 사례

인문 종합플랫폼인 〈인문360°〉 내에 있는 '인문네트워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인문정신문화 전담기관(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인문사업 공모 및 접수, 인문프로그램 검색 · 조회 및 신청, 인문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 · 활동 지원, 인문사업 문화시설 · 인문 활동가(강사) · 인문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는데([그림 2-6] 참조), 인문프로그램 정보를 통해서 지역학 관련성이나 한계를 살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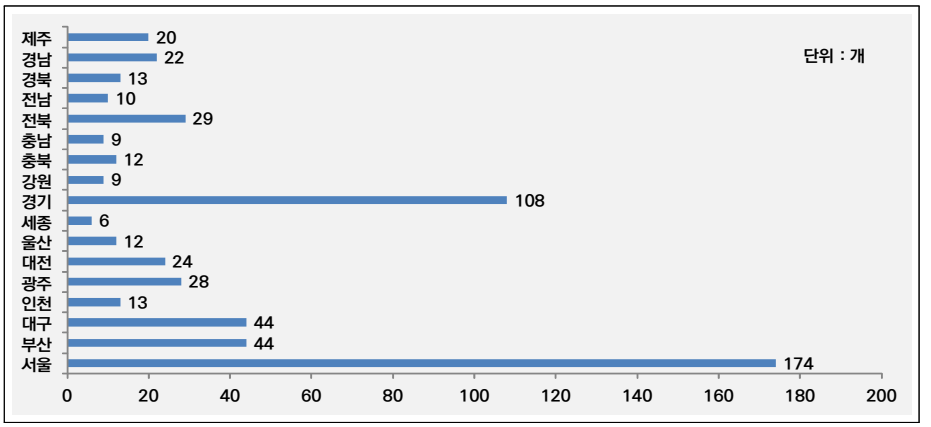
[그림 2-6] 인문네트워크 누리집의 유형 분류 화면



*출처: 인문네트워크(https://inmun360.culture.go.kr/b2bc/index).

'인문네트워크'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운영되었거나 운영 예정인 인문프로그램 총 577개의 운영 지역을 보면(2024.8.20. 최종 검색 기준), 서울 30.2%(174개), 경기 18.7%(108개) 등의 순이었다. 대체로 경기도를 제외한 도 단위 지역의 운영프로그램 수가 적은 편이고, 시군 단위에서는 군 지역의 운영프로그램이 적었다. 특히 2023년 시점 소멸위험(이상호, 2024) 16개 군의 경우, 운영프로그램이 2022년에는 전무하였고, 2023년에는 전북 순창군과 경북 예천군에서만 각 1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을 뿐이다. 2024년에는 경북 의성군, 전북 순창군, 전남 보성군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이전 시기에 비해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7] 2022~2024년 인문네트워크 프로그램 현황(2024.8.20. 검색 기준)



한편, 인문네트워크 상에서 인문프로그램 분야는 '문학, 역사, 철학, 문화/예술, 사회과학, 자연과학, 융복합, 기타'로 나뉜다. 그러나 '지역'이나 '지역학'은 분류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표 2-24〉에서 볼 수 있듯이 각 분야의 세부 정의에 '지역사' 정도가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표 2-24〉 인문네트워크의 인문프로그램 분류

분야	정의	
문학	•문학일반, 동양 · 서양문학, 문예이론, 문학이해, 인문학적 글쓰기 등	
역사	•역사일반,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고고학, 민속, 미술사, 문화사, 전통문화, 지역사, 예술사 등	
철학(종교)	•철학일반, 동 · 서양철학, 미학/예술학, 종교일반, 한국 · 동양 · 서양종교, 윤리, 신화 등	
문화 · 예술	•음악, 미술, 연극, 영화, 콘텐츠, 문화재, 문화이해교육 등	
인문기반 학제 간 영역	사회과학 계열	•인문학과 연계하여 시민의 의식수준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사회전반(시민 정치 · 경영 · 경제 · 외교 · 법 등)을 다루는 영역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인문학과 연계하여 현대사회의 시대적 흐름을 이해하고자 생활과학, 자연과학, 천문 · 지리 · 생명과학 · 공학 분야를 다루는 영역
융복합	•특정한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학문간 교류와 융합에 기반을 두고 인간의 가치 및 인문자원을 다루는 영역	
제외분야**	•어학습득교육(외국어회화, 토익강의 등), 직업교육(요리교실, 캘리그래피, 퀼트 등), 직무습득(세법, 컴퓨터관련 등), 학력보완과정(문해교육 등), 자격관련습득(바리스타, 사회복지사, 각종 강사반 등), 음악교실(합창, 노래교실, 악기류: 기타 · 우쿨렐레 · 하모니카 · 바이올린 · 피아노 등), 단순실기교육(꽃꽂이, 캐리커처그리기, 공예, 무용, 바둑교실, 서양화, 서예, 주산 · 암산 등), 사주 · 관상, 영화감상, 비학술적 체험교육(행사에서의 단순체험 등)	

*자료: 인문네트워크(https://inmun360.culture.go.kr/b2bc/index) 내 공개된 2024년 〈길 위의 인문학〉 · 〈지혜학교〉 모집 공고문 및 2023년 생활문화시설 인문프로그램 지원 사업 공고문 참조 정리.
*주: 제외 분야는 2024년 〈길 위의 인문학〉 · 〈지혜학교〉 사업에만 해당됨.

분야 분류에 '지역/지역학'이 포함되지 않기에 인문네트워크 내 등록된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지역/지역학' 주제는 많지 않다. 지역이나 지역학 관련 내용이 포함된 사례를 일부 확인할 수 있는데, 문화/예술 분야의 '향토문화 인문학 강의', 문학 분야의 '문학과 예술로 지역을 이해하는 지혜', 역사 분야의 '연천의 문화유적 답사와 강의를 통해 이해하는 우리 역사의 쟁점과 연천의 지역사', 융복합 분야의 '정주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한 신나는 상상학교-살고 싶은 마을 이해하기, 만들기, 상상하기' 등이다. 특히 인문프로그램 중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었다. 현재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프로그램의 하나로 융복합 분야의 '정주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한 신나는 상상학교-살고 싶은 마을 이해하기, 만들기, 상상하기'를 들 수 있는데, 그 세부 프로그램 내용은 〈표 2-25〉와 같다.

〈표 2-25〉 '정주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한 신나는 상상학교' 사례

구분	주제	구분	주제
1회차	• 이사의 기억: 참가자들이 이사의 기억을 이야기하며 정주에 좋은 요소를 찾아본다. 정주 환경의 공통점과 차이를 이해한다. (강의와 토론)	14회차	• 정주 문화를 풍요롭게 하는 문화적 공간들(미술관과 박물관)에 대한 강의와 토론: 미술관과 박물관의 사회적, 지역적, 정책적 기능과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점점 더 시민 참여의 지지의 기회를 더 필요로 하고 있는 미술관(박물관)에 대해 이해케 한다.
2회차	• 열린 공공장소로서 마을의 공동체 텃밭정원(강의와 토론): 텃밭 정원이 어떻게 공동체를 회복시키는지 사례를 중심으로 강연.	15회차	• 파주민속박물관을 방문 : 파주민속박물관을 방문하여 전시물품과 시설, 프로그램을 파악하고, 박물관 관계자와 인터뷰 시간을 갖으며, 지역 사회 속에서 박물관의 의미와 시민참여에 대해 의견을 공유한다.
3회차	• 파주 살래공동텃밭(견학 및 토론): 3년 만에 비닐 멀칭이 사라지고, 채소뿐 아니라, 허브와 꽃들이 있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활동이 풍성한 공동체 텃밭정원으로 변한 살래공동텃밭 견학	16회차	• 지역의 자원순환을 위한 이해와 활동(강의, 조사): 참여자들은 각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폐기 자원과 흐름, 각종 재활용 시설 및 수리 시설에 대해 조사토록 하여 발표한다. 발표 후 도시의 똥과 오줌의 처리와 폐기, 활용과 관련된 흐름과 관련 기술을 이해하고, 지역 자원의 순환에 대해 생각토록 한다.
4회차	• 공동체 텃밭정원의 필요성에 대한	17회차	• 교환과 나눔의 공공장소인 시민 장터(파주햇빛장 견학): 파주 햇빛장을 살펴보고, 장꾼, 소비자들에 대해 인터뷰하고, 장에서 사회적 교류와 교환 등 역할을 파악토록 한다.
5회차	• 놀이터의 역사와 아이들의 공공장소 (강의와 토론) : 최초의 놀이터부터 21세기의 놀이터까지 역사적으로 살피며 다양한 놀이터의 종류와 놀이에 관한 철학과 아이들의 성장과 행복, 사교를 위한 공유지로서 놀이터에 대한 강의와 토론.	18회차	• 마을의 공방과 마을의 생산 (사례 공유, 조사, 토론)

구분	주제	구분	주제
6회차	• 지역의 놀이터 조사와 개선점 파악 : 파주 임진각 놀이터(누리성 탐험대의 길) 또는 운정 호수공원 놀이터 놀이기구 평가와 개선점 파악 (현장 조사, 토론, 발표)	19회차	• 내가 살고 싶은 마을 지도 그리기(워크숍): 상상력을 발휘해서 지금 내 공간, 마을을 바꿔보는 작업. 내가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마을의 이상적인 모습은? 공공의 장소를 중심으로 마을을 꾸미거나 변화시켜보며 의견을 나눈다.
7회차	• 걸어 다닐 수 있는 도시를 함께 읽고 보행자 친화도시, 자전거 친화도시와 마을을 만들기 위한 요소와 결과에 대한 토론과 상상하기	20회차	• 마을 생태 지도 그리기(워크숍) : 집 주변의 색과 모양, 주변 나무들의 종류, 꽃이 피는 장소와 시간들, 동물들과 오가는 이들, 반복되는 것들, 각자의 디테일을 지도처럼 펼쳐서 표현해본다
8회차	• 마을 보행골목 및 도로, 차도 조사하기 (워크숍): 구글 지도를 이용하여 참가자들이 살고 있는 마을의 도로와 골목, 보행 가능하고 안전한 길을 표시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발표하기.	21회차	• 마을 스케치(워크숍) : 책방 주변(혹은 출판단지나 강 근처)의 마을을 관찰하고 생동감 있게 그리면서 의미있는 풍경을 찾아가는 시간. 서로 의견을 나누며 마을살이의 의미에 대해 생각한다.
9회차	• 마을교육공동체와 커뮤니티 스쿨 (강의 및 토론): 학교는 마을과 분리될 수 없고,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생각케 하고, 세계의 커뮤니티 스쿨의 종류와 사례를 소개하고, 한국 마을교육공동체 활동 등에 대한 강의	22회차	• 나의 하루 지도 만들기(워크숍) 하루 일과, 출퇴근길, 산책길, 장보기 등의 일상을 연결시켜 나의 하루에 대한 시간지도를 만들어 마을에서 머무는 시간, 이웃과의 겹침과 차이를 시각적으로 느껴본다.
10회차	• 공공시설로서 학교건축 디자인의 역사 (강의와 토론): 근대에서 현대까지 사회 변화와 교육학 변화에 반응하며 발전해온 학교건축의 역사를 살피며, 학교와 사회, 지역, 공간의 관계에 대해 생각케 하는 강의	23회차	• 마을 네크워크 지도 그리기(워크숍) 마을에서 알게 된 사람들의 관계를 장소와 연관 지어서 지도 형식으로 엮어 나가기. 개개인의 특징을 떠올리며 캐릭터화해보고 서로 연결 확장시켜 나간다.
11회차	• 21세기 학교와 공간 모델(강의와 토론): 디지털화 되어가는 사회에서 새로운 역량의 개발과 더불어 학습방법의 변화를 요청받고 있는 학교의 공간 모델과 평생교육기관이자 복지 공간으로 역할을 요구받는 21세기의 학교의 공간 모델에 대한 강의와 토론을 통해 마을의 주요한 교육기관으로서 학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한다.	24회차	• 우리가 살고 싶은 마을 함께 그리기(워크숍, 공동작업): 살고 싶은 마을의 이상적인 모습을 함께 이야기 나누고 토론한 후 그것이 담긴 이상적인 마을지도를 함께 완성해나간다.
12회차	• 정주환경과 도시 공공장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영상 시청 및 토론	25회차	• 전시 및 총평: 그동안 작업한 것을 책방에 전시하고 마을과 마을 워크숍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눈다.
13회차	• 정주 문화를 풍요롭게 하는 문화적 공공공간들(도서관) (강의와 견학): 공간 디자인 변경 후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파주 중앙도서관 견학하고, 현대 도서관의 기능과 변화에 대한 현장 강의		

*자료: 인문네트워크(https://inmun360.culture.go.kr/b2bc/index) 제공 자료 정리

제4절 소결

인문정신문화 정책은 인간 및 인간의 근원문제에 관련된 인문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중요 방향으로 설정하며 정책적 관심의 폭을 넓혀왔다. 인문정신문화 진흥 그 자체에서 점차 인구구조 변화, 지역의 소멸 및 정주의식 약화 등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로까지 관심을 확대해 왔다. 그에 따라서 인문강좌 중심에서 벗어나 참여와 사회 문제 해결형 인문 활동 지원을 확대 및 강화하며 〈삼삼오오 청년 인문실험〉, '인문 활동가 연구자 협업 연구, 사회문제 해결 인문 프로젝트', 〈인생나눔교실〉, '청소년 인문 문화프로그램 운영',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운영', '사회시설 활용 인문프로그램 운영', 〈문화로 사회연대〉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추진은 지역사회의 문제에 주체적으로 대응하며 문제를 극복하는 단초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들이나 민간 영역에서는 지역학 진흥을 위한 조례의 제정이나 기관·단체 기구의 설치 및 진흥사업 추진 등 지역학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지역학 진흥의 목적에서는 지역 정체성의 확립과 주민의 자긍심 고취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의 미래상 제시 등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에 따라서 인문정신문화 정책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존 사업 방식을 넘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로까지 관심의 폭을 넓히고 있다.

이와 같이 인문정신문화 정책과 지역학은 그 관심 및 지향에서 유사한 점이 많으나, 아직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인문정신문화 사업들의 지역사회 및 지역학 연계성은 낮은 실정이다. 이 장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면서 먼저 지역학의 특성 및 정책 측면과 관련한 동향을 살펴보고, 이어서 인문정신문화 정책 및 그 사업 현황을 지역학과 관련성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의 주요 내용과 도출된 시사점을 다음처럼 정리해 볼 수 있다.

먼저, 지역학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고, 그러한 배경에서 지역학 진흥에서는 지역 정체성 확립과 주민 자긍심 제고를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점이다. 지역학 진흥 조례 제정이나 지역학연구센터 운영 등 지역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지역학 진흥사업은 그 태동 배경뿐만 아니라 사업 시행에서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주민의 자긍심·애향심 제고를 목적 또는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지역 발전을 위한 미래상 제시처럼 좀 더 미래지향적 측면에 대한 관심을 두기도 한다. 다만, 이러한 목적에 의한 사업의 추진에서 그 대상이 지역 주민에 한정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은 한계가 될 수 있는데, 최근에 지역사회 문제에서 생활인구 내지 관계인구에 주목하는 상황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지역 고유의 인문 자원을 브랜드화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제를 포함하였으나, 시행계획에서는 지역의 인문브랜드에 관한 내용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지역학이 정책적 관심을 받게 된 배경에는 지역학의 성과를 활용한 지역브랜드 개발도 관련이 있다. 즉, 지역학의 성과는 지역의 인문 자원을 활용한 브랜드 발굴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이러한 점에서도 지역학과의 연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비해서 기존 인문정신문화 사업들은 대체로 인문 가치의 이해와 사회적 확산을 목적으로 하지만, 지역의 발전이나 미래처럼 지역 단위에서 관심을 갖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인문강좌 등의 사업이 중심인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 기본계획 상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포괄하지만, 각 사업이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인문정신문화 정책 차원의 통합적 접근과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역학과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유관 정책을 통합적으로 점검하면서 지역학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지역 정체성 확립과 주민 자긍심 제고에 대한 인문정신문화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인문학법의 규정과 기존 인문정신문화 정책을 분석한 결과,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성격은 크게 토대 구축, 사회적 확산·활용, 네트워크 구축으로 나뉜다. 그중 지역학과의 관련성이 두드러진 것은 토대 구축 범주의 사업이다. 인문정신문화 사업과 기존 추진 정책을 비교해 보면, 토대 구축 사업으로 유형·무형의 자산 발굴 및 연구·보존, 사회적 확산·활용 사업으로 문화시설을 활용한 인문교육 및 인문프로그램 운영, 인문 콘텐츠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 네트워크 사업으로 교류협력 기반 구축이 중요한

축으로 제시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범주의 사업들은 앞에서 살펴본 지역학 관련 동향에서도 중요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학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발전방안 모색에서도 이들 사업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지역 인문정신문화 및 관련 자원의 조사와 수집, 보전을 위한 아카이빙, 인문교육 등이 중요하다. 그중 전자의 경우, 지역별 국학진흥기관을 활용한 '지역 소재 국학자료 수집·활용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각 기관은 국학진흥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나, 다양한 지역학 기관·단체와의 협력은 미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 인문정신문화 조사·연구 및 인문정신문화 자원 보전·활용의 체계화를 위하여 좀 더 지역학과 연계 하에서 종합적·통합적 관점에서 관련 기관·단체의 역할에 대한 고민과 협력 활성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 예로, 지역 단위에서 국학자료를 포함한 인문정신문화 자산의 조사·수집과 활용을 위해 마을 단위까지 지역 내 사정에 밝은 지방문화원의 경험과 역할을 적극 고려하며 협력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지역에서 인문교육이 주로 문화시설에서의 인문프로그램 운영에 국한되는 경향이라는 점도 중요한 시사점이다. 인문정신문화 사업에 비해서 지역학연구센터나 지역학연구소 등의 사업은 자료의 조사·수집과 연구, 결과물의 편찬뿐만 아니라 지역의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지역 이해 교재 개발 등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인문학법에서는 양성된 전문인력을 인문교육 시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인문정신문화 정책에서 일자리 사업은 있으나,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부재한 실정이다. 이 외에 〈21세기 인문 가치포럼〉을 제외하면 교류협력 사업도 잘 드러나지 않는다.

현행 인문정신문화 사업은 법률에서 규정한 사업 범주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향이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지역학과의 연계는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역학 연구자는 대체로 인문적 소양과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이고, 이들이 지역에서의 인문교육이나 인문프로그램 운영 등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인문정신문화 사업에 대한 이해, 기존 사업성과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인문정신문화 사업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 문제나 이슈를 고려한 접근에 대해 고민할 필요도 있다.

또 하나의 시사점은 인문정신문화 정책과 전통문화·지역문화 정책 간 유기적인 결합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지역 인문 자원 발굴·활용 및 기반 강

화' 과제는 지역 단위의 인문정신문화 진흥과 밀접히 관련되지만, 기존의 전통문화나 지역문화 정책사업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이는 지역 단위에서 인문정신문화 사업이 전통문화나 지역문화와 밀접히 관련됨을 알려주고, 지역 단위에서는 해당 정책사업들이 큰 구분 없이 추진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개별 단위 사업의 구분보다는 해당 사업들이 인문 가치 및 인문정신문화의 지역사회 확산에 좀 더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현행 인문프로그램 운영에서는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도 시사점 중 하나다. 인문네트워크 검색 결과, 지역에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군 단위 지역이나 소멸위험 지역에서 취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좀 더 지역학과 연계를 확대한 인문프로그램 운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행 인문네트워크 사업 분야에서 지역 내지 지역학을 설정하는 것이다.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대표 인문프로그램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지혜학교〉를 통해 지역문화·민속학·지역학 등의 심화과정 운영을 포함하였으나, 인문네트워크에서는 '문학, 역사, 철학, 문화/예술, 사회과학, 자연과학, 융복합, 기타'만 설정하고 있다. 인문 활동가 구분도 동일한 기준에 의한다. 이는 인문프로그램 운영에서 지역이나 지역학 성과의 활용에 대한 고민을 감소시키는 배경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인문프로그램 운영에서 지역학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야 설정에 '지역/지역학'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이 밖에 가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향후 인문학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술 관련 법안이나 기록문화 관련 법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환경 변화를 대비하여 한 연구(이세정, 2023)에서는 기존 인문학법의 개정이나 독자적인 인문정신문화 진흥 법률의 제정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역학을 인문정신문화 진흥과 밀접한 학술적 토대로서 고려하여 제도 정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지역학 및 인문정신문화 정책 유관부처인 교육부의 정책 동향에 대한 분석 내용과 그 시사점을 인문정신문화 사업 범주로 구분하면 다음 〈표 2-26〉처럼 정리해 볼 수 있다.

〈표 2-26〉 지역학과 인문정신문화 정책의 동향 및 시사점 분석

구분	주요 분석 내용			시사점
	지역학	인문정신문화 정책	인문학 정책	
토대 구축	•지역학은 지역성과 정체성, 주민의 소속감 등에 관심 -로컬 및 마을학, 마을 인문학 논의로 확장 •지역학 진흥 조례 제정 증가 -지역 정체성 정립, 지역기록 보존, 지역연구 지원, 콘텐츠 개발 등 규정 •지역학의 중요 역할은 지역 문화자산 발굴·조사·수집 및 아카이빙, 연구 등 -지역 자료 수집·보존 및 DB화 추진은 일부 사례에 한정 -지역학연구센터의 역사·문화 중심 개편 사례 존재 -지방문화원의 지역자료 수집 보존 및 DB, 연구 취약 역량 취약 •지역 양성 인력(시민기록가, 구술채록가 등)의 역량과 활동 안정성 제고 필요	•인문자산 수집·보존 등은 정책의 핵심 영역 -국학진흥기관의 국학자료 수집 보존 및 DB화 중심으로 추진 중 -2차 기본계획에 마을아카이브, 지방문화원 소장 자료 디지털화 지원, 국학진흥기관 확대 포함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인문정신문화 사업기관 데이터의 표준화 추진 •2차 기본계획에 인문 연구자, 인문 활동 지원 확대 명시 •인력 양성에 대한 관심 및 사업 부족 -인력과 연계된 일자리 사업의 질적 제고 필요 •기록문화 관련 법률안 발의 가능성	•지역 인문자산 발굴·활용 강화 추진 -한국학자료 통합플랫폼 구축(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문학 관련 법률안 발의 가능성	•지역 정체성 확립과 주민 자긍심 제고를 위한 정책 관심 필요 -마을학 등에 대한 논의로 확장 •인문자산 수집·보존, DB 구축과 아카이빙을 지역학 연계의 주요 접점으로서 인식 필요 -인문 관련 지역연구와 연계, 제도 정비 고려 •지역학-인문정신문화 연계형 인력 양성 및 기존 인력의 전문성 제고 추진 필요 -문화활동가, 지역 양성 인력 등 대상의 교육 운영
사회적 확산·활용	•지역학은 주민 삶의 질, 공동체의 활성화·회복 중시 -애향심·자긍심·정주의식 제고는 지역학 진흥 조례의 주요 목적 •지역학은 실천지향적, 실용적 성과 창출 중시 •대중강좌 범람문제 대두	•삶의 질, 인문 가치 확산은 법 제정 목적 •인문정신문화 사업 실현 공간으로서 지역에 주목 •인문프로그램의 질 제고 및 대상 확대 추진 -인문심화과정 운영, 사회시설 인문프로그램 운영 -지역과 연계한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추진 •인문 자원 기반 문화콘텐츠 개발 추진 -인문으로 지역 매력 제고 추진 •지역 인문거점으로서의	•지역대학 지원성과의 활용과 대중화 추진 -지역인문학센터 운영 -지역 단위 대중강좌 급증 •초·중등학교 내 인문소양 제고 중심 교육 운영 •사회·교육시설에서 지역 인문자산 활용 프로그램 개발·운영 추진	•지역학 연계를 통해서 지역문제 대응의 질 제고 및 지역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 필요 -단순 대중강좌 지양, 지역사회 문제와 관련한 인문 활동 활성화 추진 -생활인구, 관계인구 대상의 정책 필요 -지역 매력 제고를 위한 인문브랜드, 인문콘텐츠, 인문 프로그램 등 개발

구분	주요 분석 내용			시사점
	지역학	인문정신문화 정책	인문학 정책	
		〈인문행복센터〉 운영 •지역문제 해결 프로젝트 추진 -지역 문제 해결형 인문 프로그램 지원 -인문네트워크 내 지역 관련 분류 부재, 지역 사회 문제 관련 프로그램 부족		모색 •기존 개별 사업들의 지역 연계성 강화 및 지역 이해 제고에 기여 필요 -문화여가활동, 지역의 다양한 공간과 결합
네트워크 구축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학 관련 조직 설치 증가 •지자체 출연연구원의 지역학 협력망 구축 추진 •지방문화원의 지역학 거점화 추진 •인문정신문화 사업에 대한 지역학 분야의 인지도 부족 -인문정신문화 연계 사업 부재	•기존 정책에서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학 연계에 대한 관심 미흡 -관련 사업이 사회적 확산 사업에 집중 -국학진흥기관의 지역 네트워크 구축 미흡 -사회적 확산 추진계획에 지역 확산 추진구조 개편 포함	•지역에서의 인문학 진흥 협력체계 필요성 대두	•인문자산 수집·보존·활용 협력체계 구축 필요 •지역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계 기관·단체별 특성을 고려한 협력 추진 -국학진흥기관과의 연계 강화

제3장

인문정신문화 사업에 관한 인식 및 의견 분석

제1절 언론보도 및 일반 국민 인식 분석

1. 분석 개요

가. 분석 범주

인문정신문화 정책 및 지역학에 관한 인식과 수요의 파악에서는 언론, 일반 국민 및 정책사업 체험자라는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1) 언론보도 분석

정책 추진과정에서는 홍보를 위해 언론을 적극 활용한다. 따라서 언론보도는 정책의 홍보와 성과, 정책에 대한 인식과 평가 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또한 그 내용을 시기별로 분석함으로써 정책의 변화와 흐름을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다(박현진 · 조원환, 2024). 본 연구에서도 한국언론재단의 '빅카인즈(Big Kinds)'를 활용하여 언론보도에 나타난 인문정신문화 정책에 대한 인식과 평가, 정책의 흐름을 분석해 보려 한다.

2) 일반 국민 인식 분석

본 연구에서는 일반 국민이 인문정신문화 사업과 지역학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인터넷 포털 검색서비스 등의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일반 국민이 인문정신문화 진흥사업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국민의 평가 및 수요를 확인할 수 있다.

3) 사업 체험자 인식 분석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길 위의 인문학〉과 〈지혜학교〉 사업 체험자를 대상으로

인문정신문화 사업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체험자의 인식은 해당 사업의 성과와 수요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척도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진행된 인문정신문화 사업에서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의 자율응답식 문항을 분석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나. 분석 도구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범주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텍스트 마이닝 분석도구를 활용하였다.

1) 언론보도 분석: 뉴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

본 연구에서는 한국언론재단 '빅카인즈(https://www.bigkinds.or.kr/)'를 활용하여 언론보도를 수집 · 분석하였다. 빅카인즈는 종합일간지, 경제지, 지역일간지, 방송사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수집한 국내 최대의 기사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접목하여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뉴스 분석 서비스다. 1990년 이후 언론보도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한국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분석하는 데 널리 활용되고 있다.

2) 온라인 및 설문 텍스트 분석: '텍스톰'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을 활용한 일반 국민 인식 및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한 인문정신문화 사업 체험자의 인식 분석을 위하여 텍스톰(https://www.textom.co.kr/)을 활용하였다. 텍스톰은 텍스트 마이닝 기술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도구다. 웹 크롤링(web crawling)을 통해 빅데이터를 수집 · 정제하고 매트릭스 데이터를 생성함으로써 유의미한 결과 도출이 가능하여 학술연구에서 그 효용을 인정받고 있다. 다양한 언어의 데이터 수집 · 정제 및 분석을 지원하며, 네이버, 다음, 구글, 바이두, 트위터, 페이스북 외 특정 사이트를 포함한 다양한 수집 채널을 지원한다. 또한 수집데이터뿐만 아니라 보유데이터까지 처리 가능한 1-way 및 2-way 정제와 분석을 지원하고 있다. 텍스톰을 통해 얻은 분석결과는 SPSS, UCINet, NodeXL, NetMiner, Pajek, Gephi 등 다양한 통계 분석 프로그램에서 적용 및 활용이 가능한 넓은 확장성을 가진다.

3) 네트워크 시각화: UCINET6(version 6.790 / 10. Apr. 2024)

본 연구에서는 분석 결과에 대한 시각화를 위하여 'UCINET6(version 6.790 / 10. Apr. 2024)'을 활용하였다.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인 UCINET6는 개발된 이래로 네트워크 분석 시각화의 효율적인 도구로 널리 활용되며 인정받고 있다(Borgatti, et al. 2002). 이 프로그램의 NetDraw는 네트워크 시각화 기능을 통해 직관적이며 가시적인 결과 도출이 가능한 기능으로 인해 학술연구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다. 온라인 검색어 선정

본 연구에서는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기법인 텍스트 마이닝을 위해 온라인상의 데이터를 수집함에 있어 검색어를 '인문학 + 로컬 – 글로컬 – 로컬리티'로 설정하였다. 즉, '인문학'과 '로컬'을 포함하되, '글로컬'과 '로컬리티'를 포함하지 않는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지역학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사업 발전방안 모색이라는 본 연구의 목적에서는 '인문정신문화'와 '지역학'이라는 용어가 중요하지만,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검색어를 제한하고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인문정신문화'라는 용어는 일반 국민에게 익숙하기 보다는 정책 용어로 주로 활용됨으로써 온라인상에서도 정책 홍보 위주의 결과 위주로 검색되고 그 양도 많지 않다. 그에 비해서 '인문학'은 대중에게 익숙하고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개별 프로그램명에서도 널리 활용되므로, 해당 검색어를 활용하는 것이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지역' 혹은 '지역학'은 정주 공간과 관련한 인문학적 접근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된다. '지역'은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그 용례도 방대하여 본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 추출에 한계가 있다. 또한 '지역학'도 일반 국민뿐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익숙하지 않다. 그 범주는 국내 대상의 '국내 지역학'을 지칭할 때에도 쓰이지만, 내가 사는 지역, 고장보다는 외국의 문화 혹은 언어 등을 연구하는 '국제 지역학'과 혼재된 경향이다. 따라서 이로 인한 의미 혼동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내 지역학'을 '지방학'으로 개념화하기도 한다(이규태, 2007; 박원재, 2009; 조동일, 2014; 오영교, 2019).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지역학' 자체를 검색어로 설정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그에 비해서 '로컬'은 내가 사는 고장 혹은 수도권이나 도시에 대비되는 의미로 활용되고 있다(정수희 · 이병민, 2023)는 점에서 데이터 수집을 위해 적합한 '로컬'을 검색어로 설정하였다. 즉, 외부로의 방향성을 함께 가진 개념인 '지역학'과 달리, '로컬'은 정주 지역 내부를 주로 지향한다. 그렇기에 정주 공간에 대한 관심사를 콘텐츠로 삼는 인문학을 '로컬인문학'으로 지칭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다만, 유사 개념인 '로컬리티'는 번역상 지방과 지역의 개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차철욱, 2009),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명인 '로컬리티 인문학'의 연구물과 활동이 다수 검색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 필요한 자료 수집의 방향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외 단어로 선정하였다. '글로컬'은 여러 대학교의 '글로컬콘텐츠' 전공학과에 관련된 문서나 교육부의 '글로컬대학' 사업 관련 문서가 주로 검색되기 때문에 제외 단어로 선정하였다.

라. 분석 방법

1) 단어-역문서 빈도(TF-IDF) 분석

본 연구에서는 지역학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사업 연관어의 등장 빈도를 측정하여 어떤 단어가 핵심어로 활용되는지 그 중요도를 산출하였다. 단어의 빈도(TF: Term Frequency)는 문서 속 특정 단어의 등장 횟수를 나타내며, 높은 값을 보일수록 그 중요도도 높아진다. 그러나 그 단어가 문서의 핵심 주제나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다른 주제의 문서에도 흔히 사용되고 문서의 핵심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 때 그 단어가 문서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가중치를 부여한 단어-역문서 빈도(TF-IDF: 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를 통해 단어의 등장 빈도와 함께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할 수 있다(Ramos, Juan,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른 문서들에 보편적으로 등장하는 단어의 빈도(DF: Document Frequency)의 역수인 IDF를 TF와 곱한 TF-IDF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문서집합에서 단어의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다.[12]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측정된

12) IDF는 분석할 문서의 총 개수를 특정 단어가 등장한 문서의 개수(DF)로 나눈 값이다. 즉, 많은 문서에 등장한 단어의 IDF값은 작은 반면, 일부 문서에 편중되어 등장한 단어의 IDF값은 커지게 된다. IDF값이 작은 단어일수록 많은 문서에 보편적으로 흔히 등장하여 문서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닐 가능성이 낮고, IDF 값이 큰 단어일수록 문서 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결국 TF-IDF는 특정 단어가 해당 문서 속에서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에 대한 빈도와 함께, 다른 문서들에서의 출현 빈도가 얼마나 낮은지를 반영한 값으로, 문서집합에서 단어의 중요도를 평가하는 데 널리 활용되고 있다(이성직 · 김한준, 2009).

핵심어의 빈도 및 TF-IDF의 결과를 단어구름으로 시각화하였다.

2) N-gram 분석

단어의 빈도를 측정하는 경우에 그 단어가 분석 텍스트 속에서 나타난 순서, 위치, 문맥에 대한 정보는 사라진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단어와 단어 간의 연관성 및 동시 출현의 정도, 단어가 연쇄하는 방향성을 통해 연쇄하는 단어들의 연결 관계를 도출한 N-gram 분석을 실시하였다(Brown, et al., 1992). 이를 통해서 연쇄하는 두 단어 쌍(Bi-gram)의 빈도를 도출하고, N-gram 네트워크를 시각화하였다.

3) 에고 네트워크 분석

본 연구에서는 핵심어 간 관계와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에고 네트워크(ego network)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에서는 연구 목적에 따라서 분석하고자 하는 핵심어를 '에고(ego)'로 설정하고, 그와 이웃한 단어들과의 직접적인 연결 관계를 도출하고 시각화한다. 네트워크 시각화에서는 단어의 사이즈가 클수록 높은 출현 빈도를 뜻하며, 에고와 가까운 단어일수록 동시 출현 빈도가 높음을 의미한다(권선희, 2023).

4) 구조적 등위성 분석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분석 대상들 간 사회적 관계를 연결망 구조로 표현하고, 그 패턴을 계량적으로 제시한다. 이 분석을 통해서 네트워크상의 위치에 따른 중심성과 대상들 간 거리에 따른 밀접성을 확인할 수 있다. 네트워크 분석은 구조적 등위성(CONCOR: CONvergence of iterated CORrelations) 분석으로 가기 위한 경로로 주로 활용된다. 본 연구에서도 핵심어 간 상관성 분석을 통해 군집을 도출하는 구조적 등위성 분석을 함께 실시하였다. 이 분석은 단어가 서로 연결되는 패턴의 유사성을 도출하여 상호 가깝게 묶이는 단어들의 군집을 찾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네트워크 속에서 공통의 주제를 가진 군집을 도출하여 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김용학 · 김영진, 2021).

2. 언론보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뉴스 분석 서비스 '빅카인즈'를 활용하여 언론보도를 분석하였다. 먼저 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인문학' 및 '로컬'을 검색어로 설정하되 '로컬리티', '글로컬'을 제외 단어로 지정하고 시기별 언론보도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대표 프로그램인 '〈길 위의 인문학〉[13], 〈인생나눔교실〉, 〈지혜학교〉'를 검색어로 설정하여 전 기간 기사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관련 기사를 각주로 제시하여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

가. 시기별 언론보도 분석

언론보도 분석에서는 정책적 분기점을 기준으로 세 시기로 나누어 지역학 및 인문정신문화에 대한 인식과 수요 등을 분석하였다. 즉, 인문정신문화 진흥이 정책적으로 대두되고 시행된 2013년부터 제1차 기본계획이 시행되기 전까지를 제1기로, 제1차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인 2017년부터 2021년까지를 제2기로, 제2차 기본계획이 시행된 2022년부터 현재까지를 제3기로 구분하였다. 이처럼 정책 시행의 주요 시점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정책의 변화를 고려하면서 해당 시기 정책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데 유의미하다고 판단된다.

〈표 3-1〉 언론보도 분석을 위한 시기 구분 및 분석기사 건수

시기	기준	총 기사 건수	연평균 기사 건수
제1기 (2013~2016)	• '인문 · 정신문화의 진흥'을 국정과제로 추진 • '문화융성으로 여는 국민행복: 인문정신문화 진흥'(문화융성 실현을 위한 문화정책 종합토론회 1차) 토론회 개최(2013.9.9.) • 「인문정신, 문화융성의 길을 열다 –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7대 중점과제」 발표」(2014.8.6.)	81건/4년	20.3건
제2기 (2017~2021)	• 제1차 기본계획 추진	223건/5년	44.6건
제3기 (2022~현재)	• 제2차 기본계획 추진	241건/2.33년	103.3건

13) 〈길 위의 인문학〉은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생활 문화시설 길 위의 인문학〉, 〈여행지 길 위의 인문학〉 등으로 세분화된다. 그러나 대중은 추진 주체와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거나, 전체 프로그램 명칭을 기억하기보다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명칭만 인식함을 감안하여 검색어를 '길 위의 인문학'으로 단순화하였다.

1) 제1기(2013~2016) 언론보도

제1기(2013~2016)에는 「의정부 도서관 우수기관 올라」(경인일보, 2016. 12. 15.), 「용인시, 시민 대상 레인보우 아카데미 강연」(환경일보, 2013. 10. 10.), 「지역서도 인문학 열풍 잇는다」(광남일보, 2015. 6. 1.) 등 총 81건의 기사가 언론에 등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 81건 기사 중에서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된 2건을 제외한 79건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연관성이 높은 핵심어 순위와 이를 시각화한 단어구름은 다음과 같다.

〈표 3-2〉 제1기(2013~2016) 언론보도 핵심어 분석

순위	핵심어	가중치	빈도	순위	핵심어	가중치	빈도
1	광주학	6.69	12	14	문화도시	2.31	11
2	광산학	5.68	14	15	문화산업	2.18	5
3	도서관	5.09	50	16	청년 CEO 특강	2.18	4
4	학술대회	3.75	28	17	지역 콘텐츠	2	22
5	영셰프	3.43	22	18	소비자	2	16
6	세종시	3.33	82	19	편집장	2	12
7	문화체육관광부	3	5	20	성신여대	2	4
8	칠곡군	2.86	24	21	상관관계	2	3
9	도시재생	2.67	7	22	아시아문화연구소	2	3
10	역사 비교	2.67	3	23	의정부시	2	3
11	슬로비	2.4	19	24	혼합경제발전	2	3
12	인문여행	2.4	13	25	삼례문화예술촌	1.78	4
13	시민들	2.31	20	26	완주군	1.71	17

[그림 3-1] 제1기(2013~2016) 언론보도 분석 결과 단어구름

제1기에는 '광주학', '광산학'이 최고 핵심어로 분석되었다. 이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와 전남대학교가 공동 주최한 시민강좌 〈빛뫼 인문학〉 프로그램 중 '로컬인문학: 광산학(光山學)에서 광주학(光州學)으로' 강좌가 적극 추진되며 큰 호응을 받았던 결과로 보인다.[14] 이 강좌는 지역 주민의 터전으로서 '광산구'의 역사와 현재를 주제로 시행되었다. 이 시기에는 이밖에도 '칠곡, 완주, 세종, 경산, 의정부' 등 지역명이 핵심어로 다수 등장한다.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민 대상 대중인문학 또는 로컬인문학 사업 증가, 교육부의 인문도시 지원사업 추진 및 이러한 사업과 관련한 홍보기사가 많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이 밖에 핵심어에 '도서관'이 상위에 등장하는 것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및 인문학 대중화에서 도서관의 역할과 장소성이 반영된 결과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일곱 번째 핵심어로 나타나는 것은 이와 같은 정책사업 등 인문정신문화 사업을 강화한 결과로 보인다. '영셰프'와 '슬로비'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문학과 요리를 결합한 요리인문학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되는데, 당시 대학을 벗어나 인문학이 다양한 주제와 결합하는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15] '도시재생, 인문여행, 문화산업, 지역 콘텐츠' 등의 핵심어도 지역에서 인문학에 대한 수요가 다양해지고 그 역할을 새롭게 재해석하려 하였음을 알려준다.

2) 제2기(2017~2021) 언론보도

제2기(2017~2021)에는 「강릉, 속초 골목길서 만나는 소소한 인문여행」(강원일보, 2019.6.27.), 「부산 기장군, '길 위의 인문학' 온라인 강연으로」(아시아경제, 2020.8.6.), 「홍성군, '문화도시 홍성 인문학 콘서트' 개최」(충청일보, 2021.12.6.) 등 총 239건의 기사가 언론에 등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 239건 기사 중에서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16건을 제외한 223건을 분석에 활용하였는데, 이를 통해 제1기에 비해서 관련 언론보도가 크게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연관성이 높은 핵심어 순위와 이를 시각화한 단어구름은 다음과 같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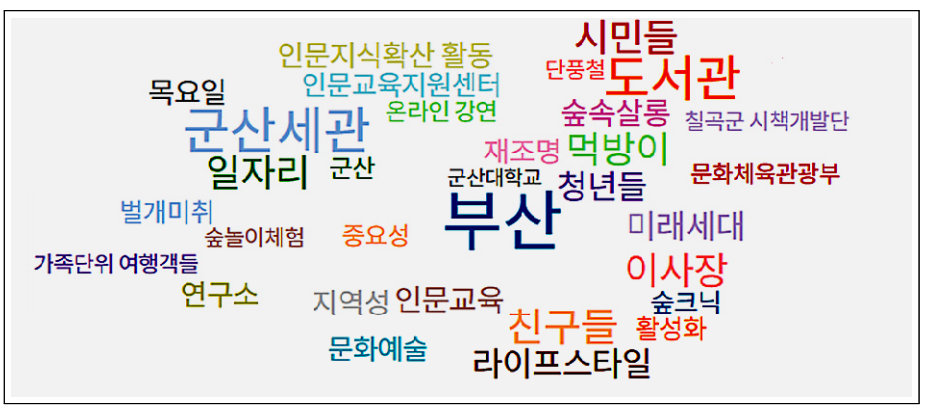
14) https://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453952(강경남, 「광산구·전남대 "광산에서 광주로" 로컬인문학교실 운영」, 광주드림, 2014.3.12.), https://www.news1.kr/local/gwangju-jeonnam/1581711(김태성, 「광주 광산구 '빛뫼인문학' 두번째 열려」, 뉴스1, 2014.3.12.).

15)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98973.html(조현경, 「"요리 성적은 1등이죠"…'셰프의 꿈' 키우는 아이들」 한겨레, 2015.7.5.).

〈표 3-3〉 제2기(2017~2021) 언론보도 핵심어 분석

순위	핵심어	가중치	빈도	순위	핵심어	가중치	빈도
1	부산	13.04	370	16	지역성	6	14
2	군산세관	10.23	36	17	연구소	5.96	108
3	도서관	10.1	197	18	인문지식확산 활동	5.96	7
4	친구들	8.28	69	19	문화예술	5.76	102
5	일자리	7.88	86	20	인문교육지원센터	5.68	7
6	먹방이	7.73	99	21	숲크닉	5.6	8
7	시민들	7.73	70	22	벌개미취	5.6	7
8	이사장	7.73	53	23	활성화	5.54	186
9	청년들	6.86	57	24	중요성	5.33	19
10	미래세대	6.86	8	25	군산	5.19	344
11	라이프스타일	6.67	18	26	온라인 강연	5.04	10
12	인문교육	6.32	31	27	문화체육관광부	4.87	19
13	숲속살롱	6.32	8	28	단풍철	4.8	7
14	재조명	6	21	29	가족단위 여행객	4.8	6
15	목요일	6	14	30	칠곡군 시책개발단	4.8	6

[그림 3-2] 제2기(2017~2021) 언론보도 분석 결과 단어구름



제2기에는 지역명인 부산[16]이 최고 핵심어로 분석되었고, 이 외에도 군산, 칠곡처럼 지역과 관련된 단어가 핵심어에 포함되었다. 그중 '부산'에 이어 두 번째 핵심어로 나타난 '군산세관'의 등장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옛 군산세관을 인문학창고로 개편한

16)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80327.22002011118(이선정, 「동네슈퍼 가듯 편하게…부산 일상 속 도서관 늘린다」, 국제신문, 2018.3.27.), https://bs.nocutnews.co.kr/news/5558140(박창호, 「부산대, 서민들의 삶 함께 한 애환의 길 산복도로에 '인문학 캠퍼스' 개설」, 노컷뉴스, 2021.5.25.).

것과 관련된다.[17] 그러나 제2기는 제1기에 비해서 상위 핵심어에서 지역명이 감소하였다. 다만, '지역성'이 핵심어로 나타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지역을 고민하는 움직임이 일어남을 볼 수 있다.

이 밖에 '인문교육', '연구소', '인문지식확산 활동', '온라인 강연'과 같이 인문학 강좌나 교육, 학술 등에 관한 핵심어와 함께 '먹방이'. '숲속살롱', '숲크닉', '가족단위 여행객' 등의 핵심어를 통해서 다양한 영역으로 연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친구들', '시민들', '청년들', '미래세대' 등처럼 청소년 혹은 청년을 포함하여 대상이 확대되고,[18] '일자리'처럼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와 관련한 핵심어도 등장함을 볼 수 있다. 정부부처 중에는 문화체육관광부만이 유일하게 핵심어에 등장하지만, 제1기에 비해 그 출현 빈도는 줄어들었다.

3) 제3기(2022~2024.4.30. 현재) 언론보도

제3기(2022~2024.4.30. 현재)에는 「원주 북캉스, 두 손 안의 가깝고도 먼 여행 가을 바람에 책장이 사라락」(강원일보, 2022.10.14.), 「산수동 쿡폴리, 음식문화 교역소 만든다」(전남일보, 2022.3.6.), 「문화도시 가치 확산」(충청일보, 2024. 2. 15.) 등 총 313건의 기사가 언론에 등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 313건 기사 중에서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72건을 제외한 241건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한 기사의 수로써 보면 제1기와 제2기에 이어서 관련 언론보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지역에서 인문학 또는 인문정신문화 사업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분석 결과, 연관성이 높은 핵심어 순위와 이를 시각화한 단어구름은 다음과 같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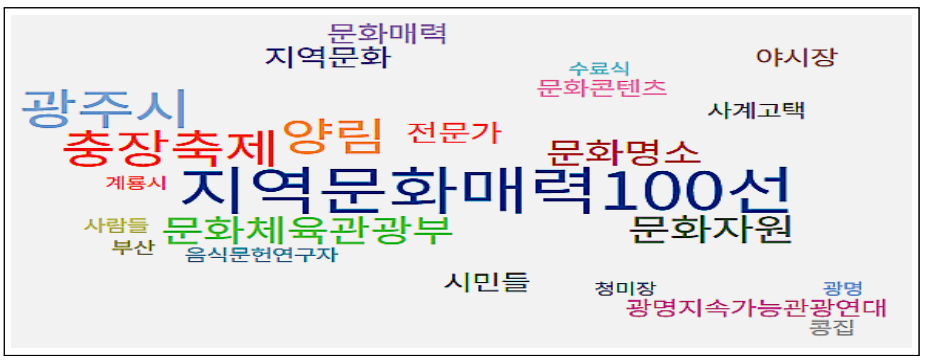
17) https://www.jjan.kr/article/20181225658889(이환규, 「군산세관 창고, 인문학창고로 탈바꿈 '기대'」, 전북일보, 2018.12.25.),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71916077472681(문수빈, 「군산대 인문학창고 '정담', 지역 관광콘텐츠 발굴 모델로 성장」, 머니투데이, 2019.7.19.).

18) https://cm.asiae.co.kr/article/2018040810191285482(지연진, 「대학생 인문학 잔치…신세계 지식향연, 이달 26일 개막」, 아시아경제, 2018.4.8.), http://www.sjbnews.com/news/news.php?code=li_news_2017&number=606507(정성학, 「"지역서점 살리고 청년층 자립 도와라"」, 새전북신문, 2017.3.13.).

〈표 3-4〉 제3기(2022~2024.4.30.) 언론보도 핵심어 분석

순위	핵심어	가중치	빈도	순위	핵심어	가중치	빈도
1	지역문화매력 100선	17.33	18	13	광명지속가능관광연대	5.14	23
2	광주시	13.72	32	14	문화콘텐츠	5.04	15
3	충장축제	13.08	56	15	사계고택	4.8	65
4	양림	12.54	53	16	콩집	4.07	20
5	문화자원	9.33	47	17	부산	3.81	102
6	문화체육관광부	9.33	44	18	사람들	3.68	38
7	문화명소	8.57	8	19	음식문헌연구자	3.68	9
8	전문가	6.83	68	20	수료식	3.38	7
9	지역문화	6.69	104	21	청미장	3.27	20
10	문화매력	6.4	57	22	광명	3.2	81
11	시민들	5.71	21	23	계룡시	3.2	39
12	야시장	5.33	74				

[그림 3-3] 제3기(2022~2024.4.30.) 언론보도 분석 결과 단어구름



제3기에는 '지역문화매력 100선'(로컬 100)이라는 정책사업명이 최고 핵심어로 부상하여 이전 시기와는 다른 양상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19] 또한 핵심어에 문화자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명소, 지역문화, 문화매력 등이 등장하는 것도 이와 같은 정책과 밀접히 관련된다. 충장축제나 야시장[20] 등 '지역문화매력 100선'에 선정된 사례도 핵심어에 등장하였다. 이 시기에는 정책과 연계성이 높은 단어들이 핵심어에 등장하는 한편, 코로나 이후 재개된 여행 및 관광사업과도 맞물려서 핵심어들이 등장하고 있다. 상대적

19)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6266(김홍준, 「가을 정취 담긴 사계고택, 지역문화매력 100선 선정」, 충청투데이 2023.10.24.).

20) https://www.yna.co.kr/view/AKR20231020140400054(손상원, 「'지역문화 매력 100선' 충장축제 등 광주 5개 프로그램 선정」, 연합뉴스 2023.10.22.).

으로 핵심어에서 인문학 관련 단어는 줄어들었다. 다만,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미술관, 박물관 프로그램의 인문학 교육 참여율이 늘어나고, 건축물이나 조형물을 관람하는 등 이른바 '인문학 교육 여행'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라는 보고(한국관광공사, 2023: 22)를 고려하면 인문학에 대한 수요는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시기별 핵심어 변화

언론보도를 보면, 관련 기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1기에는 국정과제 홍보, 2~3기에는 기본계획에 의한 정책 홍보와 평가, 지방자치단체의 성과 보도가 증가하였음이 확인된다. 인문콘텐츠 관련 핵심어는 1기에는 '인문여행, 특강, 역사, 문화'처럼 통상적인 핵심어가 나타나지만, 2기에는 '인문, 문화예술, 인문지식확산 활동', 3기에는 '축제, 문화자원, 문화명소, 지역문화 매력' 등으로 변화하였다. 이로써 점차 지역의 문화자산이 핵심어로 등장하는 변화가 확인된다. 사업 시행기관 관련 핵심어는 1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연구소, 도서관', 2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인문교육지원센터, 도서관', 3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변화하였다. 3기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다양한 기관의 등장으로 이전 시기와 달리 특정 기관이 두드러지지 않았다고 분석할 수 있다. 활동주체 관련 핵심어는 1기에는 '시민, 청년, 소비자', 2기에는 '시민, 청년, 미래세대', 3기에는 '전문가, 시민, 사람' 등이 나타나는데, 활동 주체에서는 전 기간에 걸쳐 시민 중심으로 참여 및 지원이 강조된다고 분석할 수 있다.

〈표 3-5〉 시기별 언론보도 주요 핵심어 변화

구분	제1기(2013~2016)	제2기(2017~2021)	제3기(2022~2024.4.30. 현재)
콘텐츠	역사, 문화, 인문여행, 특강	인문, 문화예술, 인문지식확산 활동	축제, 문화자원, 문화명소, 지역문화 매력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연구소, 도서관	문화체육관광부, 인문교육지원센터, 도서관	문화체육관광부
활동 주체	시민, 청년, 소비자	시민, 청년, 미래세대	전문가, 시민, 사람

나. 주요 사업 관련 언론보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현행 인문정신문화 정책의 대표 사업인 〈길 위의 인문학〉, 〈인생나눔교실〉 및 〈지혜학교〉를 검색어로 언론보도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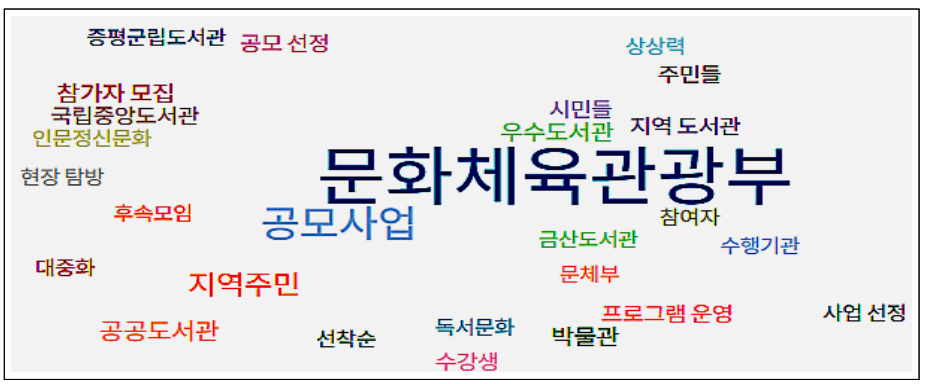
1) 〈길 위의 인문학〉 언론보도

검색어를 '길 위의 인문학'으로 설정하여 전 기간 기사를 검색한 결과, 검색된 총 6,273건 중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144건을 제외한 6,129건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연관성 높은 핵심어의 순위와, 이를 시각화한 단어구름은 다음과 같다.

〈표 3-6〉 〈길 위의 인문학〉 언론보도 핵심어 분석

순위	핵심어	가중치	빈도	순위	핵심어	가중치	빈도
1	문화체육관광부	523.79	827	14	수강생	27.97	127
2	공모사업	224.61	619	15	사업 선정	24.83	180
3	지역주민	100.2	283	16	현장 탐방	24.03	80
4	공공도서관	65.46	319	17	참여자	22.82	167
5	박물관	53.9	1358	18	인문정신문화	22.63	60
6	우수도서관	44.48	96	19	독서문화	21.42	120
7	참가자 모집	43.07	40	20	상상력	18.15	67
8	프로그램 운영	36.26	128	21	증평군립도서관	15.71	31
9	지역 도서관	35.63	65	22	수행기관	15.42	93
10	시민들	34.71	235	23	후속모임	15.09	182
11	주민들	31.22	189	24	선착순	14.79	129
12	국립중앙도서관	29.84	24	25	금산도서관	13.02	17
13	공모 선정	29.6	61	26	대중화	10.73	77

[그림 3-4] 〈길 위의 인문학〉 언론보도 분석 결과 단어구름



이러한 분석 결과를 프로그램 수행 주체(도서관, 박물관 등), 사업 실무(공모사업, 공모 선정, 사업 선정, 수행기관), 프로그램 수요자(지역주민, 시민들, 주민들, 수강생, 참여자) 등의 군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외에 지역학 연계 핵심어로 '현장 탐방'도 꼽을 수 있다. 즉, 〈길 위의 인문학〉에서 지역학 연계 콘텐츠는 지역 현장 탐방 위주로 추진

및 시행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고, 실제로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에서는 강연 다음으로 탐방 형태 프로그램이 많은 부분을 차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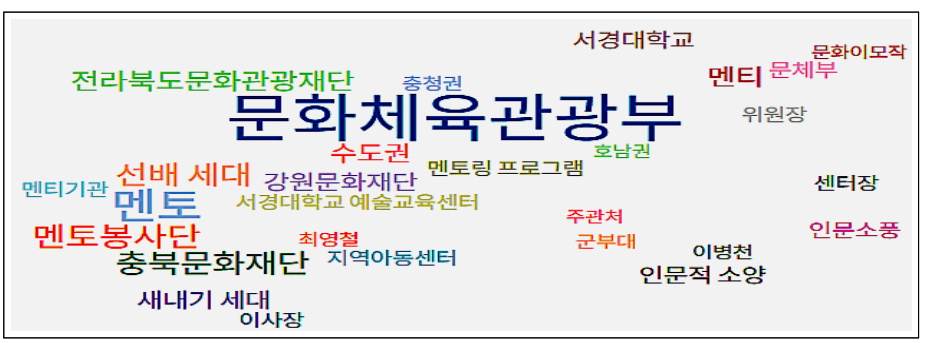
2) 〈인생나눔교실〉 언론보도

검색어를 '인생나눔교실'로 설정하여 전기간 언론보도를 검색한 결과, 검색된 총 684건 중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8건을 제외한 676건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연관성 높은 핵심어의 순위와, 이를 시각화한 단어구름은 다음과 같다.

〈표 3-7〉 〈인생나눔교실〉 언론보도 핵심어 분석

순위	핵심어	가중치	빈도	순위	핵심어	가중치	빈도
1	문화체육관광부	215.82	514	15	위원장	33.03	112
2	멘토	133.66	3037	16	멘토링 프로그램	32.31	294
3	멘토봉사단	84	374	17	서경대학교 예술교육센터	31.98	106
4	선배 세대	78.2	149	18	지역아동센터	31.11	292
5	충북문화재단	74.89	300	19	멘티기관	30.19	205
6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62.51	101	20	이사장	28.75	76
7	멘티	60.84	818	21	충청권	27.88	258
8	수도권	53.55	247	22	최영철	25.76	44
9	새내기 세대	50.75	140	23	군부대	24.18	202
10	강원문화재단	48.12	131	24	이병천	23.02	32
11	인문적 소양	45.5	113	25	호남권	18.77	157
12	서경대학교	41.63	250	26	문화이모작	18.03	33
13	인문소풍	37.85	227	27	주관처	17.28	203
14	센터장	33.44	86				

[그림 3-5] 〈인생나눔교실〉 언론보도 분석 결과 단어구름



21) 연도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성과보고서 확인 결과, 약 20%에 가까운 비율로 탐방 프로그램이 편성되다가(2017년 19.5%, 2018년 17.5%, 2019년 17.7%) 코로나로 인해 크게 감소하였으나, 점차 회복하여 10% 비율을 상회하고 있다(2020년 8.4%, 2021년 10.0%, 2022년 9.7%, 2023년 11.6%).

분석 결과, ‘멘토’, ‘멘티’ 등 멘토링 관련 단어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는 인생 선배가 후배 세대와 만나 자신의 경험과 서로의 삶을 나누고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생나눔교실〉의 특성과 목적을 잘 드러난 결과라 할 수 있다. 핵심어 ‘인문소풍’은 이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과 관련되는데, 일상 공간을 벗어나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문화재단이나 기관, 지역을 나타내는 단어는 보이지만, 지역학과 연계된 단어는 드러나지 않는다.

3) 〈지혜학교〉 언론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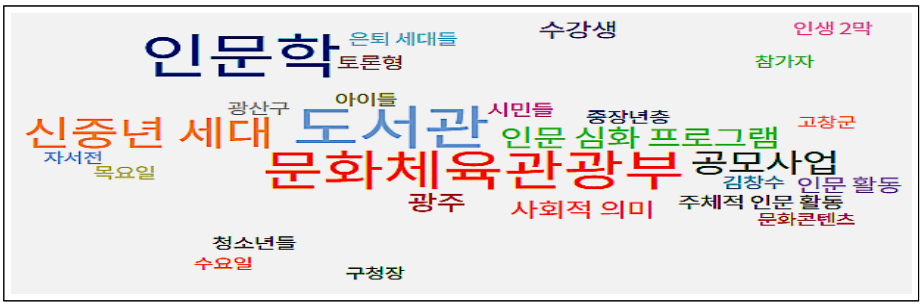
검색어를 ‘지혜학교’로 설정하여 전기간 기사를 검색한 결과, 검색된 총 631건 중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된 19건을 제외한 612건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그 결과, 연관성 높은 핵심어 순위와, 이를 시각화한 단어구름은 〈표 3-8〉 및 [그림 3-6]과 같다.

〈지혜학교〉는 신중년의 주체적 인문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신중년 세대’, ‘인생 2막’, ‘은퇴 세대’, ‘중장년층’ 등 참여 대상을 규정하는 단어와 함께, ‘인문심화 프로그램’, ‘주체적 인문 활동’, ‘토론형’ 등 주도적이며 심화적인 특성을 반영한 핵심어들이 확인된다. 그러나 〈인생나눔교실〉처럼 〈지혜학교〉 핵심어 분석 결과에서도 일부 지역명이 도출된 외에 지역학과 연관된 단어는 찾을 수 없다.

〈표 3-8〉 〈지혜학교〉 언론보도 핵심어 분석

순위	핵심어	가중치	빈도	순위	핵심어	가중치	빈도
1	인문학	159.08	1164	15	청소년들	13.95	83
2	도서관	155.96	3739	16	광산구	13.62	162
3	문화체육관광부	139.92	311	17	아이들	13.52	212
4	신중년 세대	99.99	166	18	목요일	13.5	51
5	공모사업	64.67	296	19	김창수	12.41	45
6	인문심화 프로그램	52.12	51	20	은퇴 세대들	12.41	15
7	광주	40	962	21	중장년층	12.12	40
8	사회적 의미	35.06	71	22	자서전	11.54	80
9	수강생	30.84	187	23	수요일	10.75	53
10	인문 활동	26.39	106	24	고창군	8.69	83
11	주체적 인문 활동	20.22	30	25	구청장	8.63	52
12	토론형	19.85	37	26	참가자	7.83	70
13	시민들	18.49	172	27	문화콘텐츠	7.76	20
14	인생 2막	15.78	40				

[그림 3-6] 〈지혜학교〉 언론보도 분석 결과 단어구름



3. 일반 국민 인식 분석

가. 분석 방법 및 절차

지역학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인 텍스톰을 활용하여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시행하였다. 검색어는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인문학', '로컬'을 선정하였고, '글로컬' 및 '로컬리티'는 제외하였다. 자료 수집 채널은 네이버, 다음, 구글 등 포털 검색 서비스의 웹문서와 뉴스, 카페, 블로그, 트위터 및 유튜브로 설정하였고, 자료 수집 기간은 최근의 대중 인식을 도출하기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로 설정하였다.

수집한 자료를 텍스톰의 Espresso K 분석기를 활용하여 핵심어를 추출하고 정제한 후, 빈도(TF-IDF) 분석과 단어구름 시각화, N-gram 분석 및 시각화, 에고 네트워크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어서 UCINET6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및 구조적 등위성(CONCOR) 분석을 시행하였다.

〈표 3-9〉 일반 국민 인식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분석 방법

수집 방법		분석 방법	
검색어	인문학 + 로컬 - 글로컬 - 로컬리티	분석언어	한국어
수집대상	네이버(블로그, 뉴스, 카페, 지식IN, 학술정보, 웹문서), 다음(블로그, 뉴스, 카페, 웹문서), 구글(페이스북, 뉴스, 웹문서), 트위터, 유튜브	분석기	Espresso K
수집기간	2023.1.1.~2024.3.31.	분석품사	일반명사(NNG), 고유명사(NNP), 의존명사(NNB)
수집용량	503.92 KB	사용자사전	미지정
수집일시	2024.4.15.	분석일시	24.04.15

나. 단어-역문서(TF-IDF) 빈도 분석

수집된 텍스트 데이터의 단순 빈도와 함께 문서상 가중치를 부여하여 중요도를 산출한 TF-IDF 분석 결과, '여행', '지역', '축제', '푸드', '행사' 등의 단어를 통해 지역학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최신 경향성을 가늠할 수 있다. 최근 재개된 여행, 관광, 축제 등 문화여가활동이 인문학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등장 및 시행되고 있다. 그에 비하여 교육 혹은 지식 습득을 의미하는 단어가 발견되지 않은 점은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특성이 지식을 주입하고 습득하는 정적이고도 일방향적인 것에서 문화를 주체적으로 체험하고 즐기는 동적이고도 상호작용적 활동으로 변화하였음을 나타낸다.

〈표 3-10〉 일반 국민 인식에 대한 단어-역문서 빈도 분석

순위	word	df	idf	tf-idf	순위	word	df	idf	tf-idf
1	여행	62	2.37	426.81	16	주제	62	2.37	156.5
2	지역	150	1.49	351.08	17	청년	38	2.86	154.48
3	강연	100	1.89	272.61	18	운영	43	2.74	153.28
4	로컬	383	0.55	258.62	19	교수	47	2.65	150.94
5	인문학	409	0.48	240.35	20	체험	53	2.53	149.15
6	진행	87	2.03	215.43	21	개최	50	2.59	144.83
7	문화	84	2.07	215.02	22	크리에이터	50	2.59	144.83
8	도시	44	2.71	198.13	23	작가	41	2.78	144.8
9	프로그램	80	2.12	192.58	24	사업	42	2.76	143.55
10	선정	46	2.67	192.21	25	한국	37	2.89	138.59
11	책	54	2.51	175.65	26	행사	41	2.78	136.45
12	다양	72	2.22	171.06	27	가치	37	2.89	135.71
13	축제	38	2.86	168.78	28	광주	33	3	135.08
14	대표	51	2.57	164.25	29	전문가	47	2.65	132.41
15	푸드	56	2.47	160.74	30	대학	29	3.13	131.5

[그림 3-7] 일반 국민 인식 분석 결과 단어구름

다. N-gram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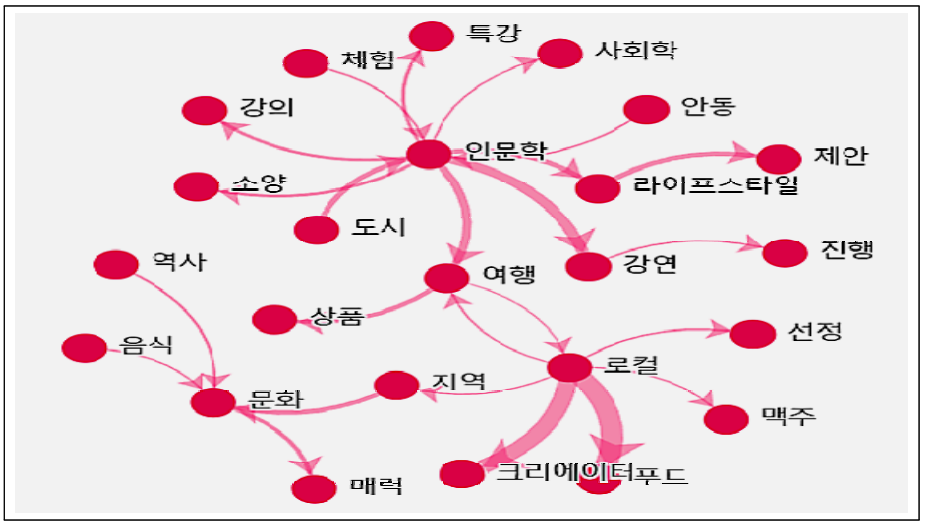
연쇄하는 단어들의 연결 관계를 나타내는 N-gram 분석 결과는 앞서 TF-IDF 빈도 분석 결과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인문정신문화 사업이 지식의 습득에서 문화의 향유로 전이되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이는 '라이프 스타일', '여행', '문화', '매력', '푸드', '맥주', '매력' 등의 단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3-11〉 일반 국민 인식에 대한 N-gram 빈도 분석

순위	단어1	단어2	빈도	순위	단어1	단어2	빈도
1	로컬	푸드	60	16	작가	초청	12
2	로컬	크리에이터	53	17	역사	문화	12
3	인문학	강연	35	18	동해안	국도	12
4	인문학	여행	26	19	강연	진행	11
5	인문학	라이프스타일	22	20	로컬	선정	11
6	라이프스타일	제안	22	21	체험	인문학	11
7	도시	인문학	21	22	제천	힐링	11
8	지역	문화	20	23	힐링	기차여행	11
9	여행	상품	20	24	안동	인문학	11
10	문화	매력	17	25	로컬	지역	10
11	인문학	소양	16	26	로컬	여행	10
12	인문학	강의	16	27	로컬	맥주	10
13	분야	전문가	15	28	음식	문화	10
14	굿모닝	양림	15	29	봄	전령	10
15	인문학	특강	14	30	인문학	사회학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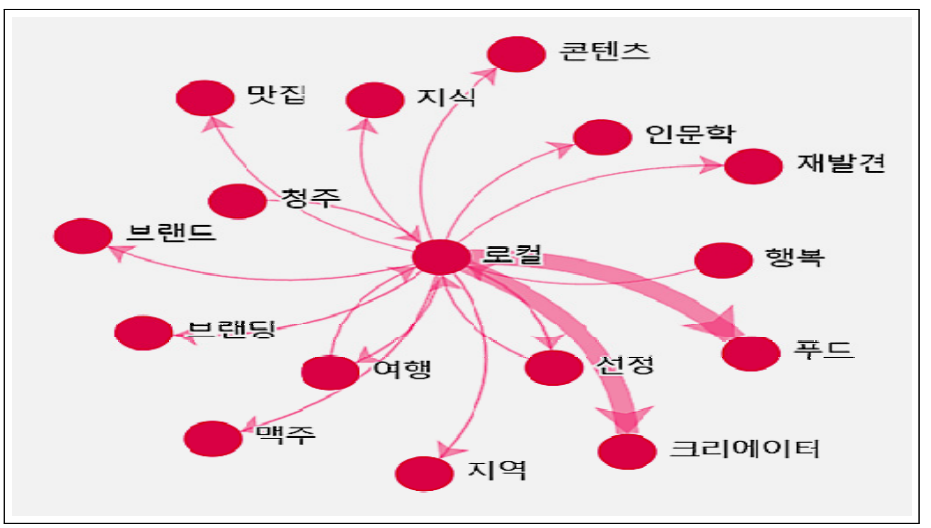
상위 30위의 N-gram 분석 결과 중 '인문학', '로컬', '지역' 단어를 중심으로 한 연결 관계를 설정한 결과는 아래 [그림 3-8]과 같다. 여기서 '인문학'은 무엇보다 '여행'을 경유하여 '로컬'과 연결되며, '로컬'은 '지역'으로, '지역'은 '문화'로 연결되는 선적인 경로가 도출된다(인문학 - 여행 – 로컬 – 지역 – 문화). 이를 통해서 지역의 문화가 인문학과 연관 관계를 맺는 데에는 여행이라는 콘텐츠와 '로컬'이라는 네이밍(naming)이 매개 작용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곧 인문학, 인문정신문화 사업에 대한 대중의 수요이자 바람이며, 현재 가장 관심을 받는 인문프로그램 콘텐츠임을 알려준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8] '인문학', '로컬', '지역'에 대한 일반 국민 인식 N-gram 분석 시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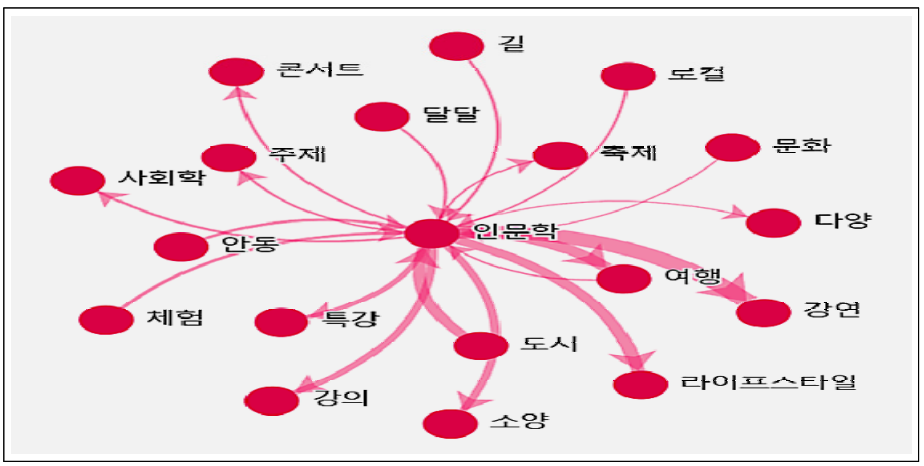
다음으로 '로컬'을 중심으로 N-gram을 별도로 추출한 결과는 [그림 3-9]와 같다. '여행', '푸드', '맥주', '브랜드', '맛집', '크리에이터' 등 지식 습득에 주안을 두는 전통적인 기법의 인문학 보다는 문화를 직접 즐기는 형태로 그 형태가 변화함이 지속적으로 발견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음식 관련 단어가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대중의 감정과 평가는 '행복', '재발견'으로 대표된다.

[그림 3-9] '로컬'에 대한 일반 국민 인식 N-gram 분석 시각화



반면, ‘인문학’ 중심의 N-gram 도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축제’, ‘콘서트’, ‘여행’ 등 문화 향유의 핵심어도 일부 있지만, ‘문화’, ‘주제’, ‘사회학’, ‘강연’, ‘특강’, ‘소양’, ‘강의’ 등 전통적이며 고전적 인문학 방법이 주요 연쇄 단어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 국민의 대다수는 여전히 인문학 자체를 지식의 습득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그러나 앞서 지속적으로 확인한 바와 같이 인문학에 대한 바람은 여행, 축제, 맛집 등 문화의 향유로 점차 변화하고 있음을 주지하여 인문정신문화 사업과 정책을 구상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림 3-10] ‘인문학’에 대한 일반 국민 인식 N-gram 분석 시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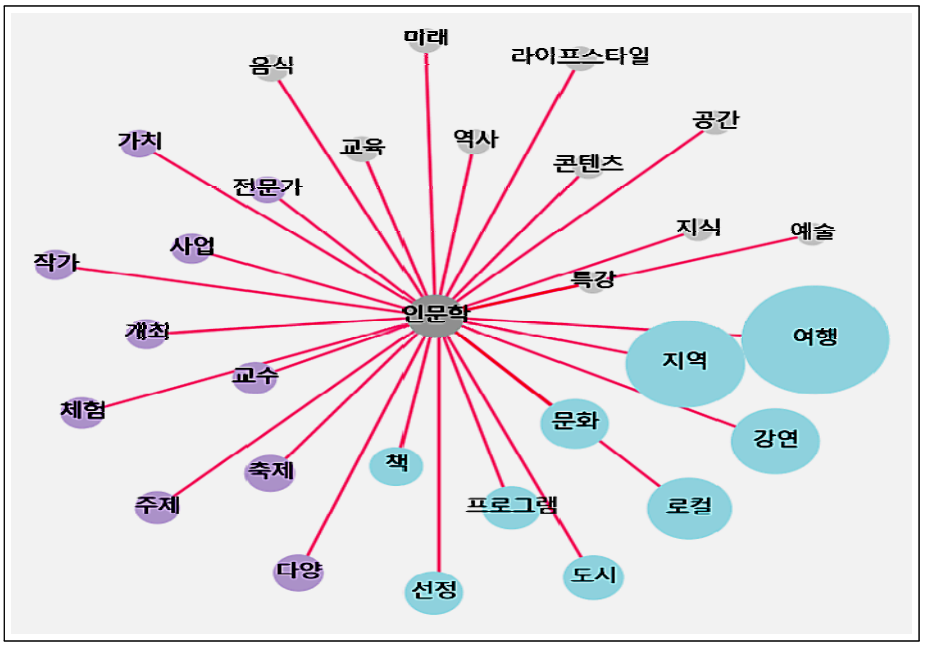


라. 에고 네트워크(ego network) 분석

본 연구에서는 단어 간 관계와 영향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분석하고자 하는 핵심어를 에고(ego)로 설정하고 이웃하는 단어들과의 연결 관계를 도출하는 에고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문학’, ‘로컬’ 및 ‘지역’을 에고로 설정하여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에서 단어의 크기가 클수록 출현빈도가 높고 에고와 가까운 단어일수록 동시 출현 빈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인문학’ 에고 네트워크의 경우 ‘역사’, ‘교육’, ‘지식’, ‘특강’, ‘책’, ‘작가’ 등 대중을 위한 지식 전달형 인문학의 전형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단어들과 함께, ‘예술’, ‘축제’, ‘체험’, ‘음식’, ‘미래’, ‘라이프스타일’, ‘콘텐츠’ 등 변화하는 인문학의 프로그램과 콘텐츠 추세를 반영한 단어들로 구성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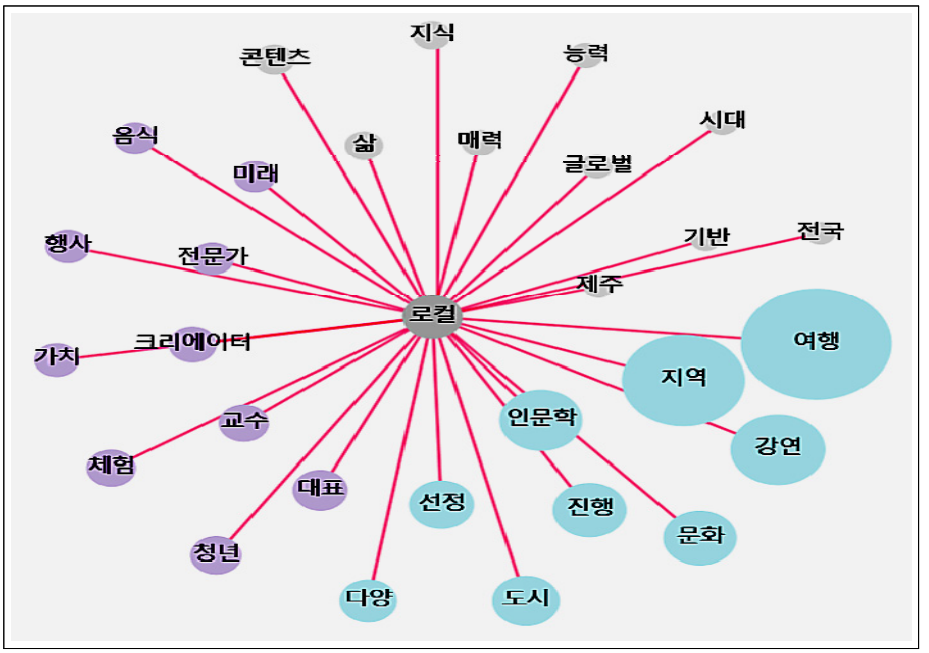
[그림 3-11] '인문학'에 대한 일반 국민 인식 에고 네트워크 분석 시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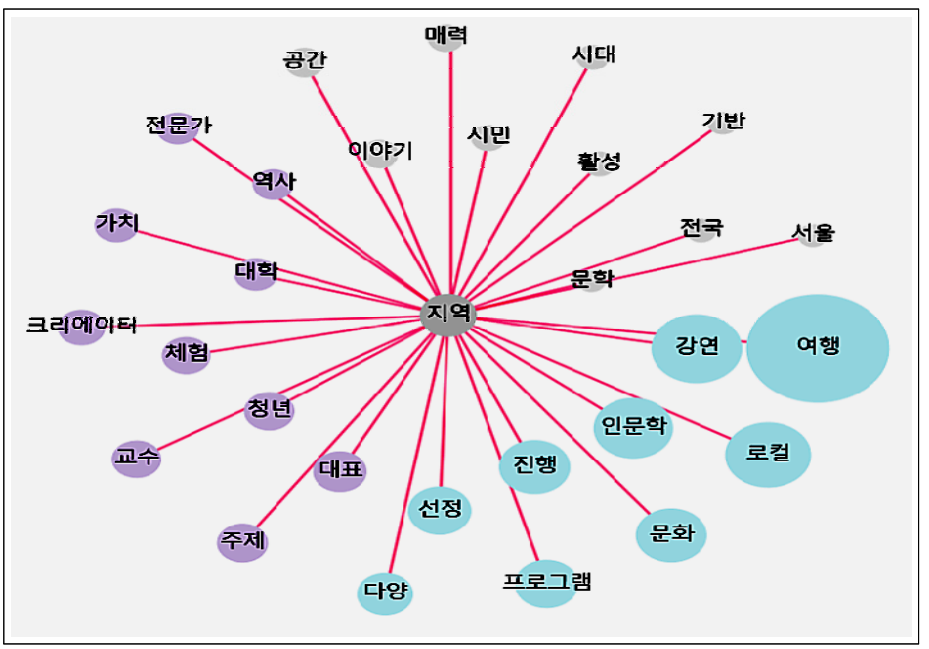
'로컬' 에고 네트워크와 '지역' 에고 네트워크는 그 의미와 연관 단어가 중첩되는 부분이 많아 상호 비교가 필요하다. 두 에고 네트워크에서 '청년'과 연계하여 그 지역을 '대표'하는 '매력'과 '가치'를 높이는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현상을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로컬' 에고 네트워크에서 '삶', '능력', '글로벌', '제주', '행사' 등의 단어가 '지역' 에고 네트워크와 차별화되어 발견된다. 이러한 핵심어들은 '로컬 크리에이터' 즉, 지역 기반의 자원과 문화적 특성을 소재로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주제로 하는 웹문서에서 발견되는 단어임이 확인된다.

반면, '지역' 에고 네트워크에서만 등장하는 '공간', '매력', '시민', '이야기', '활성', '대학' 등의 단어는 전통적 인문학에서 지역 활성화의 대안을 찾는 지역 주민의 노력이 담긴 웹문서에 등장하고 있다. 결국, '로컬' 및 '지역' 에고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의 재생과 회복을 꾀하는 활성화 노력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로컬' 에고 네트워크는 사업 위주의 경제적 가치 창출에 주안을, '지역' 에고 네트워크는 인문학적 대안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 주안을 두고 있음이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12] ‘로컬’에 대한 일반 국민 인식 에고 네트워크 분석 시각화



[그림 3-13] ‘지역’에 대한 일반 국민 인식 에고 네트워크 분석 시각화



한편, 세 종류의 에고 네트워크에서 '여행' 단어가 모두 가장 높은 강도로 연결되는 것은 주목할 점이다. 코로나 이후 급증한 여행에 대한 관심은 인문학 콘텐츠의 수요 역시 여행에 관련된 것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지역의 재생과 활성화 전략에 있어서도 여행이 주요한 수단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 구조적 등위성(CONCOR)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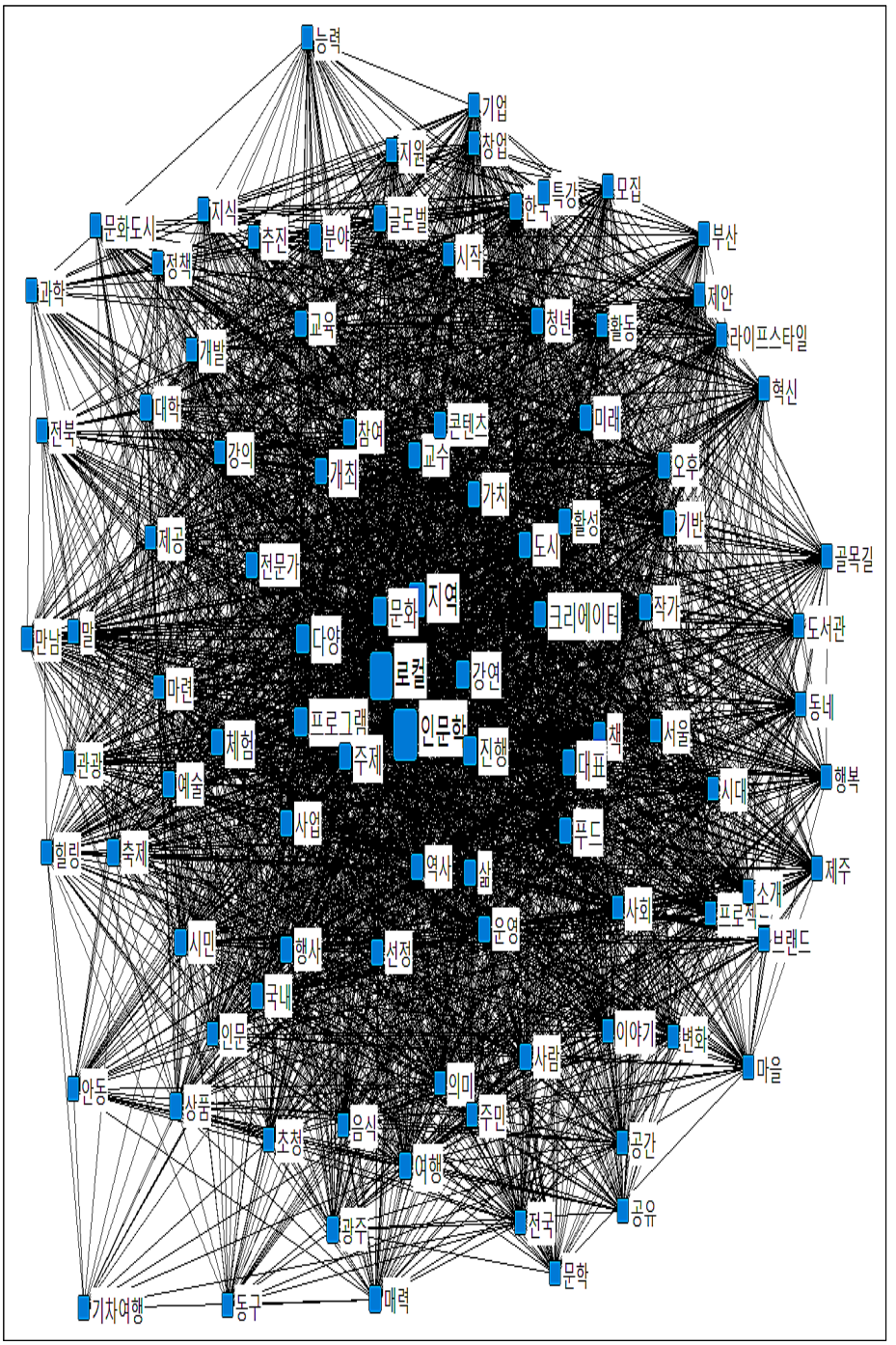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TF-IDF를 통해서 도출된 100개의 핵심어를 1-mode 매트릭스로 변환하여 중심도(centrality)를 분석하여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및 매개 중심성(between centrality)을 산출하였다. 그중 '연결 중심성'은 다른 단어들과 얼마나 많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통해서 의존도를 나타낸다. '근접 중심성'은 그 단어가 다른 단어들과 얼마만큼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나타낸다. '매개 중심성'은 특정 단어가 네트워크에서 다른 핵심어들 간 매개자 역할을 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중심도 분석에서 핵심어의 네트워크를 시각화하면 [그림 3-14]와 같다. 여기서 네트워크 중심에 가까울수록 핵심 개념으로 작용하는 단어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앞에서도 기술하였듯이 네트워크 분석은 구조적 등위성(CONCOR) 분석을 위한 경로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국민의 인식을 파악하고 관련 경향 및 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구조적 등위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 4개의 군집이 도출되었다. 세부적인 군집의 결과는 〈표 3-12〉와 같은데, 그중 3개는 주요 인식(2개는 촘촘히, 1개는 느슨하게)에 해당하고, 나머지 1개는 주변 인식에 해당한다.

〈표 3-12〉 일반 국민 인식에 대한 구조적 등위성 분석

구분	군집명	단어
주요 인식	콘텐츠 개발 및 혁신	공유, 제주, 공간, 시대, 소개, 서울, 대학, 사업, 행복, 다양, 대표, 인문학, 가치, 교수, 콘텐츠, 역사, 기반, 동네, 관광, 크리에이터, 혁신, 사회, 푸드, 프로젝트, 도시, 이야기, 선정, 마을, 모집, 주민, 로컬, 개발, 전문가
	인문프로그램	책, 도서관, 프로그램, 강연, 교육, 강의, 체험, 특강, 진행, 예술, 음식, 문학, 만남, 작가, 청년, 참여, 인문, 활동, 개최, 정책, 주제
	로컬 브랜드, 지역 활성화	지식, 글로벌, 능력, 분야, 한국, 과학, 제안, 여행, 안동, 라이프스타일, 힐링, 국내, 기차여행, 의미
주변 인식	행사 홍보	전국, 매력, 변화, 행사

[그림 3-14] 일반 국민 인식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시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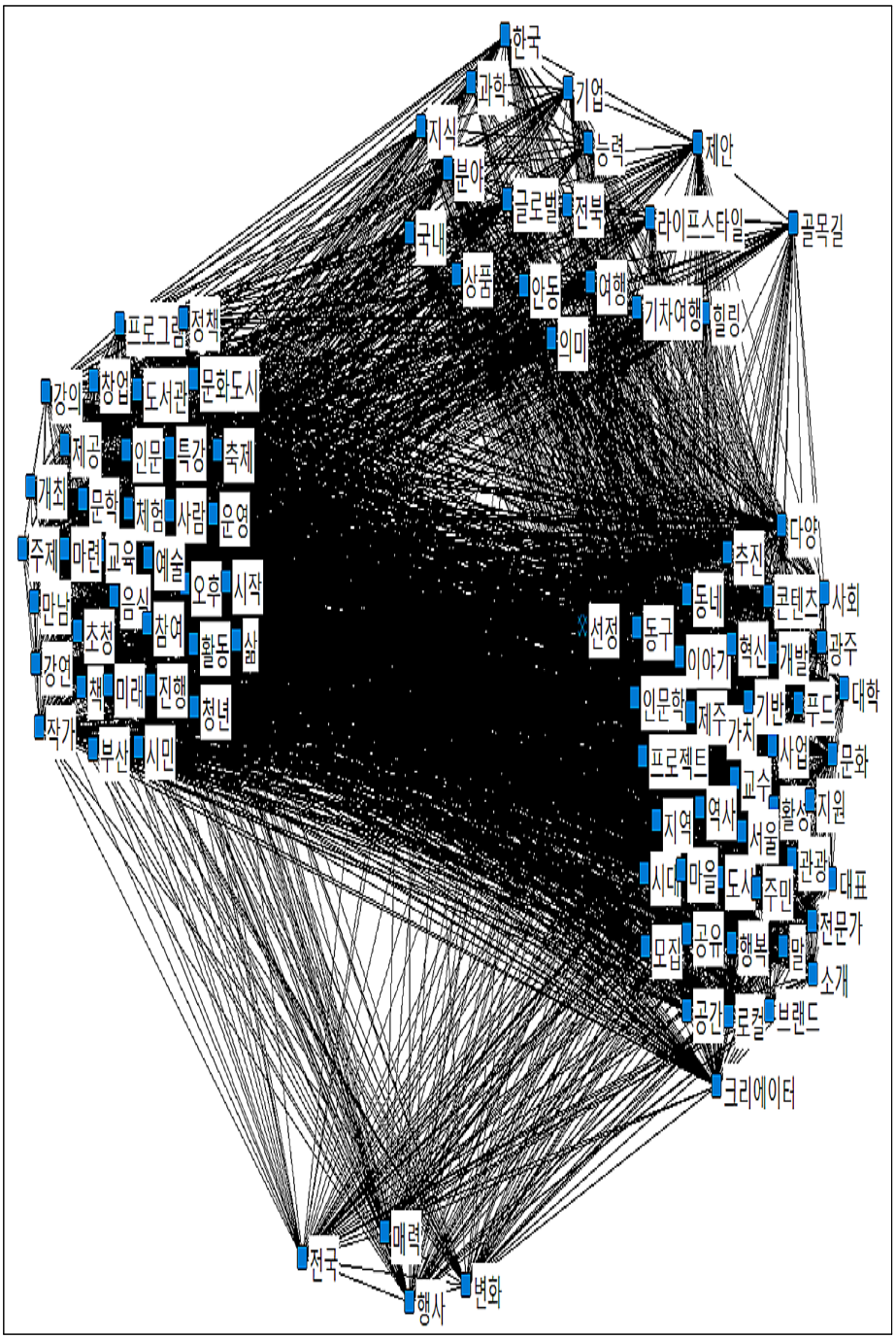
도출된 군집 중 첫 번째 군집은 가장 많은 단어가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공유’, ‘제주’, ‘공간’, ‘가치’, ‘기반’, ‘동네’, ‘관광’, ‘크리에이터’, ‘푸드’, ‘프로젝트’, ‘로컬’ 등 인문콘텐츠 개발과 혁신에 연관된 단어로 구성된다. 즉, 일반 국민은 지역학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발전과 관련한 활동을 지역 콘텐츠의 개발과 혁신이라고 인식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이러한 활동을 중시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

두 번째 군집도 많은 단어가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책’, ‘도서관’, ‘프로그램’, ‘강연’, ‘교육’, ‘강의’, ‘체험’, ‘특강’ 등과 같은 전통적인 인문프로그램에 연관된 단어들로 구성된다. 이는 인문학 혹은 인문정신문화 사업이 대중에게 보편적으로 연상시키는 핵심단어이자, 전통적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지역학과 연계하는 방식이나 프로그램 운영에서 전통적인 방법론을 중요하게 고려하며 발전시켜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세 번째 군집은 첫 번째나 두 번째 군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제안’, ‘여행’, ‘안동’, ‘라이프스타일’, ‘힐링’, ‘국내’, ‘기차여행’ 등과 같이 로컬 브랜드 및 지역 활성화와 관련한 단어들로 구성된다. 최근에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인문학적 요소를 활용하여 자기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브랜드화하고, 그것을 통해서 외지인의 방문 및 관광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즉, 이 결과는 지역 방문과 관광 활성화라는 목적을 위해서 인문학적인 요소가 활용됨을 알려준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 균형발전에서 인문정신문화 진흥사업이 어떻게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마지막 네 번째 군집은 주요 인식과 거리가 있는 주변 군집에 해당한다. 다른 세 개의 군집과 멀리 떨어져 있고,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및 매개 중심성 측면에서 모두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군집은 ‘전국’, ‘매력’, ‘변화’, ‘행사’처럼 행사 홍보에 연관된 단어들로 구성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기관에서 주최하는 인문학(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의 홍보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홍보가 인문학 프로그램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알 수 있고, 양질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었더라도 그 시행 효과와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내실 있는 홍보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그림 3-15] 일반 국민 인식에 대한 구조적 등위성 분석 시각화



4. 인문프로그램 체험자 인식 분석

가. 분석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인문정신문화 사업에 참여한 체험자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서 2023년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및 〈지혜학교〉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조사 결과(한국도서관협회, 2023) 원시데이터(Raw data)의 주관식 자유응답 텍스트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전체 응답 수 6,754건 중 '좋음', '없음' 등 무의미한 응답 및 불성실 응답을 제외한 5,508건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수집한 자료에 대해 텍스톰의 Espresso K 분석기를 활용하여 핵심단어를 추출하고 정제한 후, 빈도(TF-IDF) 분석과 단어구름 시각화, N-gram 분석 및 시각화, 에고 네트워크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어서 UCINET6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및 CONCOR 분석을 시행하였다.

〈표 3-13〉 인문프로그램 체험자 인식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 · 분석 방법

수집 방법		분석 방법	
수집대상	2023년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및 〈지혜학교〉 프로그램 참여자	분석언어	한국어
		분석기	Espresso K
수집내용	만족도 설문 중 자유응답 문항 답변	분석품사	일반명사(NNG), 고유명사(NNP), 의존명사(NNB)
수집건수	5,508건	사용자사전	미지정
수집일시	2024.4.15.	분석일시	2024.4.15.

나. 단어-역문서 빈도(TF-IDF) 분석

본 연구에서는 인문프로그램 체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의 자율응답식 문항에서 수집한 텍스트 데이터의 단순 빈도와 함께 문서상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중요도를 산출하는 TF-IDF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강의', '프로그램', '참여', '감사', '시간', '주제', '다양' 등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소감과 감사, 그리고 요구에 관련된 단어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는 프로그램 종료 시점에서 실시된 설문에서 참여자들의 자연스러운 응답으로 해석된다.

그 외에 도출된 결과를 보면, '탐방', '지역', '역사' 등을 지역학과 연계된 단어로 꼽을 수 있다. 그중 '탐방'은 2023년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에서 진행되는 총 4275회의

프로그램 횟수 중 498회가 탐방 형식으로 진행되는 등 탐방이 차지한 비중이 컸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그 운영 내용을 보면, '강동구 마을책 만들기(강동구립해공도서관)', '다산성곽도서관에서 들려주는 한양도성 이야기(다산성곽도서관)', '북구 그리고 부산: 이 땅에 살아 숨쉬던 이들의 발자취를 따라(화명도서관)', '삼국유사 속 군위의 발견(군위도서관)' 등처럼 다수의 프로그램이 지역과 역사를 주제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참여자의 응답에 '지역' 혹은 '역사'가 다수 등장한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3-14〉 인문프로그램 체험자 인식에 대한 단어-역문서 빈도 분석

순위	word	df	idf	tf-idf	순위	word	df	idf	tf-idf
1	강의	1076	1.53	2146.32	16	사람	163	3.41	634.97
2	프로그램	944	1.66	1788.36	17	홍보	170	3.37	590.06
3	참여	669	2.00	1591.40	18	내용	144	3.54	580.19
4	감사	673	2.00	1427.00	19	준비	158	3.44	564.97
5	시간	492	2.31	1309.24	20	횟수	155	3.46	554.26
6	주제	464	2.37	1207.51	21	지역	139	3.57	553.83
7	다양	460	2.38	1126.38	22	필요	149	3.50	543.06
8	강사	369	2.60	1101.02	23	체험	126	3.67	480.94
9	인문학	334	2.70	994.97	24	아이	66	4.32	392.93
10	진행	295	2.82	902.58	25	지속	98	3.92	392.26
11	탐방	257	2.96	872.75	26	기획	82	4.10	356.77
12	도서관	242	3.02	836.15	27	주민	75	4.19	351.96
13	기회	266	2.92	827.51	28	관심	80	4.13	350.67
14	만족	279	2.88	825.51	29	역사	71	4.24	335.34
15	생각	171	3.37	669.81	30	유익	79	4.14	331.05

[그림 3-16] 인문프로그램 체험자 인식 분석 결과 단어구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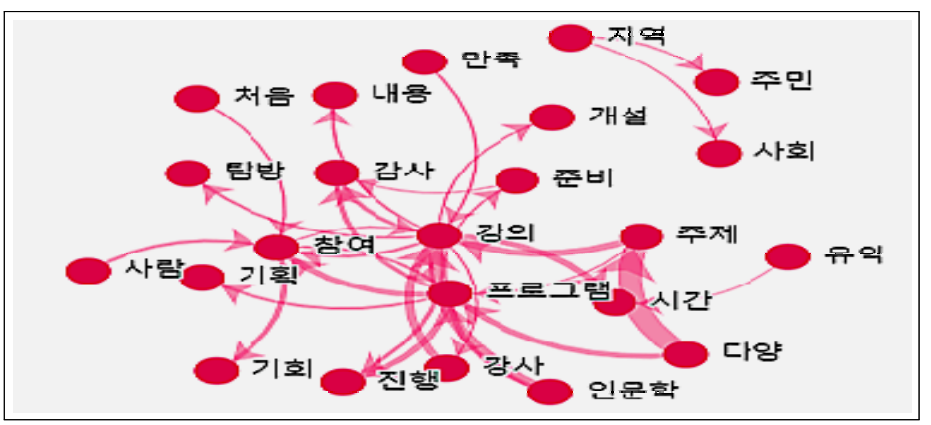
다. N-gram 분석

연쇄하는 단어 간 연결 관계를 나타내는 N-gram 분석 시행 결과, 상위 100건 중 단 2건(28, 29위)에서 '지역'이라는 단어가 드러났을 뿐, 그 외에 지역학 연계 단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분석의 텍스트로 활용된 인문프로그램 참여자의 사후 설문조사 자체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감상이나 만족도와 관련한 인식을 주 내용으로 하였기 때문에 지역학과 연관된 정보를 알려준 단어가 잘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표 3-15〉 인문프로그램 체험자 인식에 대한 N-gram 빈도 분석

순위	단어1	단어2	빈도	순위	단어1	단어2	빈도
1	다양	주제	149	16	프로그램	기획	39
2	인문학	강의	84	17	참여	프로그램	38
3	주제	강의	71	18	강의	탐방	36
4	강사	강의	62	19	강의	내용	33
5	강의	시간	61	20	처음	참여	30
6	프로그램	참여	60	21	만족	강의	30
7	다양	프로그램	59	22	프로그램	준비	29
8	프로그램	진행	58	23	참여	강의	29
9	인문학	프로그램	47	24	강의	개설	29
10	참여	기회	45	25	강의	강사	28
11	강의	감사	44	26	주제	프로그램	28
12	프로그램	감사	44	27	준비	감사	27
13	사람	참여	42	28	지역	주민	27
14	강의	참여	41	29	지역	사회	25
15	강의	진행	40	30	유익	시간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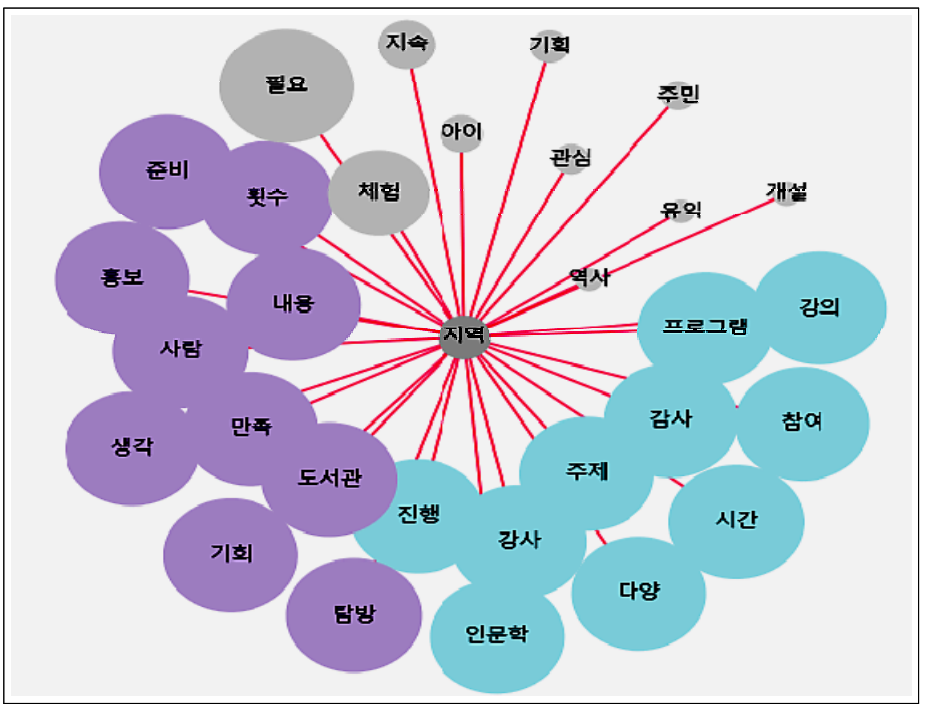
[그림 3-17] 인문프로그램 체험자 인식에 대한 N-gram 분석 시각화



라. 에고 네트워크(ego network) 분석

단어-역문서 빈도(TF-IDF) 분석에서 지역학과 연관된 대표 핵심어는 '지역'이다. 이에 '지역'을 에고로 설정하여 에고 네트워크를 시각화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단어의 특성에 따라 교육의 내용('인문학', '역사', '미술', '인물', '사회', '주제'), 교육의 방법('강의', '참여', '탐방', '체험'), 교육의 운영('프로그램', '시간', '진행', '도서관', '홍보', '준비', '횟수', '기획', '개설'), 교육의 대상('사람', '아이', '주민'), 그리고 인식('다양', '기회', '만족', '생각', '필요', '관심', '유익')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위에서 기술한 분석 내용이 반영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3-18] '지역'에 대한 인문프로그램 체험자 인식 에고 네트워크 분석 시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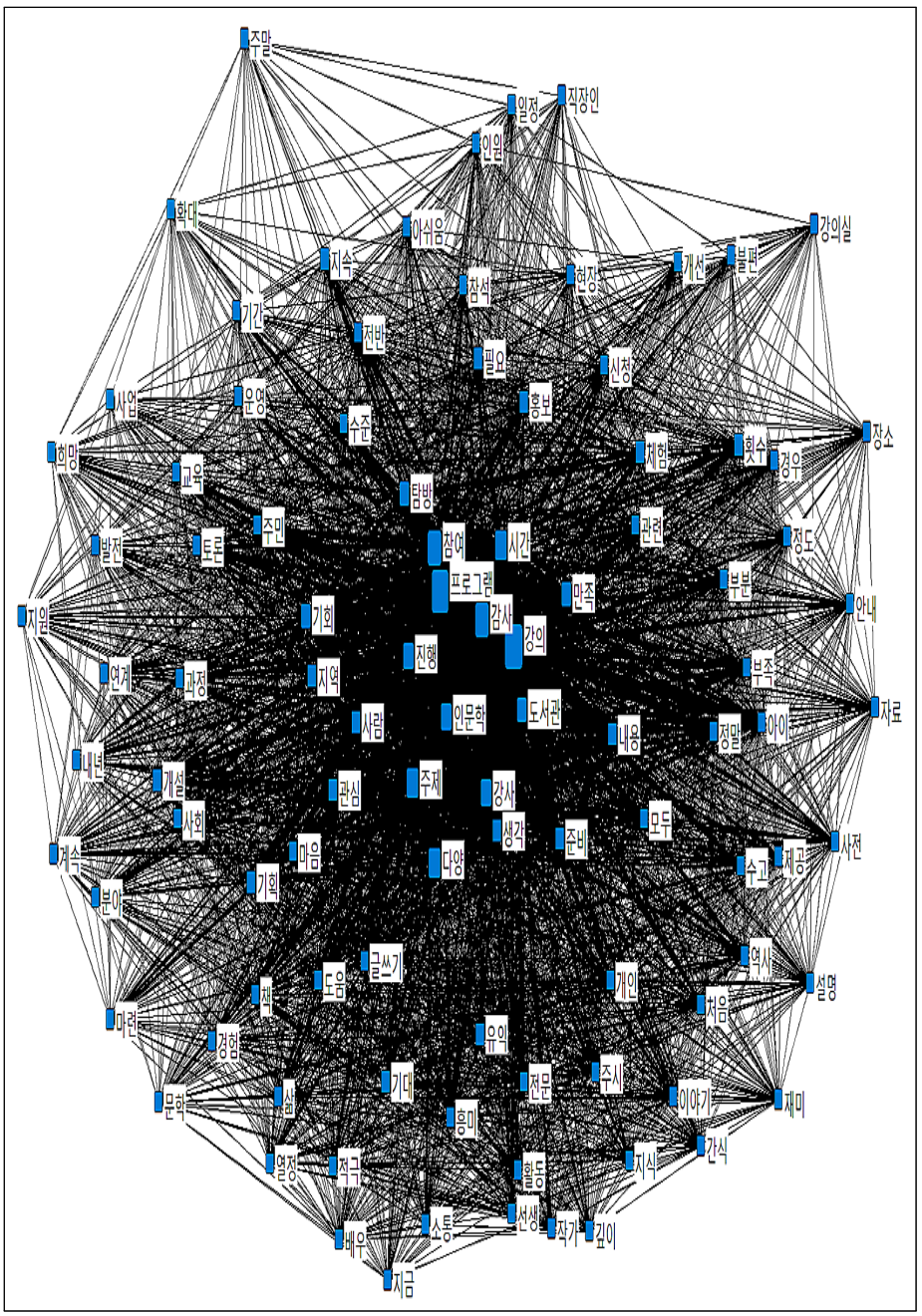


마. 구조적 등위성(CONCOR) 분석

단어-역문서 빈도(TF-IDF) 분석에 의한 100개의 핵심어를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시각화한 결과는 [그림 3-19]와 같다. 여기서 네트워크 중심에 가까울수록 네트워크 속에서 핵심 개념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이어서 네트워크 시각화를 토대로 핵심어가 동시

등장하는 군집을 도출하는 구조적 등위성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16〉 및 [그림 3-20] 참조). 도출된 8개 군집에서는 5개의 주요 인식과 3개의 주변 인식이 확인된다.

[그림 3-19] 인문프로그램 체험자 인식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시각화



〈표 3-16〉 인문프로그램 체험자 인식에 대한 구조적 등위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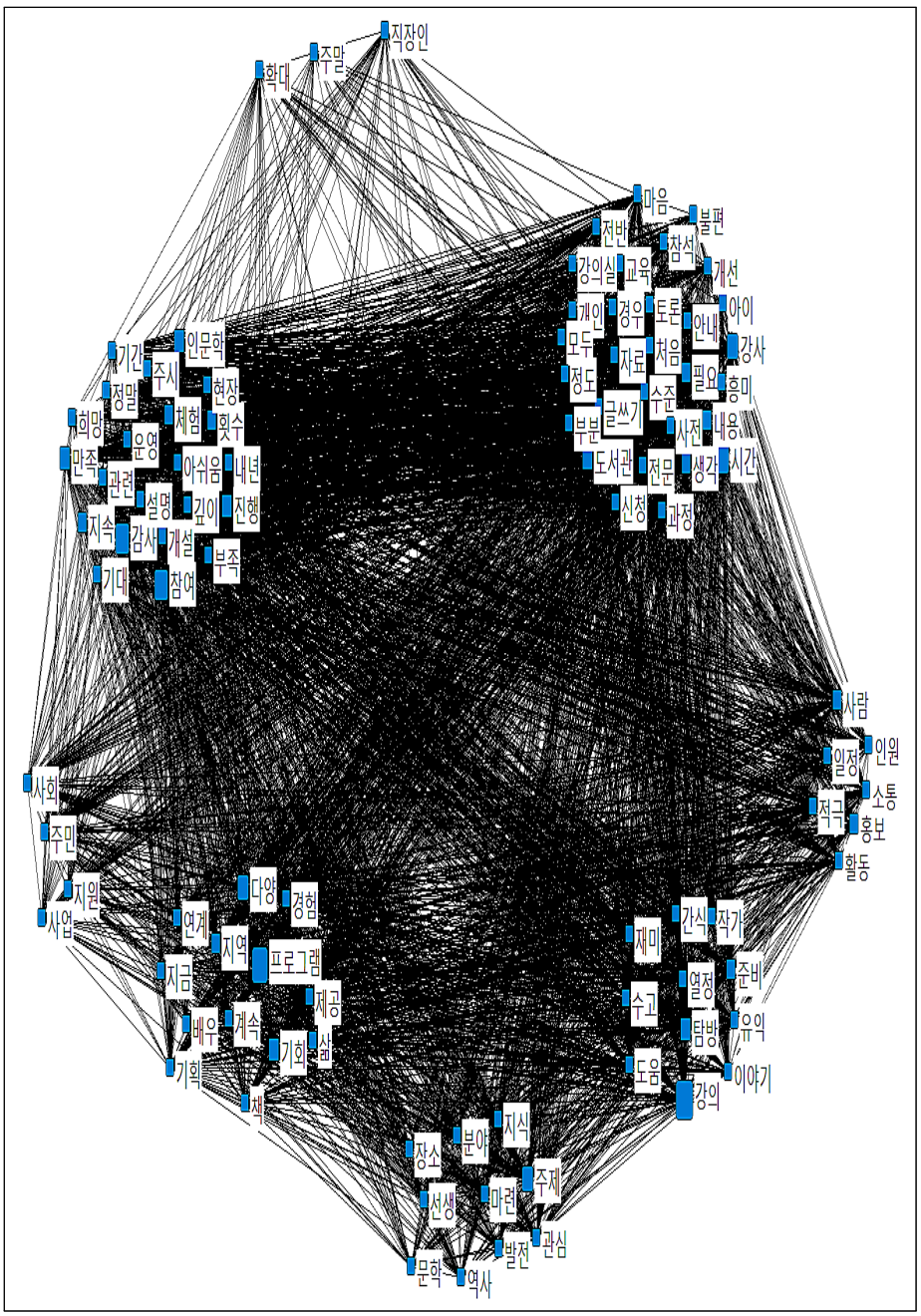
구분	군집명	단어
주요 인식	현장 여건 평가	전반, 강의실, 개인, 마음, 참석, 토론, 자료, 처음, 수준, 글쓰기, 도서관, 불편, 과정, 신청, 흥미, 강사, 개선, 참석, 안내
	사업 시행 평가	인문학, 체험, 희망, 만족, 지속, 기대, 감사, 진행, 횟수, 내년, 부족, 아쉬움
	프로그램 평가	경험, 프로그램, 제공, 삶, 기회, 책, 지역, 연계
	제공자(시행자) 평가	재미, 수고, 도움, 간식, 열정, 탐방, 강의, 작가, 준비, 유익, 이야기
	희망 주제	장소, 분야, 지식, 선생, 마련, 주제, 문학, 역사, 발전, 관심
주변 인식	프로그램 홍보	사람, 인원, 일정, 소통, 적극, 홍보, 활동
	정책적 지원	사회, 주민, 지원, 사업
	수혜 확대 요구	주말, 확대, 직장인

주요 인식에 속하는 첫 번째 군집은 프로그램 현장 여건을 평가('전반', '강의실', '개인', '마음', '참석', '토론', '자료', '처음', '수준', '불편' 등)하는 단어로, 두 번째 군집은 사업 시행을 평가('인문학', '체험', '희망', '만족', '지속', '기대', '감사', '진행', '횟수', '내년' 등)하는 단어로, 세 번째 군집은 참여한 프로그램을 평가('경험', '프로그램', '제공', '삶', '기회', '책', '지역', '연계' 등)하는 단어로 구성되었다. 네 번째 군집은 프로그램 제공자(시행자)를 평가('재미', '수고', '도움', '열정', '강의', '작가', '유익' 등)하는 단어로 구성되었다. 다섯 번째 군집은 차후에 희망하는 주제('분야', '지식', '마련', '주제', '문학', '역사', '관심' 등)에 연관된 단어로 구성되었다. 주변 인식에 속하는 여섯 번째 군집은 프로그램 홍보에 관한 요구('일정', '소통', '적극', '홍보', '활동'), 일곱 번째 군집은 정책적 지원('사회', '주민', '지원', '사업'), 마지막 여덟 번째 군집은 프로그램 체험 확대 요구('주말', '확대', '직장인')에 대한 단어로 구성되었다.

도출된 군집 중에서 '프로그램 평가', '제공자 평가', '희망 주제'에 관한 인식을 통해 지역학과 연계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프로그램 평가' 군집에서는 '지역', '연계' '기회', '경험' 등의 단어를 통해 참여자들이 지역과 연계된 경험을 의미 있게 평가함을 알 수 있다. 즉, 지역과 연계된 프로그램은 참여자 만족에 정적인 상관관계를 미침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선정에 있어 지역학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음으로 '제공자 평가'에서는 '탐방' 형태 프로그램이 좋은 평가를 받았음을 나타낸다. 즉, 인문프로그램에서 지역학 연계 방법론으로 탐방이 효과적이며 선호도 높을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희망 주제' 군집에서는 '장소', '역사' 단어를 통해 지역학 연관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인문프로그램 참여자들이 희망하는 지역의

역사를 주제로 한 장소 탐방과 지식·정보를 담은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면 좋은 반응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림 3-20] 인문프로그램 체험자 인식에 대한 구조적 등위성 분석 시각화



제2절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분석

1. 조사 개요

본 연구에서는 지역학과 인문정신문화 정책에 관한 언론보도 및 일반 국민의 인식과 수요를 텍스트 마이닝 분석함과 아울러,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역학과 인문정신문화 사업 관련 동향 및 인식, 지역학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사업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 등을 수렴하기 위해 자문 형식을 겸한 심층인터뷰를 시행하였다.

이번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대상은 크게 현장,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민간으로 설정하였다. 현장에는 인문정신문화 사업 관계자(인문 활동가, 사업 관리 운영자)가 포함되었는데, 그중 인문 활동가는 현장에서 인문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인력이다.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에는 국학진흥기관 관계자, 출연연구원 지역학연구센터 관계자, 지역문화재단 지역학센터 관계자가 포함되었다. 민간에는 지방문화원 지역학연구소 관계자가 포함되었다. 인터뷰는 표적집단에 따라 1~4회 이루어졌다. 인터뷰 대상자 중에는 활동 특성에 따라서 다른 영역에도 관련된 경우가 있고, 이들 대상자 외에 현장 인터뷰 과정에서는 그 외 관계자가 일시적으로 참석한 경우도 있었다.

심층인터뷰의 논의 주제는 각 개인·기관·단체의 활동 현황, 지역학 및 인문정신문화 사업에 대한 인식, 지역에서 지역학 및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역할, 지역학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사업 방향 및 방안에 대한 제언을 공통적으로 포함하였다. 다만, 대상 집단별로 다소 차이도 있다. 그중 인문정신문화 사업을 담당하는 인문 활동가와 사업 관리 운영자 집단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감안하여 인문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관심사 및 현장에서 사업 운영 시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였다. 각 집단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측면에 대한 자문 의견 수렴이 함께 이루어졌다. 여기서는 표적집단별 인터뷰의 주요 논의 주제를 크게 지역학에 관한 인식, 인문정신문화 사업에 관한 인식, 지역학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사업 발전방안 제안으로 나누어 정리한다.

〈표 3-17〉 표적집단별 인터뷰 참여자 및 주요 논의 주제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th><th>주요 논의 주제</th></tr>
<tr><td rowspan="2">현장</td><td>인문 활동가</td><td rowspan="2">강○영(한국도서관협회)
김○기(시옷살롱책방)
김○원(작가)
김○규(평택인문연구소)
남○조(시옷살롱책방)
박○영(마포구립서강도서관)
손○혜(한국도서관협회)
이○운(도봉문화정보도서관)</td><td rowspan="2">•인문프로그램 추진 시 애로사항 및 참여자 관심사항
•지역학 및 인문정신문화 사업에 대한 인식
•지역학 성과의 인문프로그램 연계 시 고려사항에 대한 의견
•지역에서 인문정신문화 사업 발전을 위한 필요 사항
•지역학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사업 방향 및 방안에 대한 제언</td></tr>
<tr><td>인문정신문화 사업 관리운영자</td></tr>
<tr><td rowspan="3">지자체 관계기관</td><td>국학진흥기관 관계자</td><td>권○상(부산학연구센터)
김○우(경기학센터)
김○자(제주학연구센터)
김○운(율곡연구원)
박○재(율곡연구원)
안○조(대구경북학연구소)</td><td>•기관별 현황 및 추진사업(지역학 연계 현황 등)
•기관 간 협력 현황 및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
•지역학 및 인문정신문화 사업에 대한 인식
•지역학과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관계에 대한 의견
•지역학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사업 방향 및 방안에 대한 제언</td></tr>
<tr><td>출연연구원 관계자</td><td rowspan="2">유○심(강원학연구센터)
유○희(수원학연구센터)
이○민(세종지역학센터)
임○현(충북학연구소)
장○연(한국유교문화진흥원)
정○진(율곡연구원)
조○은(한국학호남진흥원)
차○혜(화성학센터)
장○길(전북학연구센터)
한○헌(대전학연구센터)</td><td rowspan="3">•연구센터 · 연구소별 현황 및 추진사업(협력 현황 등)
•지역학 및 인문정신문화 사업에 대한 인식
•지역의 사회 문제 · 이슈 및 지역학의 역할에 대한 의견
•지역의 인문정신문화 문제 · 이슈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지역학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사업 방향 및 방안에 대한 제언</td></tr>
<tr><td>지역문화재단 관계자</td></tr>
<tr><td>민간</td><td>지방문화원 관계자</td><td>강○갑(용인학연구소)
김○태(춘천학연구소)
김 ○(춘천학연구소)
유○희(춘천학연구소)
이○호(충주학연구소)
정○운(충주학연구소)
최○호(충주학연구소)</td></tr>
</table>

2. 지역학에 관한 인식

가. 지역학의 개념과 특성

인터뷰 대상자들은 지역학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았지만, 대체로 공간적으로 지역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그 성격에서 학제적 · 종합적 · 통합적인 연구를 지향하고, 정책과도 관련성이 크다고 이해하였다. 이것은 지역학의 기존 정의나 특성

에 대한 논의와 다르지 않은 인식이다. 지역의 공간적 범위에 대해서는 대체로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인식하였으나, 그 범위를 문화권 같은 권역 단위나 관계망의 범위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인문정신문화 사업 관계자 중에는 지역을 사람들의 관계망과 관련한 공간적 범주로 파악하거나 지역학을 비주류로서의 지역에 대한 연구로 이해하기도 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지역학이 학제적 · 종합적 · 통합적인 학문을 지향하지만, 실제 연구 분야나 지역에서의 관심은 역사 · 문화를 중심으로 한다고 보았다. 최근에 기존 울산학연구센터가 울산역사연구소로 기능 이관 및 개편된 것이나, 강원학연구센터가 강원역사문화연구원으로 이관된 것과 같은 사례도 이러한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

지역학에서 역사 · 문화가 중요하게 고려되는 상황은 지역학의 주요 목적이 지역의 정체성 정립 또는 특수성 구명에 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그에 따라서 지역학이 학술연구를 넘어, 지역의 발전과 정책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도 대체로 공유하고 있었다. 다만, 정책과의 연관성이 지역학의 특성이기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성향에 따라서 연구나 사업 추진에 제약이 발생하거나 지속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은 한계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참고] 이해관계자 인터뷰 사례

- "지역학이라는 게 어떤 개념일까 스스로 생각을 해봤을 때 주류와 비주류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역은 비주류고, 주류는 누군가가 애써 연구를 하지만 비주류는 누군가가 연구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다 같이 기억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사업 운영관리자)
- "전체적으로 도시 정체성이나 지역 정체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러다 보니 인문학적인 특히 역사적인 연구들이 중심을 이루긴 하는데……지역학이 역사 · 문화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라고 하면 지역연구원에서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는 얘기도 듣거든요."(지역학 관계자)
- "저한테 느껴지는 지역은 행정적인 경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약간 겹쳐진 층위가 다르긴 한데, 파주라고 하는 지역에서 내가 관계 맺는 바운더리 그러니까 관계의 망이죠.……아주 느슨하기는 하지만, 공동체적 의식을 갖고 있는 어떤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들, 이 정도를 지역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인문 활동가)
- "궁극적으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식의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긍심이잖아요. 내가 좀 가난해도 여기 산다는 프라이드가 있으면 사람들이 안 떠나죠.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모티브가, 그 지역의 역사 · 문화적인 어떤 전통이 중요한 모티브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잖아요."(국학진흥기관 관계자)
- "지리적인 바탕에 형성된 인문, 사회, 자연과학 분야를 통합 학문의 측면에서 실천한다고 보면 되는데. 그 사업들을 우리들이 다 해내지는 못하고 지금으로서는 인문 중심……역사학, 자원, 문화, 민속, 언어까지 아우르는 도민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들을 연구하는 종합적인 학문이 저희 센터가 지향하는 제주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제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에서는 '제주다움' '제주정체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지역학 관계자)

나. 지역학의 지향과 목적

인터뷰 대상자들은 지역학의 지향 내지 목적에 대한 인식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지역학이 특수성 또는 '○○지역다움'과 관련되는 지역의 정체성 정립 및 가치 탐구를 지향해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도 지역학의 목적이라고 인식하는 대상자들도 있었는데, 이러한 인식은 지역학 진흥 조례들에서도 잘 확인된다. 이와 같이 지역 정체성을 정립하고 주민의 자부심을 향상하는 하는 것은 고유한 역사적 · 문화적 · 사회적 특성을 밝힘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의 창의성 제고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과 관련된다고 본다. 즉, 지역학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학술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내 다양한 문제와 이슈를 학술적으로 분석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그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지역학연구센터 관계자들은 지역학은 정책 수요를 고려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지역의 문제를 중요 주제로 삼는 데 동의하는 경향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부산학연구센터는 지역의 문제를 인문학 및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정책인문학' 개념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부산 지역의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인문콘텐츠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관광 등 다른 분야에서의 활용이다.

지역 정체성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지역학에 철학적 접근이 필요하고, 주민의 경험을 기억하고 공유하는 한편, 타 지역과 관계에서도 상호 주체성에 대한 이해 제고가 중요한 과제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지역학에서 주민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러한 방향에 실제 사업이 부합하지 못한다는 문제도 지적되었다. 이러한 의견들과 관련하여 지역을 "아주 느슨하기는 하지만 공동체적 의식을 갖고 있는 어떤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들" 내지 "전통적인 지역적 이슈들을 공유하는 집단들"로 이해하고, 따라서 지역학이 지역사회 내 사람들 간 관계 형성과 공동체 의식 제고를 통해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또한 지역학이 추구하는 정체성은 배타성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드러내고 보존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자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러한 인식들이 지역학과 인문정신문화 정책이 만나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판단된다.

[참고] 이해관계자 인터뷰 사례

- "제가 살고 있다고 지역을 알고 있지 않잖아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사랑하는 건데. 그러면서 지역민들이 가지고 있는 프라이드라든가 지역민들이 또 여기 계속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좀 더 연구소에서 좀 만들어주는 거(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지역학 관계자)
- "정책인문학이라고 저희 나름대로 개념을 잡아서……기존에 경제 혹은 도시공학, 환경 이런 분야들이 부산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출하는 과정이었다면, 이런 문제들 너머에서 인문학적이고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자원들을 가지고 새롭게 접근해보자라는 아이디어로 정책인문학을 시작했었고……."(지역학 관계자)
- "내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사랑이 결국은 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힘을 좀 심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역학이 꼭 필요하지 않는가. 결국은 또 지역학의 이런 연구의 축적은 결국은 나중에 미래 유산으로서 다양한 콘텐츠로도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관광이라든가 이런 여타의 다른 분야들하고 연계 산업과 연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역학이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지역학 관계자)
-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험이 기억되고 또 그 기억을 공유하고 이런 작용들을 생각하다 보면 주체간에 철학에서 얘기하는 이제 서로 주체성 상호 주체성 이런 개념들이 지역학에 굉장히 적용이 돼야 돼요. 이제 지역 정체성을 찾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지역 주체성들끼리 서로 상호 주체성을 갖게 되는 거기까지 이르는 걸 목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지역학 관계자)
- "문화적 다양성이 있어야 풍요롭습니다. 똑같은 문화를 갖다가 만약에 공유하고 있다면 그 문화가 무슨 창의력이 있겠으며, 얼마나 취약하겠어요.……지역학을 통해서 그런 문화적 다양성을 잘 발굴하고 또 홍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지역적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죠."(국학진흥기관 관계자)

한편, 지역학의 주요 영역이 기록문화와 관련된다는 인식도 공유되었다. 특히 국학진흥기관이나 지역학 관계자들은 해당 지역에 관한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지역학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그 성과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 아카이빙하는 디지털 인문학이 중요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의 특성을 분석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지역학이 지역의 역사·문화를 연구하고 지역에 대한 이해 제고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다. 지역학 진흥을 위한 협력

인터뷰 대상자들은 관련 기관-단체-개인 등의 협력과 네트워킹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지역학과 국학진흥기관 관계자들은 지역학의 중요한 역할인 자료의 수집·정리 및 활용 등에서 유관기관이나 지역의 박물관·문화원 등의 협력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지역학 연구와 성과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지역학 관계자들의 경우, 지역의 대학이나 관련 학회, 평생학습기관, 지방문화원과 박물관 등의 문화기관을 협력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각 대상과 개별적인 업무협력을 맺고는 있으나,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협의체를 만들지는 못한 상황이고, 이는 국학진흥기관의 경우에도 유사

하였다.

실제 지역학 진흥을 위한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은 표적집단별로 차이를 보였다. 한 예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학연구센터에서는 지역의 대학이나 관련 학회, 평생학습기관, 문화기관 등이 협력대상이다. 그 내용에서는 주로 역사와 문화를 중심으로 한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연구나 학술프로그램·강좌 운영 형태의 협력이 중심이 되고 있다. 한 예로, 대구경북학연구소는 대구경북학회와 지역화 교육을 위해 협력하며 지역 내 11개 대학에 교양 과목으로 지역학 강좌를 운영하고 있고, 전북학연구센터도 관내 5개 대학에 지역학 강좌를 개설하였다. 전북학연구센터는 전라북도 내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 단위 지역학 육성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이라는 성격과 기능을 설정하고 있으며, 수원학연구센터는 관내의 다양한 기관·단체를 지원하는 조직이라는 성격과 기능을 설정하고 있다. 관내 네트워크 구축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경우에는 센터들은 대체로 이와 유사하게 그 성격과 기능을 설정하고 있었다.

지역학과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연계에서 중요한 국학진흥기관, 지역학연구센터, 지방문화원 간 협력은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였다. 특히 지방문화원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인력의 부족과 노쇠화로 인해 지역학 분야 협력에 적절할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곳이 많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지역학센터처럼 지역 자료 수집·정리를 위해 지방문화원과 협력을 모색하는 사례들도 있고, 경기학센터처럼 관내 31개 시군의 지방문화원 등 지역학 관계 기관·단체를 연계하는 업무를 주요 방향으로 설정하였던 사례도 있다.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의 지역학연구센터들에서는 지역학 연구나 사업을 자체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체로 관내 대학·학회, 연구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통해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지방문화원과의 협력이나 지원은 한국학호남진흥원이 추진했던 〈광주·전남 정신문화 르네상스 문화원 동행사업〉[22]처럼 극히 한정된 사례만 나타난다. 이 사업은 한정된 예산과 인력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문화원을 활용하여 호남 지역의 국학자료 현황을 파악하려는 의도에서 진행되었다. 지역 자료의

22) 〈광주·전남 정신문화 르네상스 문화원 동행사업〉은 "지방문화원이 멸실 위기의 역사문화자원과 기록유산을 발굴·정리하여 지역전통문화 보존·계승의 주체·중심기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0년 7월~2021년 5월에 추진되었다. 주요 내용은 '지역 기록유산 조사 및 정리(종가자료 포함)', '지역 역사문화자원 영상자료 제작', '강좌와 기행'을 주제로 1팀당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하였다(https://www.hiks.or.kr/Notice/35/read/466). 그러나 이 사업은 예산상 문제 등으로 1회만 시행되었다.

내용이나 소장처 등에 대한 정보를 잘 파악하고 있는 지방문화원의 특성을 잘 활용한 예라고 할 수 있으나, 지속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니기도 한다.

지방문화원 지역학연구소의 경우에는 대체로 지역사 연구자 등과 자료 조사나 연구를 위한 협력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담당 전문인력을 확보한 지방문화원 부설 지역학연구소에서는 관내의 다양한 기관·단체와 활발히 협력하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충주문화원 충주학연구소는 관내 대학 및 단체와 협력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한국교통대학교 지역 상생협력단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 추진,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혁신 공유대학 및 동화·한국어문화학과, 문헌정보학 등과 함께 연구 사업 및 지역학 강좌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문화단체인 예성문화연구회와 지역문화 보존 및 활성화, 충주대원고등학교와 기록물 활용을 위한 협약을 맺고, 주덕읍 제내리 풍덕마을처럼 마을공동체자료를 다량 소유한 마을을 대상으로는 자료 정리를 위한 협약을 맺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충북연구원 충북학연구소 등 유관조직과 지역학 공동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지역학연구센터들에서는 지역학 대중화를 위해 지역의 역사·문화 중심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향이다. 제주학연구센터처럼 지역 정체성 확립과 역사·문화 이해를 위해 교육청과 학생용 지역교육 교재 개발 협력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교재 개발에 필요한 컨설팅과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등 그 협력 방식은 다양하다. 유사한 협력 사례는 담당 전문인력을 보유한 춘천학연구소와 같은 지방문화원 지역학연구소에서도 나타난다. 이러한 사업과 협력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학 연구와 지역 이해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문화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도 기여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참고] 이해관계자 인터뷰 사례

- "저희는 인문, 사회, 도시, 생태 전 분야에서 지역의 정체성 및 현안에 인문적 논리 대응 이런 식으로 나름 정의를 내린 개념 하에 각각의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저희가 특히 시군 지역학 육성을 지원한다 이런 식의 제 역할을 부여했어요. 시군이 있기 때문에 시군을 지원하는 중간 조직이면서 전북이라는 광역 지역의 어떤 정체성과 관련된 것을 고민하는 이 두 가지 역할을 좀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 "지역 공동체나 민간 문화원, 그 다음에 시청 그리고 박물관, 미술관 이런 각각의 특성 있는 기관들이 저희와 같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 시립미술관을 건립을 할 때는 저희가 조사하고 정리하고 획득했던 자료들을 나중에는 이제 그 성과가 시립미술관으로 가서 그걸 가지고 전시를 했고, 그 다음에 박물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조사해서 획득했던 자료들이 박물관의 주요 수장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초 아카이브 구축에 저희가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은 학교 자산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폭넓고 많은데 스스로 정리할 수 없는 기관들이 있을 때 저희와 협업을 해서 같이 정리하고 그것들을 학교와 박물관과 저희가 같이 공동의 지역 자산으로 활용하는……지역학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라. 지역의 이슈와 지역학의 역할

인터뷰 대상자들은 지역학과 관련된 지역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저출산, 고령화, 젊은 층 유출[23]로 인한 위기가 공통적으로 제시되었다. 이 문제는 지역의 경제와 사회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지역학이 학술연구를 넘어서 지역의 구체적인 문제를 이슈화하고, 그 원인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인구 감소와 관련해서는 '인구 소멸-마을 소멸-역사와 주민 삶의 상실-해당 지역문화 소멸'이라는 관점에서 지역학의 역할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이때 지역문화 소멸은 지역의 인문정신문화 소멸과 떨어질 수 없는 문제다.

지역 정체성과 소속감, 정주의식 약화나 문화적 통합의 문제도 지역사회의 중요 이슈로 꼽혔다. 다만, 이러한 이슈는 지역에 따라서 그 정도나 내용에서 차이를 보였고, '내 지역 뿌리 찾기'를 시작으로 주민이 내 지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정주해야 할 이유를 찾고, 내 지역에 자긍심을 갖게 하는 데 기여하는 역할을 지역학이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예를 들어,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행정구역 통합 문제에 대응한 지역학연구센터의 역할을 고민하였다. 혁신도시 등 신도시가 있는 곳에서는 주민들의 정체성과 소속감에 대한 대응이 이슈가 되는데, 행정복합도시로 건설된 세종 지역의 경우에는 원주민과 이주민의 갈등, 이주민의 소속감 부족이나 주말의 공동화 등이 이슈로 제기된다. 이 외에도 농촌 마을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기존의 지명과 같은 정체성 요소를 둘러싼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 지역학이 신도시 주민이나 이주민에게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지역 공동체의 형성, 지역사회의 발전과 통합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았다.

외부에서 유입되는 학생이 많은 곳에서는 관내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지역에 정주하지 않고 지역을 떠나는 현상도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지역학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 밖에도 환경적·문화적 특수성이 강한 제주 지역에서는 '제주다움'이 약화 내지 사라져가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 인식에서 도

23) 젊은 층의 유출 문제는 수도권으로의 유출뿐만 아니라, 광역권 내부로의 유출에 따른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충청북도의 양대 도시였던 청주와 충주의 관계에서 청주가 많은 자원을 흡수하며 성장하는 반면, 충주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출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유출된 인구가 청주로 유입되는 이슈가 있고, 이러한 상황이 충주 지역의 경제적 쇠퇴와 문화적 소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다(2024.7.19. 충주문화원 충주학연구소 관계자 인터뷰).

교육청 차원에서 초등학생·중학생 대상의 제주다움에 관한 5개 분야(언어, 역사, 생활, 문화, 환경)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제주학연구센터가 이를 지원하고 있다.

지역의 문제나 이슈 대응을 위한 지역학의 방향에 대해서는 대중과 함께하는 지역학을 지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지역학이 지역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주민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도농 복합 도시에서는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이로 인해 지역 내 통합이 어려울 수 있는데, 지역학이 이러한 정주의식과 문화적 통합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인터뷰 대상자들은 지역학이 지역의 문제나 이슈를 직접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한다고 보았다. 다만, 지역학이 지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주민의 자긍심과 정주의식의 고양에 기여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의 해결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이때 중요한 것이 지역학 자료의 조사·수집 등의 토대 구축 사업이고, 이를 활용한 지역학 연구, 특히 인문학적 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지역학이 단순한 학술 연구를 넘어 지역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지식 기반을 제공하고 인문콘텐츠 개발, 지역 교육 등 정책적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지역학 관계자들은 현재의 제도적 한계나 정부의 관심 부족 등으로 인해 지역학이 지역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책적 관심과 연계, 인력 양성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지역학 자체의 문제로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지역학의 공간적 범주 설정이나 허구의 공식화 문제 등도 제기되었다. 또한 지역학연구센터들에서는 그 성격상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과 관심 사업을 지원해야 하거나 예산이 불안정하다는 점이 어려움으로 제기되었다. 충분한 예산과 기간, 인력을 필요로 하는 지역 자료의 조사·수집 및 아카이빙 사업 추진의 어려움도 내부적인 이슈로 제기되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에서는 아카이빙을 주요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제주학연구센터를 제외하면 이 사업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고, 따라서 국학진흥기관이나 지방문화원, 지역 소재 대학과 박물관·도서관 등 관련 기능을 가진 곳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예를 들어 강원학연구센터는 강원대학교와 협력을 통해서 연구센터는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대학과 지방문화원이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식의 협력 사업을 추진 또는 계획하기도 했다. 이 외에 지역학 관계 기관·단체별로 차이는 있으나, 지역학 담당 인력의 인력 부족과 재정적 한계는 대체로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참고] 이해관계자 인터뷰 사례

- "근래에 얘기하는 거는 지역 소멸을 완화해 주는 보완제, 그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나. 지역이 서울화되는 걸 막아주는 일정의 지역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최후의 보루 이런 식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 "약간 지역에 대한 열패감도 좀 있고 지역에 계속 남아 있는다는 거에 대한 열패감이 있어요.……그러면 이 대학의 정체성도 문제가 생겼어요. 이 대학에 있는 애들이 지역에서의 인적 자원으로 재생산 구조를 못 만든다는 거야. 얘네들은 다 나가버리니까."(지역학 관계자)
- "이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소속감이 결여되어 있는 문제 이런 것들, 그리고 행정도시다 보니 가질 수 있는 한계성, 노잼도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말 되면 텅텅 비기도 합니다. 주말에 공동화 현상 이런 것들 있습니다.……그래서 뭔가 지금 지역학 활동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고향이라는 것을 좀 인식시켜 주는 것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원도심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사·문화자원들, 그들의 삶의 흔적도 저희가 또 같이 좀 고민하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 두 가지가 다 지역의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지역학 관계자)
- "스토리텔링을 과연 어디까지 하는 게 맞겠느냐. 그러니까 진실과 허구의 그 사이에서의 접점을 어떻게 찾느냐라는 것이 조금 저희 나름에서는 고민이긴 하고요."(지역학 관계자)
- "사람들이 왔을 때 춘천에 볼거리도 있지만 춘천에 볼거리 안에 감춰져 있는 그런 인문학적인 요소 이런 것들도 밝혀내는 게 우리 춘천학이라고 하는 게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아요."(지역학 관계자)

3. 인문정신문화 사업에 관한 인식

가. 인문정신문화 정책 이해

국학진흥기관 관계자를 제외하면, 인터뷰 대상자들은 대체로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 지역학연구센터 관계자에서도 기본계획의 존재를 모르거나 그 존재를 알고 있더라도 내용적 이해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인문정신문화 사업 관계자의 상황도 비슷하였는데, 이는 인터뷰 대상자들의 언술에서 인문학과 인문정신문화가 구분되지 않고 사용되는 현상으로도 확인된다. 다만, 인터뷰 대상자들은 인문정신문화가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고, 인문정신문화에 관심 있는 주민에게 집중하여 그들을 중심으로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경향이었다.

지역학과의 관계에서는 인문 내지 정신문화 측면에서 가치의 현대화 모색이 필요하고, 이때 지역학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개념적 논의보다는 융·복합적이고 실용적인 가치, 더 나아가서 정책적인 가치를 어떻게 담아내느냐가 매우 중요한 과제이고, 이에 정책적으로 지역학 조사·연구와 시민인식 확산에 대한 균형 있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경상북도가 지역의 정신문화를 바탕으로 4대 정신가치를 제시하며 현대사회 및 사회 문제 등과 연계하려고 하였으나, 주민

홍보 및 정책화가 미비했던 점이 이슈로 제기된 점은 참고할 만하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인문정신문화 정책에서 지역학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였으나, 기존에 그러한 고민이나 고려는 미흡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지역학과 연계하는 정책적 접근에서는 학술적 접근을 넘어 현재의 삶과 생활문화를 위한 의미 있는 공간과 관계를 형성하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개인이 갇혀 있는 일상에서 벗어나 풍요로운 문화적 경험을 누리고 지역사회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가능성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유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참고] 이해관계자 인터뷰 사례

- "저는 인문학이 결국 인간의 사회에서 생기는 모든 것이라고 저는 약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인문학은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터전이 아닌가 그런 터전을 바탕으로 무언가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사업 관리운영자)
-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런 수도권에서 겪는 문제지만, 어떤 정체성의 문제, 그 다음에 자긍심의 문제, 그런 문제에 인문학이 가져야 될 역할들 또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라면 삶의 질의 향상 부분이잖아요."(인문 활동가)
- "공간적 거점들과 네트워크화, 이 두 가지가 조금 더 인문정신문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때 그런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냥 지금 프로그램 예산만 주어지는 거잖아요."(인문 활동가)

나. 인문정신문화 사업 평가

인문학을 표방한 사업을 포함하여 인터뷰 대상자들의 인문정신문화 사업에 대한 인식을 보면, 그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경향이다. 그러나 인문프로그램의 경우, 참여층 한정과 접근성 부족 문제를 많이 제기하였다. 이 문제는 지역에서는 그 수혜층이나 참여층이 제한적이고 일반 주민, 특히 고령층이나 원주민의 관심을 잘 끌지 못한다는 점, 인문프로그램 공간이 문화시설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인문정신문화 사업 공간으로서 마을 및 각종 시설을 통합적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과도 관련된다. 이 외에 원주민 또는 이주민 비율이 높은 곳에서는 운용프로그램의 차별성이 필요하고, 특히 이주민에 대해서는 지역학의 성과를 활용한 인문프로그램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인문프로그램의 내용이나 형식과 관련한 문제로는 유사성·중복성을 지적하였다. 그 원인으로는 지역적 주제나 지역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이 주로 제시되었고, 지역과 연계성을 갖고 주제를 찾은 경우에는 형식적 유사성이 있더라도 내용적 차별성이 있다고 평가하는 경향이었다.

전통기록유산 국역 및 디지털화 추진, 이러한 사업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전근대

기록문화 조사를 통한 실버일자리 창출과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지역학의 중요 역할에 지역 자료의 조사와 수집, 연구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과 함께, 지방소멸 위기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지역 자료 소멸에 대응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는 경향과 연결된다. 다만, 일자리 사업의 경우에는 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한편, 인문정신문화 사업 관계자들은 인문네트워크와 관련하여 인문프로그램 자체와 시스템 운영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전자의 경우, 위에서 기술한 것처럼 인문프로그램의 내용이나 형식에 관련되는데, 기존 특별프로그램 운영이 사라지고 시스템화되면서 프로그램의 평이화나 반복 활용 등이 우려된다는 의견이다. 후자의 경우, 운영의 문제를 주로 제기하였다. 예를 들어, 출석과 관련하여 휴대전화 출석 등록이 어려운 노년층에게 불편을 주고, 참여자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준다는 점이, 프로그램 수료증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제도가 아닌 상태에서 인증 제도를 강제하는 것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 외에 지역에서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애로점이나 한계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온 컨설턴트들이 지역의 특수성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적합한 자문을 제공하기 어려운 점, 문화적 성과를 쌓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나 단기 사업으로 이러한 성과를 이루기 어렵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참고] 이해관계자 인터뷰 사례

- "막말로 시골에 사는 분들은 시간도 안 맞을뿐더러 관심도 없죠.……그런 프로그램이 더 많은 시민이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 관련 기관 · 단체가 신경을 안 쓰거나 신경 쓸 여력이 없어서인지 몰라도 그냥 특정한 지방민을 상대로 해도 지방민 중에 특정한 관심을 가진 그룹들 중심으로 동호회 식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국학진흥기관 관계자)
- "이것(인문네트워크) 때문에 아마 좀 더 노멀한 프로그램들이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퍼즐 맞추기 딱딱 좋은 것 같은, 예를 들면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하면 문화가 있는 날 사업도 하면서 서울문화의 밤도 해당이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어디서나 써먹을 수 있는 형태의 사업이 되어버리고, 지역학 같은 경우에는 딱 여기만 맞춰서 해야 하니까 좀 더 쓰임이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하겠다고 했는데 위에서는 해당 사항 카테고리가 없어 이러면 사실 좀 애매해지는 거죠."(사업 관리운영자)
- "문체부 인문정신문화 사업 이렇게 보니까, 도서관학교도 인문학 강의도 가보고 이러는데, 이게 강의 대상이 중년층 아니면 청소년 이런 식으로 대상들이 좀 국한되어 있고 문화예술 이 쪽에 좀 많이 집중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인문학적 측면에서는 좋긴 하지만, 우리가 강좌하고 그 다음에 체험하고, 아니면 답사를 하거나 이렇게 구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서관 · 박물관 하는 지역시설을 기반으로 하지만, 그 내용들을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 지역에 알맞은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기는 하지만 거의 유사하다는 거죠. a도서관, b도서관, c도서관이나 제주도나."(지역학 관계자)
- "인문에 대한 보편적 인문에 대한 얘기들을 하니 사람들의 교양은 만족시킬 수 있겠으나 지역의 이야기가 빠져 있으면 지역학과는 전혀 무관한, 그러니까 교양을 높여줄 수 있는 수준으로 계속 간 것이 아니냐, 동일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지역학 관계자)

다. 인문정신문화 이슈 및 정책의 역할

국학진흥기관 관계자를 제외한 인터뷰 대상자들은 대체로 지역에서 인문정신문화 이슈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 보지 못하였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인문학법이나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 국학진흥기관 관계자의 이해도가 높은 것은 이들 기관이 지역학과 한국학을 매개하면서 인문정신문화 진흥기관의 성격을 지녔고, 문화체육관광부 '국학 진흥 정책기반 조성 사업'의 지원을 받은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인문정신문화 이슈 및 정책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해당 사업이 지역 내 관련 기관·단체 간 갈등이나, 지역 인문정신문화 계승 시도로 다른 지역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인문정신문화 정책이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상을 설정하는 한편, 갈등 조정이나 협력을 위한 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지역학과 연계를 통해 지역의 특성과 문제를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들 이슈는 대체로 인문학이나 지역학 관련성 하에서 제시되었다. 제시된 의견을 보면, 지역학과 관련성 하에서는 지역의 역사 정리가 미흡한 점이 이슈로 제기되었고, 유사하게 그러한 노력의 하나로 지역 정신이나 문화를 발굴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문제를 고민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지역적 특성을 지닌 인문콘텐츠 개발에 어려움이 있고, 인문정신문화의 지역 발전 기여에도 제약이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의견들은 지역학에 대한 의견에서처럼 인문학 내지 인문정신문화 연구가 실천적으로 지역의 정책 개발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과 관련된다.

지역 정체성 약화는 인문정신문화 측면의 주요 이슈로 제기되었다. 이것은 삶의 가치 및 공동체를 중요시하는 인문정신문화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일 뿐만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에 관심을 갖는 지역학과도 밀접하게 연계된 이슈다. 또한 지역 정체성은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과 관련된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인문정신문화 정책이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정신 건강과 문화적 연계성 내지 연결성 부족도 제기되었다. 즉, 현대인이 겪는 많은 질병과 고통이 연계성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인문정신문화가 개인과 지역사회 간 문화적 연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참고] 이해관계자 인터뷰 사례

- "이 주제가 인문학 정신과 좀 맞닿아 있을 텐데, 부산 동래상인과 관련된 동래상인의 정신을 발굴하는 재해석하는 작업들을 준비하고 있고……."(지역학 관계자)
- "뿌리 찾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현대인이 갖고 있는 많은 그러한 질병 고통들이 사실은 연계성이 떨어지고 서로 공감하지 못하는 데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기가 혼자 다니라는 그런 인식을 갖다 줄 수 있는 문화적 저변을 제시해 주는 거 이거는 정신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학진흥기관 관계자)
- "지금 정체성 관련 얘기했는데, 어쨌든 사람다운 삶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잖아요.……무슨 우리의 공동체가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떤 가치를 삶을 살아야 되고 이런 고민이 없는 사회인데, 그런 거를 우리가 정책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된다."(국학진흥기관 관계자)

4. 지역학과 연계한 사업 발전방안 제안

인터뷰 대상자들에게서 지역학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방향과 발전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안된 의견들을 인문정신문화 사업 범주 및 유형([그림 2-3] 참조)과 관련하여 정리해 볼 수 있다. 다만, 인터뷰 과정에서 제안된 사항을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므로, 제안사항 중에는 방향성에 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이 해당 범주의 사업유형과 명확히 대응되지 않을 수도 있다.

가. 토대 구축 관련 제안

인터뷰 대상자들은 지역학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사업 발전을 위해 첫 번째로 지역 및 지역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것은 지역 정체성과도 밀접히 관련되는 사항이다. 지역과 지역성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인문정신문화 정책이 그러한 사람들이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문화적·학문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한 지역 이해 교육의 필요성도 제시되었다.

원론적인 관점에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제시되었다. 인문정신문화 사업과 지역학이 연계되어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관련 기관·단체와 활동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 이를 위한 중앙과 지역, 지역 내에서의 협력체계 마련 등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견은 지역이

처한 관련 연구 인력 부족과 재정적 한계가 인문정신문화 연구와 실천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는 인식과도 관련되며, 지역학과 인문정신문화 연계를 위한 중장기적인 전략 하에서 지속 가능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인터뷰 대상자들은 지역학과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연계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장기적인 전략과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특히 지역 단위에서 지역학 내지 인문정신문화에 관한 지속 가능한 연구와 사업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그 일환으로 행정구역으로서 시·도나 시군 차원의 지역학이라는 틀을 벗어나 정주공간으로서 마을에 주목하고, 마을학 내지 마을인문학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마을학 내지 마을인문학은 소멸 위기의 마을에 대한 기록이나 주민의 자긍심과 정주의식 문제와도 밀접히 관련된다고 보았다.

[참고] 이해관계자 인터뷰 사례

- "지금 우리가 너무 문화나 역사 위주인데 어떤 행정이라든가 주민의 인식 구조나 도시계획 공간적으로 살펴보면 또 도시가 굉장히 재미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범위를 좀 넓힐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저희들의 역량이 좀 우선돼야 되겠죠. 그 역량은 연구진이라든가 또 전담 인력을 통한 어떤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나 안정적인 예산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또 우선 좀 뒷받침돼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지역학 관계자)
- "이제 굉장히 관념적이고 막 이런 철학적인 쪽으로 많이 우리 지역학이 흐르더라고요. 근데 그 자체로서는 이제 흥미가 낮으니까, 이걸 재창조해서 지역사회 정신적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가치를 현대화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실사구시를 견제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지역학 관계자)
- "세미나 같은 경우가 저희가 조금 이렇게 중첩되었던 게 세미나하고 포럼하고 구별이 크게 없었는데, 앞으로는 세미나는 철저하게 이제 지역 문화활동가들 중심으로 그래서 지역 현장에서 어떤 역할 그러니까 지역의 문화를 새롭게 창조하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을 중심으로 조금 날것의 이야기들을 좀 가져가려고 합니다."(지역학 관계자)
- "지역의 범위를 어디까지 넓혀야 될지는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거주 공간으로서 지역에서 굉장히 단절돼 있어서. 근데 점점 더 나이가 조금씩 들면 정주하게 되잖아요, 이사를 이제 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출발부터 왜 여기 이사 왔는지 왜 이 마을을 선택했는지 이런 것부터 한번 질문해보면서 내가 이 지역이나 마을에 사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살게 됐는지를 한번 질문해보자.……."(인문 활동가)
- "지역이라는 공간 범위, 내용적으로는 특수성이라고는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분야가 다양할 텐데, 그 분야들의 연구가 가치를 발휘하고 지금 시대에 걸맞게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디지털화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좀 더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걸로 활용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만, 중앙에서 일괄적인 기준으로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죠. 지역의 특수성에 기반해서 그 지역에서 하고자 하는 디지털화를 할 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일괄적으로 중앙 사업화해서 공모하겠다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지역학 관계자)
- "그거 일자리 사업하고 좀 연결하면 안 되나요. 일단은 자료를 모으는 기관이 좀 나서 주고, 그래도 소실되기 전에 아카이브하고, 지금 워낙 시스템이 많이 편해졌더라고요. 그런 아카이브 작업 그런 걸 청년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거로 해서 지역에서 힘이 없는 지자체가 못하면 전국 단위에서라도 그렇게 하면 이게 나중에 결국 인문학 자산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더라고요."(지역학 관계자)

한편, 많은 지역에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역 발전에 활용하는 노력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자료의 체계적 발굴·조사·정리 등이 중요하다. 인터뷰 대상자의 대부분은 지역이 보유한 인문정신문화 자원의 조사·수집·보존, 더 나아가기 조사된 자료의 현 상황에 대한 추적, 관련 연구를 지역학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핵심 중 하나로 인식하였다. 다만, 그 성과의 확산을 위해 디지털 아카이빙이 중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단체별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추진 방향이나 방안에 대해 의견 차이를 보였다. 또한 아카이빙과 디지털화 지원을 위해 일자리 사업과 연계 필요성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 밖에 도시개발이나 인문정신문화 사업 추진 시 지역 정체성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해 보는 지표를 개발할 필요성을 제시한 의견도 있었다.

나. 사회적 확산·활용 관련 제안

사회적 확산·활용과 관련하여 인터뷰 대상자들은 대중화와 교육적 활용을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지역학은 학술적 성격이 강하므로, 인문정신문화 사업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문제나 역사적 주제를 선정하여 대중적이고 교육적인 방식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충주학연구소에서는 인문정신문화 자원을 활용한 인성교육이나 지역 출신 윤리학자의 철학교육처럼 지역 기반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하며, 이를 통해 지역 사회에 인문정신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의견은 지역학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사업에서 지역의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재조명하고, 이를 단순히 학술적인 연구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사회의 정체성 형성과 교육적 목적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교육적 활용의 경우, 우선 지역학과 인문정신문화 관련 교육·향유 공간으로서 주민의 일상공간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지역학 성과나 지역의 현안을 인문정신문화 사업과 연계할 때에는 공공장소와 같은 지역 자산의 역할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를 위해서 주민들이 공공장소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고, 그곳에서 사회적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외에 영상콘텐츠의 중요성도 제기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영상콘텐츠 구매나 영상 제작 예산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지역학 성과 활용에서는 기존의 학술적 권위나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대중적인 접근이 가능하고, 다양한 단체나 모임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의 인문정신문화나 역사·문화를 직접 알리는 데 주력하기보다 주민들이 지역의 특성이나 정체성을 직접 참여하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 예로 부정적 인맥이 아니라 자신 주변의 인맥이 지닌 장점이나 전문성 등을 파악하여 관계를 맺는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과 이웃을 알아가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 이해관계자 인터뷰 사례

- "문화센터나 주민복지센터 프로그램들이 대동소이한데, 저는 진짜 필요한 프로그램이 우리 주민들이 우리 지역을 더 잘 알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강좌가 될 수도 있을 테고, 지역 탐사, 지역 현장 탐험이 될 수도 있을 테고, 또 지역 현장 트레킹이 될 수도 있을 테고. 형태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이 보강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지역학 관계자)
- "많은 사람들이 교류에 대한 욕구가 있죠.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갖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들 속에서 만나는 거죠.……그래서 마을에 이제 살면서 느끼는 거는 일상적인 삶이라든지 정주환경 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가난하거나 이제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아도 공공장소가 제 역할을 잘 하면 사회적 교류나 문화적 수준이나 그 지역사회 어떤 지적 수준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저는 경주 환경을 개선하는 가장 큰 지름길이 공공장소라고 생각해요."(인문 활동가)
- "요즘 지역 방송국에서 유튜브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영상 자료들, 이제 지역별로 동 단위로 묶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제별로 묶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옛날 영상들을 공개하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활용해서 지역화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이게 다 돈 주고 사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체부에서 시민들에게 접근하기 편한 영상 콘텐츠를 지역학센터들이 구매할 수 있는 예산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 주시면 좀 더 쉽게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지역학 관계자)
- "한 지역에서 일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인맥 또는 관계 이건 도대체 뭘까 이 질문을 잘 해보면 굉장히 풍요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각자가 도대체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갖게 된 전문성도 있을 거고 그 사람의 장기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성품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좀 파악이 되면 훨씬 더 풍요롭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인문 활동가)

다. 네트워크 구축 관련 제안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서는 우선, 지역학과 인문정신문화 정책이 보다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한다는 원론적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이 의견은 현행 인문정신문화 사업이 지역의 특성과 문제, 지역학 성과 등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지역 대상의 인문정신문화 정책 추진 시, 지역 특수성을 더욱 심도 있게 이해하고, 이를 반영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인문정신문화 사업이 지역학 및 지역 내 기관·단체와 협력을 통해 인문콘텐츠 개발 등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다음으로 갈등의 조정 내지 해소를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지역 내외부에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는데, 특히 지역학이나 인문정신문화 사업 관련 기관·단체 사이에도 주도권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함께 지적한 것이다. 그 해결을 위해서 지역 여건이나 각 기관·단체의 상황과 역량에 맞게 관계와 역할을 설정할 필요가 있고, 지역학 기관과 인문정신문화 기관·단체 간 네트워크도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협력이 서로의 자원을 공유하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고 보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학과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한편, 인터뷰 대상자들은 지역학이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관되므로,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제7차 교육과정에서 도입된 지역교육을 위한 교재나 커리큘럼의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지역교육에서는 지역의 역사·문화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므로, 지역학 및 인문정신문화 측면의 접근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외에 평생교육기관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지역교육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참고] 이해관계자 인터뷰 사례

- "(광역 단위에서)인문정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실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역 단위의 저희 같은 이 지역학센터들이 콘텐츠를 발굴하면 실제 집행은 지역 문화원이든지, 아니면 실제 사업은 그것이 문화도시 사업이든, 아니면 지역의 문화 관련 활동가들의 어떤 역할이든, 그런 역할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실제 집행이 되고……."(지역학 관계자)
- "지금 군 단위까지 박물관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시립이나 국립이 다 공무원들이 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아예 정책과제를 줘버리는 거죠. 지자체 정책과제로 문체부에 내려주든지 그렇게 하면은 최소한도로 성과는 만들어 낼 거 아니에요. 강좌를 개설하든지 실행 사업을 하든지, 그 사업을 맡아서 할 수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박물관이 만약 없다 그럼, 문화재단이든 문화예술가든 거기서 맡아서 하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문화원이 있으면 문화원 좀 키워주고 이런 방향성을 좀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국학진흥기관 관계자)

제3절 소결

이 장에서는 언론보도 경향, 일반 국민과 인문정신문화 사업 체험자의 인식과 수요를 파악하고자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한 자료로는 빅카인즈, SNS 등 빅데이터와 문화체육관광부 인문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를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들과 관련하여 다음처럼 그 시사점을 정리해 볼 수 있다.

우선, 언론보도 분석에 나타난 변화를 보면(〈표 3-5〉 참조), 시기별로 정책 홍보와 평가, 성과 보도가 증가하고, 정책사업의 추진과 운영 기관 등이 다양화하고 있으나, 활동 주체에서는 시민 참여가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지역의 문화적 자산이 주요한 핵심어로 등장하는 변화가 확인된다. 즉, 인문프로그램의 기획이나 운영에서 주민의 참여를 강화하고, 지역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하는 것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SNS 빅데이터나 인문프로그램 체험자 인식 분석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분석 결과, 우리 국민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중요하게 인식하며, 지역의 문화적 자산과 연결된 인문 활동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다음으로 그 방식에 있어서는 단순한 강의나 지식 전달에서 벗어나 여행이나 축제, 음식 등 다양한 문화여가 활동이나 체험과 결합하는 방식으로 확장하고 있다. 인문프로그램 체험자 인식에서도 강의와 탐방 프로그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지역의 역사·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수요를 고려하여 지역에서 인문정신문화 사업을 위한 다양한 방식과 형태의 인문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정책사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수요와 이해도가 사업의 지속과 발전에 중요함을 인식하고, 참여자의 만족도와 피드백을 지속 수집·분석함으로써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품질과 효과를 높이는 노력이 요구된다.

한편, 이 장에서는 지역학 관계자, 인문정신문화 사업 관계자(사업 관리운영자, 인문활동가)를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겸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인문정신문화 정책에 관한 인식

및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결과, 대체로 지역학은 다소 개념이 모호하지만, 학제적·통합적·실천지향적이며 정책과 연관성이 깊다고 이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공간적 범위를 행정구역 중심으로 인식하였으나, 일부 인터뷰 대상자는 문화권 등으로 확대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역학의 목적을 지역의 정체성 및 특수성 구명에 있다고 인식하고, 학술적 연구를 넘어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한 진단, 정책방향 제시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통합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지역학 관련 기관·단체의 사업이나 활동을 보면, 타 기관·단체와 협력을 통해 지역학 기반을 강화하고, 그 결과를 지역사회의 발전과 정책에 반영하려 노력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인터뷰 대상자들은 이러한 협력이 지역의 역사·문화 발굴과 보존에 중요하고, 궁극적으로 지역문제의 해결 내지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국학진흥기관 관계자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인터뷰 대상자는 인문정신문화 정책을 잘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었다. 이 상황은 '인문학'에 비해서 '인문정신문화'나 '인문정신문화 사업'이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친근하지 않은 개념이라는 점과 관련된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인터뷰 대상자는 인문정신문화 정책과 지역학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즉, 인문정신문화 정책이 지역학 및 그 성과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를 위한 전략적인 접근과 관련 주체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기본 인식과 함께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통해서 다음처럼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우선, 지역학과 인문정신문화에 대한 통합적 인식 및 두 분야가 학술 차원을 넘어 다양한 분야와 연계되어 있다는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두 분야는 지역 정체성 확립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행 인문정신문화 정책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상 설정이 미흡하여 실제 정책대상에게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관심 있는 소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지향하지만, 그러한 문제에서 조정자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지도 못한다는 평가도 있었다. 따라서 두 분야에 통합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지역의 특수성과 정체성 구명뿐만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게 구체적이고 실적적인 방향에서 인문정신문화 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방향과 관련해서는 인문정신문화 정책이 문화적 정체성의 보존과 강화, 개인과 지역사회의 문화적 연계성 증진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에 관심을 두고 전개될 필요성

이 있다. 즉, 이것이 지역학과 인문정신문화 정책이 만나는 지점 중 하나임을 인식하고, 지역학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과 지역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학 연구 및 사업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학 관계자들이 인문정신문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그 의미와 가치를 지역학 성과와 연계하여 지역에 전달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 중 하나는 지역 특성에 맞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인문교육 내지 인문프로그램 및 정주공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 인력에 대한 지역이해 교육과 학생 대상의 지역교육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사업 실행공간으로서 마을 또는 공공장소를 일종의 인문캠퍼스처럼 통합적으로 인식하며 접근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지역학과 인문정신문화 정책을 지속 가능하게 연계하기 위해서는 상호 관심 및 지역학에 대한 정책적 지원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심층인터뷰 결과를 보면, 편차는 있지만, 아직까지 지역학 관련 협력체계가 활성화되지 못하였고, 특히 지역학과 인문정신문화 관련 기관·단체의 협력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지역학연구센터 관계자들은 지방문화원과의 연계가 중요하고, 예를 들어, 지역학연구센터가 연구와 콘텐츠 기획을 담당하고 지방문화원이 실행사업을 운영하는 방식 등과 같은 협력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더불어 지역학과 한국학을 매개하며 인문정신문화 진흥 업무를 수행하는 국학진흥기관과 지역의 기관·단체 간 협력에 대한 모색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통해서 보다 체계적인 지역학 및 한국학 진흥을 모색할 수 있고, 인문정신문화 사업에 대한 협력도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끝으로, 인문정신문화 자산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수집·보존 및 활용이다. 이 영역은 지역학과 밀접히 관련되며, 지역에서 이러한 활동에 참여 가능한 인력도 지역학 연구자나 지역이 양성한 시민기록가, 구술채록가 등의 인력이다. 따라서 그들의 활용과 참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 자료 등 인문정신문화 자산의 보존과 활용에서는 디지털 아카이빙과 현대적 재해석이 필요하다. 디지털화된 자료는 지역의 정체성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확산하는 중요한 도구다. 이를 통해 자료의 활용이 강화되고,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과 연계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인문정신문화 정책에서 추진되는 '전통기록유산 국역 및 디지털화 추진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전근대 기록문화 조사를 통한 실버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지속성 있는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분석 내용과 그 시사점을 인문정신문화 사업 범주로 구분하면 다음 〈표 3-18〉처럼 정리해 볼 수 있다.

〈표 3-18〉 인문정신문화 사업에 관한 인식 및 의견 분석 종합

구분	주요 분석 내용			시사점
	언론보도	일반 국민 및 인문프로그램 체험자 인식	이해관계자 의견	
토대 구축	•지역적 특성이나 문화자산과 연계 보도 경향		•지역학은 정체성·특수성 이해 및 자긍심 제고에 관련 -마을학 내지 마을인문학으로 확장 필요 •지역학 자료의 조사·수집 및 그 성과와 연계한 연구를 중요하게 인식 -인문자산 조사·수집·보존, 기 조사 자료의 현 상황에 대한 추적, 관련 연구를 지역학과 인문정신문화 사업 연계의 핵심으로 인식 -아카이빙과 DB 구축 등 디지털 인문학을 중요한 영역이자 과제로 인식 •인문정신문화 정책에서 지역 연구에 관한 지원 및 장기 전략 마련의 필요성 제기 -지역 내 정치상황에 따라 연구·사업 추진에 제약 발생하는 불안정성 해소 필요 •전문인력 확보 및 기존 인력의 인문정신문화 정책 이해도 제고 필요 -문화활동가 등의 지역 이해 제고	•지역의 정체성 및 주민의 자긍심 제고를 중요하게 고려 •인문정신문화 사업과 실질적 협력을 위해 지역학 진흥 필요 •지역 인문자산의 수집부터 디지털화 및 활용까지 선순환적 전략 필요 •인력 확보 및 인력의 인문정신문화 정책 및 지역 이해도 제고
사회적 확산·활용	•주민 중심의 참여형 프로그램의 중시 경향 •특정 시설에서의 강좌에서 벗어나 탐방 및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증가 •인문프로그램이 음식, 여행 등 다양한 주제와 결합 양상 •정책의 대상이	•지식습득 지양, 참여형·체험형 인문 활동에 관심 -지역과 역사 주제 탐방이나 지역과 연계된 경험을 의미 있게 평가 -전통적 방법론을 함께 고려하며 방법론 발전 필요 •음식, 체험, 예술, 축제 등 문화여가활동, 여행 콘텐츠와 결합한 인문프로그램에 관심	•지역학 성과의 지역교육 및 인문프로그램 연계 필요 -초·중등학교 지역교육,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활용 가능한 지역 특성 반영 프로그램 필요 •참여층 확대를 위한 주민 참여형 및 관계 형성형 인문프로그램의 중요성 -지역 정체성 및 공동체 의식 약화 대응 필요 -사람·지역과의 관계 형성을 통한 관심 제고	•문화여가활동과 지역 장소를 활용한 인문프로그램 강화 및 대상층 확대 -마을과 공공장소를 인문캠퍼스로 인식하고 활용 •지역학을 매개로 지역교육과 인문프로그램 연계 강화

구분	주요 분석 내용			시사점
	언론보도	일반 국민 및 인문프로그램 체험자 인식	이해관계자 의견	
	청년, 청소년 등으로 다양화 및 확대	•자치단체는 지역의 활성화 및 경제가치 창출에 관심 -인문프로그램 운영을 지역 매력도나 가치 제고와 연계 -브랜드화를 통한 관광 활성화 도모 -청년, 로컬크리에이터와 연계한 지역 매력·가치 제고 모색 •인문정신문화 발전에서 지역 콘텐츠의 개발과 혁신을 중요하게 인식 •인문정신문화 사업에 대한 내실 있는 홍보 필요 •강좌의 질 제고와 특화 필요	•인문정신문화 사업 공간으로서 마을 및 각종 시설을 통합적으로 인식하여 접근성 해소 필요 -교육과 향유의 공간으로서 일상공간에 주목 -문화시설뿐만 아니라 공공장소 및 각종 시설을 사업공간으로 통합적 인식 필요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인문콘텐츠 개발 필요 -지역학 및 지역 내 기관·단체와의 협력 -관광 등 타 활용 분야 연계 •인문프로그램의 유사성·중복성 및 평이화 우려 해소 필요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대응 및 기여 필요 -이슈 대응에서 지역학과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한계 인정, 관련 정보·지식 기반 기여 필요 -지역 정체성과 소속감, 정주의식 약화나 문화적 통합의 문제 대응 -유입학생 등 생활인구 대상의 지역 이해 및 지역사회 참여 유인 필요 -도시개발 등에 지역 정체성과 같은 인문적 지표 개발 및 적용 •인문정신문화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 필요	•인문프로그램의 질 제고 및 주민 관심사와 지역 특성 반영 •지역의 문제에 대응을 위한 주민의 주체적 인문 활동 활성화 •지역 이해 제고를 위한 인문브랜드, 인문콘텐츠 개발 및 타 분야 연계 활용 •생활인구 대상의 지역 이해 및 정주의식 제고 모색
네트워크 구축			•관련 기관·단체 활동에 대한 정책적 관심 및 중앙-지역 간, 지역 내 협력체계 마련 필요 •각 지역과 기관·단체의 상황과 역량에 맞는 역할 설정에 기반한 협력체계 구축 -인문정신문화 사업 추진과 관련한 지역 내 주도권 갈등 방지 필요 -지방문화원의 역할과 특성 연계 활용 필요	•중앙-지역, 지역 내 기관·단체 등의 협력체계 구축

제4장

발전방안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제1절 조사 문항 설계

1. 시사점 종합 분석

지역학과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연계는 이해관계자 인터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 필요성이 높게 평가된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역학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사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하여 지역학 및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특성과 동향에 관한 분석, 지역학 및 인문정신문화 사업 관련 인식과 수요 분석, 이해관계자의 인식 및 의견 분석을 시행하였다. 각 분석에서 도출한 시사점은 앞에서 〈표 2-26〉과 〈표 3-18〉로 정리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학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과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런데 도출한 정책 방향과 방안은 법률에서 규정한 인문정신문화 진흥 방향에도 부합해야 한다. 인문학법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를 진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국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법 제1조) 한다. 또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이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사회적·문화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고 경제·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며, 국민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받도록 하고, 인문학이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과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법 제2조)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과 기본이념에 의거한 정책은 인문정신문화의 진흥 및 사회적 확산을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 '국민 정서와 지혜의 풍요화', '삶의 질 개선', '사회적·문화적 가치와 조화', '경제·사회 발전의 원동력화', '국민의 자율성과 창의성 존중'을 고려해야 한다. 폭넓게는 '인문학과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의 균형 발전'도 고려해야 한다. 지역학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발전방안 모색에서도 마찬가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인문화정신문화 진흥 방향을 고려하면서 앞에서 수행한 시사점 분석을 통해 지역학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사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과 방안을 일차 도출하였다(〈표 4-1〉 참조).

일차 도출한 정책방향은 7가지다. 그중 '지역과 삶의 의미 및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는 인문학법의 목적,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고유한 지향과 관련되면서 지역학에서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지역 인문정신문화의 발굴과 공유'는 인문정신문화 정책 추진 초기부터 현재까지 중요한 정책 영역이면서 지역학의 주요 역할 및 사업과 밀접히 관련된다. '지역 정체성 정립'과 '지역에 대한 대내외의 이해 제고', '주민의 자긍심 및 정주의식 향상'은 지역학의 고유 목적 및 지향과 관련되면서 지역에 대한 이해를 위해 인문정신문화 정책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항이다. 그리고 '지역의 사회문제 해소와 지속가능성 제고'와 '지역 간/지역 내 인문 격차의 해소'는 지역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학과 인문정신문화 정책 모두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시사점 분석 결과, 지역학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사업 발전을 위해 일차 도출한 정책방안은 12가지다. 여기에는 현행 정책사업과 지역학 연계를 고려한 방안 및 신규 정책사업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고유의 인문브랜드 발굴', '마을학(또는 마을인문학) 육성', '지역 인문정신문화 자료의 수집·보전·활용 협력체계 구축', '지역의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인문 활동 활성화', '지역 인문정신문화 기반의 지역학 진흥', '지역학과 인문정신문화 사업 매개 기관·단체 육성', '문화여가 활동과 인문프로그램 연계 강화', '지역교육과정에 지역학 연계 인문프로그램 운영', '주민 대상 인문 심화 과정 운영', '생활인구 대상으로 지역 이해 및 인문체험 프로그램 운영', '인문프로그램 운영자 대상의 지역 이해 교육 운영', '지역학 성과를 활용한 지역 인문콘텐츠 개발'이다.

이와 같이 일차 도출한 정책 방향과 방안을 인문정신문화 사업 범주와 연계하여 제시하면 〈표 4-1〉과 같다.

〈표 4-1〉 시사점 분석에 따른 정책 방향 및 방안 일차 도출

범주	분석 내용별 시사점			일차 도출 결과	
	정책 동향 분석 〈표 2-27〉	인식 및 의견 분석 〈표 3-18〉		정책방향	정책방안
토대 구축	•지역 정체성 확립과 주민 자긍심 제고를 위한 정책 관심 필요 -마을학 등에 대한 논의로 확장 •인문자산 수집·보존, DB 구축과 아카이빙을 지역학 연계의 주요 접점으로서 인식	•지역의 정체성 및 주민의 자긍심 제고를 중요하게 고려 •인문정신문화 사업과 실질적 협력을 위해 지역학 진흥 필요 •지역 인문자산의 수집부터 디지털화 및 활용까지 선순환적	▶	지역 인문정신문화의 발굴과 공유	•인문프로그램 운영자 대상 지역 이해 교육 운영 •지역 인문정신문화 자료 수집·보전·활용 협력체계 구축
				•지역 정체성 정립	•지역 인문정신문화 기반의 지역학 진흥 •마을학(또는 마을인문

범주	분석 내용별 시사점			일차 도출 결과	
	정책 동향 분석 〈표 2-27〉	인식 및 의견 분석 〈표 3-18〉		정책방향	정책방안
	필요 -인문 관련 지역연구와 연계, 제도 정비 고려 •지역학-인문정신문화 연계형 인력 양성 및 기존 인력의 전문성 제고 추진 필요 -문화활동가, 지역 양성 인력 등 대상의 교육 운영	전략 필요 •인력 확보 및 인력의 인문정신문화 정책 및 지역 이해도 제고			학) 육성
사회적 확산 · 활용	•지역학 연계를 통해서 지역문제 대응의 질 제고 및 지역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 필요 -단순 대중강좌 지양, 지역사회 문제와 관련한 인문 활동 활성화 추진 -생활인구, 관계인구 대상의 정책 필요 -지역 매력 제고를 위한 인문브랜드, 인문콘텐츠, 인문프로그램 등 개발 모색 •기존 개별 사업들의 지역 연계성 강화 및 지역 이해 제고에 기여 필요 -문화여가활동, 지역의 다양한 공간과 결합	•문화여가활동과 지역 장소를 활용한 인문프로그램 강화 및 대상층 확대 -마을과 공공장소를 인문캠퍼스로 인식하고 활용 •지역학을 매개로 지역교육과 인문프로그램 연계 강화 •인문프로그램의 질 제고 및 주민 관심사와 지역 특성 반영 •지역의 문제에 대응을 위한 주민의 주체적 인문 활동 활성화 •지역 이해 제고를 위한 인문브랜드, 인문콘텐츠 개발 및 타 분야 연계 활용 •생활인구 대상의 지역 이해 및 정주의식 제고 모색	▶	•지역 인문정신문화의 발굴과 공유	•지역학 성과를 활용한 지역 인문콘텐츠 개발
				•지역과 삶의 의미 및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	•주민 대상 인문 심화 과정 운영 •지역교육과정에 지역학 연계 인문프로그램 운영
				•지역 간/지역 내 인문 격차 해소	•문화여가 활동과 인문 프로그램 연계 강화
				•주민의 자긍심 및 정주의식 향상	•지역 고유의 인문브랜드 발굴
				•지역 사회문제 해소와 지속가능성 제고	•지역의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인문 활동 활성화
				•지역에 대한 대내외의 이해 제고	•생활인구 대상으로 지역 이해 및 인문체험 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크 구축	•인문자산 수집 · 보존 · 활용 협력체계 구축 필요 •지역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계 기관 · 단체별 특성을 고려한 협력 추진 -국학진흥기관과의 연계 강화	•중앙-지역, 지역 내 기관 · 단체 등의 협력체계 구축	▶	•지역 인문정신문화의 발굴과 공유	•지역 인문정신문화 자료의 수집 · 보전 · 활용 협력체계 구축 •지역학과 인문정신문화 사업 매개 기관 · 단체 육성

2. 조사 내용 및 문항 선정

본 연구에서는 〈표 4-1〉처럼 일차 도출한 정책 방향과 방안의 적절성 검토 및 의견 수렴을 위해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정책 방향과 방안을 최종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표 4-2〉의 조사 내용에 따라 문항을 설정하였다.

우선, 표적집단면접과 마찬가지로 인문정신문화 정책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지역학과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연계 필요성'을 묻는 문항을 포함하였다. 다음으로 '「제2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2022~2026)」에 대한 인식' 조사 문항을 포함하였다. 이 문항은 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학 관련 내용의 지역학 진흥 기여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역학 관계자만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프로그램 기획·운영 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사업 현장에 대한 이해를 위한 문항이다. 그 특성상 실제 인문정신문화 사업을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응답자만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이 외에 '문화체육관광부 인문정신문화 사업과 타 인문학 사업 간 차별성', '지역학과 인문정신문화 사업 연계 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 문항을 자유응답 형식으로 설정하여 관련 인식을 파악하고 제안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일차 도출한 정책방향의 적절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지역학 진흥 및 지역 인문정신문화 진흥과 7가지 방향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IPA 기법으로 분석하여 두 분야 연계에서 가장 적절한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다만, 이 문항만으로는 도출된 방향들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학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사업 발전과 관련하여 각 방향의 적합성 평가 문항을 추가하였다. 이들 문항의 결과를 종합하면 두 분야의 연계라는 특성에 적절한 정책방향이 도출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 외에 정책방향 관련 추가 제안 및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유응답 형식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문항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일차 도출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각 방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평가하는 문항을 포함하였다. 이 문항은 중요성과 시급성 평가를 통해서 방안별 우선순위와 최종 제시할 방안을 선별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정되었다. 최종 제안할 방안은 정책방향에서처럼 중요성과 시급성을 IPA 기법으로 분석하여 선별하였다.

제2절 조사 결과 분석

1. 조사 개요

본 설문조사는 지역학 및 인문정신문화 정책 동향 분석, 지역학 및 인문정신문화 사업 관련 텍스트 마이닝, 표적집단면접 등을 통해 일차 도출한 정책 방향과 방안(〈표 4-1〉 참조)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이를 통해서 그 결과를 지역학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사업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데 반영하고자 한다.

본 설문조사는 2024년 8월 7일부터 14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로 진행되었다. 조사 내용은 응답자 특성, 기 추진 인문정신문화 정책에 대한 인식, 일차 도출된 정책방향의 적절성 평가와 정책방안의 중요성·시급성 평가로 구성되었다.

〈표 4-2〉 설문조사 개요

<table>
<tr><th>구분</th><th colspan="2">내용</th></tr>
<tr><td>조사명</td><td colspan="2">• 지역학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사업 발전방안 설문조사</td></tr>
<tr><td>조사 목적</td><td colspan="2">• 지역학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사업 발전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에 반영</td></tr>
<tr><td>조사 방법</td><td colspan="2">• 구조화된 설문을 통한 온라인 조사</td></tr>
<tr><td>조사 기간</td><td colspan="2">• 2024.8.7. ~ 8.14.</td></tr>
<tr><td rowspan="2">조사 대상</td><td colspan="2">• 지역학 관계자(학계, 연구 기관·단체 등)</td></tr>
<tr><td colspan="2">• 문화체육관광부 인문정신문화 사업 관계자: 인문정신문화 사업 관리운영자, 인문 활동가(기획자, 프로그램강사 등)</td></tr>
<tr><td rowspan="4">조사 내용</td><td colspan="2">• 응답자 특성</td></tr>
<tr><td>• 인문정신문화 정책에 대한 인식</td><td>- 지역학과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연계 필요성
- 제2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2022~2026)」에 대한 인식
-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프로그램 기획·운영 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
- 문화체육관광부 인문정신문화 사업과 타 인문학 사업 간 차별성
- 지역학과 인문정신문화 사업 연계 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td></tr>
<tr><td>• 정책방향(안)의 적절성 평가</td><td>- 도출된 정책방향의 지역학 및 지역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성
- 도출된 정책방향의 적합성</td></tr>
<tr><td colspan="2">• 정책방안(안)의 중요성·시급성 평가</td></tr>
<tr><td>조사 수행</td><td colspan="2">• (주)코리아리서치센터</td></tr>
</table>

이번 설문조사 대상은 지역학 관계자(학계, 연구기관·단체 등)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인문정신문화 사업 관계자(사업 관리운영자, 인문 활동가)이다. 응답자 중 전자는 52명(목표 표본 50명), 후자는 217명(목표 표본 200명)이었다. 후자의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사)한국도서관협회의 협조를 받아 조사가 진행되었다. 응답자의 해당 분야 활동 경력은 5년 미만 39.9%, 5년 이상 10년 미만 26.1%, 10년 이상 20년 미만 24.3%, 20년 이상 9.7%였다. 연령대는 20대 5.2%, 30대 28.4%, 40대 29.9%, 50대 29.1%였고, 주 활동지역은 수도권 53.7%, 비수도권 46.3%였다.

〈표 4-3〉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Base=전체 268, 단위: %)

구분		사례수	비율			
			지역학 관계자	인문정신문화 사업 관리운영자	인문 활동가	계
전체		268	19.8	33.2	47.0	100.0
관련 분야	지역학 관계자	53	100.0	-	-	100.0
	인문정신문화 사업 관리운영자	89	-	100.0	-	100.0
	인문 활동가	126	-	-	100.0	100.0
활동 경력	5년 미만	107	9.3	35.5	55.1	100.0
	5년 이상 10년 미만	70	18.6	28.6	52.9	100.0
	10년 이상 20년 미만	65	27.7	40.0	32.3	100.0
	20년 이상	26	46.2	19.2	34.6	100.0
연령	20대	14	0.0	28.6	71.4	100.0
	30대	76	7.9	46.1	46.1	100.0
	40대	80	18.8	37.5	43.8	100.0
	50대	78	34.6	20.5	44.9	100.0
	60대 이상	20	25.0	20.0	55.0	100.0
주활동 지역	수도권	144	6.9	40.3	52.8	100.0
	비수도권	124	34.7	25.0	40.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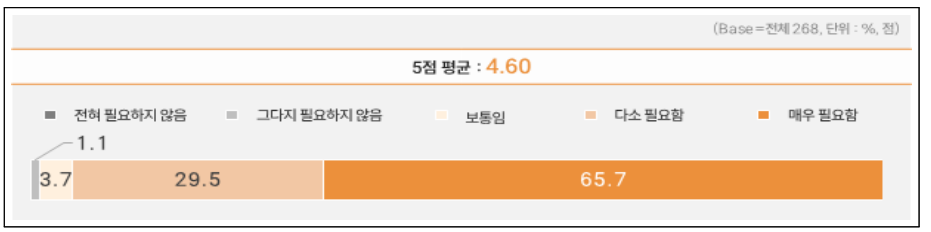
2. 인문정신문화 정책에 대한 인식

가. 지역학과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연계 필요성

'지역학과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연계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95.1%였고,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1%에 불과하였다. 5점 척도 평균은 4.60점으로 높게 나타났

다. 응답자 특성별로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은 지역학 관계자가 81.1%로 높았고, 인문정신문화 사업 관리운영자가 57.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60대 이상으로 갈수록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4-1] 지역학과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연계 필요성



〈표 4-4〉 지역학과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연계 필요성

(Base=전체 268,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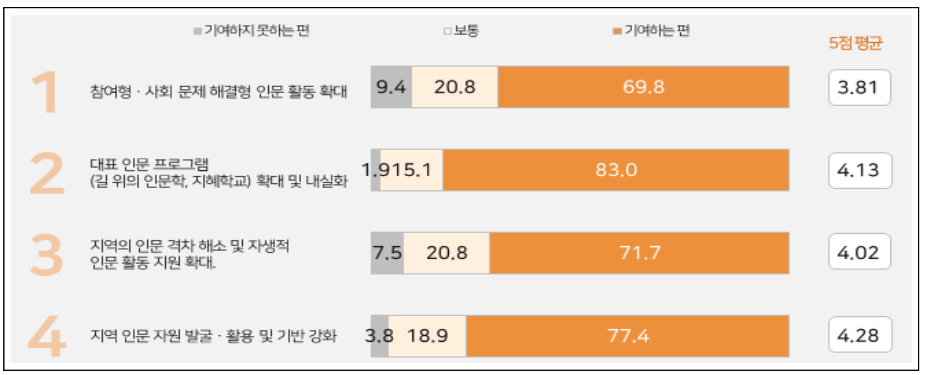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비율					5점 평균
			전혀 필요하지 않음	그다지 필요하지 않음	보통임	다소 필요함	매우 필요함	
전체		268	0.0	1.1	3.7	29.5	65.7	4.60
관련 분야	지역학 관계자	53	0.0	3.8	0.0	15.1	81.1	4.74
	인문정신문화 사업 관리운영자	89	0.0	1.1	4.5	37.1	57.3	4.51
	인문 활동가	126	0.0	0.0	4.8	30.2	65.1	4.60
활동 경력	5년 미만	107	0.0	0.9	3.7	34.6	60.7	4.55
	5년 이상 10년 미만	70	0.0	0.0	4.3	34.3	61.4	4.57
	10년 이상 20년 미만	65	0.0	1.5	3.1	18.5	76.9	4.71
	20년 이상	26	0.0	3.8	3.8	23.1	69.2	4.58
연령	20대	14	0.0	0.0	7.1	42.9	50.0	4.43
	30대	76	0.0	1.3	1.3	39.5	57.9	4.54
	40대	80	0.0	1.3	6.3	31.3	61.3	4.53
	50대	78	0.0	0.0	2.6	21.8	75.6	4.73
	60대 이상	20	0.0	5.0	5.0	5.0	85.0	4.70
주활동 지역	수도권	144	0.0	1.4	3.5	32.6	62.5	4.56
	비수도권	124	0.0	0.8	4.0	25.8	69.4	4.64

나. 제2차 기본계획 추진과제의 지역학 진흥 기여도

본 설문조사에서는 제2차 기본계획 중 지역학과 관련 있는 세부 추진과제를 정리한 〈표 2-11〉을 제시하고 지역학 관계자를 대상으로 해당 추진과제의 지역학 진흥 기여도

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지역 인문 자원 발굴·활용 및 기반 강화'의 세부 추진과제들이 4.28점으로 가장 기여도가 높게 인식되었다. '참여형·사회 문제 해결형 인문 활동 확대'의 세부 추진과제들은 3.81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학 관계자들에 대한 심층인터뷰에서도 나타났듯이, 지역학과 인문정신문화 사업을 연계할 때에 인문 자원 발굴과 같은 토대 구축 사업을 중요시하는 경향과 관련된다고 판단된다.

[그림 4-2] 제2차 기본계획의 지역학 진흥 기여도



〈표 4-5〉 제2차 기본계획의 지역학 진흥 기여도

(Base=전체 53, 단위: 점)

구분		사례수	5점 평균			
			1) 참여형·사회 문제 해결형 인문 활동 확대	2) 대표 인문 프로그램(길 위의 인문학, 지혜학교) 확대 및 내실화	3) 지역의 인문 격차 해소 및 자생적 인문 활동 지원 확대	4) 지역 인문 자원 발굴·활용 및 기반 강화
지역학 관계자		53	3.81	4.13	4.02	4.28
활동 경력	5년 미만	10	3.50	3.90	3.60	4.20
	5년 이상 10년 미만	13	3.62	4.00	4.31	4.46
	10년 이상 20년 미만	18	4.17	4.22	4.00	4.22
	20년 이상	12	3.75	4.33	4.08	4.25
연령	20대	-	-	-	-	-
	30대	6	3.00	3.67	3.33	3.33
	40대	15	4.00	4.27	4.20	4.53
	50대	27	3.93	4.19	4.07	4.30
	60대 이상	5	3.60	4.00	4.00	4.60
주활동 지역	수도권	10	3.90	4.40	4.40	4.70
	비수도권	43	3.79	4.07	3.93	4.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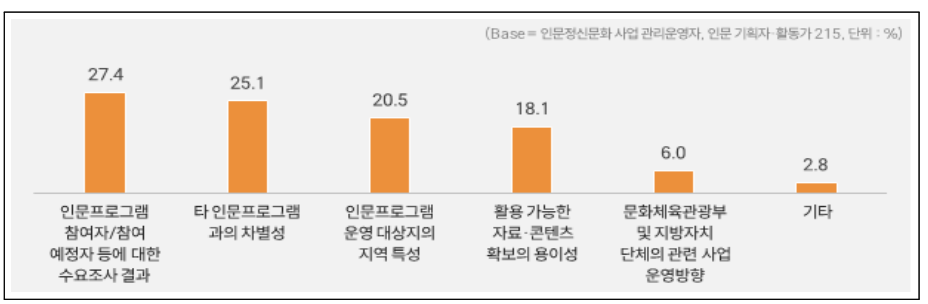
한편, 활동경력에서는 5년 미만이 그 이상 경력자보다 각 추진과제의 지역학 진흥 기여도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3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기여도를 낮게 평가한 결과와도 관련된다. 활동지역에서는 수도권 응답자가 비수도권 응답자보다 기여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특히 '지역 인문 자원 발굴·활용 및 기반 강화'에 대해서는 4.70점으로 매우 높게 평가하였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며 인구 이동이 잦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다. 인문정신문화 사업 프로그램 기획·운영 시, 고려사항

인문정신문화 사업 참여자 대상으로 프로그램 기획 또는 운영 시에 가장 고려하는 사항을 확인한 결과, '인문프로그램 참여자/참여예정자 등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가 27.4%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서 '타 인문 프로그램과의 차별성' 25.1%, '인문프로그램 운영 대상지의 지역 특성' 20.5%, '활용 가능한 자료·콘텐츠 확보의 용이성' 18.1% 순이었고, '문화체육관광부 및 지자체의 관련 사업 운영방향'은 6.0%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인문프로그램 운영 현장에서는 정책적인 운영 방향보다 참여자 수요 및 타 프로그램과의 차별성 확보를 우선 고려하고, 지역 특성 및 자료·콘텐츠 확보도 중요하게 고려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인문정신문화 사업 관리운영자는 인문 활동가에 비해 '인문프로그램 운영 대상지의 지역 특성'을 좀 더 고려하였고, 인문 활동가는 인문정신문화 사업 관리운영자에 비해 '활용 가능한 자료·콘텐츠 확보의 용이성'을 좀 더 고려하였다. 연령에서는 20대 응답자가 '활용 가능한 자료·콘텐츠 확보의 용이성'을 좀 더 고려하였고, 비수도권 응답자가 '인문프로그램 운영 대상지의 지역 특성'을 좀 더 고려하였다.

[그림 4-3] 인문정신문화 사업 프로그램 기획·운영 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



〈표 4-6〉 인문정신문화 사업 프로그램 기획·운영 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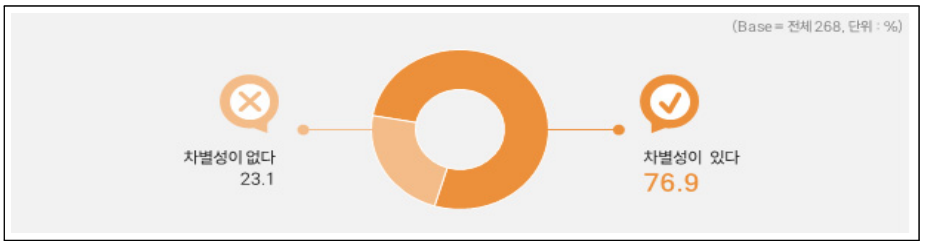
(Base= 전체 215, 단위 : %)

구분		사례수	비율					
			인문프로그램 참여자/ 참여예정자 등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타 인문 프로그램 과의 차별성	인문 프로그램 운영 대상지의 지역 특성	활용 가능한 자료·콘텐츠 확보의 용이성	문화체육 관광부 및 지자체의 관련 사업 운영방향	기타
인문정신문화 사업 관계자		215	27.4	25.1	20.5	18.1	6.0	2.8
관련 분야	인문정신문화 사업 관리운영자	89	27.0	24.7	24.7	14.6	5.6	3.4
	인문 활동가	126	27.8	25.4	17.5	20.6	6.3	2.4
활동 경력	5년 미만	97	28.9	22.7	16.5	21.6	9.3	1.0
	5년 이상 10년 미만	57	26.3	29.8	24.6	14.0	3.5	1.8
	10년 이상 20년 미만	47	29.8	23.4	23.4	12.8	4.3	6.4
	20년 이상	14	14.3	28.6	21.4	28.6	0.0	7.1
연령	20대	14	21.4	14.3	21.4	28.6	14.3	0.0
	30대	70	25.7	28.6	15.7	21.4	7.1	1.4
	40대	65	32.3	26.2	20.0	12.3	4.6	4.6
	50대	51	27.5	21.6	25.5	19.6	2.0	3.9
	60대 이상	15	20.0	26.7	26.7	13.3	13.3	0.0
주활동 지역	수도권	134	29.1	26.1	17.9	17.9	6.0	3.0
	비수도권	81	24.7	23.5	24.7	18.5	6.2	2.5

라. 인문정신문화 사업과 타 인문학 사업의 차별성

문화체육관광부의 인문정신문화 사업이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문학 사업과 차별성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79.6%가 차별성이 있다고 답하였다. 응답자별로는 지역학 관계자보다 인문정신문화 사업 참여자에게서 차별성이 있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고, 그중에서도 인문정신문화 사업 관리운영자에게서 차별성이 있다는 응답률이 좀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다른 연령대보다 특히 20대에게서 차별성이 있다는 응답률이 92.9%로 가장 높았다. 20대 중 '차별성이 없다'고 답한 1인은 인문 활동가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 "좀더 트렌디한 기획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ex최신 기술을 반영해 인문학과 엮은)"라고 답하였다. 60대 이상에서도 차별성이 있다는 응답은 85.0%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4-4] 인문정신문화 사업과 타 인문학 사업의 차별성 유무



〈표 4-7〉 인문정신문화 사업과 타 인문학 사업의 차별성 유무

(Base= 전체 268, 단위: %)

구분		사례수	비율	
			차별성이 있다	차별성이 없다
전체		268	76.9	23.1
관련 분야	지역학 관계자	53	56.6	43.4
	인문정신문화 사업 관리운영자	89	84.3	15.7
	인문 활동가	126	80.2	19.8
활동 경력	5년 미만	107	80.4	19.6
	5년 이상 10년 미만	70	75.7	24.3
	10년 이상 20년 미만	65	73.8	26.2
	20년 이상	26	73.1	26.9
연령	20대	14	92.9	7.1
	30대	76	76.3	23.7
	40대	80	77.5	22.5
	50대	78	71.8	28.2
	60대 이상	20	85.0	15.0
주활동 지역	수도권	144	79.9	20.1
	비수도권	124	73.4	26.6

'차별성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주관식 자유응답 형식으로 추가 질문한 결과, 지역학 관계자는 지역학 연구와 지역자료 아카이브 등 지역학 성과를 활용하려는 점, 이로 인해서 현장과 좀 더 밀착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인문정신문화 사업 관리운영자는 주민 참여와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한다는 점, 지역의 다양한 문화시설을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인문 활동가도 지역 주민의 참여와 체험형 프로그램을 추구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인문정신문화 사업 관계자들은 프로그램 운영 자율성 보장과 상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적절히 지원되어 질 높은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각 집단에서 주요하게 제시한 '차별성이 있다' 응답의 이유는 다른 집단에서도 나타났다. 이러한 의견을 종합하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인문정신문화 사업은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자원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점에서 여타의 인문학 사업과 차별성을 지닌다고 평가됨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 '차별성이 있다'의 응답 사례

- "인문 자원 발굴의 측면(발굴 지원, 활용 지원)에서, 발굴된 자료를 교육적 목적에서 활용하는 교육부 활동과 변별됨."(지역학 관계자)
- "지역에서 행할 수 있는 사업 범위(범주)보다 좀 더 다양한 사업 추진 기회 가능성이 있음. 또한 지역학 관련하여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사업들을 공공기관, 도서관, 사단법인 단체 등이 기회를 획득하여 추진할 수 있음."(지역학 관계자)
- "관심 밖에 있었던 지역학의 다양한 소재를 발굴하여 지역 인문정신의 저변을 확대해 나간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지역학 관계자)
- "타기관 혹은 부처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과 달리 문화자원의 아카이빙과 체험성을 전제하는 프로그램은 다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다른 주요 특성임."(지역학 관계자)
-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인문사업은 대학을 통한 연구나 학술적인 부분이 강하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되는 인문학은 생활밀접형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인문학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사업 관리운영자)
- "여러 문화기반시설을 두루 활용하고, 특히 문턱이 낮은 도서관이라는 대표적인 문화시설에서, 이용자 눈높이 맞춤으로 문사철 등 다양한 인문 분야 학문을 탐구하고 실용적으로 풀어내고 있음."(사업 관리운영자)
- "현재 우리나라의 주역인 신중년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 프로그램과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으로 심층 있는 인문학 전파."(사업 관리운영자)
- "지역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지역민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것이 아닌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차별성이라고 생각함."(사업 관리운영자)
- "인문 활동가의 활동계획을 존중해 주어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점."(사업 관리운영자)
- "프로그램 기획이나 성과 확산 부분, 가치 측면에서는 유사하나 거점화를 위한 노력과 인문자산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 등 네트워크 형성에서 분명한 차이와 그만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사업 관리운영자)
- "좀 더 세분화된 주제와 심층적인 수업이 가능한 강좌 설정(주제가 구체적이고 차수도, 시간도 넉넉해서 깊이 있는 수업 가능)."(인문 활동가)
- "보편적 인문정신문화에서 지역학적 관점으로 지역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 활동가들을 지원하는 사업의 방향이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한다."(인문 활동가)
- "21세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시대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다양한 주제와 분야를 다룰 수 있는 점이 다른 사업과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한다."(인문 활동가)
- "지역 안으로 내밀하게 들어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발 딛고 있는 터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지금의 나와 앞으로의 나를 되짚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인문 활동가)
- "지혜학교 인문 활동가로 참여했습니다. 도서관을 중심 공간으로 하다 보니 자료 확보나 수강생들의 수업에 대한 인식, 집중력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인문 활동하는 데 적합했습니다. 수업을 듣는 대상 면에서는 다른 인문프로그램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활동공간 차이에서 효과적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인문 활동가)
- "기초단체에서 실시되는 인문학은 강사 일방적 교수법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나의 삶의 위치와 이동, 당사자성에 대한 고민 없이 교수자의 학습에 이루어지는 고민 없는 보편성에 맞추어져 있다."(인문 활동가)
- "시민들이 필요를 발견해내고 찾아가는 탐구활동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음."(인문 활동가)

'차별성이 없다'는 좀 더 유의미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응답자(n=61)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60.7%는 콘텐츠 · 프로그램의 중복 또는 유사성을 이유로 들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동일한 기획이나 기존 프로그램의 반복, 프로그램의

내용적 중복과 유사성이 주로 제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응답자의 6.6%는 강의 중심 운영을 이유로 제시하였는데, 체험과 융복합 활동을 늘리거나 트렌디한 기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정책적인 문제 또는 정책 목표의 유사성을 든 응답자가 23.0%였다. 여기에는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사업이 정책적 목표가 유사하다는 점이나 사업 운영의 문제를 지적한 응답(21.3%)이 주로 해당한다. 세부 내용을 보면, 인문학 교육을 위한 제도와 인식 부족, 인문학 발전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 부재, 하향식의 사업 운영, 대상 선정과 지원의 차별성·구체성 부족, 인문학에 대한 정책적 투자 부족 등을 제시하였다. 수행 기관·주체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제시되었다. 이 외에는 지역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의견(3.3%) 및 기타 의견(4.9%)이었다.

[참고] '차별성이 없다'의 응답 사례

- "지역학과 인문학의 발전 방향이 전혀 보이지 않음."(지역학 관계자)
- "지역학은 인문학과 사회, 자연, 지리 등의 학문이 어우러진 융복합적인 학문의 분야로 인문학에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지역학 관계자)
- "지역학의 범주를 여전히 협소하게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지역학 관계자)
- "인문학 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와 인식이 부족하여, 중장기 아젠다를 가지고 차별화를 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함."(사업 관리운영자)
- "인문사업에서 탑다운식의 방향설정 및 공모사업 운영형태로 차별성이 약함."(사업 관리운영자)
- "유사한 커리큘럼의 강의식 프로그램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다양한 체험과 융복합 활동이 늘어나면 좋겠습니다."(인문 활동가)
- "좀더 트렌디한 기획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ex 최신 기술을 반영해 인문학과 엮은)."(인문 활동가)
- "지역학의 특색이 두드러지는 사업을 접해 본 적이 없으며,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지역이라는 공간적 특색이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과거에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가 활발하지 않던 시대에 통용되는 논리가 아닐까 생각하며, 현재는 지역의 차별점이 두드러지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가 단위나 지리적 거리감이 확보될 때 지역과 인문의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인문 활동가)
- "사업자 선정에서 차별성이 없으므로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보고서상 문구만 바꾸어 운영하는 형편이라고 느껴집니다."(인문 활동가)
- "인문학의 기본 목표가 같기 때문에 차별화보다는 수행 기관과 주체 등의 전문성 강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함."(인문 활동가)
- "사업비 규모가 작으면 매번 비슷한 그저 그런 별 의미 없는 프로그램이 반복될 수밖에 없음. 인문학, 문화예술, 사회복지, 공동체, 공공인력(담당 공무원 수와 급여 확충) 등 예산을 적어도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여야 함. 공짜는 없음. 투자한 만큼 퀄리티도 나오는 것. 부처별로 비교할 수준도 아님."(인문 활동가)

마. 지역학과 인문정신문화 사업 연계 시 고려사항

지역학과 인문정신문화 사업을 연계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에 대해 자유응답 형식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결과는 이해관계자 인터뷰 결과와 유사하였다. 제시된 의견을 사업 범주별로 보면(〈표 4-8〉 참조), 토대 구축과 관련해서는 지역의 인문자

산 발굴 · 보존과 그 활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또는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강조하는 경향이었다. 양 분야의 연계 강화 및 연계할 인력 양성, 정성적 효과를 중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도 제시되었다. 사회적 확산 · 활용과 관련해서는 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지역 인문자산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참여자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및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와 관련한 사항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서는 지역사회와의 연계나 전문가의 지속적인 참여, 광역-지역 또는 관련 기관 · 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한 사항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경향이었다.

〈표 4-8〉 지역학과 인문정신문화 사업 연계 시 고려사항

구분	지역학 관계자	인문정신문화 사업 관리운영자	인문 활동가
토대 구축	•지역의 인문자산 발굴 · 보존 •지역 자료의 기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역 정체성 · 소속감과 특성을 반영한 연구 •지역연구, 지역학과 인문정신문화 연계 인력 양성 •정량적인 성과보다 정성적인 효과를 중시하는 정책	•지역의 인문자산 발굴 · 보존 •인문자산 활용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및 인프라 구축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강사	•지역학과 인문학 연계 강화
사회적 확산 · 활용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지역 인문자산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시민 주도형 사업 추진 •주민의 참여와 공감대 형성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참여자 수요와 관심사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지역 인문자산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인문프로그램 기획 •프로그램의 자율성과 지속성 확보 •지역공동체 형성 및 연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참여자 수요와 관심사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지역 인문자산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인문프로그램 기획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문프로그램 개발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를 아우르는 프로그램 기획 •참여자의 자발적 참여 유도
네트워크 구축	•전문가의 지속적인 참여 및 광역-기초 간 네트워크	•지역사회와 긴밀한 연계	•사업 수행기관 및 활동가의 전문성 확보와 협력 강화

조사 결과를 응답자 분야별로 살펴보면(〈표 4-8〉 참조), 지역학 관계자들은 지역학과 인문정신문화 사업 연계 시에 지역적 특수성 고려, 주민 참여 및 지역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중요시하였다. 또한 지역 인문자산 발굴 · 보존, 지역 자료의 기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역의 정체성 · 소속감과 특성을 반영한 연구처럼 토대 구축에 관한 사항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인문정신문화 사업 관리운영자들은 대체로 지역적 특성 및 주민 수요 반영, 지역공동체나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사업의 지속성을 중시하는 경향이었다. 인문 활동가는 다른 집단에 비해서 인문프로그램 관련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 반영, 주민의 자발적·실질적 참여, 실용적이고 지역 인문자산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중시하는 경향이었다. 또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인문 프로그램 기획에 대한 관심도 다른 집단에 비해서 두드러졌고, 전문성 확보와 이를 위한 협력도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이 외에 비수도권 지역 응답자들은 노령층 인구를 고려한 프로그램 기획의 중요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참고] '지역학과 인문정신문화 사업 연계 시 고려사항' 응답 사례

- "인문진흥을 위한 기반 강화로 지역학연구 및 활성화에 대한 지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시스템 마련이 요구됨. 지역학연구는 지역 정체성 및 지역연구에 가장 기본이므로, 단기간의 성과에 대한 기대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지원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지역학 관계자)
- "지역의 자원을 조사, 발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지역학을 위한 지역학이 아닌 진정한 인문정신문화 함양을 위해서는 다양한 인문자산이 발굴, 연구되어야 하기 때문임."(지역학 관계자)
- "지역 현장에는 사람(전문인력)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인문학 분야는 더욱 그러합니다. 한편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지역학과 인문정신문화 사업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에 대응할 인력이 부재합니다.……그렇다 보니 이론과 기술을 조율하고 양 분야를 이해할 수 있는 가교 역할 전문인력 양성도 시급해 보입니다. 결국 인문정신문화를 진흥하려면 지역학 연계가 필수이고 지역학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를 사업화하고 대중화하기 위해서는 교육 및 인력확보(양성)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지역의 문화와 특징을 반영한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의 참여와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고, 참여자 개인들에게 소속감을 가지게 하고, 공동체로서의 결속력을 가지게 할 수 있음."(사업 관리운영자)
- "담당자의 전문지식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분야를 정확하게 알고 활용할 수 있고 연계할 수 있는 강사가 있어야 지역의 지식자원을 정확하고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음."(사업 관리운영자)
- "수요자 파악 및 요구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내 현안 및 인문 문화 활동 혹은 다양한 소규모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민들을 파악하고 이들 대상으로 사업 주제 등을 선정할 수 있도록 요구분석이 선행되면 좋겠습니다."(사업 관리운영자)
- "문화기반시설을 인문정신문화 거점공간으로 활용하여 마을 아카이브 등 공간의 활용도를 높여 내실화를 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문 문화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생각되므로, 전시콘텐츠, 인물 관광플랫폼, 인문지리 학습, 관광 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사업 관리운영자)
- "천편일률적으로 진행되는 인문학 프로그램은 아직도 논어, 공자 등 동양철학을 바탕으로 그저 단순히 지적 허영을 만족시키려는 것들이 많아 일반 지역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짐."(인문 활동가)
- "자료조사는 많이 진행되지만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 실효성 있는 콘텐츠화는 부족."(인문 활동가)
- "인문정신문화라는 말에 걸맞게, 내가 사는 지역의 객관적인 배경의 특징도 특징이지만, 이 지역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 애로사항, 발전 방향 등을 뭔가 같이 다루면 좋을 듯합니다."(인문 활동가)
- "지역의 현실, 시의성, 지역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산재하고 있던 문제를 끄집어내고 함께 토의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인문 활동가)
- "로컬이라 불리는 사업이 대체로 세련된 것으로 촌스러운 것을 덮는 방식으로 전개되는데, 문화 자산이 지역에서 사라지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문화 자산에 대한 이해를 담보하려면 반드시 지역의 혹은 지역에 있었던 개별 이야기를 많이 수집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면면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인문 활동가)
- "전문가 연계가 장기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생활시설운영자, 지역서점운영자 등에게 의존하면 양질의 프로그램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프로그램 운영자 네트워크를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인문 활동가)

3. 도출된 정책방향의 관련성·적합성 평가

가. 지역학 및 지역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성

동향 분석, 텍스트 마이닝 분석 및 의견조사 분석을 통해 지역학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발전을 위해서 일차 도출한 7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각 방향이 지역학 진흥, 지역 인문정신문화 진흥과 어느 정도 관련 있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지역학 진흥 관련성은 '지역 인문정신문화의 발굴과 공유'(4.47점), '지역과 삶의 의미 및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4.39점), '지역 정체성 정립'(4.31점) 등의 순이었다.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성은 '지역 인문정신문화의 발굴과 공유'(4.41점), '지역과 삶의 의미 및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4.40점), '지역 정체성 정립'(4.28점) 등의 순이었다. 일부 순위 변동이 있지만, 도출한 방향들의 지역학이나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성은 대체로 높게 평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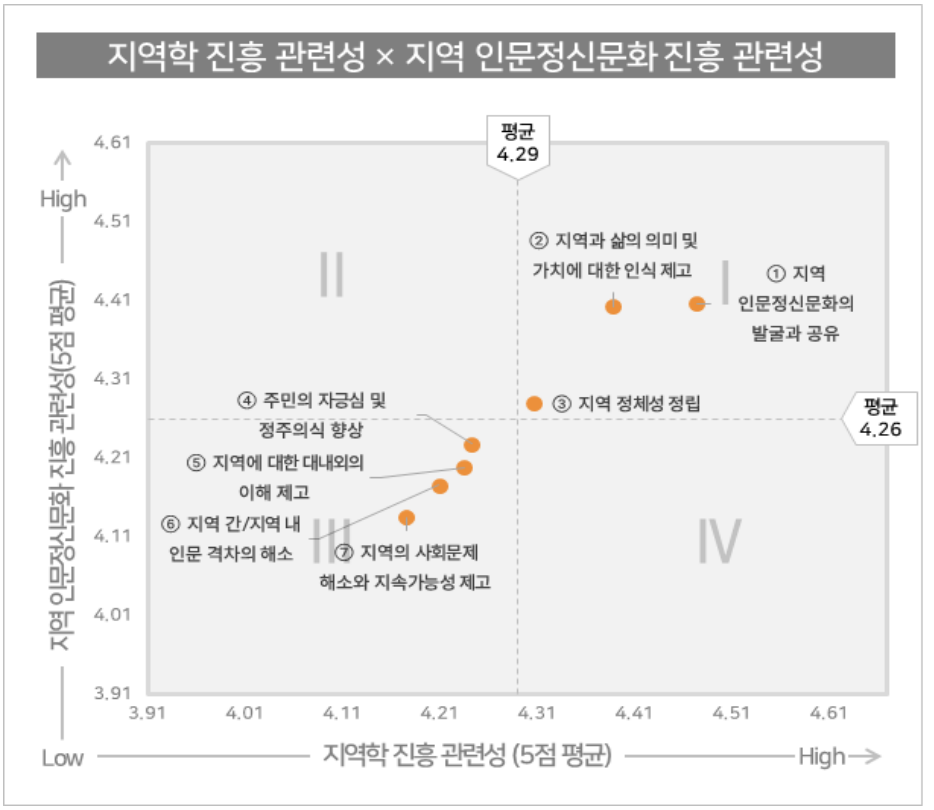
〈표 4-9〉 일차 도출 정책방향별 지역학 및 지역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성 평가

(단위: 점, 5점)

구분	지역학 진흥 관련성	지역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성
1) 지역과 삶의 의미 및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	4.39	4.40
2) 지역 정체성 정립	4.31	4.28
3) 지역 인문정신문화의 발굴과 공유	4.47	4.41
4) 지역에 대한 대내외의 이해 제고	4.24	4.20
5) 지역의 사회문제 해소와 지속가능성 제고	4.18	4.13
6) 주민의 자긍심 및 정주의식 향상	4.24	4.23
7) 지역 간/지역 내 인문 격차의 해소	4.21	4.18
평균	4.29	4.26

그러나 일차 도출된 7가지 정책방향의 '지역학 진흥 관련성'(5점 평균 4.29점)과 '지역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성'(5점 평균 4.26점)을 IPA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는 각 분야의 진흥 관련성에 대한 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였다. 즉,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평균 대비 관련성이 높게 나타난 정책방향은 1순위 '지역 인문정신문화의 발굴과 공유', 2순위 '지역과 삶의 의미 및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 3순위 '지역 정체성 정립'이었다. 이에 비해서 '지역의 사회문제 해소와 지속가능성 제고'는 7순위로서 평균 대비 관련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각 정책방향 모두가 지역학 및 인문정신문의 진흥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지역학과 인문정신문화를 연계할 때에는 세 가지 방향이 가장 적절하다고 평가되고, 따라서 이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

[그림 4-5] 일차 도출 정책방향별 지역학 및 지역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성 IPA



나. 가장 적합한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

지역학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사업 발전을 위해 가장 적합한 정책방향은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는 위 문항과 동일한 결과와 시사점을 준다. 조사 결과를 보면, 1순위는 '지역과 삶의 의미 및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였고, 이어서 '지역 정체성 정립', '지역 인문정신문화의 발굴과 공유', '지역 간/지역 내 인문 격차의 해소' 등의 순이었다. 상대적으로 '지역의 사회문제 해소와 지속가능성 제고', '주민의 자긍심 및 정주의식 향상', '지역에 대한 대내외의 이해 제고'는 낮게 평가되었다. 2순위까지 종합한 결과나 3순위까지 종합한 결과에서도 '지역과 삶의 의미 및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는 적합성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지역에 대한 대내외의 이해 제고'는 적합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다만, 나머지 정책방향에 대한 2순위까지 및 3순위까지 평가에서는 '지역 인문정신문화의 발굴과 공유'와 '지역 정체성 정립'의 적합성 순위가 바뀌었다.

〈표 4-10〉 일차 도출 정책방향별 적합성 평가

(단위: %)

구분	1순위	1+2순위	1+2+3순위
지역과 삶의 의미 및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	35.8	50.0	67.5
지역 정체성 정립	18.3	33.2	41.8
지역 인문정신문화의 발굴과 공유	16.4	38.8	57.8
지역에 대한 대내외의 이해 제고	4.9	11.2	17.9
지역의 사회문제 해소와 지속가능성 제고	7.1	26.9	39.2
주민의 자긍심 및 정주의식 향상	5.2	19.4	39.9
지역 간/지역 내 인문 격차의 해소	12.3	20.5	3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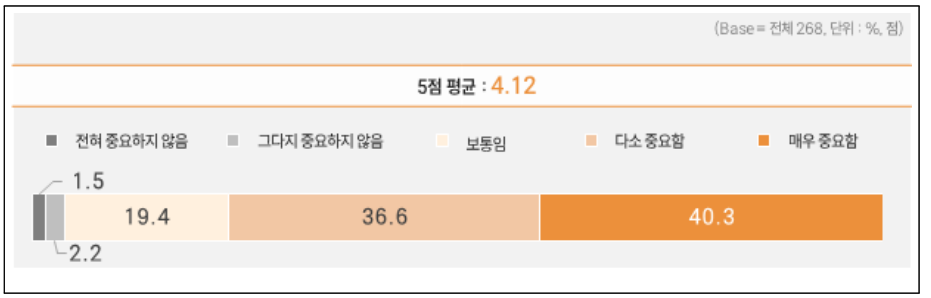
4. 정책방안별 중요성 · 시급성 평가

지역학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발전을 위한 일차 도출한 12가지 정책방안의 중요성과 시급성 평가를 위한 문항의 조사 결과, 응답자 활동 분야별로 인식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활동경력이 많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중요성과 시급성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일부 방안에 대해서는 활동지역에 따른 차이도 나타났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는 심화된 인문프로그램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경향이었다. 또한 수도권에서는 문화여가 활동과의 연계를 상대적으로 좀 더 중요시하고, 비수도권에서는 지역 인문정신문화 자료의 수집 · 보전 등을 상대적으로 좀 더 중요시하는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설문조사로써 파악된 각 방안의 우선순위와 응답자 특성 및 지역적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정책의 효율적인 설계와 추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가. 지역 고유의 인문브랜드 발굴

이 방안의 중요성은 5점 평균 4.12점이었다. 인문정신문화 사업 관리운영자(82.0%), 인문 활동가(74.6%), 지역학 관계자(73.5%)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인문정신문화 사업 관리운영자에서 중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또한 활동경력 20년 이상(88.5%)과 50대 이상 연령(85.9%)에서 중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20대 그룹은 7.1%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등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낮게 평가(3.93점)하였다.

[그림 4-6] '지역 고유의 인문브랜드 발굴'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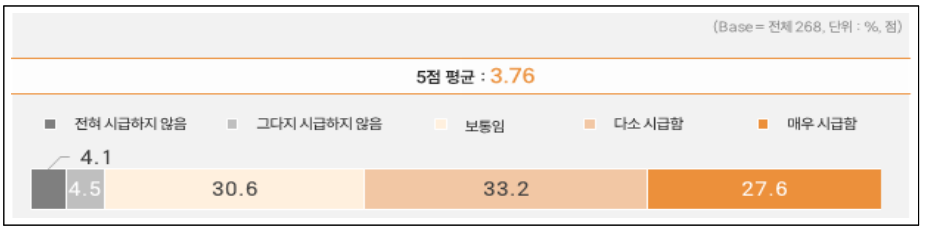
〈표 4-11〉 '지역 고유의 인문브랜드 발굴' 중요성

(Base=전체 268,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비율					5점 평균
			전혀 중요하지 않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음	보통임	다소 중요함	매우 중요함	
전체		268	1.5	2.2	19.4	36.6	40.3	4.12
관련 분야	지역학 관계자	53	0.0	1.9	24.5	35.8	37.7	4.09
	인문정신문화 사업 관리운영자	89	1.1	3.4	13.5	34.8	47.2	4.24
	인문 활동가	126	2.4	1.6	21.4	38.1	36.5	4.05
활동 경력	5년 미만	107	0.9	3.7	20.6	36.4	38.3	4.07
	5년 이상 10년 미만	70	1.4	1.4	24.3	38.6	34.3	4.03
	10년 이상 20년 미만	65	3.1	1.5	15.4	36.9	43.1	4.15
	20년 이상	26	0.0	0.0	11.5	30.8	57.7	4.46
연령	20대	14	7.1	0.0	14.3	50.0	28.6	3.93
	30대	76	1.3	3.9	25.0	39.5	30.3	3.93
	40대	80	1.3	3.8	22.5	38.8	33.8	4.00
	50대	78	1.3	0.0	12.8	30.8	55.1	4.38
	60대 이상	20	0.0	0.0	15.0	30.0	55.0	4.40
주활동 지역	수도권	144	1.4	3.5	19.4	35.4	40.3	4.10
	비수도권	124	1.6	0.8	19.4	37.9	40.3	4.15

시급성은 5점 평균 3.76점이었다. 인문정신문화 사업 관리운영자(67.4%), 지역학 관계자(60.3%), 인문 활동가(56.4%) 순으로 시급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활동경력 20년 이상(73.1%)과 60대 이상(70.0%)에서 시급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활동지역에서는 수도권(56.2%)보다 비수도권(66.2%) 응답자에게서 시급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그림 4-7] '지역 고유의 인문브랜드 발굴' 시급성



〈표 4-12〉 '지역 고유의 인문브랜드 발굴' 시급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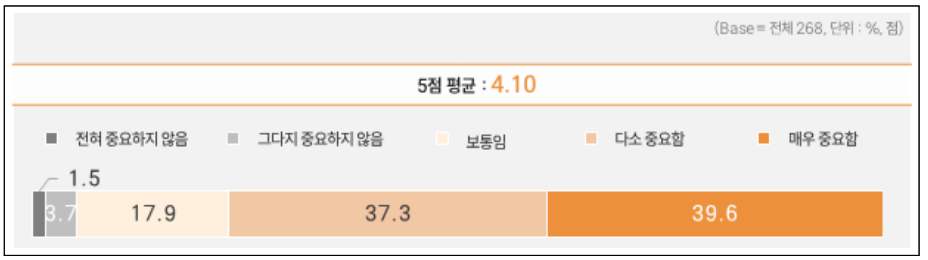
(Base=전체 268,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비율					5점 평균
			전혀 시급하지 않음	그다지 시급하지 않음	보통임	다소 시급함	매우 시급함	
전체		268	4.1	4.5	30.6	33.2	27.6	3.76
관련 분야	지역학 관계자	53	1.9	1.9	35.8	35.8	24.5	3.79
	인문정신문화 사업 관리운영자	89	4.5	3.4	24.7	39.3	28.1	3.83
	인문 활동가	126	4.8	6.3	32.5	27.8	28.6	3.69
활동 경력	5년 미만	107	3.7	8.4	28.0	31.8	28.0	3.72
	5년 이상 10년 미만	70	5.7	2.9	41.4	22.9	27.1	3.63
	10년 이상 20년 미만	65	4.6	1.5	24.6	41.5	27.7	3.86
	20년 이상	26	0.0	0.0	26.9	46.2	26.9	4.00
연령	20대	14	0.0	14.3	28.6	14.3	42.9	3.86
	30대	76	7.9	7.9	34.2	28.9	21.1	3.47
	40대	80	5.0	3.8	31.3	33.8	26.3	3.73
	50대	78	1.3	1.3	26.9	39.7	30.8	3.97
	60대 이상	20	0.0	0.0	30.0	35.0	35.0	4.05
주활동 지역	수도권	144	4.9	6.3	32.6	31.9	24.3	3.65
	비수도권	124	3.2	2.4	28.2	34.7	31.5	3.89

나. 마을학(또는 마을인문학) 육성

이 방안의 중요성은 5점 평균 4.1점이었다. 지역학 관계자(84.9%), 인문정신문화 사업 관리운영자(75.2%), 인문 활동가(74.6%)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지역학 관계자 집단에서 중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또한 활동경력 20년 이상(96.2%)에서 중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지만, 20대 연령에서는 14.2%가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하는 등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3.79점)하였다.

[그림 4-8] '마을학(또는 마을인문학) 육성'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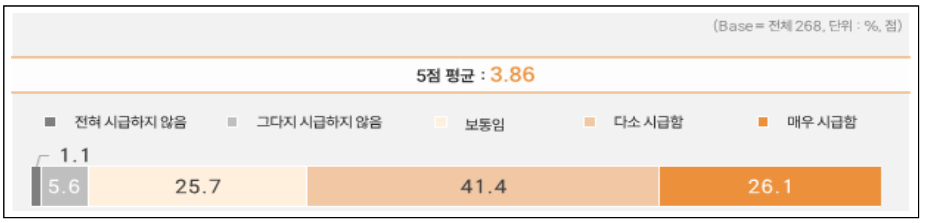
〈표 4-13〉 '마을학(또는 마을인문학) 육성' 중요성

(Base=전체 268,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비율					5점 평균
			전혀 중요하지 않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음	보통임	다소 중요함	매우 중요함	
전체		268	1.5	3.7	17.9	37.3	39.6	4.10
관련 분야	지역학 관계자	53	0.0	5.7	9.4	35.8	49.1	4.28
	인문정신문화 사업 관리운영자	89	2.2	2.2	20.2	34.8	40.4	4.09
	인문 활동가	126	1.6	4.0	19.8	39.7	34.9	4.02
활동 경력	5년 미만	107	1.9	5.6	21.5	35.5	35.5	3.97
	5년 이상 10년 미만	70	1.4	4.3	20.0	40.0	34.3	4.01
	10년 이상 20년 미만	65	1.5	1.5	15.4	43.1	38.5	4.15
	20년 이상	26	0.0	0.0	3.8	23.1	73.1	4.69
연령	20대	14	7.1	7.1	14.3	42.9	28.6	3.79
	30대	76	0.0	9.2	25.0	32.9	32.9	3.89
	40대	80	2.5	1.3	18.8	46.3	31.3	4.03
	50대	78	1.3	1.3	11.5	32.1	53.8	4.36
	60대 이상	20	0.0	0.0	15.0	35.0	50.0	4.35
주활동 지역	수도권	144	1.4	2.1	19.4	38.9	38.2	4.10
	비수도권	124	1.6	5.6	16.1	35.5	41.1	4.09

시급성은 5점 평균 3.86점이었다. 지역학 관계자(73.5%), 인문정신문화 사업 관리운영자(66.3%), 인문 활동가(65.9%) 순으로 시급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지역학 관계자 그룹에서 시급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또한 활동경력 20년 이상(84.6%)과 60대(75.0%) 연령에서 시급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그림 4-9] ‘마을학(또는 마을인문학) 육성’ 시급성



〈표 4-14〉 ‘마을학(또는 마을인문학) 육성’ 시급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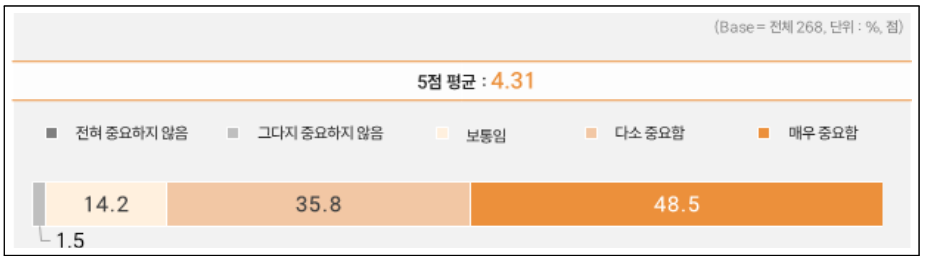
(Base=전체 268,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비율					5점 평균
			전혀 시급하지 않음	그다지 시급하지 않음	보통임	다소 시급함	매우 시급함	
전체		268	1.1	5.6	25.7	41.4	26.1	3.86
관련 분야	지역학 관계자	53	1.9	3.8	20.8	35.8	37.7	4.04
	인문정신문화 사업 관리운영자	89	2.2	4.5	27.0	46.1	20.2	3.78
	인문 활동가	126	0.0	7.1	27.0	40.5	25.4	3.84
활동 경력	5년 미만	107	0.9	9.3	28.0	43.0	18.7	3.69
	5년 이상 10년 미만	70	0.0	5.7	30.0	37.1	27.1	3.86
	10년 이상 20년 미만	65	3.1	1.5	21.5	46.2	27.7	3.94
	20년 이상	26	0.0	0.0	15.4	34.6	50.0	4.35
연령	20대	14	0.0	7.1	57.1	28.6	7.1	3.36
	30대	76	1.3	11.8	26.3	38.2	22.4	3.68
	40대	80	2.5	2.5	27.5	50.0	17.5	3.78
	50대	78	0.0	3.8	17.9	41.0	37.2	4.12
	60대 이상	20	0.0	0.0	25.0	30.0	45.0	4.20
주활동 지역	수도권	144	1.4	4.9	27.8	44.4	21.5	3.80
	비수도권	124	0.8	6.5	23.4	37.9	31.5	3.93

다. 지역 인문정신문화 자료의 수집 · 보전 · 활용 협력체계 구축

이 방안의 중요성은 5점 평균 4.31점이었다. 지역학 관계자(94.4%), 인문 활동가(82.6%), 인문정신문화 사업 관리운영자(80.9%)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특히 지역학 관계자에서 중요하다는 응답률이 매우 높았다. 또한 활동경력 20년 이상(96.1%)과 50대(89.7%) 연령에서 중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활동지역에서는 수도권(80.6%)보다 비수도권(88.7%) 응답자에게서 중요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그림 4-10] '지역 인문정신문화 자료의 수집 · 보전 · 활용 협력체계 구축'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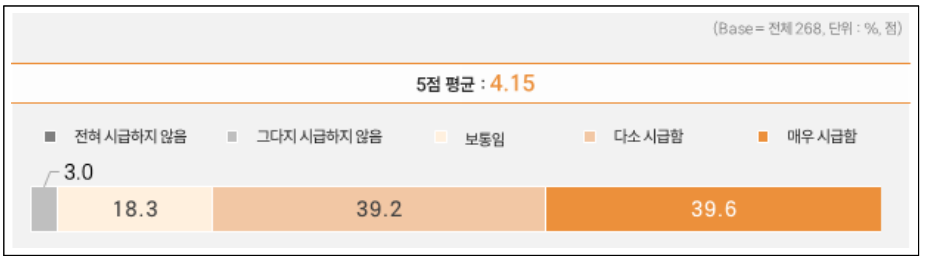
〈표 4-15〉 '지역 인문정신문화 자료의 수집 · 보전 · 활용 협력체계 구축' 중요성

(Base=전체 268,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비율					5점 평균
			전혀 중요하지 않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음	보통임	다소 중요함	매우 중요함	
전체		268	0.0	1.5	14.2	35.8	48.5	4.31
관련 분야	지역학 관계자	53	0.0	0.0	5.7	20.8	73.6	4.68
	인문정신문화 사업 관리운영자	89	0.0	1.1	18.0	39.3	41.6	4.21
	인문 활동가	126	0.0	2.4	15.1	39.7	42.9	4.23
활동 경력	5년 미만	107	0.0	2.8	18.7	29.9	48.6	4.24
	5년 이상 10년 미만	70	0.0	0.0	12.9	44.3	42.9	4.30
	10년 이상 20년 미만	65	0.0	1.5	12.3	43.1	43.1	4.28
	20년 이상	26	0.0	0.0	3.8	19.2	76.9	4.73
연령	20대	14	0.0	0.0	14.3	35.7	50.0	4.36
	30대	76	0.0	5.3	19.7	30.3	44.7	4.14
	40대	80	0.0	0.0	13.8	41.3	45.0	4.31
	50대	78	0.0	0.0	10.3	34.6	55.1	4.45
	60대 이상	20	0.0	0.0	10.0	40.0	50.0	4.40
주활동 지역	수도권	144	0.0	2.1	17.4	36.8	43.8	4.22
	비수도권	124	0.0	0.8	10.5	34.7	54.0	4.42

시급성은 5점 평균 4.15점이었다. 지역학 관계자(92.5%), 인문정신문화 사업 관리운영자(76.4%), 인문 활동가(74.6%) 순으로 시급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지역학 관계자 그룹에서 시급하다는 응답률이 매우 높았다. 또한 활동경력 20년 이상(84.6%)과 60대(90.0%) 연령에서 시급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활동지역에서는 수도권(75.0%)보다 비수도권(83.1%) 응답자에게서 시급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그림 4-11] '지역 인문정신문화 자료의 수집 · 보전 · 활용 협력체계 구축' 시급성



〈표 4-16〉 '지역 인문정신문화 자료의 수집 · 보전 · 활용 협력체계 구축' 시급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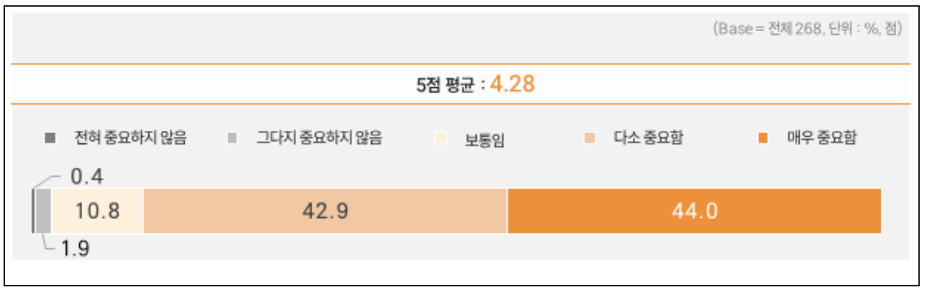
(Base=전체 268,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비율					5점 평균
			전혀 시급하지 않음	그다지 시급하지 않음	보통임	다소 시급함	매우 시급함	
전체		268	0.0	3.0	18.3	39.2	39.6	4.15
관련 분야	지역학 관계자	53	0.0	0.0	7.5	18.9	73.6	4.66
	인문정신문화 사업 관리운영자	89	0.0	3.4	20.2	50.6	25.8	3.99
	인문 활동가	126	0.0	4.0	21.4	39.7	34.9	4.06
활동 경력	5년 미만	107	0.0	4.7	20.6	40.2	34.6	4.05
	5년 이상 10년 미만	70	0.0	4.3	17.1	41.4	37.1	4.11
	10년 이상 20년 미만	65	0.0	0.0	16.9	40.0	43.1	4.26
	20년 이상	26	0.0	0.0	15.4	26.9	57.7	4.42
연령	20대	14	0.0	14.3	21.4	42.9	21.4	3.71
	30대	76	0.0	6.6	23.7	38.2	31.6	3.95
	40대	80	0.0	1.3	18.8	43.8	36.3	4.15
	50대	78	0.0	0.0	14.1	35.9	50.0	4.36
	60대 이상	20	0.0	0.0	10.0	35.0	55.0	4.45
주활동 지역	수도권	144	0.0	3.5	21.5	41.0	34.0	4.06
	비수도권	124	0.0	2.4	14.5	37.1	46.0	4.27

라. 지역의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인문 활동 활성화

이 방안의 중요성은 5점 평균 4.28점이었다. 인문 활동가(91.3%), 인문정신문화 사업 관리운영자(85.4%), 지역학 관계자(79.2%)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특히 인문 활동가 그룹에서 중요하다는 응답률이 매우 높았다. 또한 활동경력 5년 미만(86.9%)과 20대(100.0%) 연령에서 중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그림 4-12] '지역의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인문 활동 활성화' 중요성



〈표 4-17〉 '지역 고유의 인문브랜드 발굴' 중요성

(Base=전체 268,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비율					5점 평균
			전혀 중요하지 않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음	보통임	다소 중요함	매우 중요함	
전체		268	0.4	1.9	10.8	42.9	44.0	4.28
관련 분야	지역학 관계자	53	0.0	3.8	17.0	41.5	37.7	4.13
	인문정신문화 사업 관리운영자	89	1.1	1.1	12.4	43.8	41.6	4.24
	인문 활동가	126	0.0	1.6	7.1	42.9	48.4	4.38
활동 경력	5년 미만	107	0.0	0.9	12.1	41.1	45.8	4.32
	5년 이상 10년 미만	70	0.0	4.3	14.3	38.6	42.9	4.20
	10년 이상 20년 미만	65	1.5	0.0	6.2	47.7	44.6	4.34
	20년 이상	26	0.0	3.8	7.7	50.0	38.5	4.23
연령	20대	14	0.0	0.0	0.0	64.3	35.7	4.36
	30대	76	0.0	1.3	15.8	38.2	44.7	4.26
	40대	80	1.3	1.3	6.3	43.8	47.5	4.35
	50대	78	0.0	2.6	12.8	42.3	42.3	4.24
	60대 이상	20	0.0	5.0	10.0	45.0	40.0	4.20
주활동 지역	수도권	144	0.7	1.4	10.4	41.0	46.5	4.31
	비수도권	124	0.0	2.4	11.3	45.2	41.1	4.25

시급성은 5점 평균 4.09점이었다. 인문 활동가(84.2%), 인문정신문화 사업 관리운영자(73.0%), 지역학 관계자(69.8%) 순으로 시급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인문 활동가에서 시급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또한 활동경력 10년 이상 20년 미만(86.1%)과 20대(92.8%) 연령에서 시급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그림 4-13] '지역의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인문 활동 활성화' 시급성

〈표 4-18〉 '지역의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인문 활동 활성화' 시급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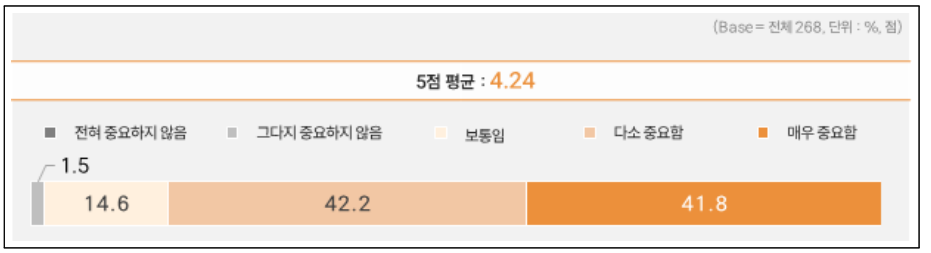
(Base=전체 268,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비율					5점 평균
			전혀 시급하지 않음	그다지 시급하지 않음	보통임	다소 시급함	매우 시급함	
전체		268	0.4	1.9	20.1	44.0	33.6	4.09
관련 분야	지역학 관계자	53	0.0	1.9	28.3	45.3	24.5	3.92
	인문정신문화 사업 관리운영자	89	1.1	3.4	22.5	47.2	25.8	3.93
	인문 활동가	126	0.0	0.8	15.1	41.3	42.9	4.26
활동 경력	5년 미만	107	0.0	0.9	27.1	36.4	35.5	4.07
	5년 이상 10년 미만	70	0.0	5.7	14.3	48.6	31.4	4.06
	10년 이상 20년 미만	65	1.5	0.0	12.3	52.3	33.8	4.17
	20년 이상	26	0.0	0.0	26.9	42.3	30.8	4.04
연령	20대	14	0.0	0.0	7.1	57.1	35.7	4.29
	30대	76	0.0	3.9	26.3	34.2	35.5	4.01
	40대	80	1.3	1.3	15.0	47.5	35.0	4.14
	50대	78	0.0	1.3	20.5	46.2	32.1	4.09
	60대 이상	20	0.0	0.0	25.0	50.0	25.0	4.00
주활동 지역	수도권	144	0.7	1.4	18.1	45.1	34.7	4.12
	비수도권	124	0.0	2.4	22.6	42.7	32.3	4.05

마. 지역 인문정신문화 기반의 지역학 진흥

이 방안의 중요성은 5점 평균 4.24점이었다. 지역학 관계자(90.6%), 인문 활동가(85.0%), 인문정신문화 사업 관리운영자(78.6%)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특히 지역학 관계자에게서 중요하다는 응답률이 매우 높았다. 또한 활동경력 20년 이상(88.5%)과 60대 이상(90.0%) 연령에서 중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그림 4-14] '지역 인문정신문화 기반의 지역학 진흥'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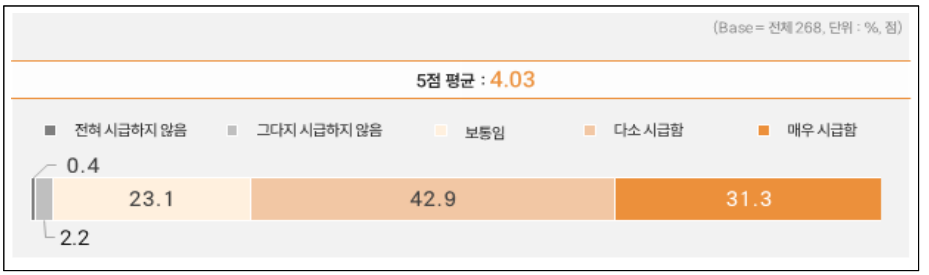
〈표 4-19〉 '지역 인문정신문화 기반의 지역학 진흥' 중요성

(Base=전체 268,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비율					5점 평균
			전혀 중요하지 않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음	보통임	다소 중요함	매우 중요함	
전체		268	0.0	1.5	14.6	42.2	41.8	4.24
관련 분야	지역학 관계자	53	0.0	1.9	7.5	34.0	56.6	4.45
	인문정신문화 사업 관리운영자	89	0.0	2.2	19.1	44.9	33.7	4.10
	인문 활동가	126	0.0	0.8	14.3	43.7	41.3	4.25
활동 경력	5년 미만	107	0.0	3.7	13.1	42.1	41.1	4.21
	5년 이상 10년 미만	70	0.0	0.0	20.0	44.3	35.7	4.16
	10년 이상 20년 미만	65	0.0	0.0	12.3	47.7	40.0	4.28
	20년 이상	26	0.0	0.0	11.5	23.1	65.4	4.54
연령	20대	14	0.0	0.0	7.1	50.0	42.9	4.36
	30대	76	0.0	3.9	22.4	38.2	35.5	4.05
	40대	80	0.0	1.3	11.3	48.8	38.8	4.25
	50대	78	0.0	0.0	12.8	39.7	47.4	4.35
	60대 이상	20	0.0	0.0	10.0	35.0	55.0	4.45
주활동 지역	수도권	144	0.0	1.4	16.7	44.4	37.5	4.18
	비수도권	124	0.0	1.6	12.1	39.5	46.8	4.31

시급성은 5점 평균 4.03점이었다. 지역학 관계자(84.9%), 인문 활동가(72.3%), 인문정신문화 사업 관리운영자(70.8%) 순으로 시급하다고 응답하였고, 지역학 관계자 그룹에서 시급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또한 활동경력 20년 이상(88.4%)과 60대(90.0%) 이상 연령에서 시급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활동지역에서는 수도권(71.6%)보다 비수도권(77.4%) 응답자에게서 시급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그림 4-15] '지역 인문정신문화 기반의 지역학 진흥' 시급성



〈표 4-20〉 '지역 인문정신문화 기반의 지역학 진흥' 시급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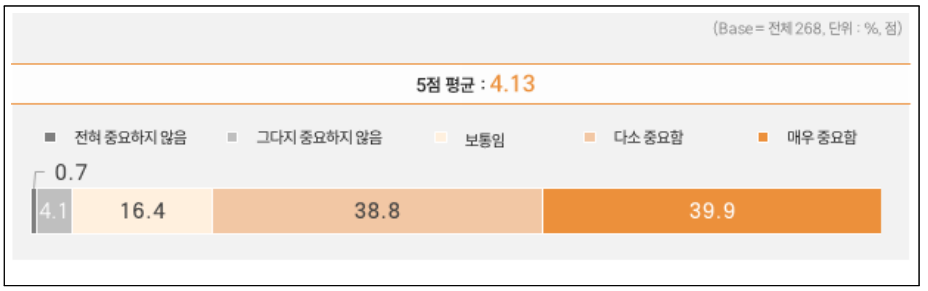
(Base=전체 268,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비율					5점 평균
			전혀 시급하지 않음	그다지 시급하지 않음	보통임	다소 시급함	매우 시급함	
전체		268	0.4	2.2	23.1	42.9	31.3	4.03
관련 분야	지역학 관계자	53	0.0	0.0	15.1	39.6	45.3	4.30
	인문정신문화 사업 관리운영자	89	1.1	3.4	24.7	46.1	24.7	3.90
	인문 활동가	126	0.0	2.4	25.4	42.1	30.2	4.00
활동 경력	5년 미만	107	0.0	1.9	30.8	36.4	30.8	3.96
	5년 이상 10년 미만	70	0.0	4.3	21.4	47.1	27.1	3.97
	10년 이상 20년 미만	65	1.5	0.0	18.5	52.3	27.7	4.05
	20년 이상	26	0.0	3.8	7.7	34.6	53.8	4.38
연령	20대	14	0.0	0.0	42.9	21.4	35.7	3.93
	30대	76	0.0	3.9	28.9	43.4	23.7	3.87
	40대	80	1.3	2.5	23.8	45.0	27.5	3.95
	50대	78	0.0	1.3	16.7	42.3	39.7	4.21
	60대 이상	20	0.0	0.0	10.0	50.0	40.0	4.30
주활동 지역	수도권	144	0.7	2.1	25.7	43.1	28.5	3.97
	비수도권	124	0.0	2.4	20.2	42.7	34.7	4.10

바. 지역학과 인문정신문화 사업 매개 기관 · 단체 육성

이 방안의 중요성은 5점 평균 4.13점이었다. 지역학 관계자(83.0%), 인문 활동가(80.9%), 인문정신문화 사업 관리운영자(73.0%)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또한 활동경력 20년 이상(84.6%)과 60대 이상(85.0%) 연령에서 중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그림 4-16] '지역학과 인문정신문화 사업 매개 기관 · 단체 육성'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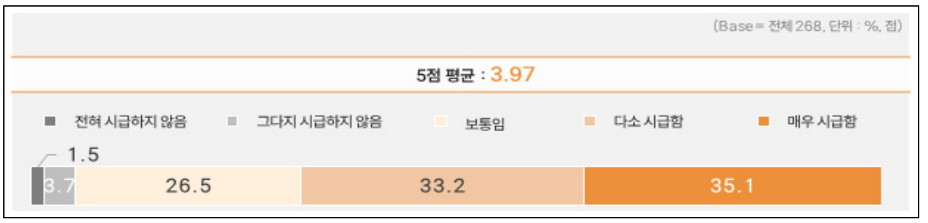
〈표 4-21〉 '지역학과 인문정신문화 사업 매개 기관 · 단체 육성' 중요성

(Base=전체 268,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비율					5점 평균
			전혀 중요하지 않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음	보통임	다소 중요함	매우 중요함	
전체		268	0.7	4.1	16.4	38.8	39.9	4.13
관련 분야	지역학 관계자	53	0.0	1.9	15.1	30.2	52.8	4.34
	인문정신문화 사업 관리운영자	89	2.2	4.5	20.2	34.8	38.2	4.02
	인문 활동가	126	0.0	4.8	14.3	45.2	35.7	4.12
활동 경력	5년 미만	107	0.9	4.7	19.6	35.5	39.3	4.07
	5년 이상 10년 미만	70	0.0	8.6	17.1	47.1	27.1	3.93
	10년 이상 20년 미만	65	1.5	0.0	10.8	41.5	46.2	4.31
	20년 이상	26	0.0	0.0	15.4	23.1	61.5	4.46
연령	20대	14	0.0	7.1	21.4	35.7	35.7	4.00
	30대	76	1.3	2.6	21.1	40.8	34.2	4.04
	40대	80	1.3	6.3	15.0	35.0	42.5	4.11
	50대	78	0.0	3.8	12.8	43.6	39.7	4.19
	60대 이상	20	0.0	0.0	15.0	30.0	55.0	4.40
주활동 지역	수도권	144	1.4	3.5	17.4	38.9	38.9	4.10
	비수도권	124	0.0	4.8	15.3	38.7	41.1	4.16

시급성은 5점 평균 3.97점이었다. 지역학 관계자(79.3%), 인문정신문화 사업 관리운영자(68.5%), 인문 활동가(63.5%) 순으로 시급하다는 응답이 많았고, 지역학 관계자에서 시급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또한 활동경력 20년 이상(84.6%)과 60대(85.0%) 연령에서 시급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활동지역에서는 수도권(63.9%)보다 비수도권(73.4%) 응답자에게서 시급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그림 4-17] ‘지역학과 인문정신문화 사업 매개 기관 · 단체 육성’ 시급성



〈표 4-22〉 ‘지역학과 인문정신문화 사업 매개 기관 · 단체 육성’ 시급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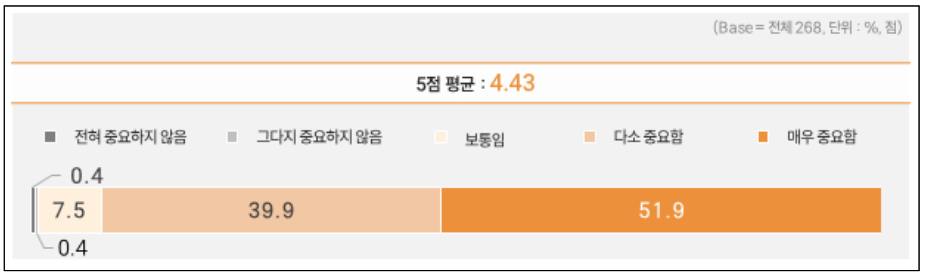
(Base=전체 268,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비율					5점 평균
			전혀 시급하지 않음	그다지 시급하지 않음	보통임	다소 시급함	매우 시급함	
전체		268	1.5	3.7	26.5	33.2	35.1	3.97
관련 분야	지역학 관계자	53	1.9	0.0	18.9	32.1	47.2	4.23
	인문정신문화 사업 관리운영자	89	3.4	6.7	21.3	40.4	28.1	3.83
	인문 활동가	126	0.0	3.2	33.3	28.6	34.9	3.95
활동 경력	5년 미만	107	0.9	4.7	33.6	24.3	36.4	3.91
	5년 이상 10년 미만	70	2.9	4.3	32.9	38.6	21.4	3.71
	10년 이상 20년 미만	65	1.5	3.1	12.3	43.1	40.0	4.17
	20년 이상	26	0.0	0.0	15.4	30.8	53.8	4.38
연령	20대	14	0.0	0.0	42.9	14.3	42.9	4.00
	30대	76	1.3	7.9	32.9	30.3	27.6	3.75
	40대	80	3.8	5.0	25.0	37.5	28.8	3.83
	50대	78	0.0	0.0	21.8	39.7	38.5	4.17
	60대 이상	20	0.0	0.0	15.0	15.0	70.0	4.55
주활동 지역	수도권	144	1.4	4.2	30.6	31.3	32.6	3.90
	비수도권	124	1.6	3.2	21.8	35.5	37.9	4.05

사. 문화여가 활동과 인문프로그램 연계 강화

이 방안의 중요성은 5점 평균 4.43점이었다. 인문정신문화 사업 관리운영자(93.3%), 인문 활동가(92.8%), 지역학 관계자(86.8%)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고, 다른 방안에 비해 중요하다는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활동경력 20년 이상(96.1%)과 20대(100.0%) 연령에서 중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활동지역에서는 비수도권(88.8%)보다 수도권(94.4%) 응답자에게서 중요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그림 4-18] '문화여가 활동과 인문프로그램 연계 강화'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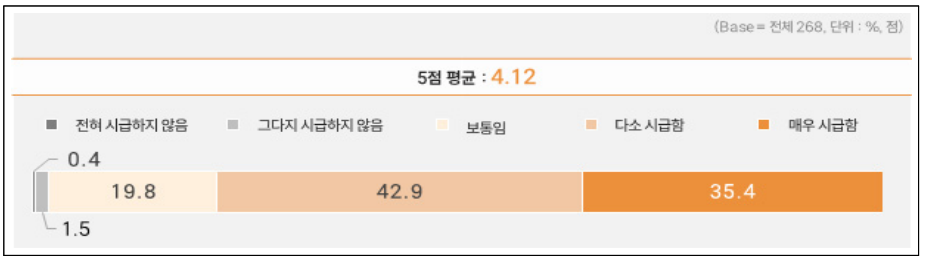
〈표 4-23〉 '문화여가 활동과 인문프로그램 연계 강화' 중요성

(Base=전체 268,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비율					5점 평균
			전혀 중요하지 않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음	보통임	다소 중요함	매우 중요함	
전체		268	0.4	0.4	7.5	39.9	51.9	4.43
관련 분야	지역학 관계자	53	0.0	0.0	13.2	45.3	41.5	4.28
	인문정신문화 사업 관리운영자	89	0.0	1.1	5.6	42.7	50.6	4.43
	인문 활동가	126	0.8	0.0	6.3	35.7	57.1	4.48
활동 경력	5년 미만	107	0.0	0.9	5.6	37.4	56.1	4.49
	5년 이상 10년 미만	70	1.4	0.0	11.4	44.3	42.9	4.27
	10년 이상 20년 미만	65	0.0	0.0	7.7	38.5	53.8	4.46
	20년 이상	26	0.0	0.0	3.8	42.3	53.8	4.50
연령	20대	14	0.0	0.0	0.0	35.7	64.3	4.64
	30대	76	1.3	0.0	9.2	43.4	46.1	4.33
	40대	80	0.0	1.3	10.0	33.8	55.0	4.43
	50대	78	0.0	0.0	3.8	44.9	51.3	4.47
	60대 이상	20	0.0	0.0	10.0	35.0	55.0	4.45
주활동 지역	수도권	144	0.0	0.7	4.9	36.1	58.3	4.52
	비수도권	124	0.8	0.0	10.5	44.4	44.4	4.31

시급성은 5점 평균 4.12점이었다. 인문정신문화 사업 관리운영자(80.9%), 인문 활동가(80.2%), 지역학 관계자(69.8%) 순으로 시급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또한 활동경력 10년 이상 20년 미만(84.6%)과 60대(70.0%) 연령에서 시급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활동지역에서는 비수도권(71.7%)보다 수도권(84.1%) 응답자에게서 시급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그림 4-19] '문화여가 활동과 인문프로그램 연계 강화' 시급성



〈표 4-24〉 '문화여가 활동과 인문프로그램 연계 강화' 시급성

(Base=전체 268,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비율					5점 평균
			전혀 시급하지 않음	그다지 시급하지 않음	보통임	다소 시급함	매우 시급함	
전체		268	0.4	1.5	19.8	42.9	35.4	4.12
관련 분야	지역학 관계자	53	0.0	3.8	26.4	47.2	22.6	3.89
	인문정신문화 사업 관리운영자	89	0.0	1.1	18.0	43.8	37.1	4.17
	인문 활동가	126	0.8	0.8	18.3	40.5	39.7	4.17
활동 경력	5년 미만	107	0.0	0.9	23.4	38.3	37.4	4.12
	5년 이상 10년 미만	70	1.4	4.3	18.6	37.1	38.6	4.07
	10년 이상 20년 미만	65	0.0	0.0	15.4	47.7	36.9	4.22
	20년 이상	26	0.0	0.0	19.2	65.4	15.4	3.96
연령	20대	14	0.0	0.0	28.6	50.0	21.4	3.93
	30대	76	1.3	0.0	23.7	40.8	34.2	4.07
	40대	80	0.0	2.5	18.8	42.5	36.3	4.13
	50대	78	0.0	2.6	19.2	38.5	39.7	4.15
	60대 이상	20	0.0	0.0	5.0	65.0	30.0	4.25
주활동 지역	수도권	144	0.0	1.4	14.6	43.1	41.0	4.24
	비수도권	124	0.8	1.6	25.8	42.7	29.0	3.98

아. 지역교육과정에 지역학 연계 인문프로그램 운영

이 방안의 중요성은 5점 평균 4.29점이었다. 지역학 관계자(92.5%), 인문 활동가(87.3%), 인문정신문화 사업 관리운영자(84.3%)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지역학 관계자에게서 중요하다는 응답률이 매우 높았다. 또한 활동경력 20년 이상(100.0%)과 50대(94.9%) 연령에서 중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활동지역에서는 수도권(83.4%)보다 비수도권(92.0%) 응답자에서 중요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그림 4-20] '지역교육과정에 지역학 연계 인문프로그램 운영' 중요성

〈표 4-25〉 '지역교육과정에 지역학 연계 인문프로그램 운영' 중요성

(Base=전체 268,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비율					5점 평균
			전혀 중요하지 않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음	보통임	다소 중요함	매우 중요함	
전체		268	0.4	1.5	10.8	42.9	44.4	4.29
관련 분야	지역학 관계자	53	0.0	0.0	7.5	30.2	62.3	4.55
	인문정신문화 사업 관리운영자	89	1.1	4.5	10.1	42.7	41.6	4.19
	인문 활동가	126	0.0	0.0	12.7	48.4	38.9	4.26
활동 경력	5년 미만	107	0.0	0.9	17.8	44.9	36.4	4.17
	5년 이상 10년 미만	70	0.0	4.3	10.0	37.1	48.6	4.30
	10년 이상 20년 미만	65	1.5	0.0	4.6	44.6	49.2	4.40
	20년 이상	26	0.0	0.0	0.0	46.2	53.8	4.54
연령	20대	14	0.0	0.0	14.3	50.0	35.7	4.21
	30대	76	0.0	3.9	15.8	47.4	32.9	4.09
	40대	80	1.3	1.3	11.3	43.8	42.5	4.25
	50대	78	0.0	0.0	5.1	34.6	60.3	4.55
	60대 이상	20	0.0	0.0	10.0	50.0	40.0	4.30
주활동 지역	수도권	144	0.7	1.4	14.6	39.6	43.8	4.24
	비수도권	124	0.0	1.6	6.5	46.8	45.2	4.35

시급성은 5점 평균 4.08점이었다. 지역학 관계자(88.7%), 인문정신문화 사업 관리운영자(77.5%), 인문 활동가(75.4%) 순으로 시급하다는 응답이 많았고, 특히 지역학 관계자 그룹에서 시급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또한 활동경력 20년 이상(88.5%)과 50대(88.5%) 연령에서 시급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그림 4-21] '지역교육과정에 지역학 연계 인문프로그램 운영' 시급성

〈표 4-26〉 '지역교육과정에 지역학 연계 인문프로그램 운영' 시급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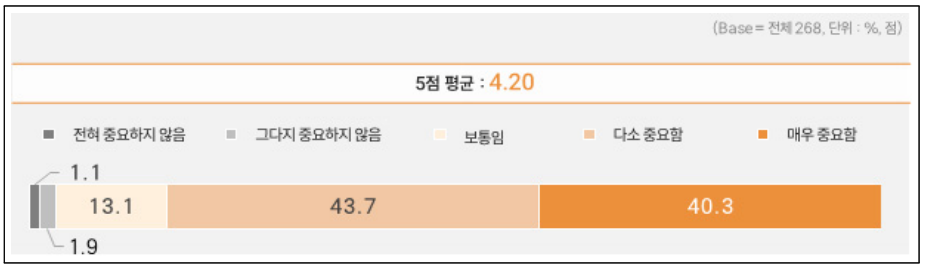
(Base=전체 268,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비율					5점 평균
			전혀 시급하지 않음	그다지 시급하지 않음	보통임	다소 시급함	매우 시급함	
전체		268	0.4	2.6	18.3	45.9	32.8	4.08
관련 분야	지역학 관계자	53	0.0	0.0	11.3	39.6	49.1	4.38
	인문정신문화 사업 관리운영자	89	0.0	4.5	18.0	51.7	25.8	3.99
	인문 활동가	126	0.8	2.4	21.4	44.4	31.0	4.02
활동 경력	5년 미만	107	0.0	2.8	23.4	43.9	29.9	4.01
	5년 이상 10년 미만	70	1.4	5.7	18.6	44.3	30.0	3.96
	10년 이상 20년 미만	65	0.0	0.0	12.3	50.8	36.9	4.25
	20년 이상	26	0.0	0.0	11.5	46.2	42.3	4.31
연령	20대	14	0.0	7.1	7.1	50.0	35.7	4.14
	30대	76	1.3	3.9	27.6	44.7	22.4	3.83
	40대	80	0.0	3.8	18.8	47.5	30.0	4.04
	50대	78	0.0	0.0	11.5	42.3	46.2	4.35
	60대 이상	20	0.0	0.0	15.0	55.0	30.0	4.15
주활동 지역	수도권	144	0.0	2.8	20.1	47.2	29.9	4.04
	비수도권	124	0.8	2.4	16.1	44.4	36.3	4.13

자. 주민 대상 인문 심화 과정 운영

이 방안의 중요성은 5점 평균 4.20점이었다. 인문 활동가(89.7%), 인문정신문화 사업 관리운영자(80.9%), 지역학 관계자(75.4%)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고, 특히 인문 활동가에서 중요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또한 활동경력 20년 이상(100.0%)과 20대(100.0%) 연령에서 중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그림 4-22] ‘주민 대상 인문 심화 과정 운영’ 중요성



〈표 4-27〉 ‘주민 대상 인문 심화 과정 운영’ 중요성

(Base=전체 268,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비율					5점 평균
			전혀 중요하지 않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음	보통임	다소 중요함	매우 중요함	
전체		268	1.1	1.9	13.1	43.7	40.3	4.20
관련 분야	지역학 관계자	53	1.9	1.9	20.8	52.8	22.6	3.92
	인문정신문화 사업 관리운영자	89	2.2	3.4	13.5	38.2	42.7	4.16
	인문 활동가	126	0.0	0.8	9.5	43.7	46.0	4.35
활동 경력	5년 미만	107	0.9	1.9	14.0	41.1	42.1	4.21
	5년 이상 10년 미만	70	1.4	4.3	14.3	38.6	41.4	4.14
	10년 이상 20년 미만	65	1.5	0.0	15.4	47.7	35.4	4.15
	20년 이상	26	0.0	0.0	0.0	57.7	42.3	4.42
연령	20대	14	0.0	0.0	0.0	50.0	50.0	4.50
	30대	76	0.0	5.3	17.1	38.2	39.5	4.12
	40대	80	2.5	1.3	13.8	41.3	41.3	4.18
	50대	78	1.3	0.0	11.5	50.0	37.2	4.22
	60대 이상	20	0.0	0.0	10.0	45.0	45.0	4.35
주활동 지역	수도권	144	0.7	0.7	10.4	41.0	47.2	4.33
	비수도권	124	1.6	3.2	16.1	46.8	32.3	4.05

시급성은 5점 평균 3.98점이었다. 인문 활동가(75.4%), 인문정신문화 사업 관리운영자(73.1%), 지역학 관계자(60.4%) 순으로 시급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또한 활동경력 20년 이상(80.8%)과 60대 이상(90.0%) 연령에서 시급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활동지역에서는 비수도권(64.5%)보다 수도권(77.8%) 응답자에게서 시급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그림 4-23] ‘주민 대상 인문 심화 과정 운영’ 시급성

〈표 4-28〉 ‘주민 대상 인문 심화 과정 운영’ 시급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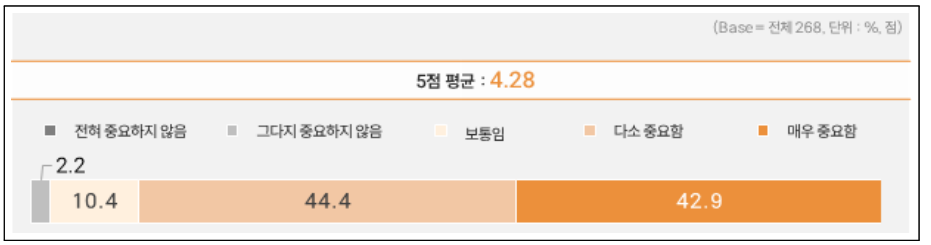
(Base=전체 268,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비율					5점 평균
			전혀 시급하지 않음	그다지 시급하지 않음	보통임	다소 시급함	매우 시급함	
전체		268	1.1	3.0	24.3	39.9	31.7	3.98
관련 분야	지역학 관계자	53	1.9	3.8	34.0	41.5	18.9	3.72
	인문정신문화 사업 관리운영자	89	2.2	3.4	21.3	41.6	31.5	3.97
	인문 활동가	126	0.0	2.4	22.2	38.1	37.3	4.10
활동 경력	5년 미만	107	0.9	3.7	22.4	41.1	31.8	3.99
	5년 이상 10년 미만	70	1.4	5.7	28.6	35.7	28.6	3.84
	10년 이상 20년 미만	65	1.5	0.0	24.6	40.0	33.8	4.05
	20년 이상	26	0.0	0.0	19.2	46.2	34.6	4.15
연령	20대	14	0.0	7.1	21.4	28.6	42.9	4.07
	30대	76	0.0	7.9	27.6	40.8	23.7	3.80
	40대	80	2.5	0.0	27.5	36.3	33.8	3.99
	50대	78	1.3	1.3	21.8	42.3	33.3	4.05
	60대 이상	20	0.0	0.0	10.0	50.0	40.0	4.30
주활동 지역	수도권	144	0.7	0.7	20.8	38.9	38.9	4.15
	비수도권	124	1.6	5.6	28.2	41.1	23.4	3.79

차. 생활인구 대상으로 지역 이해 및 인문체험 프로그램 운영

이 방안의 중요성은 5점 평균 4.28점이었다. 인문 활동가(89.6%), 인문정신문화 사업 관리운영자(87.6%), 지역학 관계자(81.1%)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활동 경력 20년 이상(96.2%)과 20대(100.0%) 연령에서 중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활동지역에서는 비수도권(82.2%)보다 수도권(91.6%) 응답자에게서 중요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그림 4-24] '생활인구 대상으로 지역 이해 및 인문체험 프로그램 운영'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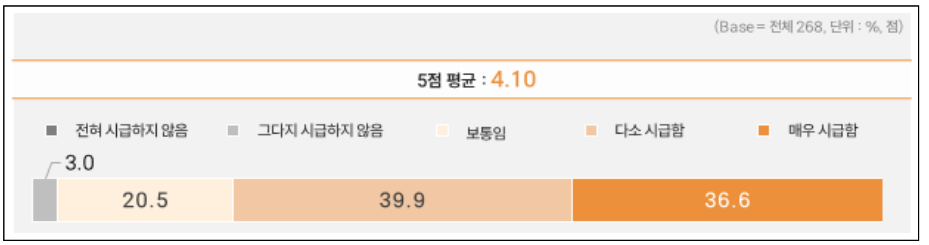
〈표 4-29〉 '생활인구 대상으로 지역 이해 및 인문체험 프로그램 운영' 중요성

(Base=전체 268,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비율					5점 평균
			전혀 중요하지 않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음	보통임	다소 중요함	매우 중요함	
전체		268	0.0	2.2	10.4	44.4	42.9	4.28
관련 분야	지역학 관계자	53	0.0	1.9	17.0	43.4	37.7	4.17
	인문정신문화 사업 관리운영자	89	0.0	3.4	9.0	43.8	43.8	4.28
	인문 활동가	126	0.0	1.6	8.7	45.2	44.4	4.33
활동 경력	5년 미만	107	0.0	2.8	8.4	40.2	48.6	4.35
	5년 이상 10년 미만	70	0.0	2.9	14.3	47.1	35.7	4.16
	10년 이상 20년 미만	65	0.0	1.5	12.3	46.2	40.0	4.25
	20년 이상	26	0.0	0.0	3.8	50.0	46.2	4.42
연령	20대	14	0.0	0.0	0.0	35.7	64.3	4.64
	30대	76	0.0	3.9	10.5	43.4	42.1	4.24
	40대	80	0.0	3.8	13.8	41.3	41.3	4.20
	50대	78	0.0	0.0	9.0	47.4	43.6	4.35
	60대 이상	20	0.0	0.0	10.0	55.0	35.0	4.25
주활동 지역	수도권	144	0.0	1.4	6.9	46.5	45.1	4.35
	비수도권	124	0.0	3.2	14.5	41.9	40.3	4.19

시급성은 5점 평균 4.1점이었다. 인문정신문화 사업 관리운영자(78.7%), 지역학 관계자(75.5%), 인문 활동가(75.4%) 순으로 시급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또한 활동경력 20년 이상(88.5%)과 60대(80.0%) 연령에서 시급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활동 지역에서 시급성에 대한 응답에 차이는 없으나 매우 시급하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수도권 응답자(41.0%)에게서 더 많았다.

[그림 4-25] ‘생활인구 대상으로 지역 이해 및 인문체험 프로그램 운영’ 시급성



〈표 4-30〉 ‘생활인구 대상으로 지역 이해 및 인문체험 프로그램 운영’ 시급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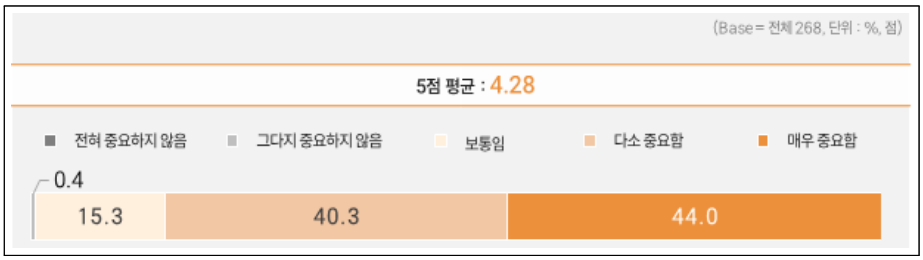
(Base=전체 268,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비율					5점 평균
			전혀 시급하지 않음	그다지 시급하지 않음	보통임	다소 시급함	매우 시급함	
전체		268	0.0	3.0	20.5	39.9	36.6	4.10
관련 분야	지역학 관계자	53	0.0	5.7	18.9	47.2	28.3	3.98
	인문정신문화 사업 관리운영자	89	0.0	2.2	19.1	42.7	36.0	4.12
	인문 활동가	126	0.0	2.4	22.2	34.9	40.5	4.13
활동 경력	5년 미만	107	0.0	5.6	17.8	35.5	41.1	4.12
	5년 이상 10년 미만	70	0.0	2.9	22.9	44.3	30.0	4.01
	10년 이상 20년 미만	65	0.0	0.0	26.2	40.0	33.8	4.08
	20년 이상	26	0.0	0.0	11.5	46.2	42.3	4.31
연령	20대	14	0.0	7.1	14.3	35.7	42.9	4.14
	30대	76	0.0	5.3	18.4	43.4	32.9	4.04
	40대	80	0.0	2.5	26.3	41.3	30.0	3.99
	50대	78	0.0	1.3	17.9	37.2	43.6	4.23
	60대 이상	20	0.0	0.0	20.0	35.0	45.0	4.25
주활동 지역	수도권	144	0.0	2.1	20.8	36.1	41.0	4.16
	비수도권	124	0.0	4.0	20.2	44.4	31.5	4.03

카. 인문프로그램 운영자 대상의 지역 이해 교육 운영

이 방안의 중요성은 5점 평균 4.28점이었다. 지역학 관계자(90.6%), 인문정신문화 사업 관리운영자(84.2%), 인문 활동가(81.8%)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특히 지역학 관계자에서 중요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또한 활동경력 20년 이상(92.3%)과 20대(92.8%) 연령에서 중요하다는 응답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림 4-26] '인문프로그램 운영자 대상의 지역 이해 교육 운영'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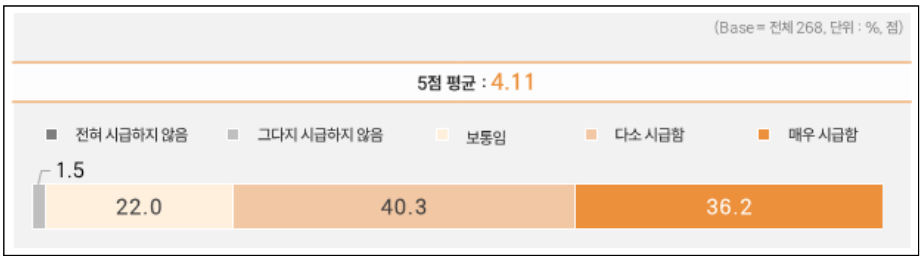
〈표 4-31〉 '인문프로그램 운영자 대상의 지역 이해 교육 운영' 중요성

(Base=전체 268,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비율					5점 평균
			전혀 중요하지 않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음	보통임	다소 중요함	매우 중요함	
전체		268	0.0	0.4	15.3	40.3	44.0	4.28
관련 분야	지역학 관계자	53	0.0	0.0	9.4	43.4	47.2	4.38
	인문정신문화 사업 관리운영자	89	0.0	0.0	15.7	40.4	43.8	4.28
	인문 활동가	126	0.0	0.8	17.5	38.9	42.9	4.24
활동 경력	5년 미만	107	0.0	0.0	18.7	36.4	44.9	4.26
	5년 이상 10년 미만	70	0.0	0.0	18.6	38.6	42.9	4.24
	10년 이상 20년 미만	65	0.0	1.5	9.2	53.8	35.4	4.23
	20년 이상	26	0.0	0.0	7.7	26.9	65.4	4.58
연령	20대	14	0.0	0.0	7.1	35.7	57.1	4.50
	30대	76	0.0	0.0	17.1	44.7	38.2	4.21
	40대	80	0.0	1.3	17.5	37.5	43.8	4.24
	50대	78	0.0	0.0	10.3	46.2	43.6	4.33
	60대 이상	20	0.0	0.0	25.0	15.0	60.0	4.35
주활동 지역	수도권	144	0.0	0.7	16.7	41.0	41.7	4.24
	비수도권	124	0.0	0.0	13.7	39.5	46.8	4.33

시급성은 5점 평균 4.11점이었다. 지역학 관계자(84.9%), 인문정신문화 사업 관리운영자(79.8%), 인문 활동가(70.6%) 순으로 시급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활동경력 20년 이상(92.3%)과 60대(85.0%) 연령에서 시급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활동 지역에서는 비수도권(75.0%)보다 수도권 응답자(77.8%)에게서 시급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그림 4-27] '인문프로그램 운영자 대상의 지역 이해 교육 운영' 시급성



〈표 4-32〉 '인문프로그램 운영자 대상의 지역 이해 교육 운영' 시급성

(Base=전체 268,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비율					5점 평균
			전혀 시급하지 않음	그다지 시급하지 않음	보통임	다소 시급함	매우 시급함	
전체		268	0.0	1.5	22.0	40.3	36.2	4.11
관련 분야	지역학 관계자	53	0.0	0.0	15.1	47.2	37.7	4.23
	인문정신문화 사업 관리운영자	89	0.0	0.0	20.2	48.3	31.5	4.11
	인문 활동가	126	0.0	3.2	26.2	31.7	38.9	4.06
활동 경력	5년 미만	107	0.0	2.8	24.3	37.4	35.5	4.06
	5년 이상 10년 미만	70	0.0	1.4	25.7	38.6	34.3	4.06
	10년 이상 20년 미만	65	0.0	0.0	20.0	49.2	30.8	4.11
	20년 이상	26	0.0	0.0	7.7	34.6	57.7	4.50
연령	20대	14	0.0	7.1	21.4	28.6	42.9	4.07
	30대	76	0.0	3.9	19.7	48.7	27.6	4.00
	40대	80	0.0	0.0	30.0	41.3	28.8	3.99
	50대	78	0.0	0.0	17.9	38.5	43.6	4.26
	60대 이상	20	0.0	0.0	15.0	20.0	65.0	4.50
주활동 지역	수도권	144	0.0	1.4	20.8	39.6	38.2	4.15
	비수도권	124	0.0	1.6	23.4	41.1	33.9	4.07

타. 지역학 성과를 활용한 지역 인문콘텐츠 개발

이 방안의 중요성은 5점 평균 4.29점이었다. 인문정신문화 사업 관리운영자(79.8%)보다 지역학 관계자(84.9%)와 인문 활동가(84.9%)에게서 중요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또한 활동경력 20년 이상(88.5%)과 20대(92.9%) 연령에서 중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그림 4-28] '지역학 성과를 활용한 지역 인문콘텐츠 개발'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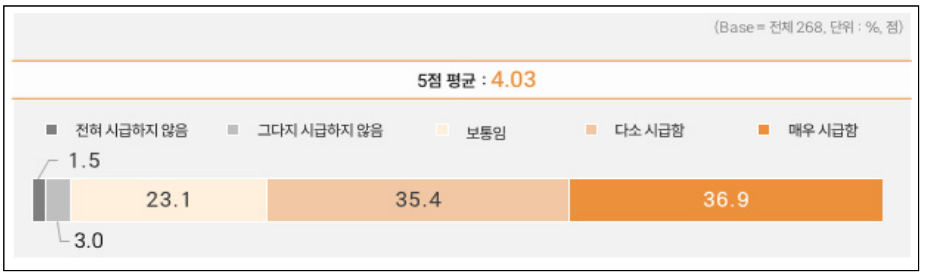
〈표 4-33〉 '지역학 성과를 활용한 지역 인문콘텐츠 개발' 중요성

(Base=전체 268,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비율					5점 평균
			전혀 중요하지 않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음	보통임	다소 중요함	매우 중요함	
전체		268	0.4	1.1	15.3	35.8	47.4	4.29
관련 분야	지역학 관계자	53	0.0	0.0	15.1	30.2	54.7	4.40
	인문정신문화 사업 관리운영자	89	0.0	2.2	18.0	33.7	46.1	4.24
	인문 활동가	126	0.8	0.8	13.5	39.7	45.2	4.28
활동 경력	5년 미만	107	0.0	1.9	17.8	29.0	51.4	4.30
	5년 이상 10년 미만	70	0.0	0.0	18.6	38.6	42.9	4.24
	10년 이상 20년 미만	65	1.5	1.5	9.2	46.2	41.5	4.25
	20년 이상	26	0.0	0.0	11.5	30.8	57.7	4.46
연령	20대	14	0.0	0.0	7.1	50.0	42.9	4.36
	30대	76	1.3	1.3	23.7	32.9	40.8	4.11
	40대	80	0.0	2.5	15.0	35.0	47.5	4.28
	50대	78	0.0	0.0	9.0	37.2	53.8	4.45
	60대 이상	20	0.0	0.0	15.0	35.0	50.0	4.35
주활동 지역	수도권	144	0.0	2.1	16.7	32.6	48.6	4.28
	비수도권	124	0.8	0.0	13.7	39.5	46.0	4.30

시급성은 5점 평균 4.03점이었다. 지역학 관계자(81.1%), 인문 활동가(70.6%), 인문정신문화 사업 관리운영자(69.7%) 순으로 시급하다는 응답이 많았고, 특히 지역학 관계자 그룹에서 시급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또한 활동경력 20년 이상(84.6%)과 60대(95.0%) 연령에서 시급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그림 4-29] '지역학 성과를 활용한 지역 인문콘텐츠 개발' 시급성



〈표 4-34〉 '지역학 성과를 활용한 지역 인문콘텐츠 개발' 시급성

(Base=전체 268,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비율					5점 평균
			전혀 시급하지 않음	그다지 시급하지 않음	보통임	다소 시급함	매우 시급함	
전체		268	1.5	3.0	23.1	35.4	36.9	4.03
관련 분야	지역학 관계자	53	1.9	3.8	13.2	37.7	43.4	4.17
	인문정신문화 사업 관리운영자	89	2.2	2.2	25.8	38.2	31.5	3.94
	인문 활동가	126	0.8	3.2	25.4	32.5	38.1	4.04
활동 경력	5년 미만	107	1.9	4.7	24.3	31.8	37.4	3.98
	5년 이상 10년 미만	70	0.0	1.4	32.9	31.4	34.3	3.99
	10년 이상 20년 미만	65	3.1	3.1	13.8	46.2	33.8	4.05
	20년 이상	26	0.0	0.0	15.4	34.6	50.0	4.35
연령	20대	14	0.0	0.0	28.6	42.9	28.6	4.00
	30대	76	1.3	5.3	31.6	31.6	30.3	3.84
	40대	80	3.8	3.8	20.0	37.5	35.0	3.96
	50대	78	0.0	1.3	21.8	34.6	42.3	4.18
	60대 이상	20	0.0	0.0	5.0	40.0	55.0	4.50
주활동 지역	수도권	144	1.4	3.5	23.6	34.0	37.5	4.03
	비수도권	124	1.6	2.4	22.6	37.1	36.3	4.04

파. 중요성 · 시급성 IPA 분석

지역학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발전을 위해 일차 도출한 방안의 중요성은 모두 4점 이상(평균 4.25점)으로 평가되었다. 방안별로는 '문화여가 활동과 인문프로그램 연계 강화'가 평균 4.43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다음으로 '지역 인문정신문화 자료의 수집 · 보전 · 활용 협력체계 구축'(4.31점), '지역교육과정에 지역학 연계 인문프로

그램 운영'(4.29점), '지역학 성과를 활용한 지역 인문콘텐츠 개발'(4.29점) 등의 순이었다. '마을학(또는 마을인문학) 육성'은 4.10점으로 나타났지만, 12개 방안 중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이와 관련한 추가 의견에서는 마을학 육성이 지역 또는 마을 내 권력관계에 따라 특정 문중의 역사 기록화에 함몰될 수 있다는 부정적 의견도 제시되었다.

일차 도출된 방안의 시급성(평균 4.02점)은 '지역 인문정신문화 자료의 수집 · 보전 · 활용 협력체계 구축'이 평균 4.1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문화여가 활동과 인문프로그램 연계 강화'(4.12점), '인문프로그램 운영자 대상의 지역 이해 교육 운영'(4.11점), '생활인구 대상으로 지역 이해 및 인문체험 프로그램 운영'(4.10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서 '지역 고유의 인문브랜드 발굴'은 3.76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그림 4-30] 일차 도출 정책방안별 중요성 및 시급성 IPA

도출된 방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IPA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그림 4-30] 참조), '문화여가 활동과 인문프로그램 연계 강화', '지역 인문정신문화 자료의 수집·보전·활용 협력체계 구축', '인문프로그램 운영자 대상의 지역 이해 교육 운영', '생활인구 대상으로 지역 이해 및 인문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역교육과정에 지역학 연계 인문프로그램 운영', '지역의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인문 활동 활성화', '지역학 성과를 활용한 지역 인문콘텐츠 개발' 순으로 중요성과 시급성이 평균을 상회하였다. '지역 인문정신문화 기반의 지역학 진흥'은 중요성은 평균보다 약간 낮았으나, 시급성은 평균보다 높아서 IPA 평균에 매우 가깝게 위치하였다. 대체로 이들 방안은 지역학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사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적절하다고 평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마을학(또는 마을인문학) 육성', '지역 고유의 인문브랜드 발굴'은 평균과 떨어져 위치하였다. 이로써 정책방안으로서의 적절성은 낮게 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중요성은 4.10점을 상회하였기에 필요성은 인정받았다고 이해된다. 그 외에 '주민 대상 인문심화 과정 운영'과 '지역학과 인문정신문화 사업 매개 기관·단체 육성'은 중요성과 시급성이 평균보다 다소 낮았으나, '마을학(또는 마을인문학) 육성'이나 '지역 고유의 인문브랜드 발굴'보다는 IPA 평균에 가까이 위치하였다.

5. 정책 방향·방안에 대한 자유 의견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일차 도출한 정책 방향과 방안에 대해 자유응답 형식으로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하였다. 수렴한 의견들을 보면, 그 내용에서 기존에 이해관계자 대상의 심층인터뷰에서 제시된 의견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우선, 수렴한 의견들 중 정책방향과 관련한 의견을 유사한 내용별로 유형화한 결과, '지속 가능한 인문정신문화 사업 추진', '지역 특성 반영과 격차 해소', '주민 주도의 인문정신문화 확산', '민관 협력 및 중앙정부의 지원 강화', '정책의 홍보와 효과적인 운영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이 제언되었다. 해당 의견들을 유형화한 결과와 주요 관련 의견을 정리하면 〈표 4-35〉와 같다.

한편, 수렴한 의견들 중 정책방안 관련 의견을 유사한 내용별로 유형화한 결과, '지역 기반 연구 및 학술 인프라 구축',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 '교육 및 정책 효과 모니

터링', '인문 활동가와 연구자 육성',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의견이 제언되었다. 해당 의견들을 유형화한 결과와 주요 관련 의견을 정리하면 〈표 4-36〉과 같다.

〈표 4-35〉 인문정신문화 사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자유응답 결과

구분	주요 내용
지속 가능한 인문정신문화 사업 추진	•장기적 · 지속적인 운영: 단기적 성과보다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문정신문화 사업 추구 - "사업의 지속성이 무엇보다 중요, 인문교양은 바로 성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나타남" •지역학과 연계된 프로그램 강화: 지역학 연구자와 단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속적인 사업 운영 목표 - "각 지역에서 지역학을 하는 사람이나 단체에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지원에 따른 처리에 있어서도 많은 자율성 보장 필요"
지역 특성 반영과 격차 해소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각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반영한 맞춤형 인문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 필요 - "차별화된 지역 브랜딩을 통해 참여자들이 고유 콘텐츠를 개발하여 프로그램을 통해 정책 방안을 자연스럽게 나타내는 것이 중요" •인문학 자원의 격차 해소: 수도권과 지방 간 인문학적 자원과 참여 기회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 필요 - "같은 서울,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지역별 격차가 있습니다. 지방으로 가면 그것이 더 클 것이라 생각" - "서울 등의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에 공통된 목표의 사업이 적용되기"
주민 주도의 인문정신문화 확산	•주민 참여 확대: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 사회와의 유대감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촉진 - "기존의 인문학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며, 좋은 사례를 타 지역에 널리 알리고, 시민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민간주도형 사업 개발: 중앙, 또는 지자체의 성과 중심 관리 지양, 지역민이 직접 기획, 추진,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개발 필요" •세대 간 소통과 연결: 과거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세대 간 소통 강화 - "후속세대에 대한 지역학 관련 프로그램 운영 필요"
민관 협력 및 중앙정부의 지원 강화	•민관 협력 체계 구축: 민간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효과를 증대시키고,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확대 - "정부 주도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다양한 민간 단체와의 협업이 중요" •정책 담당자 교육 및 지원: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정책 담당자들의 인문학적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도입 - "정책을 입안하는 중앙정부 담당자의 인문관련 전문지식이 필요하며 관련 정책추진에서 인문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요구"
정책의 홍보와 효과적인 운영	•효과적인 홍보 전략: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홍보 전략을 수립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인식 개선(6번 의견). - "기획 단계에서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운영자 대상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과 인식 공유 선행 필요" - "아무리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이라도 참여자가 없다면 무용지물이기에 지역성과 인문학의 연결과 인문 가치가 중요하다는 인식 필요"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예산 확보와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 - "예산 확보를 통하여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및 맞춤형 대응 전략 수립"

〈표 4-36〉 인문정신문화 사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 자유응답 결과

유형	주요 내용
지역 기반 연구 및 학술 인프라 구축	•지역학 연구 강화: 대학 및 연구기관에 지역학 전문 부서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지역학 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 - “대학이나 공공 연구기관 내에 지역학 전문 부서 설치 및 활성화” •지역학 네트워크 구축: 지역학 연구자 간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학술적 인프라 강화 - “각 지역 구심점간의 상호 네트워크 활성화” - “지역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고, 그 연구 인프라로부터 사업이 확산”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	•주민 주도 프로그램 활성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사회의 주체성 강화 - “조금 더 지역 맞춤형으로 다양한 인문사업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음” - “주민 참여를 이끌어낼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요구” •세대 간 소통과 연결: 과거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세대 간 소통 강화 - “지역민들내 세대간의 소통이 필요한 인문프로그램이 개설되면 좋겠음” - “후속세대에 대한 지역학 관련 프로그램 운영” •디지털 기술 활용: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인문학 콘텐츠 개발과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참여 확대 - “지역별로 인문자산 분과를 구체화하고 각 영역별 전문가 풀이 디지털 기반에 제시되면 좋겠음”
교육 및 정책 효과 모니터링	•정책 담당자 및 주민 교육: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지역 주민들에게 교육하고, 정책 담당자들에게는 효과적인 사업 운영 방안 교육 - “지역 역사 문화의 발굴 및 교육을 통한 지역민의 참여의식 제고” - “정책을 입안하는 중앙정부 담당자의 인문관련 전문지식이 필요하며 관련 정책추진에서 인문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정책 효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 정책 실행의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량적, 정성적 데이터 기반의 피드백 체계 구축 - “피드백에 대한 부분, 많은 인문학 프로그램이 아직까지는 시도에 그치는 것 같음” - “정책효과에 대하여 시급하고 단절적으로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음”
인문 활동가와 연구자 육성	•지역 인문 활동가와 연구자 등 전문인력 양성 및 이들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문정신문화 사업을 운영할 인력 확보도 필요 -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학 연구 단체나 전문가 육성 시급” - “지역 인문 활동가 및 기관 육성” - “인문정신문화사업을 운영할 인력 확보 및 양성”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	•기관 · 단체 협력네트워크 구축: 광역 단위의 지역학 연구기관과 기초 단위의 지역학 연구기관 협력,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사업 관련 전국 단위 네트워크 및 워크숍 필요 - “광역단위 지역학 연구기관과 기초단위 지역학 연구기관 간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 - “지역학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불합리한 행적적인 절차 간소화 필요”

제3절 소결

본 연구에서는 지역학 및 인문정신문화 정책의 특성과 동향 분석, 두 분야와 관련한 언론보도 및 일반 국민 인식·수요 분석, 이해관계자 의견 분석 등을 통해 지역학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사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과 방안을 일차 도출하였다. 이 장에서는 일차 도출한 방향과 방안의 적절성을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하여 최종 제안할 방향과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 과정에서는 두 분야의 연계 필요성과 기존 정책에 대한 인식, 추가적인 의견 수렴도 함께 이루어졌다.

선행 분석뿐만 아니라 설문조사에서도 두 분야 연계의 필요성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지역학의 특색이 두드러지는 사업을 접해 본 적이 없으며,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지역이라는 공간적 특색이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과거에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가 활발하지 않던 시대에 통용되는 논리가 아닐까 생각하며, 현재는 지역의 차별점이 두드러지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40대 인문 활동가)라는 의견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즉, 이와 같은 의견에 유의하면서 두 분야 연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토대 구축 사업이나 정책 특성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인문정신문화 정책에 대한 인식을 보면, 응답자의 관련 분야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기는 했으나, 대체로 토대 구축에 해당하는 정책사업을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기존 대표 인문프로그램의 확대와 내실화도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는데, 이러한 인문프로그램 운영에서는 유사성·중복성을 해소하고 참여자 수요나 차별성, 지역 특성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인문정신문화 사업은 상대적으로 지역사회 연계나 지역 자원 활용을 고려하고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타 인문학 사업과 차별성을 지닌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사업 추진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응답자들은 지역학과는 지역 인문 자원 발굴·조사

·수집·보존 및 활용 등을 위해 지역학 역량과 성과를 적극 연계 활용하는 협력체계 구축을 중요하게 인식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인문정신문화 사업 발전을 위해 일차 도출한 정책방향에 대해 IPA 기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역 인문정신문화의 발굴과 공유', '지역과 삶의 의미 및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 '지역 정체성 정립'이 각 분야 진흥뿐만 아니라 두 분야 연계에서 관련성이 높다고 평가되었다. 이들 방향은 지역학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사업 발전을 위해 가장 적합한 방향을 묻는 문항에서도 가장 적합하다고 평가되었다. 다만, 이 결과가 나머지 방향이 부적절함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나머지 방향도 지역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성은 높게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합성이 높은 3개 방향을 중심으로 나머지 방향을 재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일차 도출한 정책방향 중 최근의 정책적 관심과 밀접한 '지역 간/지역 내 인문 격차의 해소', '지역의 사회문제 해소와 지속가능성 제고'는 두 분야 상호 관련성이나 두 분야 연계 방향으로서 적합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이 결과는 지역학이나 인문정신문화 정책이 지역의 문제에 직접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한다는 인식과 관련된다. 다만, 두 분야가 연계하여 지역의 문제에 대응하며 그 해소나 완화에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하여야 한다는 데에는 대체로 인식을 같이하였다. 특히 젊은 인문 활동가들에게서 인문정신문화 정책이 지역학과 연계하여 지역의 사회문제 등에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는 점은 유의미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일차 도출한 정책방안은 그 중요성이 5점 평균 4.25점이었고, 개별 방안도 모두 4.10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시급성도 5점 평균 4.02점으로 높았으나, 개별 방안의 시급성은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경향이었다. 이 결과는 정책방안의 추진에서는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중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접근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준다.

일차 도출한 정책방안에 대해서도 중요성과 시급성을 IPA 기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책방안 대부분이 평균보다 위에 위치하거나 평균에 가깝게 위치하였지만, '마을학(또는 마을인문학) 육성'과 '지역 고유의 인문브랜드 발굴'은 평균에서 많이 떨어져 위치하였다. '주민 대상 인문심화 과정 운영'과 '지역학과 인문정신문화 사업 매개 기관·단체 육성'도 IPA 평균에서는 다소 떨어져 위치하였다. 다만, 이들 방안의 중요성이 모두 4.10점 이상이었음을 고려하면, 각 방안을 제외하기보다 다른 방안에 재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제5장

인문정신문화 사업 발전방안 제안

제1절 정책 방향 및 방안 선정

1. 지역학과 연계한 '사업 발전'의 개념

본 연구에서 다루는 지역학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발전이란 지역학 진흥과 인문정신문화 진흥의 선순환적인 연계를 의미한다. 즉, 지역 정체성 구명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지향적 특성을 지닌 지역학을 지역 인문정신문화 진흥의 학술적 토대로 인식하고, 지역학이 축적해온 성과와 인적 자원을 인문정신문화 사업과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것을 지향한다.

또한 '자산화', '가치화', '공유화'라는 개념 하에 지역학 연계를 모색한다. 여기서 '자산화'는 토대 구축 범주에 관련되며, 지역학 및 그 성과를 인문정신문화 정책의 주요 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학은 지역의 역사·문화 등에 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지향하고, 학술 연구로서 뿐만 아니라 실천지향적인 특성으로 인해 정책과 밀접히 관련된다. 이와 같은 특성을 지닌 지역학과 그 성과를 인문정신문화 정책의 자산이자 학술적 토대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치화'는 사회적 확산·활용 범주에 관련되며, 인문 가치의 지역적 활용과 확산에서 기존 정책사업의 한계를 인식하고 지역학과 연계를 통해 좀 더 효과적으로 확산하고 내재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예로, 일반적인 인문소양 고취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에서 벗어나 그 지역과 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주제나 소재를 찾는 것도 지역학 성과를 활용할 때 가능하다. '공유화'는 네트워크 구축 범주에 관련되며, 지역학과 인문정신문화 정책의 성과, 그리고 각 분야에 관련된 기관·단체 등의 성과 및 자원을 공유하고 연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학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사업 발전'은 지역학과 인문정신문화 정책이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지역학 성과를 토대로 지역 이해와 수요에 기반하여 인문정신문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기여

하고, 그것이 선순환하여 지역학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지향한다. 이를 다음 [그림 5-1] 처럼 정리할 수 있다.

[그림 5-1] '지역학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사업 발전'의 개념

2. 정책 방향과 방안의 조정 및 선정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본 연구에서 지역학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사업 발전을 위해 일차 도출한 정책방향 중 '지역 인문정신문화의 발굴과 공유', '지역과 삶의 의미 및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 '지역 정체성 정립'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이들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나머지 방향을 재편하여 반영하고자 한다.

우선, 지역학과 연계한 정책방향으로 가장 적합성이 높게 평가된 '지역과 삶의 의미 및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는 인문학법의 목적, 인문정신문화의 고유한 지향과 관련된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 간/지역 내 인문 격차의 해소'나 '지역의 사회문제 해소와 지속가능성 제고'는 지역학과 인문정신문화 정책 모두가 대응할 필요가 있고, "국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고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사회적·문화적 가치와 조화"를 지향하는 인문학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는 사안이다. 따라서 이들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방향을 '지역과 삶의 의미 제고를 위한 연계'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지역 인문정신문화의 발굴과 공유'는 지역학의 주요 역할 및 사업과도 밀접히 관련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지역학과 인문정신문화 정책 간 상호 관련성이 가장 큰 고유 영역으로 인식되었다. 이와 같은 방향의 추진은 궁극적으로 '지역에 대한

대내외의 이해 제고'라는 결과와 맞닿는다. 따라서 이들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편하되, '지역 인문정신문화의 발굴과 공유'가 두 분야가 만나는 고유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지역 인문정신문화의 발굴·공유를 위한 연계'를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지역 정체성 정립'은 지역학의 고유 목적 및 지향과 관련된다. 또한 지역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학과 연계하려는 인문정신문화 정책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안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학 진흥 조례의 내용([부록 1] 참조)에서 볼 수 있듯이, '주민의 자긍심 및 정주의식 향상'도 지역학의 고유한 목적 및 지향과 관련된다. 따라서 '지역 정체성 정립'을 중심으로 두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방향을 '지역의 정체성 및 자긍심 제고를 위한 연계'로 설정하였다.

[그림 5-2] 지역학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사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

다음으로, 지역학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사업 발전을 위해 일차 도출한 12개 정책방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IPA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세 가지 정책방향에 포함되어 있던 방안들이 평균 이상이거나 평균에 매우 근접하였다. 따라서 이들을 우선순위에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주민 대상 인문심화 과정 운영'은 평균에서 다소 떨어져 위치하였고, '마을학(또는 마을인문학) 육성'과 '지역 고유의 인문브랜드 발굴'은 평균에서 많이 떨어져 위치하였다. 다만, 이들 방안의 중요성이 낮게 평가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각 방안을 그 성격이나 내용이 유사한 타 방안에 재편하여 반영하고자 한다.

우선, '주민 대상 인문심화 과정 운영'은 같은 사회적 확산·활용 범주에 속한 '문화여

가 활동과 인문프로그램 연계 강화'에서 함께 다룬다. '마을학(또는 마을인문학) 육성'은 같은 토대 구축 범주에 속한 '지역 인문정신문화 기반의 지역학 진흥'에서, '지역 고유의 인문브랜드 발굴'은 같은 사회적 확산·활용 범주에 속한 '지역학 성과를 활용한 지역 인문콘텐츠 개발'에서 함께 다루되, 이들 방안을 통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 방안이 속한 정책방향을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지역 정체성 및 주민 자긍심 제고를 위한 연계'로 변경하여 제시하였다.

한편, 상대적으로 기존 인문정신문화 정책에서는 지역 단위 협력체계나 네트워크 구축이 미흡하다고 평가된다. 이 점을 고려하여 '지역 인문정신문화 자료 수집·보전·활용 협력체계 구축'을 '지역 인문정신문화 자료 발굴·수집·보전 지속 및 체계화'와 협력체계 관련 사안으로 분리하였다. 그리고 협력체계 관련 사안을 IPA 중심에서 다소 떨어져 위치한 '지역학과 인문정신문화 사업 매개 기관·단체 육성'과 통합하여 '지역학 연계를 위한 인문협력체계 구축'으로 수정하였다.

이와 같이 수정된 정책방안을 정책방향별로 제시하면 다음 〈표 5-1〉과 같다.

〈표 5-1〉 지역학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및 방안

정책방향	정책방안	사업범주
지역과 삶의 의미 제고를 위한 연계	문화여가 활동과 지역 인문프로그램 연계 강화	사회적 확산·활용
	지역의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인문 활동 활성화	사회적 확산·활용
	지역교육과정에 지역학 연계 인문프로그램 운영	사회적 확산·활용
지역 인문정신문화 발굴·공유를 위한 연계	지역 인문정신문화 자료 발굴·수집·보전 지속 및 체계화	토대 구축
	인문프로그램 운영자 대상의 지역 이해 교육 운영	토대 구축
	생활인구 대상의 지역 이해 및 인문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 확산·활용
	지역학 연계를 위한 인문협력체계 구축	네트워크 구축
지역의 정체성 및 자긍심 제고를 위한 연계	지역학 성과를 활용한 지역 인문콘텐츠 개발	사회적 확산·활용
	지역 인문정신문화 기반의 지역학 진흥	토대 구축

제2절 지역과 삶의 의미 제고를 위한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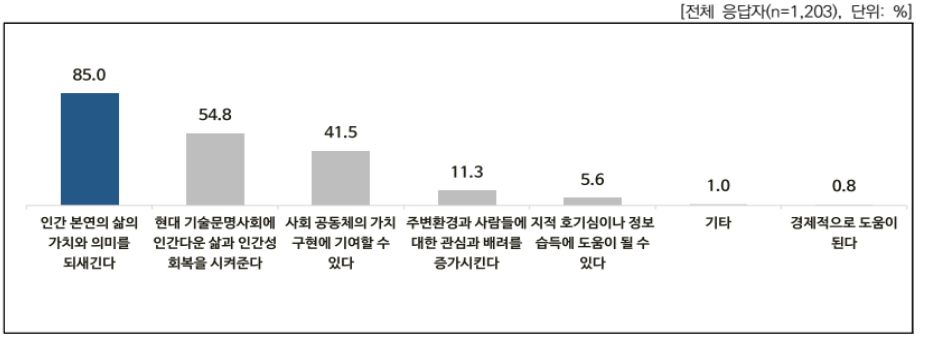
1. 필요성 및 의의

인문학법에서는 인문정신문화를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에 “기반을 둔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무형의 문화적 산물”(법 제2조)로 정의한다. 즉, 인문정신문화란 인간의 근원문제와 관련한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이다. 여기서 근원문제란 인간의 삶 및 인간이 살아가는 공간과 밀접히 관련된다. 이 점에서 지역 및 그곳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주민의 삶은 인문정신문화 정책의 중요한 대상이고, 그 의미와 가치의 제고가 인문정신문화 정책의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2021년 인문정신문화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21c)에서 전문가 대상으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가 중요한 이유를 질문한 결과(1+2순위)에서 인간 본연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힌 것도 지역학과 인문정신문화 정책이 지역과 삶의 의미 제고를 위해 연계할 필요성을 알려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도 지역학과 연계한 정책 방향으로 ‘지역 및 삶의 의미와 가치 제고’가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림 5-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가 중요한 이유(1+2순위)’ 전문가 의견

[전체 응답자(n=1,203), 단위: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1c), 「2021년 인문정신문화 실태조사」, p.151.

지역과 주민들이 걸어온 삶의 의미를 제고하는 것은 그 가치를 높임과 더불어 지역이 처한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소 내지 완화,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과제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과 삶의 의미 제고를 위한 연계'에서는 주변의 일상적인 공간이나 활동, 관심사나 지역의 이슈를 활용하여 주민들이 지역을 이해하고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생각하며 내재화할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기회의 제공은 미래세대에게도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필요성과 의의를 고려하면서 '지역과 삶의 의미 제고를 위한 연계'를 위해 '문화여가 활동과 지역 인문프로그램 연계 강화', '지역의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인문 활동 활성화', '지역교육과정에 지역학 연계 인문프로그램 운영'을 정책방안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방안의 추진에서는 주민들의 참여와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마을이나 공공장소 같은 일상의 공간을 일종의 '인문캠퍼스'로 인식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문화여가 활동과 지역 인문프로그램 연계 강화

가. 추진 방향

인문학법이 규정한 인문교육(법 제13조)의 실시를 위해 각 지역에서 교육적 성격의 인문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왔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인문프로그램들이 주민의 수요를 반영하고 그들의 주체적 참여를 이끌어내는가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문화여가 활동과 인문프로그램 연계 강화'는 중요성이 가장 높게 평가된 방안이다. 이 결과는 인문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문화여가 활동과 연계를 강하게 인식함을 시사한다. 또한 이 방안에 대해서는 경력 5년 미만, 젊은 층이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더 높게 평가하였다. 활동지역의 경우, 수도권 응답자들이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텍스트 마이닝 결과를 보면, 일반 국민의 인문정신문화 정책 관련 수요에서는 문화여가 활동과 연계된 단어나 체험, 탐방 등 그 방식과 관련한 단어가 핵심어로 등장하였다. 이 결과는 문화여가 활동과 인문프로그램 연계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이 있음을 알려준다. 따라서 문화여가 활동과 지역 인문프로그램 연계는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하는 한편, 단순한 흥미나 인문 지식의

전달보다 문화여가 및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한편, 한 연구에서는 신뢰자본 구축으로 건강한 마을공동체의 형성 및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대하는 과제로 은퇴 세대의 참여, 그것을 통한 가족 및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한 노후모델의 형성을 강조한 바 있다(전영수, 2023: 33). 이러한 지적은 문화여가 활동과 지역 인문프로그램의 연계에서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방향이라고 판단된다.

나. 추진 내용

1) 문화여가 활동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문화여가 활동과 지역 인문프로그램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학 성과의 연계 및 그 성과를 활용한 인문프로그램의 선별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지역의 지리적 특성이나 인문정신문화 자원 활용, 주민이 좀 더 쉽게 접근하면서 이해하기 쉬운 주제나 소재 선정 및 문화여가 활동과의 연계를 고려한 프로그램의 선별이 요구된다. 즉, 주제나 소재는 지역학적 성과를 활용하고, 그 방식은 문화여가 활동과 연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문프로그램 운영에서 지역학 성과 연계 및 그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인문네트워크 분류 체계에 '지역'이나 '지역학', 또는 '지역/지역학' 분류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인문프로그램의 개발과 선정에서 함께 고려할 사항 중 하나는 참여자들의 특성이다. 「2021년 인문정신문화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21c: 123)의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가 중요한 이유'에서도 연령별 응답 차이가 존재하였다. 즉, 연령이 높아질수록 본연의 삶의 가치와 의미, 인간다운 삶과 인간성, 주변에 대한 관심과 배려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젊은 세대는 사회공동체 가치에 대한 응답률도 높았으나, 경제적 도움, 지적 호기심이나 정보 습득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따라서 문화여가 활동과 지역 인문프로그램 연계에서도 주 참여층을 고려한 운영 목표와 내용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역학과 연계한 인문프로그램이라는 측면에서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해당 지역만의 특색을 살린 인문프로그램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소재를 활용한 인문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가장 크다는 점은 기존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21c)나 본 연구의 텍스트 마이닝 등을 통해서 확인된 바 있다.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사업

의 성공에서 핵심이 된다. 참고로 2022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중 서울시 소재 마포구립서강도서관이 진행한 "K-마포"는 인문학 강좌와 동네의 재발견을 위한 동네 탐방을 연계 운영한 사례다.

[참고] 2022년 길 위의 인문학 사업: 마포구립서강도서관 "K-마포"

홍대입구를 시작으로 하늘공원, 문화비축 기지, 한국영화박물관, 망원시장, 서울함, 공덕시장까지 마포의 대표 관광지를 돌아 보는 마포시티투어와 시민이 K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마포구의 다양한 예술공간을 탐색한다. 누구나 K-컬처의 주인공이 되고, '보편적 K-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창작자, 발언자, 제작자가 될 수 있으며 그러한 능력을 분출할 방법을 문화 커뮤니티의 거점인 도서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찾아낼 수 있다.

일시 2022. 9. 17.(토) 9:00-13:00
장소 홍대입구~공덕(당일 오전 8시 40분까지 홍대입구 4번 출구에서 집결 예정)
신청 2022. 9. 1.(목) 오전 9시부터
* 강연참가자 우선 접수, 여행자보험 가입을 위해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및 탐방신청서 작성 필요

- "홍대입구를 시작으로 하늘공원, 문화비축기지, 한국영화박물관, 망원시장, 서울함까지 마포의 대표 관광지를 돌아보는 마포시티투어와 시민이 K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마포구의 다양한 예술공간을 탐색했어요."
- "저 마포에 사는데,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는 줄 몰랐어요! 다양한 우리 동네의 매력을 마음껏 느낄 수 있었답니다."

*자료: 마포구립서강도서관(2022), 「2022 마포구립서강도서관ZINE 발견 發見」 정리.

한편, 문화여가 활동과 지역 인문프로그램 연계에서는 새로운 사업 구상보다는 기존 정책사업을 지역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 경우, 지역의 다양한 문화여가시설이나 인문정신문화를 상징하는 장소를 활용하여 〈길 위의 인문학〉과 〈인생나눔〉 등 기존 사업을 연계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지역 인문프로그램 시행에서는 기존에 인문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한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참여자 간 소통과 사업의 안정성이 중요하다.

2) 친근한 장소의 선정과 마을의 인문캠퍼스화

접근성과 참여율 측면에서 문화여가 활동과 인문프로그램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가까이에서 활동이 많을수록 참여할 확률도 높아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기존 문화시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인문학 강좌와 지역 문화유산 탐방을 결합하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지역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 커뮤니티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민들이 친근하게 여기고 잘 알고 있는 일상의 공간과 장소를 활용하여

접근성을 제고하거나 지역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적으로 시설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에서는 다양한 문화시설을 활용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접근성이 좋지 못한 곳에서는 장소 개념을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문화시설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가시설과 복지시설, 주민의 기억이나 지역사적으로 유의미한 공공장소를 포괄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방향에서 지역 인문프로그램이 시행되는 공간을 일종의 인문캠퍼스로 인식하며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마을이나 공공장소는 인문캠퍼스가 되고,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위한 주요 시설은 강의동으로 이해하는 접근인데, 마을학 등에서 진행되어 온 마을학교가 지닌 한계를 넘어 좀 더 체계적인 연계를 전제로 한 것이다. 인문 격차 해소를 위해 2024년에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있는 〈인문행복센터〉를 예로 들면, 이 센터를 둘러싼 마을이나 공공장소가 인문캠퍼스가 되고,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조성된 센터는 일종의 강의동이 된다. 그리고 치유와 우울감 해소, 갈등 완화를 주제로 하는 인문프로그램 개발에서는 지역의 기억에 대한 지역학의 성과나 주민의 기억과 경험 등을 소재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때 '기억이 남긴 상처와 그 치유'가 주제가 될 수 있다. 또한 그 활동 형태에서는 문화여가 활동과 결합하여 기대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참고] 이해관계자 인터뷰 및 설문조사 응답 사례

- "저는 우리 다른 도서관에서 하는 어떤 자극적이고 흥미 위주의 프로그램들은 개인적으로는 반대해요. 그거를 함으로 해서 도서관에 와서 한 번 온 김에 책이나 보고 갈까 혹은 대출을 할까 정도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이어지게 할 수 없다면 안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 건강에 대한 어떤 무슨 프로그램을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복지관에서도 할 수 있고 문화센터에서도 할 수 있어요."(사업 관리운영자)
- "문화시설이 지역의 문턱 없는 학교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함. 타주관부서의 사업에도 동시에 참여하고 있으나 지역민의 인문정신문화보다는 무조건 접근이 용이하고 밝은 분위기의 사진과 후기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많음."(사업 관리운영자)
- "가장 중요한 것은 강사-운영기관-수강생 간의 원활한 소통이라고 생각. 특히 최근 4년간 운영기관이 계속 바뀌면서 운영기관이나 강사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지속적으로 바뀌거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범위가 바뀌는 혼란이 있었음. 주관 기관이 바뀌면서 강사와 운영기관에 공지되는 것들이 계속 바뀌거나 지원 범위가 바뀌어 프로그램 운신의 폭이 계속 변함. 더불어 수강생들에게 프로그램과 전혀 관련 없는 설문조사 등을 진행하여 수업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아직 개발이 끝나지 않은 출석앱 등의 적용 시도 등으로 현장에서 프로그램 운영에 혼란이 가중됨."(인문 활동가)

3) 주민 대상 인문프로그램 심화과정 운영

주민 대상 인문 심화과정에 대해서는 인문정신문화 사업 관계자들이 그 시급성을 높게 평가하였고, 연령별로는 20대 응답자들이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응답자들이 좀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인식하였다. 이 결과는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다양한 인문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고, 좀 더 심화된 강좌 등에 대한 수요가 있음을 반증한다. 따라서 심화된 인문프로그램 수요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지역학 성과를 반영한 심도 있는 주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주민의 주체적 참여에 의한 심화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서 기존에 인문프로그램 수요가 적은 곳에서는 일상과 연계된 친근한 프로그램을 통한 접근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빅데이터 텍스트 마이닝 결과를 보면, 인문프로그램 체험자들이 지역과 연계된 경험을 의미 있게 평가한 점은 유의미하다. 즉, 상대적으로 인문프로그램 수요나 수가 부족하지만,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정주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강좌보다는 일상 영역에서 자기 삶을 되돌아보며 지역과 주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심화과정의 기획이 중요하다.

최근 지역학 프로그램에서 많이 나타나는 마을이나 장소, 사건 혹은 삶의 기억에 대한 글쓰기뿐만 아니라 관계성에 주목한 '인맥지도 그리기'를 한 예로 들 수 있다. '인맥지도 그리기'는 지역의 인문자산으로서 역사인물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지역을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관계망으로 파악하고, 그 속에서 관계의 주체인 주민들의 특성과 장점을 이해하려는 성격의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가 가진 역량을 공유하며 협력 경험을 갖게 하자는 것이다. 기존 인문프로그램 선정에서도 이처럼 지역 특성과 수요, 주민 참여에 기반한 프로그램에 가중치를 주는 등 사업 운영에 변화도 요구된다.

[참고] 이해관계자 인터뷰 및 설문조사 응답 사례

- "인맥지도 그리기 그걸 넣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역하면 물리적 공간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지역이 의미가 있으려면 또는 문화적 활동들이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아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동안은 인맥 하면은 아주 경제적이고 그다음에 이 심리적인 관점에서 인맥들을 파악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한 지역에서 일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인맥 또는 관계 이건 도대체 뭘까 이 질문을 잘 해보면 굉장히 풍요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각자가 도대체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갖게 된 전문성도 있을 거고 그 사람의 장기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성품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좀 파악이 되면 훨씬 더 풍요롭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인문 활동가)
- "자기를 돌아보는 글쓰기를 하다가 보니까 당연히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을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지역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더라고요. 어쨌든 그 인문학의 가장 그 본질이잖아요. 자기가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 안다는 거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접근하느냐의 문제인데 좀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인문 활동가)
- "지역에서 보면 협력을 한다는 것에 대한 경험이 너무 없어서 그 속에서 벌어지는 갈등이라든지 책임과 의무를 행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경계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활동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협력의 경험을 쌓는 겁니다, 그 경험을 쌓았을 때 다른 것을 더 해볼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했거든요."(인문 활동가)

다음으로 지역학연구센터나 연구소 등에서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 등을 주제로 한 대중서, 마을지 등을 발간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물을 인문프로그램 교재로 적극 활용하여 친근한 소재와 주제로 자신과 마을 혹은 공동체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춘천학연구소의 경우, 2029년 완료를 목표로 25개 읍면동에 대한 마을지를 편찬하는 한편, 매년 50명을 대상으로 구술조사하고 그 결과를 구술채록집으로 제작하고 있다. 채록집은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일반 공개하지 않으나, 지역에 변화를 가져온 주요 사건 등을 중심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과를 활용하여 주민들이 지역의 주체로서 자신들의 삶을 기억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3. 지역의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인문 활동 활성화

가. 추진 방향

본 연구의 이해관계자 인터뷰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지역학이나 인문정신문화 사업이 지역의 사회문제 해소에 직접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야가 지역 및 삶의 의미와 가치를 제고하는 활동을 통해서 지역의 사회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인문 활동가들은 현장에서의 인문 활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과 교육에 큰 가치를 두고 있었다.

따라서 '지역의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인문 활동 활성화'는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직접적인 활동이나 그 활동과의 연계 자체에 방점을 두기 보다는 그러한 활동에 인문정신문화가 융합되어 녹아들 수 있도록, 혹은 지역 정신 등 인문자산의 발굴을 통해 사회문제 해소 내지 완화의 토대를 제공하는 방향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지역의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인문 활동 활성화는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와 사회적 연대를 높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회적 갈등 해결과 치유를 통해 지역사회의 화합을 촉진하고, 지역학 연계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여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나. 추진 내용

1) 지역학과 연계한 〈청년 인문실험〉 성과 활용 고도화

인문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 접근은 지역학과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지향과 직결된다. 따라서 지역사회가 더욱 통합된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학과 연계하여 지역의 사회문제를 다루는 인문 활동 활성화 모델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청년 인문실험〉처럼 실험적이고 탐색적인 사업의 확대와 지속도 요구된다.

〈청년 인문실험〉은 제2차 기본계획의 추진과제인 '참여형 · 사회 문제 해결형 인문 활동 확대'의 일환으로 계획되었다. 그 개념은 "생활 속 개인 및 사회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살펴보며, 인문적 관점에서 탐색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청년 주도 인문 리빙랩(Living lab)"이다. '청년 스스로 배움과 돌봄,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는 탐구활동, 소통과 상호이해를 통해 관계회복과 공동체의 행복을 디자인하는 실천활동, 상상력 · 다양성 · 도전의식을 바탕으로 사회문제의 대안을 모색하는 실험활동'[24]을 지향한다.

[참고] 2024년 기준 〈청년 인문실험〉 사업 내용

•사업목적: 청년 스스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성찰, 생활 속에서 주체적인 인문 활동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새로운 인문적 가치 창출 모색

구분	주요내용
주제	자유주제(문화, 공간, 공동체, 환경, 일상, 사회, 노동, 가치 등)
유형	제한 없음(기록, 프로젝트, 행사, 방송, 동아리 운영, 캠페인, 연구, 공연 등)

•사업성격: 청년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문제부터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까지 다양한 의제를 인문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청년의 상상력으로 해법을 찾아보는 탐구적 실험 활동 지원

•공모개요
- 지원자격: 만 39세 이하 청년 3인 이상으로 구성된 팀(1984.1.1. 이후 출생자)
- 지원규모: 청년 인문실험 100팀
- 지원내용: 실험비 200만원/팀 지원
- 필수활동: 교류활동(2회), 멘토링(1회) 결과보고(월간 활동일지, 결과보고서, 결과물, 사례집 원고)

구분	교류활동	멘토링
내용	인문탐구생활(2회) - 전체 교류활동: 사업소개와 100팀 실험공유 - 지역 교류활동: 지역별 실험팀 네트워크	온라인멘토링(1회) - 협력기획자와 함께하는 온라인멘토링

*출처:「2024년 청년 인문실험」 공모 안내 참조 정리.

〈청년 인문실험〉이 추구하는 탐구, 실천, 실험이라는 방향은 단기적인 성과보다 지속성을 가지고 청년들이 지역과 사회의 문제에 접근할 때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24)「2024년 청년 인문실험」 공모 안내 https://www.arko.or.kr/board/view/4013?bid=463&cid=1808097&sf_icon_category=cw00000019(2024.7.30. 최종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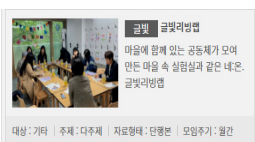
중장기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 즉, 사업의 지속성이 중요하다. 또한 인문실험의 경험이 지역 문제에 실질적인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적용 모델을 만드는 고도화 지원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고도화 과정에서는 심도 있는 지역 이해를 위해 지역학과의 연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2) 지역 공동체 인문프로젝트

〈청년 인문실험〉 고도화의 일환으로 지역 공동체 인문프로젝트 추진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 시민협업형 사업을 좀 더 지역 공동체에 집중하고, 청년들의 탐구적 실험 활동의 결과와 성과를 지역 공동체에 확대하여 적용해 보는 것이다. 즉, 실험 활동의 결과를 지역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인문학 또는 인문정신문화 사업과 결합하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지역의 사회문제를 고민하며 실험 활동의 성과를 적용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주민들이 자신이 속한 지역과 공동체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지역 문제 해결에 나서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청년과 주민, 주민과 주민 간 소통을 촉진함으로써 주민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과 사람들을 새롭게 인식하고, 지역의 가치에 자부심을 가지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성북구립도서관의 〈네트워크: 온(ON)〉은 도서관을 기반으로 마을의 기관 및 단체, 독서동아리 대표가 함께 일상의 고민과 마을의 의제를 놓고 논의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 사례로 알려져 있어 참고가 된다.

[참고] 성북구립도서관의 도서관 기반 마을 네트워크:온(ON)



〈글빛리빙랩〉

- 구성원 : 성북문화재단 글빛도서관, 길음1동 주민센터, 길음1동 주민자치회,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성북문화원, 시립성북청소년성문화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7호점, 좋은소리유치원 등 8단체 16명
- 활동현황 : 2024 성북구 어린이 ICT 올림피아드 경진대회 및 시상식, 체험전 운영 등

〈달빛청년넷〉

- 구성원 : 달빛마루도서관, 동덕여자대학교 동아리(문정성시, 사心가득, 이카로스) 등 4단체 33명
- 활동현황 : 지역대학 청년들과 도서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지역공동체 기록 전시 플랫폼 달빛 아카이브 조성 협력(구술인터뷰 기록, 채록 및 참여관찰 기반으로 주제정보원 및 참여형 전시 등 도서관형 플랫폼 구축)

*자료: https://www.sblib.seoul.kr/library/menu/12908/program/30400/companionList.do?currentPageNo=2&companionIdx=11 (2024.8.20. 최종 검색).

4. 지역교육과정에 지역학 연계 인문프로그램 운영

가. 추진 방향

인문교육 및 인문정신문화가 지향하는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서는 학교교육과의 연계와 그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지역의 역사·문화를 이해하고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에 제7차 교육과정 시기에 초등교육에서 지역교육을 포함한 것은 유의미하다. 지역교육과정은 "학교와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학습생태계 안에서 학생들이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 주민이나 지역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맥락적인 경험을 통해 배우고, 앎과 삶을 통합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교육과정"[25]으로 정의된다. 이와 같은 지역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지역 이해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양성, 학생들의 창의성 및 문화적 다양성의 제고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지역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지역학 기관·단체 중에는 적극적으로 교육지원청 등과 협력하여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전자의 경우, 지역화교재를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하거나, 지역화교재 개발에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교육과정 참여나 인문프로그램 연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교재 개발 협력을 넘어서 지역의 인문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역교육과정과의 적극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나. 추진 내용

지역학 연계 인문프로그램을 지역교육과정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으로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 또는 학교 밖 활동과 연계하는 방식의 운영이 필요하다. 학교 밖 활동에서는 인문 소양의 전달과 같은 지식 습득 위주가 아니라 인문자산으로서 중요한 장소에 대한 탐방과 그 탐방경험에 대한 기록 활동이 중요하다. 장소에 대한 기록들은 해당 장소의 의미를 풍부하게 할 수 있다. 특히 학생들이 지역 내 장소를 기억하고 기록하는 과정에서 장소와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정주의식 내지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계를 활성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길 위의 인문학〉과 지역교육과정의 연

25) https://www.gwe.go.kr/main/content.do?key=m2307210632817(2024.8.20. 최종 검색).

계 활성화를 들 수 있다. 즉,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연계 방식을 벗어나 지역교육과정에 〈길 위의 인문학〉을 결합하여 운영하고, 이를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이 지역 단위에서 용이할 수 있게 인문네트워크의 프로그램 분류에 '지역'이나 '지역학', 또는 '지역/지역학' 분류를 포함하는 것과 함께 지역사회 연계 방식(대상, 장소 등)에 대한 고려도 요구된다.

지역교육과정 연계를 위해서는 체험형 인문콘텐츠 개발 모델 창출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기존 도서 형태 교재 개발을 넘어서 형식적·내용적 측면에서 답사·여행콘텐츠, 디지털콘텐츠 등 다양한 형식의 지역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과 음악, 공연,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개발을 위한 전문가 협업 지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 성공 모델을 발굴하여 지역교육과정의 인문프로그램 및 인문콘텐츠 활용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또한 인문프로그램 운영에서는 지역의 역사·문화에 대한 이해도, 학생들의 취향과 수준을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 등 강사로서 인문 활동가의 역량이 중요하다. 따라서 아래에서 다룰 '인문프로그램 운영자 대상의 지역 이해 교육 운영' 시에 이러한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참고] 이해관계자 인터뷰 사례

- "여행콘텐츠 이런 것을 다양하게 해서 학생들이 현장 답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지역의 대표 콘텐츠를 가지고 선생님이 역사·인문자원을 배경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도서 책 중심의 그런 문헌 중심이 아니라 다양하게 접근하기 쉽게끔, 예를 들어서 그런 음악 공연, 애니 이런 쪽으로. 저희도 초등학교 교재들은 만화 형식으로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관심을 좀 끌고 한 번쯤은 읽어볼 수 있고 한 번쯤 참여해 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는 그런 교육 방법(이 중요한 것 같아요."(지역학 관계자)
- "지역 학교에 대한 관심, 또 그걸 통해서 지역에 대한 어떤 이해, 지역 정체성에 대한 어떤 의식들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는 옳다고 봐요. 그것이 체험적인 어떤 성격이 강하든 강좌적인 성격이 어쨌든, 제가 볼 때 〈길 위의 인문학〉은 잘하고 있지 않나.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지역학 관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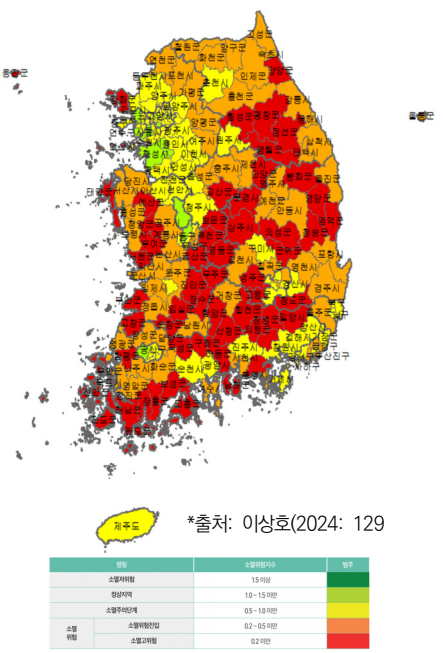
제3절 지역 인문정신문화 발굴·공유를 위한 연계

1. 필요성 및 의의

인문학법에서는 인문정신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가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고, 관련 정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등)'에서는 기본계획에 인문정신문화 관련 유형·무형의 자산 발굴 및 연구·보존, 인문 콘텐츠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지원·관리를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제16조(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확산)'에서 이를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즉, 이와 같은 법률 규정은 지역 인문정신문화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것이 중요한 토대 구축 사업임을 알려준다.

한편, 정책적으로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지역의 소멸 위기는 가장 중요한 정책적 화두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89개 시군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소멸위험지역은 2024년 3월 기준 18개 시·도 중 8개, 228개 시군구 중 130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상호, 2024).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등의 법제화를 통해서 해당 지역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림 5-4] 소멸위험지역 현황(2024.3. 기준)



*출처: 이상호(2024: 129

지역의 쇠퇴와 소멸 위기는 문화정책에서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지역

과 주민의 기억 및 장소성에 주목하고 지역쇠퇴에 대응하여 소실 위기의 지역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사·수집·보존할 필요성이 제기한다. 지역의 기억과 자산을 보존하고, 그것을 통한 지역의 회복과 재생을 위한 기반 마련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이 지역학이다(노영순·이상열, 2018). 이처럼 지역 인문정신문화의 발굴과 공유에서 지역학과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연계는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본 연구의 인터뷰나 설문조사에서도 이해관계자 집단에 상관없이 지역학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지역 인문정신문화의 발굴과 공유'가 두 분야 간 상호 관련성이 가장 크다고 평가되었다. 두 분야가 연계하여 지역 인문정신문화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것은 인문 가치를 지역사회에 확산하고, 우리 사회가 처한 지역소멸 위기라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필요성과 의의를 고려하면서 '지역 인문정신문화 자료 발굴·수집·보전 지속 추진', '인문프로그램 운영자 대상의 지역 이해 교육 운영', '생활인구 대상의 지역 이해 및 인문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역학 연계를 위한 인문협력체계 구축'을 정책방안으로 설정하였다.

2. 지역 인문정신문화 자료 발굴·수집·보전 지속 및 체계화

가. 추진 방향

지역의 소멸 내지 쇠퇴에 대응하여 문화정책이 중요하게 고려할 것 중 하나가 "가까운 미래에 '유산'이 될 오늘날의 지역 내 유·무형 자산과 문화를 재조명하고 전승·활용"(노영순·이상열, 2018: 148)하는 것이다. 인문정신문화 측면에서도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며 지역의 역사·문화 이해, 지역 정체성 및 주민의 자긍심 제고에서 유의미한 지역 인문정신문화 자료를 발굴·수집·보전하는 것은 지역의 위기에 대응하여 시급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枝川明敬, 2009).

지역 인문정신문화 자료 발굴·수집·보전 및 활용은 기존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제2차 기본계획은 '지역 인문 자원 발굴·활용 및 기반 강화'를 포함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인문 자원 발굴에 '지역 인문 자원 기반 문화 콘텐츠 개발, 지방 문화원 소장자료 디지털화 지원, 지역 소재 국학

자료 수집 · 활용 지원'을 포함한다. 기반 강화를 위한 '지역 국학진흥기관 확대'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은 본 연구에서 도출한 '지역 인문정신문화 발굴 및 공유'라는 정책방향과 매우 밀접하다. 따라서 기 시행되는 정책의 강화 및 개선을 중심으로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추진 내용

1) 소멸 위기 지역 대상의 자료 조사 · 수집 및 디지털화 지속 추진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지역학 관계자들은 '지역 인문정신문화 자료의 수집 · 보전 · 활용 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가장 크다고 평가하였다. 이 결과는 지역학과의 연계에서 지역 인문정신문화 자료가 중요한 매개이자 두 분야가 함께 관심을 두어야 할 대상임을 알려준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인문정신문화 사업과 타 인문학 사업의 차별성에 대해 "타기관 혹은 부처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과 달리 문화자원의 아카이빙과 체험성을 전제하는 프로그램은 다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다른 주요 특성임."(지역학 관계자)이라는 응답은 활용의 전제로서 아카이빙의 중요성을 잘 알려준다.

또한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지역 인문정신문화 자료의 수집 · 보전 · 활용 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은 비수도권 응답자에게서 더 높게 평가되었다. 이 결과는 소멸 위기에 더 가까이 있는 비수도권에서 자료의 수집 · 보전이나 관리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상황을 상대적으로 잘 알고 경험도 한 지역학 관계자들이 해당 방안의 시급성을 높게 평가한 것도 당연하다.

따라서 지역소멸의 위기나 도시개발로 급변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자료 수집 · 보전을 추진해야 한다. 이 때, 국학진흥기관과 지역의 지역학 관계 기관 · 단체의 협력 모델을 발굴하는 지원사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성과로 발굴된 인문정신문화 자료 등을 '지역의 기록문화유산, 인문정신 등 인문정신문화를 잘 보여주는 유 · 무형의 문화자산인 인문유산'(이상열, 2013: 138)으로 인식[26]하고 보존하는 한편, 그 공유와 활용을 위한 디지털화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필요하다.

---

26)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예규 제306호, 2024.3.19., 일부개정)에서는 '인문국가유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여기서 '인문국가유산'이란 "유적 및 건조물 등과 같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가공된 국가유산을 말한다."고 다소 협소하게 정의된다. '인문국가유산'이라는 용어는 기존에 '인문유산'으로 쓰였고, 국가유산 개념의 도입에 따라서 용어가 변경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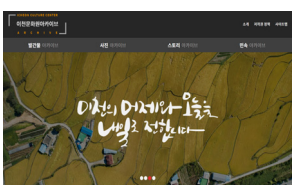
2) '민간 기록문화 통합 서비스 플랫폼'과 지역학 자료 플랫폼 연계

'국학 진흥 정책기반 조성사업'의 지원을 받는 국학진흥 기관들은 2023년부터 '민간 기록문화 통합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각 기관에 분산된 민간 기록문화 자료의 검색과 연계 활용을 위한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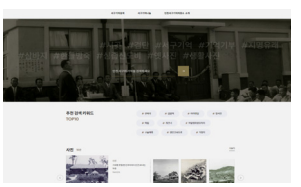
다른 한편에서 지역학 관련 기관·단체들도 해당 지역과 관련한 공식기록물뿐만 아니라 민간 기록문화 자료의 발굴·조사·연구와 함께, 해당 자료의 수집·보존과 디지털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춘천문화원 춘천학연구소의 춘천디지털기록관(https://cc-archives.or.kr), 이천문화원의 이천아카이브(http://2000archive.or.kr) 구축 사례 등이 존재하고, 충주문화원의 지역자료 아카이브 추진처럼 추진 중인 사례들도 있다. 이러한 지방문화원의 아카이브 구축은 제2차 기본계획의 '지방 문화원 소장자료 디지털화 지원' 및 각 지역의 자체적인 아카이브 추진 필요성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지방문화원의 지역자료 아카이브는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역N문화' 누리집 내 '지방문화원 자료'(https://www.nculture.org/res/resourcesList.do)와도 일정 정도 연계되어 지방문화원 소장 지역자료의 목록과 원문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지방문화원의 지역자료 아카이브는 수도권 소재 지방문화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다. 따라서 중단기적으로는 보다 명확한 선정 기준 하에 '지방 문화원 소장자료 디지털화 지원'의 지속성 확보가 필요하고, '민간 기록문화 통합 서비스 플랫폼'과 지방문화원 구축자료를 연계한 통합검색 서비스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참고] 지방문화원의 지역학 자료 아카이브 구축 사례

춘천디지털기록관
https://cc-archives.or.kr
(강원 춘천문화원)



이천아카이브
http://2000archive.or.kr
(경기 이천문화원)



서구기억저장소
https://www.inscc.kr/archive
(인천 서구문화원)

이 외에도 지역 소재 공립 및 민간 박물관도 민간 기록문화 및 지역자료를 다수 소장하고 있으며, 그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 및 디지털아카이브로 구축하고 있거나 구축 중이다. 제주학연구센터같은 일부 지방자치단체 지역학연구센터에서도 유사한 성과들이

축적되고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기록문화 등 지역학 자료를 국가 및 지역 단위의 인문자산으로 인식하고, 통합적인 연계와 활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최근 인공지능 검색 기술 발전은 이러한 정책의 추진을 과거에 비해서 용이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3) 민간 기록문화와 지역자료 수집 · 보존 ·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민간 기록문화 및 지역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 보존하고 그 성과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기반 마련도 중요하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또는 유사 법안이 제22대 국회에서도 발의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법제화 추진 시, 민간 기록문화만이 아니라 지역자료까지 그 개념을 좀 더 확장하여 연계하는 조문을 포함함으로써 상호 연계와 활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민간 기록문화나 지역자료의 발굴 · 조사 · 수집 및 그 보존과 연구는 장기적인 관점의 접근과 정책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학 진흥 정책기반 조성 사업' 등 관련 정책사업의 지속성 확보와 안정적인 성과 축적을 위해 성과평가 개선이 필요하다. 즉, 이러한 정책사업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여 중장기 추진사업과 단기 추진사업으로 범주화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때 전자에 대한 성과평가는 중장기 평가로 전환하고, 정성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정량평가에서도 연간 평가방식보다는 수년 단위의 중기 평가방식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참고] 이해관계자 인터뷰 사례

- "투 트랙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쪽은 콘텐츠를 완전히 대중과 직접 접촉하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단계하고, 그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재료적인 거, 반 가공된 그런 재료를 만들어서 서빙하는 거하고. 예를 들어서 강원국학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주로 자료를 모아서 디비(DB)화하고 해제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럼 이제 작가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자기 작품을 만든다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이 원 소스를 취급하는 기관들 보고 마지막 단계의 성과가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게 이제 사실 난감한 거지 그런 것들."(국학진흥기관 관계자)

4) 인문정신문화 사업성과 데이터의 표준화 및 서비스

문화체육관광부의 분석 결과(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참조), 5개 정책사업(인문네트워크,, 인문360, 청소년 인문 · 문화프로그램,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데이터베이스 표준화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도서관협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박물관협회가 각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통합관리 등을 위한 표준화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문정신문화 사업성과의 체계적인 연계와 축적을 위한 표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데이터 표준화와 함께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성과와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품질 관리와 정보서비스, 행정적인 정비도 중요하다. 인문정신문화 사업 참여자나 지역의 연구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주요 성과와 데이터를 파악하고, 지역사회에서 관련 사업을 전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성과가 다시 축적될 수 있게 환류하는 데이터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서 인문자원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인문프로그램 및 사업의 질적 제고를 도모할 수 있다.

[참고] 설문조사 응답 사례

- "데이터베이스 확보 및 성격이 다른 기관이나 단체 간 협력이 용이하도록 통일된 예산 사용, 서식 등 기준 제시 필요. 지역 내에 아주 다양한 성격의 단체들이 많고 각기 사용하는 기준이 다르므로 최대한 통일된 기준과 서식 등을 누적해가면 좋겠음."(사업 관리운영자)

3. 인문프로그램 운영자 대상의 지역 이해 교육 운영

가. 추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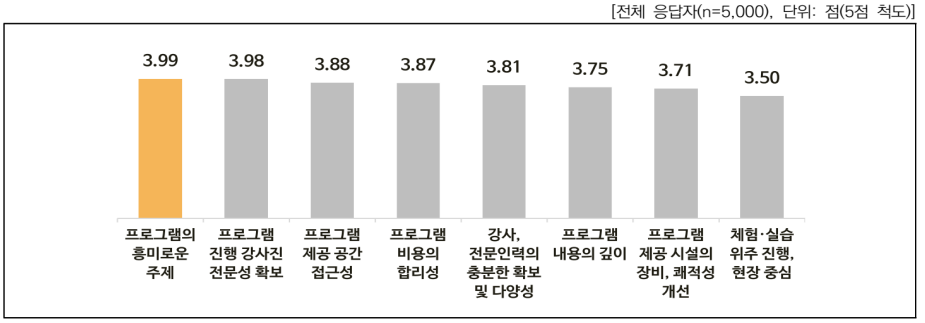
지역학 정립 과정은 "지역에 관심을 가진 많은 연구자가 생기고, 상당한 지역연구 결과물이 축적되고, 궁극적으로 그동안 생산된 지역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여 지역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체계가 마련되는 것이다."(고상두, 2021: 28). 즉, 지역학의 진흥 및 지역학이 지향하는 지역 정체성과 자긍심 향상을 위한 주요한 기반은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이다. 이것은 지역학과 연계한 인문프로그램의 운영에서도 요구되는 사항인데,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는 20대 연령에서 중요하다는 응답률이 특히 더 높았다.

한편, 「2021년 인문정신문화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21c) 결과를 보면, 일반 국민은 인문 관련 프로그램 개선 및 보완점에 대해 '프로그램 주제', '강사진의 전문성', '프로그램 공간 접근성' 등을 대체로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또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확산이 어려운 이유로는 '내용이 어렵고 추상적이기 때문에'를 꼽았다. 본 연구에

서 인문프로그램 체험자 만족도조사를 활용한 텍스트 마이닝 결과에서도 인문프로그램 체험자들은 지역과 연계된 경험을 의미 있게 평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보면, 지역 인문프로그램 운영 시에는 주제의 선정과 이를 뒷받침할 강사의 역량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알 수 있다.

[그림 5-5] 인문 관련 프로그램 개선 및 보완점

[전체 응답자(n=5,000), 단위: 점(5점 척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1c), 「2021년 인문정신문화 실태조사」, p.84.

따라서 '인문프로그램 운영자 대상의 지역 이해 교육 운영'은 우선 기존 인문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문 활동가가 지역과 관련한 전문성을 심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에서 양성되고 있는 지역학 관련 인력이나 활동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 상황이다. 소멸 위기 지역에서는 지역 내 전문인력 확보가 쉽지 않으나, 이와 같은 방안의 추진을 통해서 좀 더 지역 이해도가 높은 인력을 양성하고 기존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기대된다. 또한 두 분야를 연계하는 인력의 확충과 두 분야 간 상호 이해 제고도 기대할 수 있다.

나. 추진 내용

1) 인문 활동가 대상 지역이해 교육 운영

지역학 관계자 중에는 인문학 기반의 전문인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문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문 활동가 중에도 지역학 관계자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와 같이 양 분야의 특성을 모두 지닌 인문 활동가가 아닌 활동가, 특히, 이 방안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한, 인문 활동가로서 경력이 오래되지 않는 젊은 활동가를 우선 대상으로 지역 이해 제고를 위한 심화교육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심화교육에서는 지역의 이슈를 고려한 교육 주제의 선정과 함께 관련 주제를 발굴하고 활용하는 기획역량 강화교육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만,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지역학이 활성화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필요한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그러한 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지역의 인문 활동가들을 위해서 국학진흥기관이나 지역학연구센터 등 광역 단위의 기관과 협력하여 교육공간이나 자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지역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 교육과 더불어 인문 활동가들이 지역학이나 인문정신문화 관련 기관·단체와 교류하는 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교류의 장을 통해서 지역의 특성과 교육에 필요한 자원, 지역 및 지역 인문정신문화의 특성을 고려한 주제의 발굴과 실현 가능성 등을 사전에 점검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교류의 장으로 지역 단위에서 행해지는 인문 관련 행사를 활용하거나 〈인문문화축제〉 등의 대표 행사를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개최된 〈제1회 인문문화축제〉의 경우, '시대가 묻고 인문이 답하다'를 주제로 공연, 강연, 기존 정책사업 등 체험부스 운영, 어린이 대상 체험을 위한 어린이인문관 운영으로 진행되었다. 2024년 축제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러한 축제를 활용하여 '인문 활동가 만남과 교류의 장' 마련이 인문프로그램의 질적 제고나 사회적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지역 양성 지역학 관련 인력 대상 교육 운영

최근에 지역학연구센터나 지방문화원 등이 시민기록가, 구술채록가 등 지역 아키비스트 양성을 추진하는 사례들이 발견된다. 지역 아키비스트 양성은 선행연구(노영순·이상열, 2018)에서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양성된 인력 중에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도 있으나, 기초적인 소양과 방법만 익히고 활동하는 인력들도 있다. 이로 인해서 양성 인력의 전문성 제고가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양성된 인력이 지속 활동하기 위한 사업의 발굴 문제도 대두된다.

지역 단위에서 양성된 인력은 지역학 분야의 인력이며, 인문 활동가에 대한 교육처럼 이들에 대한 인문정신문화 이해 교육의 필요성도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양성된 인력이 지역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지닌 인문 활동가로 성장하고, 그러한 인력이 다시 전문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 활동함으로써 지역 간 인문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된다.

한편, 최근에 지역에서 양성되는 인력에 대한 현황 파악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인력 양성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인력 양성 및 활용을 위한 조사 연구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4. 생활인구 대상의 지역 이해 및 인문체험 프로그램 운영

가. 추진 방향

소멸 위기 지역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의 정주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생활유형의 변화를 고려한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생활인구'는 이러한 이슈에 대응하고 통신·교통의 발달 등으로 이동성·활동성이 증가한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도입된 개념이다.[27] 생활인구가 지역에 실질적인 활력이 되고 정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해당 지역에 관심을 갖게 하고 자신과 그 지역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계기 마련이 중요하다. 이 지점에서 '생활인구 대상의 지역 이해 및 인문체험 프로그램 운영'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의 텍스트 마이닝에서 확인하였듯이, 인문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체험, 탐방처럼 참여자 수요가 높은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설문조사 결과, '생활인구 대상으로 지역 이해 및 인문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매우 시급하다는 응답률은 활동지역이 수도권인 응답자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41.0%). 중요성도 수도권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생활인구가 많지 않은 곳에서는 이 방안의 실효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알려준다. 따라서 생활인구에 국한하지 않고 관계인구로 확장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관계인구란 우리보다 앞서 지방소멸 위기를 겪어 온 일본에서 도시민이 농촌 지역과 맺는 관계성을 주목한 개념이다. 관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포용함으로써 정주인구 증가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지역 활성화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받는다(류영진, 2020).

---

27)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23-33호)에 따르면, 주민등록인구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 통근, 통학, 관광, 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루에 3시간 이상 월 1회 이상 머무는 사람과 외국인등록인구 등이 포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규정에 따라 2023년에 7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시범 산정하고, 2024년부터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

나. 추진 내용

1) 생활인구의 지역 이해 제고 프로그램 운영

생활인구는 통근, 통학, 관광 등을 위해 지역에서 체류하는 인구다. 그중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아온 대상은 관광 목적의 생활인구다. 텍스트 마이닝에서도 나타났듯이, '인문여행'에 대한 수요도 지속되고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체험 프로그램 운영에서는 지역의 인문정신문화 특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장소를 중심으로 인문여행 형식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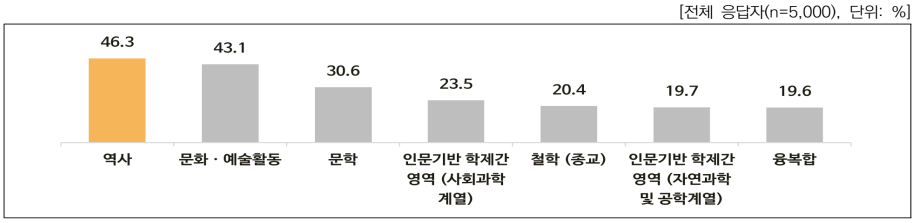
그러나 지역학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사업 발전을 위해 더욱 주목할 대상은 통근·통학 인구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각 방안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한 경향인 20대 응답자에게서 '생활인구 대상 지역 이해 및 인문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률이 타 연령보다 월등히 높은 64.3%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20대 연령층의 인식 및 상황, 젊은 세대의 이동 특성과 관련되고, 그들이 체험적이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젊은 층 통근·통학 인구를 주요 대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생활인구 대상의 지역 이해 및 인문체험 프로그램 운영'의 목표는 생활인구의 참여를 늘리고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데 있다. 그리고 운영 프로그램의 주제는 지역학 성과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선정하되, 일반 국민의 선호도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인문정신문화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21c) 결과, 일반 국민은 향후 참여 희망 프로그램 분야(복수 응답)에서는 역사가 46.3%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문화·예술활동 43.1% 등의 순이었다. 이것은 일반 국민은 역사·문화나 문화·예술 기반 체험프로그램 선호도가 높음을 알려주는데, 본 연구의 텍스트 마이닝 결과도 이와 유사하였다. 따라서 통근·통학 인구 대상 프로그램 운영에서도 지역학이나 인문학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자신이 생활하는 지역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그 의미를 생각하고 경험할 수 있는 체험과 현장 중심 프로그램 운영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 운영공간은 일반 강의실이 아니라 역사적 장소처럼 탐방과 결합할 수 있는 공간을 중심으로 할 때, 지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강의실 같은 시설을 활용할 때에는 문화시설에 한정하기 보다는 생활인구의 접근성이 높은 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친근감과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

[그림 5-6] 향후 참여 희망 프로그램 분야

[전체 응답자(n=5,000), 단위: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1c), 「2021년 인문정신문화 실태조사」, p.120.

2) 관계성 제고를 위한 관계인구 대상 프로그램 운영

일본에서 관계인구는 '관심'과 '관여'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개념이다. 관계인구가 지역에 새로운 자극이 되기도 하지만, 갈등의 원인이 된다고 인식하여 비판적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반복적인 '관심'과 '관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지역으로의 이주와 정주가 가능하다고 본다(류영진, 2020).

관계인구를 대상으로 한 지역 이해와 인문체험 프로그램에서는 특히 출향인 대상의 운영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때 그들이 기억하는 장소와 그 장소에 대한 기억은 프로그램의 중요한 소재가 된다. 예를 들어, 장소에 대한 그들의 기억을 글로 옮기고 기록하고, 그 장소를 탐방하며 장소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장소를 기억하고 기록하는 과정에서 장소와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관계인구의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 이해 및 인문체험 프로그램의 결과는 생활사, 구술사 내지 생애사 등에 관심을 기울이는 지역학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자료 수집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기억의 오류나 왜곡 가능성도 있으므로, 수집된 기억 자료의 사실 관계 검토나 연구 등을 거친다면 이야기자원 등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더욱 풍부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이해관계자 인터뷰 사례

- "나중에 몇 년 뒤에 저기 창동역에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큰 역사를 짓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모아다가 글을 써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저희 도서관의 주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향토자료를 모아야 하잖아요. 수집을 한다는 게 너무 수동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능동적으로 만들면 안 될까, 수집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있어요."(사업 관리운영자)
- "저는 지역학이라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했을 때, 굳이 따지면 조선왕조실록이 아니라 거기서 사는 주민들의 일기 같은 거죠, 지역학이라는 게. 그래서 여기에 살던 일반 시민들이, 예를 들면 구청에서는 어떤 특정 A라는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에 남겼는데 그 A라는 사건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들이 남긴 어떤 글과 합쳐져야 그게 온전해지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해요)."(사업 관리운영자)

5. 지역학 연계를 위한 인문협력체계 구축

가. 추진 방향

지역학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에 소재한 다양한 지역학·인문정신문화 관계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인문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그러나 지역학연구센터나 지역학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학협력체계에 비해서 인문정신문화 정책과 관련한 협력은 국학진흥협의체를 제외하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인문정신문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담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각 사업 주관단체 간 느슨한 협력 관계가 존재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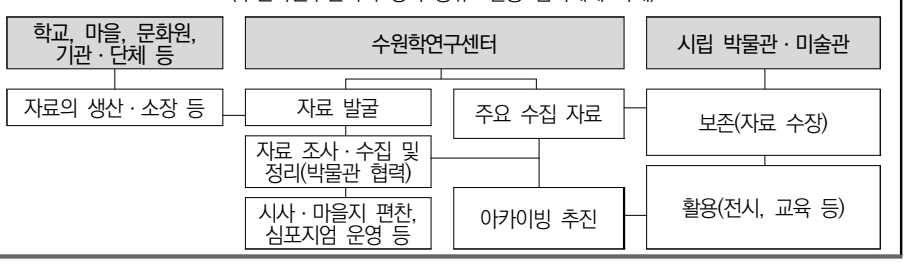
지역학이 참여하는 인문협력체계 구축에서는 지역 인문정신문화 자료의 가치를 제고하고 공유하려는 인식이 중요하다. 지역에서 배태되고 전승·발전해온 인문정신문화를 공유하는 것은 그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재생과 활성화, 관광 등의 지역 진흥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枝川明敬, 2009).

또한 이러한 인문협력체계 구축에서는 각 지역 및 관련 기관·단체의 특성에 맞게 협력하려는 인식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이해관계자 인터뷰에서 지적된 것처럼, 지역에서 지역학 관련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사업 중복, 기관 간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상황은 각 지역에서의 지역학 진흥 여건 및 관련 기관·단체의 사업 추진 역량이나 환경을 고려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학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사업 추진에서도 유사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의 상황이나 각 기관·단체의 기능과 자원 등이 상이함을 인정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 지역학 협력체계 구축 사례: 수원학연구센터

- 자체적인 자료 정리·보존이 어려운 기관·단체 등에 대한 자료 조사·수집 및 정리(박물관 협력) 추진
- 주요 수집 자료의 시립 박물관·미술관 위탁 또는 이관을 통한 보존(수장), 해당 자료의 박물관·미술관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활용 등

〈수원학연구센터의 성과 공유·활용 협력체계 사례〉



다만, 인문정신문화 전담기관이나 사업 운영기관들의 지역학 내지 지역 인문정신문화 관련 기관·단체 연계성은 크기 않다. 즉, 기존의 인문정신문화 전담기관과 협력이나 전달체계 내에 그들을 포괄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지역학과 연계를 고려할 경우에는 지역 단위에서 각 기관·단체의 특성을 고려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나. 추진 내용

1) 기관·단체 특성을 고려한 협력체계 구축

지역의 지역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기관·단체에는 국학진흥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지역학연구센터, 지방문화원의 지역학연구소, 지역대학 내 관련 학과 및 지역학연구소, 공립박물관 등이 있다. 이들의 고유한 기능이나 사업, 역량 및 인문정신문화 사업과의 관련성 등에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국학진흥기관은 인문정신문화 자산의 발굴·수집·보존 및 활용을 위한 기반 제공, 지역학연구센터는 정책적 측면의 지역학연구 및 학술연구 지원, 지방문화원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인문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경험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다음처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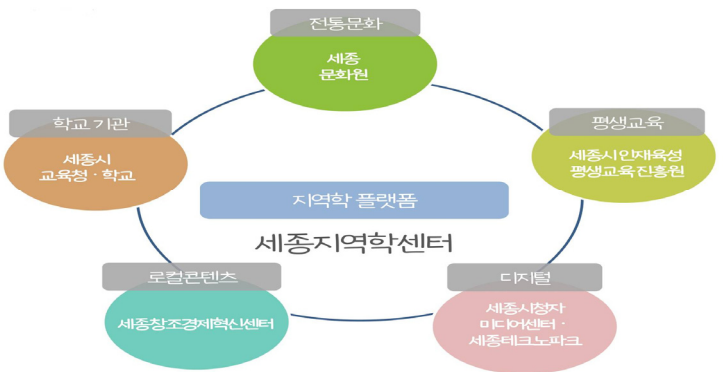
첫째, 자료의 파악과 조사·수집·정리 및 보존 등을 위한 협력이다. 여기에는 국학진흥기관과 지방문화원(또는 지방문화원 지역학연구소), 박물관 등이 참여할 수 있다. 특히 독자적인 인력이나 수장 공간 등을 확보하지 못한 지방문화원의 참여가 중요하다. 지방문화원은 기초지방자치단체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료와 인적 정보 등에서 축적된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서 국학진흥기관은 자료의 조사·수집 및 국역 등을 위한 인력이나 시설 등의 자원을 갖추고 있다. 일부 공립박물관도 유사한 기능과 자원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상호 장점을 토대로 협력하고, 인문정신문화 자료의 발굴(지방문화원)과 보존(국학진흥기관, 공립박물관)처럼 참여자 특성·자원을 고려한 추진이 중요하다.

둘째, 지역 특화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개발과 활용을 위한 협력이다. 여기에는 국학진흥기관, 지역학연구센터, 지방문화원(또는 지방문화원 지역학연구소) 및 유관 기관·단체의 통합적인 협력 모색이 필요하다. 즉, 각각의 고유 기능을 기반으로 지역의 이슈 및 주제 발굴에 협력하고, 이때 지방문화원은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주민의 수요가 있는 수요자 중심 주제 발굴에 협력할 수 있다. 또한 개발된 활용사업의 추진은 각 기관

및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운영하되, 공간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사업은 지방문화원이,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사업은 지역학연구센터가, 권역 및 타 지역을 아우르는 사업은 국학진흥기관이 주관하는 방식처럼 공간적 범위를 나누어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참고] 지역학 협력체계 구축 사례: 세종학지역학센터

- 대전세종연구원에 2024년 설치된 세종지역학센터는 대외적으로 MOU 체결을 통한 협업체계 강화와 함께 관내 지역학실무협의체로 '세종학 다모임'을 결성
- '지역학 플랫폼(세종지역학센터) + 전통문화(세종문화원), 평생교육(평생교육진흥원), 디지털(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 세종테크노파크), 로컬콘텐츠(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지역학 토대부터 활용까지를 고려하여 관내 각 기관·단체 결합



*출처: 이재민(2024), 세종지역학센터와 함께 걷는 길(2024.4.25.) 발표자료, 대전세종연구원.

셋째, 인력과 관련한 협력이다. 즉,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이 소장 자료의 해제나 국역 등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문화원이나 민간 박물관 등의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자료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1차적인 자료 해제나 국역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국학진흥사업에 민간 지원 부분을 포함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인력 양성이나 교육과 관련한 협력이다. 지역 이해를 위한 인문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모델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 때에는 지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인문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위해서 지역학 분야와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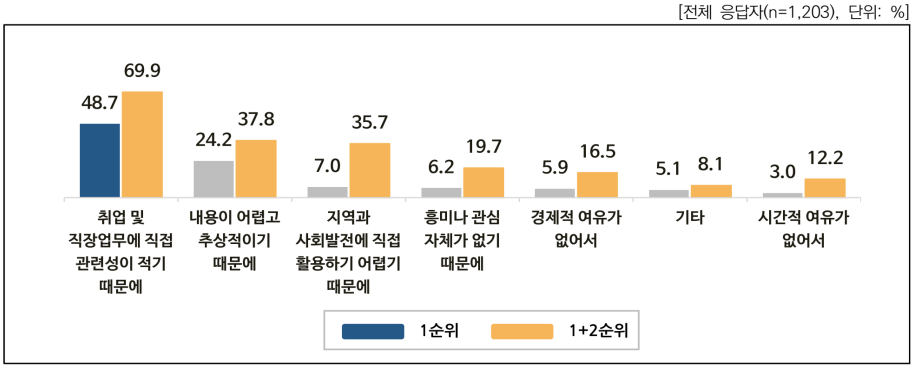
넷째, 기관·단체 특성 기반 협력체계 마련에서는 지역대학 협력 모델 발굴 및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 즉, 지역학이나 인문정신문화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지역 대학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지역자료의 조사·수집 등은 주로 역사학, 민속학, 문화인류학, 고고학 등의 학문 및 최근에는 기록학, 박물관학 등 하위 학문 분야에서 담당

해 왔다. 문학이나 언어학도 지역의 구비문학, 지역어 등 무형문화의 조사와 수집 등에 기여해 왔다. 이 학문들을 보면, 학문의 종다양성 유지에 중요한 보호학문이 주를 이룸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대학의 인문학 고사 문제가 대두되는 현 상황에서 지역학과도 밀접한 관련을 지닌 지역대학의 인문학 인력 자원과 연계하고 그 성과를 인문정신문화 사업으로 잇는 협력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2021년 인문정신문화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21c)에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확산이 어려운 이유(1+2순위)로 '취업 및 직장업무에 직접적 관련성이 적기 때문에'가 전문가에서는 첫 번째, 일반 국민에서는 두 번째로 꼽힌 바 있다. 이 결과는 제2차 기본계획에서 지역학 연계사업으로 제시한 심화프로그램 운영보다 전통기록유산 국역·디지털화처럼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조사·수집 사업으로 변화가 더 유효함을 알려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지역대학과 지역 인문정신문화 자원의 조사·수집을 포함한 협력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

[그림 5-7]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확산 한계점(1+2순위)' 전문가 의견

[전체 응답자(n=1,203), 단위: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1c), 「2021년 인문정신문화 실태조사」, p.153.

다섯째, 성과 공유를 위한 장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4개 국학진흥기관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지역학연구센터와 지방문화원 지역학연구소 중에는 지역자료의 조사·수집 및 보존을 위한 아카이빙, 이러한 성과를 활용한 간행물 발간 및 인문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기획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들이 있다. 그러나 그 성과들이 서로에게 공유되는 기회는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해당 성과들을 통해 지역 인문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국가유산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국학진흥

기관과 다양한 지역학 관계 기관·단체의 성과 및 이를 활용한 콘텐츠 등의 공유를 위한 만남의 장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인문문화축제〉를 활용한 성과 공유 추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참고] 이해관계자 인터뷰 사례

- "대학은 대부분 또 인력도 되고 돈도 있으니까 좀 낫죠. 그러니까 대학은 그렇더라도 문화원하고 박물관 이런 기타 미술관이나 이런 쪽은 문체부가 그 마인드로 지역학 자료를 종합한다 그렇게.……예를 들어서 문체부 차원에서 권역별로 기관을 정해주고 거기서 해당 문화원들은 그 기관들하고 협조해서 자료를 정리를 하는……그런 것들을 문체부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국학진흥기관 관계자)
- "이번에 저희들도 박물관 MOU를 맺고 조사 정리를 해서 주고 있는데, 그런데 각 기관들은 거기에 전문 인력이 없습니다.……저기 그쪽 ○○인가요, ○○문화원은 자료를 보관할 곳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기탁해서 저희들 수장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문화원인 경우에는 특히 수장고가 또 없어요.……거점별로 문체부에서 문화원들 관련된 자료들을 갖다가 거점 돼 있는 국학연구원에서 좀 정리할 수 있게끔 어떤 뒷받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국학진흥기관 관계자)
- "지역자료 데이터베이스화 필요. 지역자료 기록물 보관 수장의 인식 전환 필요", "시군단위 문화원 자료가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음."(지역학 관계자)
- "또 한 문제는 뭐냐면 잘못된 정보의 지속적인 확산, 굉장히 우스갯소리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확산이 돼서 나중에 이걸 수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이런 문제도 저희한테는 좀 현실적으로 와닿는 문제인 것 같아요."(지역학 관계자)

2)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지역 매개 기관·단체 육성

현재 인문정신문화 정책은 지역 및 지역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지역문화 정책과는 달리 지역 및 지역학과 매개를 위한 기관이나 단체가 불명확한 실정이다. 기존 인문 프로그램 운영은 지역의 도서관·박물관 등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이들의 고유 기능이 사업운영기관으로서 활동에는 제약을 주기 때문에 지역을 아우르는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전달체계로 기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전달체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역학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정책의 지역 전달체계에서 우선 고려할 대상은 지역학과 한국학을 매개하면서 인문정신문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학진흥기관이다.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지역 국학진흥기관 확대'를 과제에 포함하여 현재 해당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국학진흥기관은 광역권 내지 초광역권 단위에서 지역 자료를 발굴하여 조사·수집 및 아카이빙하고, 이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국학진흥기관을 지역학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정책의 전달체계로서 그 역할을 부여하며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범주를 고려할 경우에는 토대 구축과 네트워크 구축 범주 중심의 지역 전달체계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서 설립

예정인 국학진흥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빠르게 안착하고 유관기관 간 경험과 사업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국학진흥기관협의체의 원활한 작동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국학진흥기관은 기록유산을 중심으로 인문학 기반의 지역학과 한국학을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인문정신문화 진흥사업을 통해서 지역학과 인문정신문화를 매개하는 기관의 성격을 지닌다. 이와 같은 광역권 내지 초광역권 단위의 기관과 함께 기초지방자치단체 내 매개 기관·단체 육성도 필요하다.

현재처럼 인문프로그램의 운영은 도서관이나 박물관 등을 통해서 진행하더라도,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지역학과 연계한 전달체계로 지방문화원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지방문화원은 지역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사업, 지역문화 진흥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지역문화 사업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인 지역문화재단이 증가하면서 그 중복의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역할과 기능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 일환으로 「지방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2022-2026)」(문화체육관광부, 2021b)에서는 지방문화원에 '지역학 거점 역할 부여'를 추진과제로 포함한 바 있다.

지방문화원을 지역학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사업 발전을 위한 지역 전달체계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문화원 지역학연구소가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그 예로 광역 단위의 지역학연구센터나 국학진흥기관과 협력을 통한 지역학 역량 강화, 인문정신문화 사업 추진을 위한 컨설팅이나 문화원 인력의 재교육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각 기관 간 협력에서 한국학호남진흥원이 시행했던 동행사업을 참고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지방문화원이 지역 전통문화 보존·계승의 주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멸실 위기에 처한 지역의 역사·문화자원, 기록유산을 발굴하게 함으로써 지역 내 국학자료 현황을 파악하려는 사업이었다. 지역의 특성과 사정에 밝은 지방문화원의 장점을 반영하여 지방문화원을 지역학 및 인문정신문화 매개 단체로 기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도 지역에서의 지역학 연계형 인문정신문화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제4절 지역 정체성 및 자긍심 제고를 위한 연계

1. 필요성 및 의의

국내의 지역학은 “지역에 대한 주민의 인식 변화와 정체성에 대한 자각으로 저변수요가 확대”(정삼철, 2019: 63)되어 왔다. 정체성은 사전적으로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표준국어대사전)로 정의된다. 즉, 정체성은 존재의 본질 또는 특성에 관련된다. 따라서 지역학의 핵심에 지역 정체성이 위치하는데, 각 지역의 지역학 진흥 조례가 공통적으로 정체성 정립을 그 제정 목적 중 최우선순위에 둔 것은 당연하다.

지역학이 지역과 그 특성에 관련된다면, 인문정신문화는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에 관련된다. 즉, 지역학과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연계에서는 지역이라는 공간과 주민에 관심을 갖게 된다. 인문정신문화가 지역 정체성과 결합할 때, 주민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과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을 가지게 된다. 이를 통해서 지역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지면 공동체 의식과 서로의 유대도 더욱 돈독해지고,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동참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과 지역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보존함으로써 문화유산을 풍부하게 하고, 이를 활용한 관광산업 발전이나 지역브랜드 개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지역의 정체성 및 자긍심 제고’는 지역학과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발전방안에서 필수적이며, 지역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다. 더 나아가 지역의 정체성 강조는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른 문화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2. 지역학 성과를 활용한 지역 인문콘텐츠 개발

가. 추진 방향

인문학법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등)'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시에 "인문 콘텐츠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지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제16조(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확산)'에서도 이를 명확히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문정신문화 관련 콘텐츠·프로그램의 개발·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제2차 기본계획에서도 '지역 인문 자원 발굴·활용 및 기반 강화'에 '지역 문화기반시설 인문 교육 및 전시 콘텐츠, 인문 관광 플랫폼, 인문 지리 학습·관광 앱 등 활용 지원'을 포함하였다.

인문콘텐츠는 인문정신이 구현된 결과물이다. 그 형태에서는 디지털화된 콘텐츠로 한정하여 "디지털 내용물과 인문학의 구체적인 결합"을 '인문콘텐츠'(인문콘텐츠학회, 2003: 297)로 보기도 한다. 지역의 인문콘텐츠 개발은 지역학 성과를 구체화하고 그 교육적 활용을 통해서 지역 인문정신문화의 사회적 확산과 지역의 정체성 강화에 중요한 기제가 된다. 이 과정에서 인문콘텐츠는 지역 경제와 문화유산 보존 등에 기여할 수 있다. 인문콘텐츠 개발은 이와 같은 시각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고, 다시 그 기대효과가 지역학 및 지역 인문정신문화에 진흥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나. 추진 내용

1) 지역학 성과 활용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연계

지역의 인문콘텐츠는 지역 및 지역에서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알려주는 요소다. 예를 들어, 지역의 8경, 9경 등과 같은 명소와 이를 시서화로 표현한 행위는 단순히 경치가 아름답다는 것을 넘어서 해당 지역의 자연 및 삶의 의미를 인문적으로 구현한 중요한 인문콘텐츠다. 그것을 현재 시점에서 관광명소로 부각하고 자원화할 수 있는 학술적 토대를 제공한 것이 지역학이다.

지역학의 성과를 활용한 인문콘텐츠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 인문정신문화 자료의 수집·보전·활용 및 연구의 결과물과 같은 지역학 성과가 다양한 방식으로 공개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지역학의 성과를 콘텐츠로 개발하기 위한 토대로서 자료의 아카이빙과 함께 자료의 해제, 주요 자료 국역 및 국역 자료의

활용 등이 중요하다. 한 예로, 각 기관이 보유한 유산기(遊山記)와 같은 산에 관한 자료를 국역하고 그 내용을 등산 등 여가활동 시에 해당 산이나 등산로의 주요 지점에서 앱 등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문자산과 여가활동을 연계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인문콘텐츠가 인문프로그램 기획이나 운용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디지털화된 플랫폼도 중요하다. 한 예로, 선현의 일기와 생활이라는 주제로 옛 일기류를 해제 및 국역하여 제공하는 한국국학진흥원의 스토리테마파크(https://story.ugyo.net)는 대표적인 인문콘텐츠 플랫폼이다. 스토리테마파크에서 제공하는 인문콘텐츠들은 '전통 기록문화 활용 대학생 콘텐츠 공모전' 등을 통해서 2차 콘텐츠로 가공 및 활용되고, 다양한 인문프로그램 개발의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인문콘텐츠의 개발과 활용을 위해서는 앞에서 기술하였던 '소멸 위기 지역 대상의 자료 조사·수집 및 디지털화 지속 추진'이나 '민간 기록문화 통합 서비스 플랫폼과 지역학 자료 플랫폼 연계'처럼 토대 구축 사업의 지속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2) 인문콘텐츠 개발과 연계한 지역 인문브랜드 발굴

'지역학 성과를 활용한 지역 인문콘텐츠 개발'은 지역의 인문브랜드 형성과도 밀접히 관련된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지역 고유의 인문브랜드 발굴'의 IPA 결과는 평균값과 격차가 있었지만, 그 중요성은 5점 평균 4.12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정책 업무 연관성이 높은 인문정신문화 사업 관리운영자들은 그 중요성과 시급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였고,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응답자에게서도 상대적으로 시급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 고유의 인문브랜드 발굴'이 지역 정체성이나 이미지, 지역경제 등과 밀접하고 중요하게 인식됨을 알려준다.

브랜드는 국가부터 지역에 이르기까지, 기업에서 개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위에서 자신과 타자를 구별하는 기제이자 마케팅 전략으로 이해된다. 지역브랜드는 해당 지역의 장소, 공간, 특산품뿐만 아니라 역사적 요소(인물, 사건 등) 또는 무형의 요소를 통해서도 구현된다. 각 지역은 그와 같은 요소를 기반으로 정립한 지역브랜드를 관광이나 지역개발 등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과 연결하여 자기 지역과 타 지역을 차별화하여 마케팅하며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브랜드 창출 전략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역의 인문브랜드는 해당 지역의 역사·문화 등 인문적 자산과 가치를 기반으로 형성된 브랜드다. 이러한 인문브랜드의 개발은 지역의 정체성 및 자긍심을 강화하고 지역의 매력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추진된다. 인문브랜드 개발에서는 지역의 역사적 사건, 인물과 이야기, 문화유산 등 문화원형이 중요한 소재가 된다. 또한 인문콘텐츠 개발을 위한 토대 구축 사업으로서 지역 인문자산의 체계적인 발굴과 조사·연구 및 디지털화 등이 이루어지고 연계될 때, 그 지역만의 차별성을 드러낸 인문브랜드 개발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서 인문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다만, 지역 고유의 인문브랜드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자료 수집 등을 통해 그 뿌리와 정체성을 파악하고, 그 문화적 의미를 밝히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지역 인문정신문화 기반의 지역학 진흥'이나 '지역 인문정신문화 자료의 수집·보전·활용' 등의 방안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즉, 이러한 방안들의 최종 결과로서 지역의 고유한 인문브랜드 정립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정책적으로는 지역에서 인문브랜드 정립을 위한 공론화 과정과 지역학 및 인문정신문화 유관 기관·단체들의 협력을 기반으로 인문브랜드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3. 지역 인문정신문화 기반의 지역학 진흥

가. 추진 방향

지역은 인문정신문화가 배태되고 인문정신문화 사업이 시행되는 공간이다. 그러한 지역과 지역의 역사·문화 등을 연구하는 지역학은 기존 정책에서 주목받지 못하였다. 다만, 제2차 기본계획에서 지역학을 일부 언급하는 정도인데, 그것도 지역학의 역할보다는 〈지혜학교〉 사업에서 지역 인문 심화과정 운영의 주제로 다루어졌을 뿐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방소멸 위기가 화두가 되면서 지역 정체성 정립이나 정주의식 제고 등과 관련하여 지역학과 인문정신문화 정책에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두 분야의 접점을 인식하면서 인문 가치의 확산과 지역 단위의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해서 두 분야가 연계할 때에는 지역의 이슈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대응하려는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지역학을 지역의 인문자산이자 정책 추진의 학술적 토대로 이해하고 접근할 필

요가 있다. 즉, 지역의 역사·문화·인물·전통 등 인문자산의 체계적인 발굴과 연구를 위한 학술적 기반으로 지역학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지역의 인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지역의 인문자산을 현대적 맥락에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와 같은 방향의 정책은 지역의 매력도 제고뿐만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참고] 이해관계자 인터뷰 사례

- "지역 문화, 지역 사람들의 기억을 아카이빙 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 콘텐츠를 개발하고 콘텐츠의 활용이 지역주민들에게 정신적 풍요를 줄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 인문의 다양성이 점차 보편적으로 획일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지역민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상과 문화가 지역 소멸과 함께 사라지지 않게 할 방안이 필요하다."(인문 활동가)

나. 추진 내용

1) 제도적 환경변화 대응 준비

본 연구에서 검토해 왔듯이, 지역학과 인문정신문화는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 따라서 인문정신문화 정책에서 지역학 진흥은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으나, 그 정책적 토대가 될 수 있는 제도적 연계성을 찾기는 쉽지 않다. 다만, 인문학에 대한 대중적 수요와 달리, 대학 내 인문학과 폐쇄나 축소 등 인문학 고사 위기가 지속되면서, 인문학 지원을 위한 학술 진흥 법률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는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제21대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 3건이 발의된 바 있고, 현행 제22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법률안이 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따라서 현행 인문학법의 분법 가능성도 제기되고, 중장기 관점에서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한 독자 법률 제정의 필요성도 제기된 바 있다(이세정, 2023).

이와 같은 상황은 인문정신문화 정책의 지역학 연계에 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즉, 인문학법의 분법이나 독자적인 인문정신문화 진흥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커질 때, 지역학 내지 지역인문 연구를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학술적 기반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법적 토대를 갖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학 진흥 조례의 근거 법률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지역학 진흥 조례가 없더라도 기 제정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학 진흥과 활용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2) 지역 인문자산 연구와 현대 문화 융합

'지역 인문정신문화 기반의 지역학 진흥'은 '지역 인문정신문화 자료 발굴·수집·보전 지속 및 체계화'를 통해 축적한 성과를 체계적인 연구로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인문학 관련 연구소들과 연계를 활성화해야 한다. 그러한 연구소들은 대체로 지역학과 밀접한 관련되고, 지역 특성을 구명하고 관련 자료를 조사·연구하는 활동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인문자산과 현대의 문화나 기술을 결합하여 지역학, 특히 인문학 기반 지역학의 가치를 확장하고, 다양한 창의적 시도를 통해 현대적 의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역의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 등 지역 인문자산을 활용한 다큐멘터리, 영화, 웹툰, 출판물 등의 콘텐츠를 통해서 대중적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콘텐츠와 관련하여 신규 제작뿐만 아니라 기존 콘텐츠를 활용한 2차 저작물 형태의 개발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가 보유한 영상콘텐츠 활용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 이용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고 이용 편리성을 증진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인문문화축제〉와 지역학 연계를 강화하고, 해당 축제를 지역과 공동 개최하는 방식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때, 축제 개최는 지역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공동 개최하고, 그 프로그램은 위에서 기술하였듯이, '인문 활동가 만남과 교류의 장'이나 지역학 연계 인문정신문화 사업 성과나 인문콘텐츠 공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은 지역 단위에서 특화된 인문정신문화 사업을 모색하며 인문브랜드를 형성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3) 마을학의 육성과 인문정신문화 사업 연계

지역 정체성을 정립하고 주민의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학과 인문정신문화 사업을 연계할 때 중요하게 고려할 영역이 마을학(또는 마을인문학)이다. 마을학은 마을의 특화 및 활력 제고, 정체성 구축에 기여하는 역할과 가치를 지니는데, 본 연구의 관계자 인터뷰나 이해관계자 설문조사의 자유응답에서도 지역학을 넘어 마을학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마을학은 지역에서의 인문 가치 확산에서도 중요하게 고려하고 연계할 분야다.

마을학은 마을이라는 공간을 범위로 하며, 지역이 처한 위기 상황, 경쟁을 부추겨온 학교교육, 사회적 갈등과 공동체성을 둘러싼 문제 등을 배경으로 대두되었다(정용교, 2023: 108-115). 주민의 주민다움(정체성)이 없거나 잊히면서 생활자치 공간으로서 마을의 가치가 갈등과 불신으로 황폐해진 마을에서 다시 주민다운 주민은 살 수가 없게 된다. 마을이 사람다움이 살아 숨 쉬는 공간이 되게 하고 마을이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연구하는 분야가 마을학이라고 할 수 있다(박철, 2014: 12). 이와 같은 관점에서 마을을 하나의 학교로 이해하고 사람책(마을선생님) 및 지역교육활동가가 참여한 마을학교도 운영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사례들에서 소수의 사람이나 혁신가가 주도하는 경우에는 갈등 발생이나 실패의 소지도 있다(장용교, 2023). 따라서 사회교육적 차원이 아니라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며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마을학의 주요 내용은 마을에 대한 시간·공간 및 비전을 다뤄야 하고, 유·무형의 마을 자원과 자산, 전통문화, 사건과 일, 주민의 생각·꿈 등을 규명 및 규정하며 그 테이터를 만들어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지역학 활동을 마을 단위로 적용한 것인데, 한 지역 내에서 마을학이 모여 지역학을 이루며 풍부하게 하고, 지역학과 지역학이 모여 한국학을 풍부하게 한다는 점에서 마을학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박철, 2014). 다만, 마을학은 지역학보다 사람과 실질적인 공동체에 더욱 주목한다. 이로 인해 특정 문중이나 지역 토착세력과 밀착할 수 있음을 우려한 목소리도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마을학 육성에 대한 자유응답 의견에서도 이러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마을학의 추진이나 이와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사업에서는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제6장

결론

제1절 연구 결과

본 연구는 지역의 위기와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 단위에서 인문정신문화의 확산을 위해 현행 정책사업을 점검해 보고, 지역학과 연계한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학제적이고 실천지향적 특성을 지닌 지역학은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에 지역의 정체성과 주민의 자긍심 제고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지역학 진흥 조례가 제정되고 관련 사업이 시행되면서 차츰 활성화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학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지역학은 지역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와 연구 성과, 지역에 소재한 역사·문화 자료의 발굴·조사·수집 및 아카이빙 추진 성과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 해결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지역 정체성의 정립, 주민의 자긍심과 정주의식 제고 등에 기여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지역학과 인문정신문화 정책이 만나고, 지역에서 인문정신문화 정책을 추진할 때에 지역학을 연계할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책에서는 지역에서 인문 가치 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학에 대한 관심이나 연계는 부족하였던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이 기존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학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사업 발전방안 도출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관련 연구 및 정책자료 등에 대한 문헌연구와 기초 현황 조사를 통해서 두 분야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언론보도 및 SNS 빅데이터 분석, 기존 인문정신문화 사업 만족도조사 결과 분석, 지역학 관계자 및 인문정신문화 사업 관계자 등 이해관계자 심층인터뷰를 통해서 두 분야에 대한 인식과 수요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 결과로 도출된 시사점을 통해서 지역학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사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과 방안을 일차 도출하고, 그 적절성을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서 평가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최종 제안할 정책방향과 정책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지역학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발전을 '자산화', '가치화', '공유화'라는 개념 하에 모색하고자 하였다. '자산화'란 토대 구축 범주에 관련되며, 지역의 역사·문화 등에 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실천지향적인 특성 등으로 인해 정책과 밀접히 관련된 지역학 및 그 성과를 인문정신문화 정책의 '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치화'란 사회적 확산·활용 범주에 관련되며, 인문정신문화 정책이 지역학과 연계를 통해서 지역을 심도 있게 이해함으로써 인문 가치의 지역사회 확산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내재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유화'는 네트워크 구축에 관련되며, 두 분야의 성과와 자원을 공유하고 연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 하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분석의 결과와 시사점을 종합하여 지역학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발전을 위한 3개 정책방향, 9개 정책방안을 최종 도출하였다. 각 정책방향과 정책방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과 삶의 의미 제고를 위한 연계'다. 이 정책방향은 인문학법의 목적 및 인문정신문화의 고유한 지향과 관련된다. 즉, 인간의 삶 및 인간이 살아가는 공간 등의 근원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와 관련한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인문정신문화가 지역 및 그곳에서 살아가는 주민의 삶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이 정책방향에서는 사회적 확산·활용 범주에 속하는 '문화여가 활동과 지역 인문프로그램 연계 강화', '지역의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인문 활동 활성화', '지역교육과정에 지역학 연계 인문프로그램 운영'을 정책방안으로 제안하였다. 그중 '문화여가 활동과 지역 인문프로그램 연계 강화'는 일상의 공간과 관심사, 지역 이슈를 활용하여 주민들이 지역과 삶의 의미 및 가치를 이해하고 내재화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의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인문 활동 활성화'는 사회문제 해소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직접적인 접근보다는 주민들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인문 활동을 통해서 인문정신문화가 지역사회와 주민 삶에 녹아들고,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 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교육과정에 지역학 연계 인문프로그램 운영'은 〈길 위의 인문학〉과 지역교육과정의 연계처럼 교육 현장으로 찾아가거나 학교 밖 활동과 연계하여 지역을 탐방하며 학생들이 스스로 기록하고 체험하는 활동과 같은 연계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지역 인문정신문화 발굴·공유를 위한 연계'다. 이 정책방향은 지역학의 역할

및 사업과 밀접히 관련될 뿐만 아니라 두 분야 간 상호 관련성이 가장 큰 고유 영역이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소멸위험지역이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주민의 기억과 장소성에 주목하며 소실 위기의 지역자료와 인문자산을 체계적으로 조사·수집·보존하는 것은 정책의 중요한 역할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해 온 지역학과 인문정신문화 정책의 연계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정책방향에서는 우선 토대 구축 범주에 속하는 '지역 인문정신문화 자료 발굴·수집·보전 지속 및 체계화'와 '인문프로그램 운영자 대상의 지역 이해 교육 운영'을 제안하였다. 그중 전자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지역 인문자산의 발굴·수집·보전과 디지털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제는 제2차 기본계획에도 반영되어 있다. 후자는 두 분야의 주요 사업을 담당하는 인력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전문성과 상호 이해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인력 양성사업보다 기존 인력의 지속적인 활동을 유인하고, 상호 이해 제고와 역량 강화를 통해서 두 분야 연계형 인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사회적 확산·활용 범주에서는 '생활인구 대상의 지역 이해 및 인문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하였다. 지역에 대한 생활인구와 관계인구의 이해도와 관심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에 정주하는 계기를 만들자는 것이다. 다음으로 네트워크 구축 범주에서는 '지역학 연계를 위한 인문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는데, 두 분야 관련 기관·단체의 기능과 역량, 사업의 공간적 범위 등을 고려하여 지역 전달체계로서 협력시스템과 매개기관·단체를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지역의 정체성 및 자긍심 제고를 위한 연계'다. 이 정책방향은 지역학의 고유 목적 및 지향과 관련되며, 지역에서 인문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지역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인문정신문화 정책에서도 중요한 영역이다. 이러한 정책방향의 추진으로써 주민들이 자신이 속한 지역과 문화를 존중하며 자긍심을 갖고 더 나은 지역사회 만들기에 동참하고,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계기를 확대할 수 있다.

이 정책방향에서는 사회적 확산·활용 범주에 속하는 '지역학 성과를 활용한 지역 인문콘텐츠 개발'과 토대 구축 범주에 속하는 '지역 인문정신문화 기반의 지역학 진흥'을 정책방안으로 제안하였다. 그중 전자는 지역학 성과를 활용한 인문콘텐츠로써 인문정신문화의 지역사회 확산과 지역 정체성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후자는 지역 인문정신문화 진흥의 학술적 토대로서 지역학의 위상과 역할을 분명히 하며 정책적으로 접근할 필요성, 그러한 의미에서 지역학 진흥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표 6-1〉 지역학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발전방안 제안 내용

정책방향	정책방안	추진 내용
지역과 삶의 의미 제고를 위한 연계	문화여가 활동과 지역 인문프로그램 연계 강화	•문화여가 활동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친근한 장소의 선정과 마을의 인문캠퍼스화 •주민 대상 인문프로그램 심화과정 운영
	지역의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인문 활동 활성화	•지역학과 연계한 〈청년 인문실험〉 성과 활용 고도화 •〈청년 인문실험〉 연계형 지역 공동체 인문프로젝트
	지역교육과정에 지역학 연계 인문프로그램 운영	•〈길 위의 인문학〉과 연계한 학교 밖 인문활동 활성화
지역 인문정신문화 발굴 · 공유를 위한 연계	지역 인문정신문화 자료 발굴 · 수집 · 보전 지속 및 체계화	•소멸 위기 지역 대상의 자료 조사 · 수집 및 디지털화 지속 추진 •'민간 기록문화 통합 서비스 플랫폼'과 지역학 자료 플랫폼 연계 •민간 기록문화와 지역자료 수집 · 보존 ·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인문정신문화 사업성과 데이터의 표준화 및 서비스
	인문프로그램 운영자 대상의 지역 이해 교육 운영	•인문 활동가 대상 지역이해 교육 운영 •지역 양성 지역학 관련 인력 대상 교육 운영
	생활인구 대상의 지역 이해 및 인문 체험 프로그램 운영	•생활인구의 지역 이해 제고 프로그램 운영 •관계성 제고를 위한 관계인구 대상 프로그램 운영
	지역학 연계를 위한 인문협력체계 구축	•기관 · 단체 특성을 고려한 협력체계 구축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지역 매개 기관 · 단체 육성
지역의 정체성 및 자긍심 제고를 위한 연계	지역학 성과를 활용한 지역 인문콘텐츠 개발	•지역학 성과 활용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연계 •인문콘텐츠 개발과 연계한 지역 인문브랜드 발굴
	지역 인문정신문화 기반의 지역학 진흥	•제도적 환경변화 대응 준비 •지역 인문자산과 현대 문화 융합 및 관련 연구 활성화 •마을학의 육성과 인문정신문화 사업 연계

제2절 정책 제언

본 연구에서는 인문학법의 규정과 기존 정책을 분석하여 인문정신문화 사업을 토대 구축, 사회적 확산·활용,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3개 범주로 나누었다. 현행 정책 추진 현황을 보면, 인문정신문화 사업으로 명확히 규정되는 것은 전담기관 및 연계 기관·단체들에 의한 사업인데, 이는 주로 사회적 확산·활용에 집중된다. 그러나 해당 사업들에서 지역 특성의 반영이나 지역학과의 연계성을 찾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은 담당 기관·단체의 성격과 함께 지역학 기관·단체가 주로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영역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이러한 상호 간의 차이를 인식하면서 관련 기관·단체가 협력체계를 구축할 때, 지역학과 인문정신문화 사업이 지역의 소멸위험에 좀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지역학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추진에서는 전달체계와 관련하여 이를 매개할 인력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특히 최근에 지역에서 시민기록가, 구술채록가 등과 같은 지역학 관련 인력들을 양성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들 중에는 인문정신문화 사업에 참여하는 활동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추정된다. 그러나 지역에서 양성되는 인력의 특성이나 현황에 대한 파악은 미진한 실정이다. 각종 정책에서 인력 양성 필요성을 제기하지만, 양성된 인력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어떠한 정책 분야들이 해당 인력과 중첩되어 있는지와 관련한 파악은 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인력 양성 현황 및 그들의 활동 현황을 파악하고 해당 인력이 지속성을 가지고 전문인력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두 분야의 양성 인력이나 활동 인력이 서로의 활동을 이해하고 성과를 교류하는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토대 구축 범주의 사업은 대체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성격이다. 그 중 지역학 연계의 핵심 영역으로서 지역의 자료나 인문자산 등의 발굴과 조사·수집·보

존 및 디지털화 등은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할 사안이다. 이 사업에서는 지역의 역할, 즉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의지와 지역학 기관·단체의 역량이 중요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해당 성과를 연계하는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그 예로 각 지역에서 구축한 아카이브를 상호 연계하는 플랫폼 구축을 들 수 있다. 관련 사례로 '한국학 통합 플랫폼'(한국학중앙연구원)이 있고, '민간 기록문화 통합서비스 플랫폼'(한국국학진흥원) 구축도 추진 중이다. 후자가 지역학 성과와 연계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이 밖에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운영하는 '지역N문화'의 '지방문화원 자료' 데이터베이스나 각 지방문화원의 지역자료 아카이브, 일부 지역학연구센터의 아카이브 등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아카이브는 지역학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정책과 밀접히 관련되지만, 상호 연계되지는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다양하게 구축되고 있는 지역 단위의 아카이브의 체계적인 활용과 연계를 위한 통합검색시스템 개발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기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 확산·활용 범주의 사업은 개별적으로는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것이 인문정신문화 정책사업이라는 인지도는 낮은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는 '인문정신문화'라는 용어의 낯섦과 실제 사업명이 대체로 '인문○○'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점과 관련된다. 따라서 일반 국민의 수요를 반영한 사업 추진 및 지속적인 성과 환류와 함께,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학과 연계한 사업 추진에서는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고 주민이 지역 인문 활동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1회성 공모사업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즉, 현행 사회적 확산·활용을 위한 인문프로그램은 대체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어 그 연속성이 떨어지고, 1회성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역학과 연계하여 의미 있는 효과를 도출하는 데에 공모 방식은 한계가 있으므로, 평가를 통한 지속 운영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다만, 공모사업 방식을 당장 바꿀 수 없음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는 공모사업 선정 시, 이전 사업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가점을 주는 방식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공모 후 후속조치로 지방자치단체 본예산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지역 내 운영에서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끝으로, 인문학법과 관련한 환경 변화 가능성이 존재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인문학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법률안의 발의가 예상된다. 그에 따라 인문학법의 분법이

나 독자적인 인문정신문화 진흥법 제정이 필요하게 될 경우, 인문정신문화 정책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 지역학에 대한 선제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즉, 지역 인문정신문화 진흥의 학술적 기반으로서 '지역학 육성·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조문 신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지역학 진흥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정체성 정립 및 정주의식의 제고 등을 위한 별도의 지역학 진흥 조례를 제정하지 않더라도 인문정신문화 관련 조례로써 그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법제도적 환경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지역학을 인문정신문화 진흥과 정책 추진의 학술적 토대로 인식하고, 그 연계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정책 계획 및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13), 「박근혜정부 국정과제」(2013.5.28.).
- 교육부(2021), 「제2차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안)(2021-2026)」.
- 교육부 · 문화체육관광부(2014), 「인문정신, 문화융성의 길을 열다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7대 중점과제-」.
- 마포구립서강도서관(2022), 「2022 마포구립서강도서관ZINE 발견 發見」.
- 문화체육관광부(2017), 「제1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2017~2021)」.
- 문화체육관광부(2021a), 「제2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2022~2026)」.
- 문화체육관광부(2021b), 「지방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2022~2026)」.
- 문화체육관광부(2021c), 「2021년 인문정신문화 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2022), 「2022년도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안)」.
- 문화체육관광부(2023a), 「2023년도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안)」.
- 문화체육관광부(2023b),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24a), 「2024년도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안)」.
- 문화체육관광부(2024b), 「2024년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추진계획(안).」
- 율곡연구원(2024), 「국학자료 조사수집 안내」.
- 한국관광공사(2023), 「2023 관광트렌드 전망 설문조사 및 데이터 종합분석」.
- 한국국학진흥원(2024), 「2024년 민간 기록문화 통합서비스 플랫폼 구축 제안요청서」(2024.6.).
- 한국도서관협회(2023), 「2023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결과보고서」.
- 한국문화원연합회(2021), 「지방문화원 지역학거점 육성에 관한 연구」.
- 한국문화원연합회(2022), 「2022년 지방문화원 실태조사결과보고서」.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2022), 「2022년 생활문화시설 길 위의 인문학 만족도 조사」.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2023), 「2023년 생활문화시설 길 위의 인문학 만족도 조사」.
- 한국행정연구원(2024), 「2023 사회통합 실태조사」.

• HK/HK+성과확산총괄센터(2023), 『인문한국(HK)/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사업 성과분석,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

□ 논저 및 연구보고서

• 고상두(2021), 「지역학의 이해와 연구방법」, 다해.
• 권선희(2023),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영어교육 키워드 연구, 「영어영문학」, 28(1), 미래영어영문학회, pp.99-121.
• 김용학・김영진(2021). 「사회 연결망 분석」, 박영사.
• 김학훈(2014), 한국의 지역학 30년 성과와 전망, 「지역연구」, 30(4), 한국지역학회, pp.87-100.
• 노영순・이상열 (2018), 「지역쇠퇴에 대응한 지역학의 역할과 문화정책적 접근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류영진(2020), 일본의 '관계인구 개념의 등장과 의미, 그리고 비판적 검토, 「지역사회학」, 21(1), 지역사회학회, pp.5-30.
• 문재원(2016), 로컬리티의 인문학-지역과 인문학의 만남에 대한 비판적 접근,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17(3),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pp.5-31.
• 문정화・김은진(2021), 「국내 지역학 현황과 고양학 발전방안(이슈브리프 제32호)」, 고양시정연구원, pp.77-78.
• 박상훈(2023),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부동산 시장 인식 변화 연구, 「부동산연구」, 33(4), 한국부동산연구원, pp.21-32.
• 박원재(2009), 안동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안동학연구」, 8, 한국국학진흥원, pp.287-313.
• 박 철(2014), 주민의 주민다움 찾기 및 마을의 꿈 펼치기는 시대적 사명, 「월간 주민자치」, 37, 한국주민자치학회, pp.11-15.
• 박현진・조원환(2024), 빅카인즈 시스템을 활용한 평생교육 관련 언론보도 분석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32(1),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pp.171-193.
• 성해영・조주연・박찬욱(2016), 「인문정신문화 중장기 정책 및 사업 계획」, 문화체육관광부・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 양세진(2014), 마을학이란 무엇인가 - 마을 존재론적인 고찰, 「월간 주민자치」, Vol.37, 한국주민자치학회, pp.20-24.
• 오영교(2019), 한국학과 국내 지역학 -연구방법론의 모방과 변주-, 「지방사와 지방문화」 22권 2호, 역사문화학회, pp.147-180.

- 유완(1985), 지역학의 정의와 재조명, 「지역연구」, 제1권, 한국지역학회, pp.3-7.
- 이규태(2007), 한국의 '지방학'의 현황과 문제점, 「서울학연구」, 28,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pp.177-209.
- 이상열(2013), 「인문정신문화 진흥방안 연구」, 한국국학진흥원.
- 이상호(2024), 지방소멸 2024: 광역대도시로 확산하는 소멸위험, 「지역산업과 고용」, 2024년 여름호, 한국고용정보원, pp.126-137.
- 이성우 · 조현성 · 윤지연 · 오문준(2023), 「인문정신문화 사업 추진 체계 발전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이성직 · 김한준(2009). TF-IDF 변형을 이용한 전자뉴스에서의 키워드 추출 기법, 「한국전자거래학회지」, 14(4), 한국전자거래학회, pp.59-73.
- 이세정(2023), 「인문정신문화 진흥 정책 체계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이재민(2024), 세종지역학센터와 함께 걷는 길(2024.4.25.) 발표자료, 대전세종연구원.
- 인문콘텐츠학회(2003), 인문콘텐츠학회 창립 발기문, 「인문콘텐츠」, 창간호.
- 전영수(2023), 「인구소멸과 로컬리즘」, 라의눈.
- 정삼철(2019), 지역학 활성화의 동향과 미래발전 과제, 「월간공공정책」, 164, pp.62-64.
- 정수희 · 이병민(2023), '로컬'의 인문학적 의미와 실천을 통한 지역발전: 한국과 일본 '로컬크리에이터'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아태연구」, 30(1),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pp.5-42.
- 정용교(2023), 「마을 인문학」, 영남대학교출판부.
- 정정숙(2014),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학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조동일(2014), 대구경북학의 사명과 진로, 「대구경북연구」, 3(1), 대구경북학회, pp.1-19.
- 차철욱(2009), 지역사 연구의 한 방법 '로컬리티 연구', 「안동학연구」, 8, 한국국학진흥원, pp. 166-196.
- 한국문화원연합회(2021), 「지방문화원 지역학거점 육성에 관한 연구」.

- Brown, P. F., Della Pietra, V. J., Desouza, P. V., Lai, J. C., & Mercer, R. L. (1992). Class-based n-gram models of natural language. Computational linguistics, 18(4), pp.467-480.
- Ramos, Juan(2003). "Using tf-idf to determine word relevance in document queries." Proceedings of the first instructional conference on machine

learning, Vol. 242. No. 1.
- Walter Isard(1956), REGIONAL SCIENCE, THE CONCEPT OF REGION, AND REGIONAL STRUCTURE, Papers in Regional Science Volume 2, Issue 1, pp.13-26.
- 立教大学ESD研究センター(2010),「地元学から学ぶ 講演会記録集」.
- 枝川明敬(2009), 地域の精神文化を基礎とした地域文化活動及びそれによる地域活性化の状況に関する研究,「地域学研究」, 39(2), 東京藝術大学, pp.451-464.

□ 누리집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elis.go.kr)
- 국회의정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
- 빅카인즈(https://www.bigkinds.or.kr)
- 인문360 '인문네트워크'(https://inmun360.culture.go.kr/b2bc/index).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
- 텍스톰(https://www.textom.co.kr)

※ 이 밖에 각 기관·단체 내부자료 및 언론보도 등은 각주와 도표 주 참조.

ABSTRACT

A Study on Development Measures for Humanistic and Spiritual Culture Projects in Collaboration with Regional Studies

Sangyol Lee, Kyeong Jin Lee & Saehoon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demand for policies related to Humanities and Spiritual Culture and to explore the development of policy projects connected to Regional Studies.

To achieve this goal, the study analyzed trends in Regional Studies and Humanities and Spiritual Culture policies, the public's perception of regional studies and humanities and culture policies, and the results of stakeholder group interviews and surveys. Through this analysis, the following directions and measures for the development of policy projects related to Humanities and Spiritual Culture in Collaboration with Regional Studies were derived:

First, the direction is “collaborating to enhance the meaning of region and life.” Measures for this direction include “strengthening the connection between cultural and leisure activities and regional humanities programs,” “promoting humanities activities to address regional social issues,” and “implementing regional humanities programs linked to Regional Studies in the local education curriculum.”

Second, the direction is “collaborating to discover and share regional humanities and spiritual culture.” Measures for this direction include “establishing a system for collecting, preserving, and utilizing regional humanities and spiritual culture materials,” “providing regional education for humanities program operators,” “offering regional understanding and humanities experience programs for De Facto Population,” and “establishing a humanities collaboration system for linking with

Regional Studies.”

Third, the direction is “Collaboration with linking to enhance regional identity and pride.” Measures for this direction include “discovering regional humanities content utilizing the results of Regional Studies” and “promoting Regional Studies based on the foundation of regional humanities and spiritual culture.”

Through these directions and measures, it is are expected to help capitalize on the achievements of Regional Studies as assets for Humanities and Spiritual Culture policy. Furthermore, the collaboration with Regional Studies is anticipated to contribute to spreading humanistic values within local communities and to sharing and utilizing the outcomes and resources accumulated by each field.

Keywords

Humanities and Spiritual Culture, Regional Studies, Humanities, Regional Identity, Cultural Policy

부록

부록

[부록1] 지역학 진흥 조례 현황

연번	지역	조례명	제정 시기	제정목적	지역학 정의	진흥계획 포함사항	진흥사업 규정	진흥 조직	사무 위탁
1	부산	부산광역시 부산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09.10.	부산학을 진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 이바지함	"부산학"이란 선사시대부터 이어온 부산의 지리학·역사학·사회학·문화학·정치학·경제학 등 다양한 학문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부산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시키는 학문	1. 부산학 관련 연구의 질적 수준 강화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2. 부산학 관련 연구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부산학 관련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4. 부산학 관련 연구성과의 활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산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	1. 부산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구축 2. 부산학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및 연구인력 양성 3. 부산학 연구단체 간의 교류를 위한 학술행사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4. 부산학 관련 연구성과의 활용 및 확산 5. 그 밖에 부산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부산학 진흥위원회	-
2	대전	대전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06.30.	대전광역시의 정체성 확립과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대전학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대전학"이란 선사시대부터 이어온 대전광역시의 인문·사회·자연 등의 분야를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대전광역시와 시민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학문	1. 대전학 진흥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대전학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3. 대전학 진흥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전학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대전학 정립을 위한 연구 및 연구기반 구축 사업 2. 대전학 관련 인재 양성 사업 3. 대전학 연구의 자료 기록 사업 4. 국내외 지역학 관련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 5. 그 밖에 대전학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대전학 진흥위원회, 대전학 연구전문기관 설치·운영	-
3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2019. 01.30.	세종학을 진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세종시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삶의 질을 높이는 것	세종특별자치시와 관련된 인물·지리·역사·사회·문화·문학·예술·정치·경제·건축·자연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학문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	1. 세종학 관련 연구의 질적 수준 강화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2. 세종학 관련 연구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세종학 관련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4. 세종학 관련 연구성과의 활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세종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	1. 세종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구축 2. 세종학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및 연구인력 양성 3. 세종학 연구단체 간의 교류를 위한 학술행사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4. 세종학 관련 연구성과의 활용 및 확산 5. 그 밖에 세종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세종학 진흥위원회	-

연번	지역	조례명	제정 시기	제정목적	지역학 정의	진흥계획 포함사항	진흥사업 규정	진흥 조직	사무 위탁
					시키기 위한 지역학				
4	경기	경기도 지역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04.21.	경기도의 지역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정체성 확립과 지역문화 발전을 촉진하고 경기도민의 자긍심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	"지역학"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지역의 인문·사회·자연 및 이와 관련한 분야를 총체적으로 연구하는 학문(學問)	1. 지역학 연구의 기본 방향 2. 자료의 발굴·수집·조사·보존 3. 도내 시·군과의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4. 지역학 연구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 5. 그 밖에 지역학 연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지역학 연구 및 활성화 2. 지역학 연구와 관련한 도서 등 발간 3. 지역학 연구 기록화 4.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5. 전문인력의 발굴 및 양성 6. 지역학 관련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및 교류·협력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학 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문화 관련 법인·단체 등 (도내 문화 관련 단체 등과 공동 연구 수행, 컨설팅 등 협력 체계 구축 조문 포함)
5		안산시 안산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11.10.	안산시의 위상 정립과 안산시민의 정체성 확립을 도모하여 지역공동체성과 정주의식을 높이고, 나아가 안산 발전의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안산학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	"안산학"이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안산시민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지역학으로 안산의 과거와 현재에 이르는 문화와 전통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현대적 시점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지역관을 바로 세우며 시의 문화, 예술, 경제, 사회, 산업 등 각 분야에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학문	1. 안산학 관련 연구의 실적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산학 연구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안산학 교육 및 진흥에 관한 사항 4. 안산학 관련 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시의 역사·환경중심의 문화기반 연구 확충 2. 안산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확충 3. 안산학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및 연구인력 양성 4. 안산학 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5. 지역소재 대학 및 중등학교 학생을 위한 지역학 강좌 운영 6. 지역소재 초중등교사 및 지역지도자를 위한 지역학 강좌 운영 7. 안산학 자료 보존 사업 8. 국내외 지역학 관련 교류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안산학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안산학 진흥위원회	법인·단체 등
6		여주시 여주학 진흥 및 지원에	2021. 04.13.	여주학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여주학"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와 문	-	1. 여주학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2. 여주학의 연구기반 구축 및 연구인력 양성	-	법인·기관·

연번	지역	조례명	제정 시기	제정목적	지역학 정의	진흥계획 포함사항	진흥사업 규정	진흥 조직	사무 위탁
		관한 조례		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화의 본질과 가치를 연구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지역학		3. 여주학 연구단체의 연결망 구축 및 학술행사 지원 4. 여주학 강좌의 개설 및 운영 5. 여주학 진흥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6. 지역학 관련 국내외 교류 7. 그 밖에 시장이 여주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단체 등
7		용인시 용인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5. 11.06.	용인시의 역사·문화 등 자원에 대한 관심 및 이해를 높임으로써 지역정체성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인학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	"용인학"이란 용인시와 용인시민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지역학으로 용인의 과거와 현재에 이르는 문화와 전통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현대적 시점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지역정체성과 지역관을 바로 세우며 용인시 문화, 예술, 경제, 사회, 산업 등 각 분야에서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학문	-	*용인학 강좌 지원사업 (1. 용인학 강좌 개설 또는 연구를 실시하기 위한 관내 각급 학교 2. 그 밖의 용인학 강좌 또는 연구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단체)	용인학 운영협의회	-
8	강원	강원학 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2017. 06.16.	지역학에 근거한 지역문화진흥의 공유로 격차와 소외가 없는 지역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강원학"이란 선사 이래 시대를 거쳐 내려온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지리적 바탕 위에 형성된 인문·사회·자연과학 분야를 대상으로 학문적 체계를 정립하고, 통합	-	1. 강원자치도 문화·역사·환경 중심의 문화기반 연구 확충 2. 강원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확충 3. 강원학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및 연구인력 양성 4. 강원학 연구단체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5.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강원학	강원학 연구센터 운영위원회(도지사 소속), 강원학 연구센터	-

연번	지역	조례명	제정 시기	제정목적	지역학 정의	진흥계획 포함사항	진흥사업 규정	진흥 조직	사무 위탁
					학문의 실천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인의 정체성 확립과 삶의 방향 구현에 이바지하는 학문		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9		철원군 철원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06.28.	철원학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철원학"이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역사와 문화의 본질과 가치를 연구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지역학	-	1. 철원학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2. 철원학의 연구기반 구축 및 연구인력 양성 3. 철원학 연구단체의 연결망 구축 및 학술행사 4. 철원학 강좌의 개설 및 운영 5. 철원학 진흥을 위한 컨설팅 사업 6. 지역학 관련 국내외 교류 7. 그 밖에 군수가 철원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법인·기관·단체 등
10	충북	충주시 향토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03.06.	향토학을 진흥하여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 이바지함	"향토학"이란 선사시대부터 이어온 충주의 지리학·역사학·사회학·문화학·정치학·경제학 등 다양한 학문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충주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시키는 학문	1. 향토학 관련 연구의 질적 수준 강화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2. 향토학 관련 연구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향토학 관련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4. 향토학 관련 연구성과의 활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향토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	1. 향토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구축 2. 향토학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및 연구인력 양성 3. 향토학 연구단체 간의 교류를 위한 학술행사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4. 향토학 관련 연구성과의 활용 및 확산 5. 그 밖에 향토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향토학 진흥위원회	-
11	충남	충청남도 충남학 진흥에 관한 조례	2021. 08.17.	충남학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의 역사·문화 등에 관한 관심 및 이해를 높여 지역 정체성 향상을 도모하고 충청남도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삶의 질을	"충남학"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고 한다)와 관련된 인물·지리·역사·사회·문화·문학·예술·정치·경제·건축·자연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학문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충청남도의 정체성과 주	1. 충남학 관련 정책 2. 충남학 강사 역량강화 및 관련 연구 3. 충남학 관련 연구자료 활용 및 확산 4. 그 밖에 충남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	1. 충남학 강사의 역량 강화 및 관련 연구 2. 충남학의 영상제작 등 관련 홍보 3. 도내 충남학 정규교양과정 운영 4. 충남학 애플리케이션 개발, 웹툰 제작 등 콘텐츠 개발 5. 그 밖에 충남학 진흥에 필요하다 판단되는 사업	충남학 진흥위원회	-

연번	지역	조례명	제정 시기	제정목적	지역학 정의	진흥계획 포함사항	진흥사업 규정	진흥 조직	사무 위탁
				높이는 것	체성을 확립 시키기 위한 지역학				
12		아산시 아산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04.15.	아산시의 역사·문화 등에 대한 관심 및 이해를 높여 지역 사회 연대의식을 고취하고 아산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아산학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	"아산학"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아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지역학으로 아산의 역사와 문화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현대적 시점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시에 대한 시민의 자긍심을 고양하며 문화, 예술, 경제, 사회, 산업 등 각 분야에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학문	-	1. 아산학 강사의 역량 강화 및 관련 연구 2. 아산학의 교양지 발행 등 관련 홍보 3. 관내 아산학 정규교양과정 운영 4. 아산학 애플리케이션 개발, 웹툰 제작 등 콘텐츠 개발 5. 그 밖에 아산학 진흥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아산학 운영위원회	교육 전문 법인 · 관련 기관 또는 단체
13		천안시 천안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8. 12.11.	천안시의 역사·문화 등에 대한 관심 및 이해를 높임으로써 지역 정체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천안학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	"천안학"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와 천안시민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지역학으로 천안의 과거와 현재에 이르는 문화와 전통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현대적 시점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지역관을 바로 세우며 시의 문화, 예술, 경제, 사회, 산업 등 각 분야에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마련	-	*천안학 강좌 지원사업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관내 학교 중 천안학 강좌 개설 또는 연구를 실시하고자 하는 학교 2. 천안학 강좌 개설 또는 연구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단체	천안학 운영협의회	학교 또는 기관 · 단체

연번	지역	조례명	제정 시기	제정목적	지역학 정의	진흥계획 포함사항	진흥사업 규정	진흥 조직	사무 위탁
					하기 위한 학문				
14	전북	익산시 정책 및 익산학 연구에 관한 지원 조례	2023. 11.15.	지방대학을 통한 익산시 정책 및 익산학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익산시민의 자긍심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	"익산학"이란 익산시와 관련된 인물·지리·역사·사회·문화·문학·예술·정치·경제·건축·자연환경·교육 등 다양한 학문 분야를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익산시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한 지역학	-	1. 익산시 정책 연구 가. 국책사업 및 국가예산사업, 시책사업 발굴 나. 익산시 현안 연구과제 수행 다. 지역내·외 정책네트워크 구축 라. 익산시·익산시의회와 지방대학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사업 마. 시민개방형 익산시민정책대학 운영 바. 익산시 현안 정책 포럼 및 세미나 등 운영 2. 익산학 연구 가. 익산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구축 나. 익산학 연구단체 연결망 구축 및 학술행사 지원 다. 익산학 강좌 개설 및 운영 라. 국내외 지역학 관련 교류사업 3. 그 밖에 익산시 정책 및 익산학 연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지방대학 연구원이나 연구소 재정 지원 조문 포함)
15		전주시 전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2021. 06.09.	전주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전주학을 진흥하고 전주 정체성을 정립하며 그 성과를 시민에게 교육 확산하여 전주 시민의 자긍심을 높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전주 발전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데에 이바지함	"전주학"이란 전주시와 관련된 인물·지리·역사·사회·문화·문학·예술·정치·경제·건축·자연환경·교육 등 다양한 학문 분야를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전주시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한 지역학	1. 전주학 관련 연구의 질적 수준 강화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2. 전주학 관련 연구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전주학 관련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4. 전주학 관련 연구성과의 활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주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	1. 전주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구축 2. 전주학 연구자에 대한 지원 및 연구인력 양성 3. 전주학 관련 연구 성과의 활용 및 확산 4. 전주학 연구단체 연결망 구축 및 학술행사 지원 5. 전주학 관련 아카이브 구축 사업 6. 전주학 강좌 개설 및 운영 7. 국내외 지역학 관련 교류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전주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주학 진흥위원회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

연번	지역	조례명	제정 시기	제정목적	지역학 정의	진흥계획 포함사항	진흥사업 규정	진흥 조직	사무 위탁
16	전남	나주시 나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2020. 01.08.	나주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나주학을 진흥하고 나주 정체성을 정립하며 그 성과를 시민에게 교육 확산하여 나주인의 자긍심을 높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나주발전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데에 이바지함	"나주학"이란 선사시대부터 이어온 나주의 인문·사회·자연과학 등 다양한 학문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통합 학문을 실천하여 나주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하는 학문	1. 나주학 관련 연구의 질적 수준 강화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2. 나주학 관련 연구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나주학 관련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4. 나주학 관련 연구성과의 활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나주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	1. 나주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구축 2. 나주학 연구자에 대한 지원 및 연구인력 양성 3. 나주학 관련 연구 성과의 활용 및 확산 4. 나주학 연구단체 연결망 구축 및 학술행사 지원 5. 나주 관련 기억과 기록 수집 및 저장사업 6. 나주학 강좌 개설 및 운영 7. 국내외 지역학 관련 교류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나주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주학 진흥위원회	법인, 단체
17		담양군 담양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2022. 01.07.	담양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담양학을 진흥하고 담양 정체성을 정립하며 그 성과를 군민에게 교육 확산하여 담양 군민의 자긍심을 높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담양 발전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데에 이바지함	"담양학"이란 담양군과 관련된 인물·지리·역사·사회·문화·문학·예술·정치·경제·건축·자연환경·교육 등 다양한 학문 분야를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담양군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한 지역학	1. 담양학 관련 연구의 질적 수준 강화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2. 담양학 관련 연구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담양학 관련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4. 담양학 관련 연구성과의 활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담양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	1. 담양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구축 2. 담양학 연구자에 대한 지원 및 연구인력 양성 3. 담양학 관련 연구성과의 활용 및 확산 4. 담양학 연구단체 연결망 구축 및 학술행사 지원 5. 담양 관련 기억과 기록 수집 및 저장 사업 6. 담양학 강좌 개설 및 운영 7. 국내외 지역학 관련 교류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담양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담양학 진흥위원회	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
18		여수시 여수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2022. 12.01.	여수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여수학을 진흥하고 여수 정체성을 정립하며 시민에게 교육 확산하여 여수 시민의 자긍심을 높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여수학"이란 여수시와 관련된 인문·사회·자연환경·교육 등 다양한 학문 분야를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여수시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한 학문	1. 여수학 관련 연구의 질적 수준 강화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2. 여수학 관련 연구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여수학 관련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4. 여수학 관련 연구성과의 활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수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	1. 여수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구축 2. 여수학 연구인력 양성 3. 여수학 관련 연구 성과의 활용 및 확산 4. 여수학 연구단체 연결망 구축 및 학술행사 지원 5. 여수학 관련 아카이브 구축 사업 6. 여수학 강좌 개설 및	여수학 진흥위원회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

연번	지역	조례명	제정 시기	제정목적	지역학 정의	진흥계획 포함사항	진흥사업 규정	진흥 조직	사무 위탁
				하고 여수 발전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데에 이바지함			운영 7. 국내외 지역학 관련 교류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여수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9	경남	양산시 양산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2020. 09.17.	양산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양산학을 진흥하고 그 성과를 시민에게 교육 확산하여 양산시민의 자긍심을 높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양산 발전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데에 이바지함	"양산학"이란 선사시대부터 이어온 양산의 인문·사회과학·자연과학 등 다양한 학문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통합 학문을 실천하여 양산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하는 학문	1. 양산학 관련 연구의 질적 수준 강화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2. 양산학 관련 연구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양산학 관련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4. 양산학 관련 연구성과의 활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산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	1. 양산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구축 2. 양산학 연구자에 대한 지원 및 연구인력 양성 3. 양산학 관련 연구 성과의 활용 및 확산 4. 양산학 연구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학술행사 지원 5. 양산 관련 기억과 기록 수집 및 저장사업 6. 양산학 강좌 개설 및 운영 7. 국내외 지역학 관련 교류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양산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양산학 진흥위원회	법인, 단체
20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2013. 03.20.	제주특별자치도가 동아시아 중심인 국제자유도시로써의 위상 정립과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제주학"이란 선사 이래 탐라시대를 거쳐 내려온 지리적 바탕 위에 형성된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분야를 대상으로 하여 학문적 체계를 정립하고 통합 학문의 실천으로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과 삶의 방향 구현에 이바지하는 학문	-	1. 탐라문화, 역사·환경 중심의 문화기반 연구 확충 2. 제주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확충 3. 제주학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및 연구인력 양성 4. 제주학 연구단체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5. 제주어 관련 연구 6.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사업 7. 자연·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 사업 8. 국내외 지역학 관련 교류사업 9. 제주특별자치도지 편찬사업 10.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주학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주학 연구센터 운영위원회(도지사 소속), 제주학 연구센터 (제주연구원에 둠)	연구센터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elis.go.kr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s://www.elis.go.kr(2024.7.31. 최종 검색).

[부록2] 설문조사 양식

‘지역학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사업 발전방안’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정책연구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지역학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사업 발전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지역학 관계자 및 길 위의 인문학 등 인문정신문화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지역학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사업 발전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본 연구 및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소중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설문을 통해 얻어진 모든 정보는 연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8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담당자]

연 구 진 : 이상열 연구위원 02-2669-6998

이경진 부연구위원 02-2669-8943

조사수행 : 코리아리서치 02-6009-2750

- 1 -

응답자 특성

SQ1. 귀하는 다음 중 어느 분야에 주로 관련되십니까?

1) 지역학 관계자(학계, 연구기관 · 단체 등)
2) 인문정신문화 사업 관리운영자
3) 인문 활동가(기획자, 프로그램강사 등)

SQ2. 귀하께서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신 경력은 몇 년입니까?

1) 5년 미만 2) 5년 이상 10년 미만 3) 10년 이상 20년 미만 4) 20년 이상

SQ3. 귀하가 주로 활동하시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1) 서울특별시 2) 부산광역시 3) 대구광역시
4) 인천광역시 5) 광주광역시 6) 대전광역시
7) 울산광역시 8) 세종특별자치시 9) 경기도
10) 강원특별자치도 11) 충청북도 12) 충청남도
13) 전북특별자치도 14) 전라남도 15) 경상북도
16) 경상남도 17) 제주특별자치도

SQ4. 귀하는 어느 연령대에 속하십니까?

1) 20대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 이상

SQ5. 응답하신 분께 소정의 답례품을 지급하고자 하니, 답례품을 받으실 분의 성함과 연락처를 적어 주십시오.

답례품 발송을 위하여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를 하셔야 하며, 귀하의 개인 정보는 본 용역 완료 후 폐기됩니다.

답례품 제공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비동의에 체크해 주시고 이어서 설문을 진행해주십시오.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 안내]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코리아리서치는 "지역학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사업 발전방안"과 관련하여 설문응답자 조사 답례품 지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집정보	수집이용목적	보유기간	수집기관
응답자 성함 휴대전화번호	설문조사 답례품 지급	2024년 9월 30일까지 (본 용역 완료 후 폐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코리아리서치

본 조사에서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응답자 성함	
휴대전화번호	

- 2 -

인문정신문화 사업 안내

※ 본격적인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인문정신문화 사업에 관한 다음 설명 내용을 잘 읽고 숙지해 주십시오. (본 페이지는 15초 후 다음 페이지 이동 가능합니다.)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요 정의

문화체육관광부의 인문정신문화 정책사업의 근거 법률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주요 용어를 다음처럼 정의하고 있습니다.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
> 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 · 문학 · 역사학 · 철학 · 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 · 체험 · 표현 · 이해 · 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
> 3.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 · 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 「제2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2022~2026)」의 지역학 관련 내용

다음은 위 법률에 의거하여 수립된 「제2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2022~2026)」의 전략별 과제 중에서 지역학"과 관련한 세부 추진과제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역학은 사전적으로 "일정한 지역의 지리나 역사, 문화 따위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표준국어대사전)으로 정의되고, 본 연구는 국내의 지역학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분	내용	지역학 관련 세부 추진과제
비전	인문으로 '행복한 개인, 품격있는 공동체' 실현	
목표	[프로그램] 체감형 · 참여형 · 사회 공헌형 사업 확대 [인문공간] 도서관 · 박물관 편중 → 문화기반시설 전반 [전문인력] 연구자, 활동적 고령자층 등을 적극 활용	
추진 전략 및 과제	전략 1. 인문 가치 발견 및 공유	
	1-1. 위로와 공감을 위한 인문 프로그램 확대	
	1-2. 인문의 시각으로 '코로나 19' 기록 · 보존 및 활용	
	1-3. 사회 문제 해결형 인문 활동 지원 강화	• 참여형 · 사회 문제 해결형 인문 활동 확대 - (사회문제 해결) 청년, 인문 연구자 등 인문 활동 지원 확대
	전략 2. 인문 가치 구현 및 확산	
	2-1. 문화기반시설을 인문정신문화 거점 공간으로 조성	• 대표 인문 프로그램 확대 및 내실화 - (길위의 인문학) 마을 아카이브(주제별 기록화 프로그램, 마을연구회 등) - (지혜학교) 지역문화 · 민속학 · 지역학 등 지역 인문 심화과정 신규 운영
	2-2. 인문 격차 해소 및 지역 인문 자원 발굴 확대	• 인문 격차 해소 및 자생적 인문 활동 지원 확대 - (인문 격차 해소) 지역 문제 해결형 인문 프로그램 지원 - (문화가 있는 날) 인문 자산 활용 지역 특화형 프로그램 • 지역 인문 자원 발굴 · 활용 및 기반 강화 - (인문 자원 발굴) 지역 인문 자원 기반 문화 콘텐츠 개발, 지방 문화원 소장자료 디지털화 지원, 지역 소재 국학자료 수집 · 활용 지원 - (인문 자원 활용) 지역 문화기반시설 인문 교육 및 전시 콘텐츠,인문 관광 플랫폼, 인문 지리 학습 · 관광 앱 등 활용 지원 - (기반 강화) 지역 국학진흥기관 확대
	2-3. 인문 자원의 산업적 활용 및 국제적 확산	
	전략 3.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반 강화	
	3-1. 인문 진흥체계 재정립 및 전문역량 활용 강화	
	3-2. 디지털 인문정신문화 플랫폼 구축	

설문조사

Q1. 귀하께서는 지역학과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연계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필요하지 않음	② 그다지 필요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다소 필요함	⑤ 매우 필요함

Q2-1. 귀하께서는 「제2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2022~2026)」에 포함된 다음의 세부 추진과제가 지역학 진흥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SQ1. '1) 지역학 관계자'만 응답)

	전혀 기여하지 못함	그다지 기여하지 못함	보통임	다소 기여함	매우 기여함
참여형·사회 문제 해결형 인문 활동 확대	①	②	③	④	⑤
대표 인문 프로그램(길 위의 인문학, 지혜학교) 확대 및 내실화	①	②	③	④	⑤
지역의 인문 격차 해소 및 자생적 인문 활동 지원 확대	①	②	③	④	⑤
지역 인문 자원 발굴·활용 및 기반 강화	①	②	③	④	⑤

Q2-2. 귀하께서 문화체육관광부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프로그램을 기획 또는 운영할 때, 다음 중에서 가장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SQ1. '2) 인문정신문화 사업 관리운영자', 3) 인문 기획자·활동가'만 응답)

① 인문프로그램 참여자/참여예정자 등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② 타 인문프로그램과의 차별성
③ 활용 가능한 자료·콘텐츠 확보의 용이성
④ 인문프로그램 운영 대상지의 지역 특성
⑤ 문화체육관광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사업 운영방향
⑥ 기타( )

Q3. 귀하께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인문정신문화 사업이 다른 부처(교육부 등)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인문학 사업과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차별성이 있다 (☞Q3-1로) ② 차별성이 없다 (☞Q3-2로)

Q3-1.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주관식 필수)

Q3-2. 차별성이 없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주관식 필수)

- 4 -

Q4. 귀하께서는 지역학과 인문정신문화 사업을 연계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응답하신 내용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오니,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주관식 필수)

Q4-1. 앞에서 응답하신 내용과 같이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하신 내용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오니,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주관식 필수)

Q5. 귀하께서는 다음에 제시한 정책방향들이 지역학 및 지역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학 진흥					정책 방향	지역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혀 관련 없음	그다지 관련 없음	보통임	다소 관련 있음	매우 관련 있음		전혀 관련 없음	그다지 관련 없음	보통임	다소 관련 있음	매우 관련 있음
①	②	③	④	⑤	지역과 삶의 의미 및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지역 정체성 정립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지역 인문정신문화의 발굴과 공유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지역에 대한 대내외의 이해 제고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지역의 사회문제 해소와 지속가능성 제고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주민의 자긍심 및 정주의식 향상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지역 간/지역 내 인문 격차의 해소	①	②	③	④	⑤

Q6. 다음 중에서 지역학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사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세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① 지역과 삶의 의미 및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			
② 지역 정체성 정립			
③ 지역 인문정신문화의 발굴과 공유			
④ 지역에 대한 대내외의 이해 제고			
⑤ 지역의 사회문제 해소와 지속가능성 제고			
⑥ 주민의 자긍심 및 정주의식 향상			
⑦ 지역 간/지역 내 인문 격차의 해소			

Q6-1. 앞에서 제시된 정책방향에 수정이 필요하거나 추가할 정책방향에 관한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응답하신 내용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오니,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주관식 필수)

Q7. 귀하께서는 지역학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발전을 위한 다음 정책방안들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성					정책방안	시급성				
전혀 중요하지 않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음	보통임	다소 중요함	매우 중요함		전혀 시급하지 않음	그다지 시급하지 않음	보통임	다소 시급함	매우 시급함
①	②	③	④	⑤	지역 고유의 인문브랜드 발굴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마을학(또는 마을인문학) 육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지역 인문정신문화 자료의 수집·보전·활용 협력체계 구축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지역의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인문 활동 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지역 인문정신문화 기반의 지역학 진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지역학과 인문정신문화 사업 매개 기관·단체 육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화여가 활동과 인문프로그램 연계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지역교육과정*에 지역학 연계 인문프로그램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주민 대상 인문 심화 과정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생활인구** 대상으로 지역 이해 및 인문체험 프로그램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인문프로그램 운영자 대상의 지역 이해 교육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지역학 성과를 활용한 지역 인문콘텐츠 개발	①	②	③	④	⑤

*지역교육과정 : 학교와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학습생태계 안에서 학생들이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 주민이나 지역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맥락적인 경험을 통해 배우고, 앎과 삶을 통합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교육과정.

**생활인구 :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교통·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 주민등록인구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하루 3시간 이상 월 1회 이상 머무는 사람과 외국인등록인구 등을 포함.

Q7-1. 앞에서 제시된 정책방안 중 수정이 필요하거나 추가할 정책방안에 관한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응답하신 내용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오니,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주관식 필수)

- 지금까지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집필 내역

연구 책임

이상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제1장~제6장 및 부록, 연구총괄

공동 연구

이경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제2장, 제4장, 제5장 각 일부

김세훈 용인대학교 평가성과분석센터 전임연구원: 제3장 제1절

지역학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사업 발전방안 연구

발 행 인 김 세 원

발 행 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http://www.kcti.re.kr

인 쇄 일 2024년 10월 23일

발 행 일 2024년 10월 23일

인 쇄 인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일자리사업장

I S B N 979-11-7198-036-9 93300

DOI https://doi.org/10.16937/kcti.rep.2024.e29

이 연구보고서를 인용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 주십시오.
이상열·이경진·김세훈(2024), 지역학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사업 발전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아래의 DOI 또는 QR코드를 통해
이 보고서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doi.org/10.16937/kcti.rep.2024.e29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www.kcti.re.kr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93300
9 791171 980369
ISBN 979-11-7198-036-9